

2013년 연구지원 선정

논문집

목 차

2013년 '연구지원 논문'

▣ 김기춘 연구 - 한국 사법엘리트 사례 연구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한국현대사) 7

▣ 1980년대 사회운동의 급진주의 운동의 한계와 재구성

이창언(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사회학박사) 27

▣ 폭력의 기억과 우정의 공동체

: 권여선의 「레카토」를 중심으로

김은하(경희대) 81

▣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민주시민 교육 관련 자료 조사·연구

최대회(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역사학박사) 99

2013년 연구지원 논문



- ▣ 김기춘 연구 - 한국 사법엘리트 사례 연구
- ▣ 1980년대 사회운동의 급진주의 운동의 한계와 재구성
 - ▣ 폭력의 기억과 우정의 공동체
 - : 권여선의 『레카토』를 중심으로
- ▣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민주시민 교육 관련
자료 조사·연구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518기념재단

김기춘 연구

- 한국 사법엘리트 사례 연구

한 홍 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한국헌대사)

1. 머리말

한국의 사법엘리트 다수는 군사정권 시절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고 독재권력에 적극 협조하여 일신의 영달을 꾀한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살인을 비롯하여 현재 줄줄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는 조작간첩사건들은 모두 사법부의 손을 거친 것이다. 조작의 시작은 중앙정보부-안기부, 대공경찰, 보안사 등 수사기관이었겠지만, 그들이 손 댄 사건들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의 손을 거쳐 기소되어 법관의 판결을 거쳐 일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대다수는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70~1980년대 한국의 사법엘리트 대부분은 군사독재 시절의 수많은 인권침해와 고문조작사건에서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 시절 판결이나 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한 바가 없다. 다만 재심판결에서 후배 법관들이 수십년 전 선배들이 저지른 잘못을 대신 사죄하고 있을 뿐이다.

광주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 시절 사법엘리트들은 육사출신 군인들과 끈끈한 동맹을 맺어 ‘육법당(陸法黨)’이라 불리며 집권동맹 내부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권력을 누렸다.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군과 정부기관이 정치의 전면에서 한 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자 사법엘리트, 특히 검찰은 체제유지의 대들보가 되어 현실권력을 장악하였고, 언론은 이런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후 사법엘리트들이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나 국무총리로 정치의 전면에서 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회창이 1993년 국무총리에 임명된 데 이어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고, 2002년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석수가 김대중 정권의 국무총리에 임명되었고, 2010년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이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검사 출신의 정홍원이 김황식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사법엘리트의 권력 핵심 진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건은 2013년 8월 5일 전 법무부 장관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일일 것이다.

1939년생인 김기춘은 2013년 8월 5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을 유행시키며 75세의 나이에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 아마도 75세의 고령에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조선왕조 500년의 수많은 도승지들을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¹⁾ 우리가 김기춘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역대 최고령 도승지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역대 가장 막강한 비서실장이기 때문이다. 김기춘은 격동의 한국정치사 속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이했지만 오뚝이처럼 살아남았다. 중국에 부도옹(不倒翁) 덩샤오핑(鄧小平)이 있다면 한국에는 그 격변의 세월을 살아남아 '기춘대원군'이라는 별칭을 얻은 오뚝이 김기춘이 있었다.

한국의 엘리트 집단은 남다른 생명력을 과시해 왔다.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일제시기로, 일제시기에서 해방으로, 군사독재에서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그 슬한 상황변화에도 한국 엘리트 집단의 본류는 단절된 적이 없다. 그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한 한국 엘리트집단의 역사에서 적어도 현대에 들어서는 사법엘리트가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며 엘리트집단의 중핵을 형성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사법엘리트들은 집단으로나 개인으로나 '흑역사'를 갖고 있다. 위에 열거한 대통령 후보나 국무총리를 지낸 사법엘리트들만 보아도 이회창이 1961년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 대한 사형판결에서 배석판사였고, 김석수는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무죄판결이 난 송씨일가 간첩사건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의 판결을 기속한다는 법원조직법의 원칙을 깬 이른바 '치받는 판결'을 통해 무고한 송씨일가 사람들에게 간첩죄 유죄판결을 내렸다(1983년). 김황식은 1977년 제일동포 김정사 간첩사건의 배석판사였다.²⁾ 근 5년에 거쳐 유신체제 유지의 핵심기

1) 조선시대 주요 관직을 역임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한 <청선고(淸選考)>라는 책에 실려 있는 '지신록' (知申錄 도승지 명단, 지신사知申事는 도승지의 다른 이름이다)에는 선조 이후 약 800여 명의 도승지 명단이 나오는데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김기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갑오경장으로 도승지 제도가 없어지기 직전인 1893년 윤용선(尹容善)이 65세에 잠깐 도승지를 지낸 것이 아마도 조선 후기에는 최고령 도승지가 아닐까 싶다.

2) 1977년의 김정사 사건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에서 제일동포들의 민주화운동 단체인 한민동이 반국가단체

관인 중앙정보부에서 가장 방대하고 막강한 부서인 대공수사국 국장을 지낸 김기춘의 역할은 앞에 언급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가장 잘나가는 검사였던 김기춘은 보안사 출신들이 득세한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옷을 벗을 위기에 빠지거나 한직에 밀려나 있었지만,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지역감정을 부추기려 시도했던 ‘초원복집사건’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으나 역시 살아남아 3선의원이 되었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검사 역할을 했다. 그리고 2013년 정치의 중심에 다시 돌아와 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김기춘이라는 한 개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해온 한국 엘리트집단이라는 종이나 그중에서 사법엘리트라는 속을 대표하는 개체가 바로 왕실장 김기춘이다.

2. 김기춘과 유신정권

김기춘이 비서실장에 임명되었을 때 인터넷 조선일보 2013년 8월 5일자는 헤드라인으로 “정수장학회 졸업생모임 ‘상청회’ 전 회장 김기춘 임명”을 뽑았다.³⁾ 김기춘은 정식으로 검사로 임용되기 이전에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의 1기와 2기 장학생이 되어 일찍부터 박정희 정권과 관계를 맺었다. 김기춘은 1958년 서울법대에 입학하여 대학 3학년 때인 1960년말에 치루어진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로 규정되었고, 이 판결을 근거로 전두환 일당은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 내란음모사건은 명칭은 거창하지만 행위가 아닌 ‘음모’를 처벌하는 것이라 사형규정이 없다.

- 3)  

제목: [조선일보] 정수회 졸업생 '상청회'를 비서실장 임명

[특보] '유신정권 최측근' 박정희 비서실장 교체 정수장학회 졸업생모임 '상청회' 전 회장 김기춘 임명

비서실장 교체 박정희 최측근 비서실장 교체 임명
 - "공안부 출신" 김기춘 상청회 비서실장 임명
 - 정수회 출신으로 합격 1명 1명 박정희 선의 최측근
 - "박정희 최측근"으로 10년 동안 최정호 고등법원장
 - 전임 민정수석, "국정부 연포연" 수사관 검사 출신
 - 김대중 퇴진한 뒤로 10년째, 최정호(박정희)가

[대한민국] 김기춘, 정수회 졸업생모임

정수장학회 측 자료에 따르면 김기춘은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로부터 장학금 지급 첫해인 1963년과 이듬해인 1964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1학년과 2학년 재학 중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⁴⁾ 조선일보 인물자료⁵⁾에 의하면 그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1961년 해군 해병대 법무관으로 입대하여 1964년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기춘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은 그가 고시 합격 후 현역 법무관으로 복무 중에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나) 현역군인 신분으로 서울대 대학원을 다닐 때였다. 이것이 그가 박정희 일가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5·16장학회의 설립에 박정희가 사단장 시절 법무참모를 지낸 신직수가 깊이 관여했다는 점이다.⁶⁾ 김기춘의 선발에까지 신직수가 영향을 행사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5·16장학회를 만든 신직수와 5·16장학금 1회, 2회 수혜자인 김기춘과의 질긴 인연은 이때 시작되었다. 어찌 보면 박정희 체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5·16장학생을 선발하면서 이미 고시에 합격한 ‘똥똥’한 김기춘에게 장학금을 던져준 것인지도 모른다. 신직수는 검찰총장 8년, 법무장관 3년, 중앙정보부장 3년, 대통령법률담당 특별보좌관 1년 등 박정희 집권 기간 18년의 거의 대부분을 장관급으로 보내 대한민국에서 관운이 제일 좋다는 소리를 들었다. 김기춘은 그런 신직수의 극진한 총애를 받으며 신직수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따라 다니며 인생의 전반을 보냈다.

군복무를 마친 초임 검사 김기춘의 첫 발령지는 광주였다. 일설에는 그의 장인이 된 박찬일 변호사가 똥똥한 김기춘을 사위로 삼기 위해 김기춘의 첫 부임지가 광주가 되도록 로비를 했다고 한다. 반면 김기춘 자신은 법대 동기 동창의 동생으로 지금의 부인인 박화자 여사에 반해 그와 결혼하기 위해 스스로 광주를 임지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⁷⁾ 1964년 9월 광주에 부임한 김기춘은 1965년 2월 20일 전남대 초대총장과 참의원을 지낸 의학박사 최상채의 주례로 광주 남미파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⁸⁾ 김기춘이 결혼식을 올리던 1965년만 해도 아직 영호남 간에는 지금과 같은 험한 지역감정이 없었다. 당시 남한에서 지역감정의 기본 축은 영호남 사이의 동서 축이 아니라

4)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30년지>, 1994년, 272, 286쪽.

5) DB조선 인물정보: 김기춘 항목:

http://srchdb2.chosun.com/people-ach/i_uci/manDisAllXml.jsp?uci=G010+1-02141999110500001204

6) 한홍구, <창물바구니 - 정수장학회의 진실>, 2012, 돌아온산, 125~130, 208쪽.

7) “냉엄한 논리·따뜻한 가슴의 ‘미스터법질서’ - 임기제 첫 검찰총장 김기춘씨”, <경향신문> 1990년 1월 5일자.

8) <동아일보> 1965년 2월 16일자.

남쪽 출신과 북쪽 출신 간의 남북축이었다. 김기춘은 대단한 애처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부인의 건강을 끔찍이 챙기고, 자신이 쓴 책 <형법개정서론> 서문에서도 “끝으로 귀하게 자라 연약한 몸으로 공직자의 아내가 되어 기나긴 희생과 인고의 세월을 헌신적으로 내조자로서 언제나 지아비로 하여금 책을 가까이 하면서 꿈과 이상을 쫓아 심신과 정열을 불태울 수 있게 함으로써 험사리 부패하거나 속물화 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고 있는 나의 반려 박화자에게 결혼 20주년에 즈음한 사랑과 고마움의 정표로 이 한 권의 책을 바치는 바이다”⁹⁾ 라고 웬만한 사람 오글거릴 정도의 헌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다들 악몽처럼 기억하는 일이지만 김기춘은 한국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지역감정 조장사례인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이었다. 그런 김기춘이 처가가 광주였고 김기춘은 광주의 사위였고 광주출신의 아내를 매우 사랑한 부드러운 남자였다. 이완용이 최고의 학식과 인품과 교양을 갖춘 당대 최고의 명필이었던 것처럼.

김기춘은 1967년 부산지검 검사, 1969년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1971년 6월 신직수가 법무부 장관이 된 직후인 8월에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발령이 나 신직수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되었다. 이무렵은 서울대 총장을 지낸 형법학자 유기천이 자유중국(대만)을 방문해서 고위층 인사를 만났더니 그가 한국에서 자유중국의 총통제를 연구하러 왔다가 자료를 잔뜩 수집해갔다는 말을 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했다가 중앙정보부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된 뒤 자의반 타의반 망명길에 오른 직후의 일이다.¹⁰⁾ 이때 김기춘은 신직수 밑에서 극비리에 유신헌법을 만드는 작업에 깊숙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법대 헌법학 교수로 있다가 유신헌법 제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뒤에 유신헌정우회 국회의원으로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태연은 2001년 12월 한국헌법학회가 개최한 ‘역사와 헌법 학술대회’에서 유신헌법 제정 과정과 김기춘의 역할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한 바 있다.¹¹⁾ 한태연은 “측근들 얘기를 들으면 평소부터 박 대통령은 드골 헌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김기춘 과장을 파리에 보내 1년 동안 드골 헌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한태연은 “나와 갈봉근(당시 중앙대) 교수

9) “냉엄한 논리·따뜻한 가슴의 ‘미스터법질서’ - 임기제 첫 검찰총장 김기춘씨”, <경향신문> 1990년 1월 5일자에서 재인용.

10) 최종고, <유기천 - 자유와 정의의 지성>, 2006, 서울, 한들출판사, 265~280쪽.

11)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구상하고 신직수·김기춘이 안을 만들었다” <오마이뉴스> 2001년 12월 9일자.

가 (법무부에)가보니 신직수 장관과 김기춘 과장이 주동이 돼 안을 모두 만든 상태였다"며 "장관이 '골격은 손댈 수 없다'고 해 '자구수정' 정도만 했다"며 "이게 내가 (유신헌법 제정에) 관여한 전부"라고 말했다고 한다. 유신헌법의 제정에는 한태연과 갈봉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당시에 그들의 성을 따 '헝가리 헌법'이라는 비아냥이 있었는데 한태연은 자신과 갈봉근의 역할을 축소하고 헌법 제정의 실무 책임을 신직수와 김기춘에게 미룬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춘은 자신은 파리에 간 일이 없고 당시에 과장이 아니라 평검사였다면서 "장관이 여러 검사들에게 자료조사나 스터디를 맡겼"는데 자신의 역할은 "프랑스에서는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 등에 대해 조사하고 스터디해 보고하는 정도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한태연의 발언을 부인했다고 한다.¹²⁾ 김기춘의 프로필 어디에도 그가 프랑스어에 능통하다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주장처럼 프랑스에서 드골 헌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온 사람은 김기춘이 아니라 프랑스어에 능통한 다른 검사일 수 있다. 그리고 김기춘이 당시 법무부 과장이 아니라 평검사인 것도 김기춘의 주장대로이다. 문제는 김기춘의 역할이다. 디테일에서는 한태연의 기억이나 한태연이 알고 있는 것이 착오일 수 있으나, 유신헌법이라는 상품에서 한태연과 김기춘의 역할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한태연은 포장지를 만들었고 김기춘은 알맹이를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1972년 12월 27일의 유신헌법 제정공포 이후 첫 번째 검찰인사인 1973년 4월 초 김기춘은 법무부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가 맡은 과는 무려 '인권옹호과'였다. 이때 언론은 김기춘과 그의 고시 2년 선배인 정해창이 "유신체제의 법령입법과 개정의 공로와 실력이 높이 평가되어 유례없이 발탁"되었다고 보도했다.¹³⁾ 1973년 봄의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과장(부장검사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주로 고시 8회¹⁴⁾ 였기 때문에 10회인 정해창은 물론이고 12회인 김기춘이 승진한 것은 참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이를 보면 김기춘이 유신헌법 제정에 유례없는 공을 세웠음은 분명하다. 김기춘이 뒤에 검사장으로 승진했을 때 프로필을 보면 그가 "유신헌법기초에 참여했고 TV에 나와 명해설을 하기도 해 이름이 났었다"고 한다.¹⁵⁾

평검사 김기춘은 과장(부장검사)으로 승진했지만, 법무부 장관 신직수는 1973년 말

12) "유신헌법은 박정희가 구상하고 신직수·김기춘이 안을 만들었다" <오마이뉴스> 2001년 12월 9일자.

13) <중앙일보> 1973년 4월 3일자.

14) <경향신문> 1973년 4월 2일자.

15) <경향신문> 1981년 4월 27일자.

중앙정보부장으로 영진했다. 이때 신직수는 김기춘을 중앙정보부로 불러들여 부장의 법률 보좌관을 삼았다. 1974년 8월 15일 35살의 새파란 검사 김기춘을 40년 후 최고령 도승지로 만들어준 숙명의 사건이 일어났다. 김대중 납치사건에 분노한 재일동포 문세광이 국립극장에서 광복절기념식 경축사를 하고 있던 박정희를 저격했고 그 와중에 육영수 여사가 피격 사망한 것이다. 당시 육영수 여사가 실제로 문세광의 총에 희생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엠비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여러 매체에서 진지하게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 당국은 서둘러 사건을 조총련의 배후 조종을 받은 문세광의 흉탄에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것으로 결론지었고, 법원은 이 내용을 받아들여 문세광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사건발생 4개월여 만인 1974년 12월 20일 문세광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¹⁶⁾

김기춘은 이 사건의 수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세광 사건에 관한 외교문서가 공개된 2005년 1월 21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기춘은 정범구가 진행하는 시비에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당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¹⁷⁾ 김기춘에 따르면 문세광은 사건 직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에 인계되었지만 사건발생 하루가 지나 "8월 16일 오후 5~6시경까지도 묵비하고 일체 질문에 답을 안 했다"고 한다. 이에 김기춘은 대공수사국 소속은 아니었지만 문세광의 말문을 열도록 하라는 신직수의 지시로 수사팀에 합류했다. 김기춘은 "피의자들을 신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질문"이고, "보통 첫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계속 답변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에 고심 끝에 거두절미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프레데릭 포사이스라는 추리 소설가가 쓴 <자칼의 날>이라는 소설을 읽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그때까지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던 문세광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선생도 읽었냐고 말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자칼의 날>이란 프레드릭 포사이스란 영국 작가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영화화되기까지 했는데 프랑스의 비밀군사조직이 자칼이라는 테러리스트를 고용해 해방절 기념식에서 연설한 드골 대통령을 암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설은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김기춘은 일본어 번역판을 읽고 문세광 역시 이 소설을 읽었으리라 생각하고 물어본 것이다. 김기춘이 문세광에게 당신이 자칼 아

16) <동아일보> 1974년 12월 20일자.

17) 김기춘 의원, "'재칼의 날'로 문세광에게 자백 받았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05년 1월 21일 방송, <http://www.nocutnews.co.kr/news/41070>, 2013년 12월 29일 검색.

니냐고 묻자 문세광이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김기춘은 다시 “그렇다면 남의 나라의 대통령을 저격하러 온 사람이 비겁하게 목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당당하게 경위를 답변해야 되지 않나?”고 다그치자 문세광이 “다소 영웅심리랄까,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전모를 거의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다.¹⁸⁾

문세광 사건에서의 김기춘의 역할에 대한 그 자신의 설명은 이번에는 김기춘 자신의 ‘다소 영웅심리랄까’ 과장된 것이 분명하다. 김기춘은 문세광이 일체의 신문에 8월 16일 오후 5~6시경까지도 목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조간신문이었던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8월 16일자를 보면 문세광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김기춘이 수사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 자신이 설명하는 만큼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김기춘은 언론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과장할 줄 잘 아는 사람이라 평가할 수 있다.

육영수 여사가 실제로 문세광의 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희생된 것인지는 지금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당시 수사당국은 첫째 육영수 여사의 살해범은 문세광이고, 둘째 그의 배후에는 조총련이 있다고 단정지었다. 박근혜의 입장에서는 문세광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그를 사형에 처하게 만든 수사진은 바로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고마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한 현재 박근혜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김기춘에 대한 박근혜의 신뢰와 고마운 마음을 넘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세광 사건 수사에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한 김기춘은 그 공으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승진했다. 김기춘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공수사국장을 맡았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일보> 인물자료에는 달 표시없이 1974년에 ‘중앙수사부 대공수사국 부장’을 맡았고 다음 경력으로는 1979년에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맡았다고 되어 있다.¹⁹⁾ 중앙수사부란 물론 중앙정보부의 착오(어쩌면 의도적 오기)이고 중앙정보부의 직제는 하도 자주 변해서 1970년대 중반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기관의 총 책임자가 ‘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에 ‘부장’이라는 직제를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중앙정보부를 흔히 남산이라 부르는데 현재 서울유스호스텔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중앙정보부의 남산 청사였다. 거기서 200미터쯤 안쪽으로

18) 김기춘 의원, “재깍의 날”로 문세광에게 자백 받았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05년 1월 21일 방송, <http://www.nocutnews.co.kr/news/41070>, 2013년 12월 29일 검색.

19) DB조선 인물정보: 김기춘 항목:

http://srchdb2.chosun.com/people-ach/_uci/manDisAllXml.jsp?uci=G010+1-02141999110500001204

들어가면 남산청사와 거의 크기가 같은 건물(현재 서울시청 남산별관)이 하나 있다. 이것이 대공수사국 청사이다. 민청학련 사건 직후 신직수가 박정희에게 이런 대형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대공수사국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그때 증원하자고 제안한 규모가 1천명이었다고 하니 대공수사국이 얼마나 위세당당한 부서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춘은 서른다섯살 나이에 중앙정보부 내에서 가장 막강한 부서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유신헌법을 만든 김기춘이 유신체제 유지의 대들보가 되었다.

대공수사국장 시절 김기춘의 대표작이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학원침투 북괴간첩단’ 적발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요 피해자들은 재일동포였고 사건관련자들은 부산대, 서울대, 한신대에 유학 중이거나 이들과 친하게 지낸 재학생들이었다. 문세광 사건의 수사 당시 한국정부는 조총련과 북한이 문세광의 배후에 있다고 밀어붙였지만, 일본정부는 이 사건을 문세광의 단독범행으로 보았다. 한국정부, 특히 수사당국으로서는 조총련과 북한이 한국사회에 끊임없이 교란하고 전복하려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것이 김기춘이 대공수사국장이 되었을 때의 상황이었다. 1975년은 참으로 살벌한 때였다. 4월 9일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형 확정 18시간 만에 사형을 당했다. 그리고 4월 30일 박정희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여 지원했던 남베트남 정권이 무너지는 당시 용어로 ‘월남패망’ 사태가 벌어졌다. 정국은 얼어붙었고, 선명야당을 표명하며 유신체제에 도전하는 시늉을 하던 김영삼은 여야 영수회담 뒤 발을 뺐다. 그리고 장준하가 죽었다. <동아일보>가 잠시 실족사가 아닐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기자가 구속된 뒤 한국사회는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이 깊은 침묵을 부산대로 유학 온 교토 출신의 김오자라는 젊은 재일동포 여학생은 견딜 수 없었다. 그가 혼자 유인물을 쓰고 만들고 뿌렸다. 거기서 단서가 잡혔다. 그때만 해도 유인물에 한자를 쓸 때었는데 노동을 한자로 쓰면서 일본식으로 동에 사람인 변을 붙여 ‘働’으로 쓴 것이다.²⁰⁾ 중앙정보부가 이를 놓칠 리 없었다. 재일동포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붙잡혀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한국에 와있던 재일동포 유학생 숫자는 200~300명에 불과했는데 이 사건 하나만으로 전체의 10퍼센트 가량이 한꺼번에 간첩으로 몰렸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재일동포 사건을 많이 다룬 김영진 조사관에 따르면 “붙잡힌 사람이 그 정도고, 조사는 유학생 모두가 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20) 노승일과의 인터뷰, 2009년 9월 21일, 장소 평화박물관, 노승일은 당시 부산대 정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7년을 구형받고 2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한다. 김오자 등은 수사과정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 김오자의 옆방에서 수사받은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에 따르면 ‘인간의 비명 소리가 아닌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²¹⁾ 군사독재 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해 무수히 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무고한 시민들은 간첩이 되었고, 간첩을 조작한 자들은 애국자가 되고 상금받고 진급하고 출세했다. 전에 <한겨레21>에 재일동포 간첩사건을 정리할 때 쓴 글이 있다. 어느 조작 간첩사건이든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재일동포간첩사건은 더욱더 화가 나는 일이다. “요즈음 박정희의 친일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나는 박정희가 범한 친일행각이며, 좌익활동과 전향이며, 군사반란이며,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죄가 밋지 사람이 밋나 하며 좀 너그러운 척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일본놈 밀이지만 출세하고 싶고, 남로당이 정권 잡을 것 같고, 반란 음모로 걸렸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지도 팔 수 있고, 정권 잡고 싶으니 군대 동원할 수도 있고…. 다 나쁜 짓이긴 해도 유독 박정희만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멸시와 차별 속에 살다가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국에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며 따뜻한 격려는 못할망정 거꾸로 매달아 간첩으로 만든 소행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²²⁾ 그 책임자가 유신시대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30대 후반 전체를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보낸 김기춘이다. 김기춘은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는데 그는 여기서 이 사건의 특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최근 수년간 대학가에서 벌어졌던 「테모」가 복귀간첩의 배후조종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케이스」다. 누구나 짐작은 하고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복귀를 왕래하면서 간첩교육을 받은 공작원이 적나라하게 학원 「테모」를 선동·유도했다.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복귀가 그들의 대남적화 공작의 당면목표를 우리사회일각에서 일고있던 「자유화」 「민주화」 움직임에 편승한 「해방신학」 「민주회복」 등을 기폭제로 이용하는데 두고있는 점이다.” 그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특징으로 여학생이 많다는 점을 꼽으며 “지하철이나 「버스」 정거장 등지에서 증견장교에게 추파를 던져 접근, 소속부대의 임무등 군사기밀을 빼내려했다”고 주장했다.<중앙일보> 1975년 11월 22일) 5공시절 부친서 성고문 사건 당시에 공안검찰이 운동권 여학생들이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

21) ‘박정희 떠나 지금이나 똑같아’, <한겨레21> 제885호, 2011년 11월 14일자.

22) 한홍구, “오지 않는다, 다만 만들어질 뿐이다 - 간첩의 추억(2), 재일동포 간첩사건” <한겨레21> 제523호, 2004년 8월 26일자.

는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 김기춘은 그 10년을 앞서간 것이다.

김오자가 유인물을 뿌렸는지조차 몰랐던 노승일, 김정미 등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잡혀와 간첩이 되었다. 몇 명 되지 않았던 부산대운동권은 쑥대밭이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부산대에서는 1979년 10월 부마항쟁으로 폭발할 때까지 만 4년 간 데모가 한 건도 없어, “이화여대생들이 남자 성기 그림과 가위를 보내왔다”는 유언비어가 널리 퍼질 정도였다.²³⁾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박정희의 고향 대구의 운동권을 초토화시킨 것이었다면, 1975년의 제일동포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은 김기춘이 학교를 다닌 정치적 고향 부산의 학생운동을 완전히 박살낸 것이다.

김오자 등을 비롯한 슬한 제일동포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들의 재심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이 ‘재일한국인 양심수 재심 무죄 추진과 원상회복 위한 모임’ 김정사 이사장이다.²⁴⁾ 김정사 자신도 서울대 사회계열에 유학을 왔다가 간첩이 되었다. 1977년의 김정사 사건이 각별히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에서 제일동포들의 민주화운동 단체인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고, 이 판결을 근거로 전두환 일당은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다.(내란음모사건은 명칭은 거창하지만 행위가 아닌 ‘음모’를 처벌하는 것이라 사형규정이 없다) 김정사 사건 재판부의 일원이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이었고, 김오자 등 무수한 제일동포를 간첩으로 만든 사람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다. 이것이 한국의 사법엘리트들의 현주소이다.

3. 김기춘과 제5공화국

사람들은 회고록을 쓴다. 자신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입을 다 물어 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도움을 준 사람은 그걸 회고록에 자랑한다. 회고록에서 자신이 겪은 다른 사람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다가 한참 뒤에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되거나 그 사실이 새삼 주목을 받게 되는 바람에 곤란해지는 일도 자주 있다. 박정희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래 지낸 김정렴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최태민에게 돈을 준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라는 형사범죄 수준의 청

23)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편, <부마민주항쟁 10주년기념 자료집>, 1989,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89, 134, 147쪽.

24) “박정희 떠나 지금이나 똑같아”, <한겨레21> 제885호, 2011년 11월 14일자.

탁을 한 사실을 회고록에 솔직하게 써넣은 것이나, 정수장학회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이었던 박영기가 박정희가 김기춘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사실을 섬세히 증언했다가 뒤에 반복한 것은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김기춘에 대해서도 6공의 황태자라 불렸던 검찰 후배 박철언이 김기춘에게는 거북한 사실을 상세히 남긴 바가 있다. 박철언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 중앙정보부가 보안사령부의 기를 꺾으려고 보안사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고 애를 먹인 적이 있는데 이때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 김기춘이었다. 그런데 5공이 들어서 보안사 세상이 되자 상황이 역전되어 보안사 출신의 허화평이 김기춘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아예 옷을 벗기려 했다는 것이다.²⁵⁾

이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70년대 후반의 사건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김기춘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뒤 동아일보 논설주간 황호택은 과거 김기춘 자신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채널A 시사프로 ‘논설주간의 세상보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했다.²⁶⁾ 그에 따르면 “1977년 10월 전방 사단에서 대대장 유운학 중령이 무전병을 데리고 월북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군을 발각 뒤집어놓은 사건이었지만 언론 통제가 강력하던 유신시대라 신문 방송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⁷⁾ 당시 보안사는 유운학 중령이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박정희에게 허위보고했는데, 박정희는 보안사의 보고를 믿지 않고 합참과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김기춘에게 진상조사를 제시했다. 사실 유운학은 사단 보안대에 약점이 잡혀 고민하다 스스로 월북해버린 것이었다. 황호택에 따르면 김기춘이 조사를 해보니 “일선의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들 사이에서는 보안사 등쌀에 못살겠다는 원성이 자자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크게 화를 내며 “보안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김 국장에게 성안하도록” 지시했고, 김기춘이 올린 개혁안에 따라 “보안사 정보처를 없애고 보안사 요원들을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렇게 축소된 보안사의 조직과 기능은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제규의 총에 맞아 죽고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회복되었다. 위세가 당당하던 중앙정보

25)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2005, 랜던하우스 중앙, 93~95쪽.

26) “황호택 칼럼-오독이 김기춘 실장의 마지막 공직”, 〈인터넷 동아일보〉 2013년 8월 15일자, <http://news.donga.com/3/all/20130814/57032427/1>

27) 황호택은 이 사건이 신문에 한 줄도 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 〈경향신문〉은 대대장 등 국군장병 두 명의 ‘납북’ 사건을 1면 톱으로 보도(1977년 10월 26일자)했고 〈동아일보〉도 다음 날 신문에 “피납장병을 즉각 송환하라”는 제목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며칠에 걸쳐 비중있게 보도한 바 있다.

부는 10·26사건으로 졸지에 역적기관이 되었고 간부들은 김재규와의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황호택은 증정을 접수한 보안사 요원들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김기춘이었다고 증언했다.²⁸⁾

김기춘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가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었다면 꼼짝없이 서빙고로 끌려가 초죽음이 되도록 당하고 옷을 벗어야 했을 것이다. 김기춘이 김재규 밑에서도 2년 가량 대공수사국장을 지내고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직수와 박철언 덕이다. 신직수는 1976년 12월 김재규에게 중앙정보부장직을 물려 주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다가 1979년 1월 청와대 법률담당 특별보좌관으로 다시 기용되었다. 이때 신직수는 중앙정보부에 남아있던 김기춘을 데려다가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삼았다. 김기춘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와 접촉할 기회도 자주 가졌을 것이다. 박정희의 죽음은 그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최고의 관운을 자랑했던 신직수의 날개가 꺾인 것을 의미했고, 이는 김기춘의 최고의 후원인의 힘이 빠진 것을 의미했다. 유신시대 최고로 잘나가던 김기춘은 친정인 검찰로 복귀하여 1980년 6월 대검 특수부 1과장을 거쳐 1980년 8월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맡았다.

문제는 전두환이 유신헌법 대신 5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정식으로 5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불거졌다. 전두환 정권은 사법부에서 법관 526명을 재임명하고 37명을 탈락시켰고, 검찰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검사 200명에게서 검찰쇄신을 위해 인사권자가 소신 있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 아래 일괄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중 26명의 사표를 수리”했다.²⁹⁾ 이때 문상익, 김태현 등 검사장급 5명도 옷을 벗었고, 뒤에 인권위원장을 지낸 김창국도 검찰을 떠나야 했다. 전두환의 보안사 사령관 시절 비서실장으로 세도가 당당했던 허화평(육사17기)이 김기춘의 옷을 벗기려 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궁지에 몰린 김기춘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던 대학후배 박철언에게 매달렸다. 김기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박철언은 김기춘에게 허화평에게 전달해줄 테니 편지를 써달라고 말했다. 김기춘은 얼마 후 “일종의 충성맹세”인 “구구절절 장문의 편지”를 써왔고, 박철언은 이 편지를 허화평에게 전달하며 적

28) “황호택 칼럼-오독이 김기춘 실장의 마지막 공직”, 〈인터넷 동아일보〉 2013년 8월 15일자, <http://news.donga.com/3/all/20130814/57032427/1>

29) 〈매일경제〉 1981년 4월 25일자.

극적인 구명에 나섰다. 그 덕에 김기춘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하기까지 했다. 박철언 덕분에 검사장에 승진하기는 했으나 보직은 검사장급에서 한직으로 취급받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을 맡았다. 그러나 오뚝이 김기춘은 1981년 말 정치근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검찰의 꽃이라는 검찰국장으로 발령이 났다. 그러나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 당시 “국회에서 수사방향에 대하여 은연중에 대통령 핑계를 댔다는 이유로 전두환의 눈 밖에 나게 되었다고 한다. 박철언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옷을 벗는 것만 면하고 한직 중에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수부장으로 좌천되었다.³⁰⁾ 김기춘은 여기서 4년을 버텼다고 한다. 뒤에 검찰총장이 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춘에 대해 “말씀씨는 간결명료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으며 특히 비유가 적절”하다며 그 비결을 묻자 “남이 한직으로 물먹었다고 생각하는 연수원 생활을 4년여 하며 책을 많이 본 덕분”이라고 ‘가볍게’ 넘겼다고 한다.³¹⁾

4. 검찰공화국 건설의 주역이 되다

전화위복, 새옹지마란 말이 있다. 오뚝이 김기춘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유신시절 가장 잘나가던 검사 김기춘은 5공 시절에는 찬밥을 먹었다. 세월이 바뀌어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뒤 여소야대 상황에서 5공청산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을 때, 5공 청산의 주역은 당연히 5공 시절 찬밥을 먹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김기춘은 1998년 12월 검찰총장이 되었다. 언론은 김기춘이 “중앙정보부 파견근무 당시 보안사의 민간업무 관여에 철퇴를 내린 것이 화근이 돼 보안사 출신이 권력의 핵을 이룬 5공시절에는 빛을 보지 못했다”면서 “보안사 미움산 곳곳한 검사”³²⁾라거나 “검사생활 중 동기들의 추월을 불허하는 선두주자였으나 유신시절 중앙정보부 수사국장으로 파견돼 정국을 주무른 게 5공 핵심세력에 반감을 사 5공 8년 동안 ‘피해자’로 때만 기다려왔다”³³⁾고 썼다. 박철언의 표현대로 “5공 당시 전 대통령과 5공 실세들에 의해 좌천되어 절치부심”하던 김기춘이 “이제는 5공 청산의 실무 주역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김기춘이 지

30)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2005, 랜던하우스 중앙, 93~95쪽.

31) <경향신문> 1990년 1월 5일자.

32) <동아일보> 1988년 12월 5일자.

33) <경향신문> 1988년 12월 5일자.

휘하는 검찰은 1989년 ‘5공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 안기부장 장세동 등 49명의 5공 인사를 구속했다.³⁴⁾ 한 가지 흥미 있는 것은 처음에 김기춘의 옷을 벗기려다가 충성편지를 받고 김기춘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준 허화평은 당시 그가 소장으로 있던 준 국책연구기관 현대사회연구소 노동조합(당시 위원장은 시사평론가로 현재 엠비시 백분토론 사회를 맡고 있는 정관용이었다)이 민정당사 앞에서 허화평의 구속을 요구하며 시위³⁵⁾를 벌였는데도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김기춘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은 바로 민주화 이후 수구세력의 반격이 시작되어 공안정국-보수대연합-범죄와의 전쟁이 이어진 시기였다. 이때 김기춘은 ‘미스터 법질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장’을 자임하면서 좌경용공세력과 폭력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6.29선언 이후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좌경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머리를 드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김기춘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 또 하나의 야심작으로 검찰은 삼양라면 등이 제조공정에서 공업용 쇠기름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회사대표 등 여러 명을 기소했으나 수년간에 걸친 공방 끝에 그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7년 9개월을 끌어온 우지라면 사건은 26일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로 식품회사 측의 승리”로 끝난 뒤 <경향신문>은 삼양식품의 경우 종업원 1천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회사는 1백억 대의 제품을 회수, 폐기하여 도산위기에 빠졌고, 부산유지화학공업은 결국 도산했다면서 “무리한 수사로 인해 국민 식생활에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다며 서툰 검찰 때문에 업계와 국민만 상처를 받았다고 비난했다.³⁶⁾ 무죄판결을 받은 뒤 삼양식품의 전 중윤 회장은 “아무런 잘못이나 부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도산위기까지 몰고간 우지파동은 당시 군사정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³⁷⁾

첫 임기제 검찰총장 김기춘은 1990년 12월 5일 2년 임기를 마치고 총장에서 물러났다. 6공이 출범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한다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했으나 5공비리 수사와 공안정국을 거치면서 임기제가 오히려 정치적 편향을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무용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임기를 마친 것이다.³⁸⁾ 그해 연말 개각에서 김기춘이 법무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

34)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 95, 345쪽.

35) <한겨레> 1988년 12월 3일자.

36) <경향신문> 1997년 8월 27일자.

37) <매일경제> 1994년 2월 7일자.

만 노태우는 임기를 바로 마친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에 기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관운 좋은 김기춘에게 기회가 오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가 시위 도중 전경들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보수정권과 민주개혁세력의 대결은 매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화운동 진영이 김대중-김영삼 양 김씨의 분열로 패배를 자초한 뒤 재야와 청년학생들은 노태우 살인정권을 이 기회에 끝장내고자 했다. 정권은 정권대로 여기에 거세게 맞섰고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 5월 2일 안동대 김영균, 5월 3일 경원대 천세용이 분신하는 등 학생들의 분신저항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갔다. 5월 6일에는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동료 노동자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경찰은 백골단 22개 중대를 투입하여 최루탄을 퍼부으며 영안실 벽을 부수고 들어가 그의 주검을 탈취해 갔다. 이어 5월 8일에는 재야단체의 연합조직인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이 서강대에서 분신자살했다. 시인 김지하는 5월 5일자 <조선일보>에 “죽음의 굶판을 견어치위라”라는 과격한 글을 기고했다.³⁹⁾ 청년학생들의 분신이 연이어 발생하자 궁지에 몰린 정부와 수구세력은 김지하의 주장을 발전시켜 학생들의 분신에 조직적인 배후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희한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김기춘에 뒤이어 검찰총장이 된 정구영이 이끄는 검찰은 김기철의 유서를 전민련 동료인 강기훈이 대필했다면서 강기훈을 구속했다. 월초에 숨진 박승희의 장례가 광주에서 무려 20만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거행된 5월 25일, 서울에서는 또 다른 여학생 김귀정이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숨졌다. 김기춘이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26일이었다.⁴⁰⁾

현재 강기훈의 유서대필 사건은 재심재판이 진행중이고 검찰의 시나리오가 허위라는 새로운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⁴¹⁾ 이 사건은 민주화로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체제 유지의 전면에서 한발 물러선 공백상태에 발생한 위기를 검찰이 온 몸을 던져 막은 것이다. 유서대필이란 지금이나 그때나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다. 검찰도 수구세력도 그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한 치의 주저함 없이 밀

38) “퇴임하는 첫 임기제 총장 김기춘씨”, <한겨레신문>, 1990년 12월 5일.

39) 김지하,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 죽음의 굶판 당장 견어치위라”, <조선일보> 1991년 5월 5일자.

40) <동아일보> 1991년 5월 27일자.

41) 안홍기, “국과수 '김기철 유서, 강기훈 대필 아님' 결론낸 듯 - 재심 재판부에 필적감정결과 회보... 변호인측 증거로 제출”, <오마이뉴스> 2013년 12월 12일자.

고나가야 할 만큼 노태우 정권은 위기에 빠져 있었다. 검찰이 주도한 유서대필 사건은 군과 정보기관이 퇴조한 가운데 검찰이 체제유지의 주력부대임을 과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한동안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김기춘은 선발투수는 아니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구원등판하여 노태우 정권을 지켜내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을 조작한 검사들 대부분이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주변에 몰려 있었다.⁴²⁾ 김기춘은 원로그룹인 7인회의 일원이었고,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으로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강신욱은 검찰못의 대법관을 지낸 뒤 2007년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 특보단장을 지냈고, 수사검사였던 남기춘은 박근혜 캠프의 열린검증소위원장, 수사검사였던 윤석만은 박근혜 후보의 외곽조직인 대전희망포럼 공동대표였고, 수사검사였던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민정수석이 되었다가 채동욱 검찰총장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밀려난 바 있다. 김기춘은 이들 모두의 우두머리이다.

5. 초원복집 사건과 노무현대통령 탄핵

복어를 잘못 먹으면 탈이 난다. 치밀하고 깔끔하기로 소문난 김기춘도 복어집에 갔다가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도록 망신한 일이 있다. 아니 사실 망신이 아니라 흉악한 범죄행위의 수괴였던 것이다. 그 흉악범죄의 모의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세상에 까발려졌다. 14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1992년 12월 16일 김기춘이 부산에서 부산시장, 검사장, 경찰청장, 안기부지부장, 교육감, 기무부대장, 상공회의소장 등 기관장을 모아놓고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겨 민자당 김영삼 후보를 지원할 것을 모의하였는데 이를 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아들 정몽준 의원측에서 도청하여 녹음한 테이프를 공개한 것이다. 김기춘은 사건 당시에는 현직이 아니라 전직 법무부장관이었는데, 이는 선거관리를 위해 10월 9일 중립내각이 출범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김기춘이 부산에 내려가 주요기관장을 모아 놓고 이렇게 열심히 댄 것은 동향인 거제 출신의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공으로 안기부장이나 총리 같은 자리

42) '투병중인 '한국의 드레퓌스' 김기춘', <뉴스타파> 24회, 2012년 8월 31일.

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당시의 언론은 관측했다.⁴³⁾

각 언론은 정몽준 의원 측에서 녹음한 테이프를 풀어 상세히 보도⁴⁴⁾했는데 “우리가 남이가” 등 거기서 김기춘이 한 발언은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이날 김기춘은 “중립내각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서 답답해 죽겠다”면서도 치밀한 성격과는 달리 딱 달렸다. 그 자리에 모인 공직자들은 아직 장관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인데 김기춘은 그들에게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장관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모르지”라고 자랑하면서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엔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찌니 하면 영도다리에서 각 빠져 죽자”고 부추기기도 했다. 워낙 자기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하면서 무리수를 많이 두었던 것을 염려한 탓인지 김기춘은 “잘못되면 혁명적 상황이 와서 전부 끌려 들어가야 할 판인데 여당해야지 그럼 어떡합니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 일으켜야 돼”라는 노골적인 주문을 하면서 “훗날 보면 보람 있는 시민이라고 다들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자신했다. 녹음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속마음이 고향에 가 술 한잔 한 김에 거침없이 나온 것이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지만, 뒤집기의 달인은 따로 있었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던 현장에서 적발되자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일을 가너린 여직원을 무지막지한 자들이 감금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뒤집은 신흥은 이미 20년 전 초원복집 사건 때도 발휘되었다. 이 사건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파렴치한 부정선거 모의가 아니라 불법적 반인류적 도청사건이 된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기춘은 감옥에 가야했고 초원복집 사건으로 그는 더 이상 공직을 맡을 수 없어야 마땅하다. ‘부정선거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초원복집에 모인 기관장들을 “공식석상이 아닌 사적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혐의처분하고 모임을 주재한 김기춘만 불구속기소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은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1993년 3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구(舊) 대통령선거법 제36조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

43) 《동아일보》 1992년 12월 17일자; 《한겨레신문》 1992년 12월 17일자; 《한겨레신문》 1994년 12월 17일자.

44) “김기춘씨 노골적으로 해도 검찰 향해 경찰청장 양해라니...내가 더 떠든다 부산 관계기관장 대선대책회의 녹취록”, 《한겨레신문》 1992년 12월 16일자.

했다.⁴⁵⁾ 이에 <동아일보>는 김정훈 기자의 기명칼럼을 통해 장관 재직 당시 “유난히 선거관련법의 엄정한 집행을 강조”했던 김기춘이 “막상 이 법률이 자신에게 올라미로 다가오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이 위헌심판 제청이 “법의 이름을 빌려 면죄부”를 구하려는 “탁월한 법률가 김기춘의 완벽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⁴⁶⁾ 결국 1994년 여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김기춘에 대한 재판은 공소취소로 없던 일로 끝났다. 범비(法匪)란 말이 있다, 온갖 비적이 들끓던 만주에서 가장 무서운 비적은 법으로 무장한 범비였다.⁴⁷⁾ 김기춘이야말로 범비 중의 범비였다.

범비 김기춘은 1996년 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고향 거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2000년과 2004년 선거에서 연거푸 당선되어 3선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 시절 그가 가장 플래시 세례를 받은 것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접수시킨 때였다. 당시 김기춘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의 검사격이었는데 법사위 여당 간사는 16대 국회에 제출된 친일진상규명법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법사위에서 단기필마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합천 출신의 김용균이었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 제명사유가 된다는 지금이나 유신시대와 비교한다면 대통령을 실제로 자르려고 했던 2004년의 탄핵은 절차민주주의가 극한으로 만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누려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려 간 자들은 친일과 유신과 5공과 지역감정의 화신들이었다. 김기춘과 김용균이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는 사진은 온 나라를 뒤흔든 탄핵사태의 본질이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였다는 사실을 웅변해 준다.⁴⁸⁾

45) <한겨레신문> 1993년 3월 18일자; <한겨레신문> 1993년 4월 28일자.

46) 김정훈, “김기춘씨 아전인수 범리”, <동아일보> 1993년 3월 20일자.

47) 한홍구, “범비의 난”, <한겨레> 2009년 2월 2일자.

48) 한홍구, “마술피리 소리가 들리는구나”, <한겨레21> 제501호, 2004년 3월 25일자.

흑역사의 올드보이들의 수장

김기춘은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지금부터 7년 전으로 아직 60대였던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는 "이유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공천 탈락을 당했다"면서도 당의 결정에 승복하여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고 "존경받는 원로의 한 사람으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⁴⁹⁾ 그러나 지금 김기춘은 한국정치의 최전선에 서있다. 김기춘만이 아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시대의 386세대 대신 '신 386세대' 또는 '권 386세대'라 불리는 자들이 꾸역꾸역 나오고 있을까. 1930년대에 태어나 나이 80을 바라보며 60년대에 공직에 입문한 자들이 참 건강하기도 하다. 김기춘은 어딘가에서 "연산군 밑에는 채홍사들이 들끓고 세종대왕 옆에는 집현전 학자들이 모였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⁵⁰⁾ 지금 박근혜의 주변에는 누가 모여 있을까. 김기춘 만큼은 아니더라도 각자가 나름 상당한 흑역사를 간직한 올드보이들과 지금은 백발이 된 유신시대의 청년장교들이 득시글거린다. 그 수장이 바로 기춘대원군이다.

김기춘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직후 공식브리핑에서 "윗분의 뜻을 받들어"라는 말을 하여 젊은 기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⁵¹⁾ 사실 유신전야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당시에 남측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북측의 부총리 김영주(김일성의 친동생)가 서명하면서 직함을 쓰지 않고 서명만 하면서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고 한 적이 있다. 남북이 20여년간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호나 직함을 쓰는 것이 거북했던 점을 나름 운치있게 비켜간 것이다. 반면 21세기 김기춘의 발언은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의 말이라기보다는 봉건시대 도승지나 할법한 얘기였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김기춘은 후배검사들에게 "학생시절의 순수성 정의감이 끝까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남겼다.⁵²⁾ 남다른 흑역사를 간직한 김기춘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학생시절의 순수성과 정의감은 안녕들 하십니까?

49) 권철현·정형근 이어 김기춘도 '불출마선언', <오마이뉴스> 2008년 3월 21일자.

50) '황호택 칼럼-오목이 김기춘 실장의 마지막 공직', <인터넷 동아일보> 2013년 8월 15일자,
<http://news.donga.com/3/all/20130814/57032427/1>

51) 홍진수, "김기춘 비서실장의 첫 브리핑은 '윗분의 뜻을 받들어'.....'올드보이'의 본능", <경향신문> 2013년 8월 7일자.

52) <동아일보> 1990년 12월 5일자.

1980년대 사회운동의 급진주의 운동의 한계와 재구성

이 창 언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사회학박사)

I. 서론

1. 연구목적

한국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었던 1980년 광주항쟁을 전후 사회운동의 ‘급진화(radicalization)’가 가속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인식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급진화에 대한 분석과 해명으로까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선행 연구는 운동의 ‘급진화’를 하나의 경향, 즉 ‘사회주의적 경향성’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급진화’에 대한 실제적인 다양성에 관한 접근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급진화의 정의와 성격에 대한 해명이 전제되지 않아 운동가들의 탈 급진화 과정, 운동 사이클 변화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급진이념의 등장·확산·분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추적, 급진화의 개념정의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사회운동의 급진화의 성격(급진주의의 한국적 적용), 확산 요인, 한국적 특수성과 저항주체에서 비롯된 급진주의의 한계에 대한 해명이 담론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무엇보다도 급진화에 대한 당파적 의도성과 과장을 탈피한 재정의, 재해석과 재구성의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 1980년대 사회운동을 급진화로 설명하는 수많은 논의가 강변하는 ‘급진화’는 무엇인지, 1980년대 운동을 ‘급진적’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사실 ‘급진화’에 관한 이러한 질문은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뒀던 사회운동연구의 중심적 주제일 뿐 아니라 대단히 추상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이 궁극적인 사회구성의 특성을 반영하고 경험에 더 가까운 요소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것은 역사해석의 근본문제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필자는 기존의 분석 틀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통해 이를 개조하는 방식에 선다면 '급진화'를 비롯해 광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구조와 동학이 기존의 주류화된 관점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광주항쟁 이후 90년대 운동의 급진화에 대한 분석과 재해석은 급진화의 동인에 대한 해명을 넘어 민주주의 이행과 기성 저항이념(NL-PD)의 주변화, 나아가 체제 내적 포섭(획)과정을 읽어 낼 수 있는 유용한 코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운동의 급진화가 현대 한국사회의 구성적 질서에 내재된 궁극적인 모순과 결부되어 있지만, 제한적 급진성과 정형화된 실천성이 내재된 것으로 상정한다. 저항과 적응가치의 교환과정을 분석한다면 운동의 급진화, 운동의 재생산과 대중화, 급진담론의 주변화, 운동 내부의 비민주성과 함께 민주화(절차적 민주화 확장) 이후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진보정당(통진당)이 보여준 모습은 80년대 운동의 급진화가 낳은 뿔적 유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80년대 운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 부정적 입장에서 서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문제로부터 시작했지만 민주주의를 단계론적으로 사고한 민중민주주의 개념의 한계, 조직 내 민주주의 부재, 반이성과 비합리에 대한 저항과 근대성에 대한 열망이 간과한 차이에 대한 인식 부재,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장한 저항, 민중지향성이 갖는 계몽주의적 한계 등을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지난 시기 한국의 민주주의를 일정 정도 성취한 당대 급진적 운동의 성과의 전면적 부정은 아니다. 이러한 비판은 새로운 시대적 상황과 도전 앞에서 혁신과 재정식화를 통한 급진화의 시도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 연구는 필자의 박사논문(2009)의 후속작업임의 일환임을 밝힌다. 당시 필자의 박사논문은 주로 급진화의 과정과 급진화 요인을 밝히며 포커스를 맞추었다. 이 연구는 당시 정교하게 밝혀내지 못한 급진화를 둘러싼 경합과 각축, 급진화의 성격, 급진화가 한국사회운동에 미친 결과, 운동의 급진적 재구축을 위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012년 대선을 거치면서 더욱 주변화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좌파운동의 한계는 이미 이 과정에서 내장된 한계가 지속된 결과이며, 새로운 차원의 진보운동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의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기왕의 논의된 바 있는 ‘1980년대 사회운동의 급진화 과정(요인)’에 대한 지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네 가지 과제를 다룬다.

첫째, 급진화의 성격 규명 작업이다. 이는 광주항쟁 이후 사회운동 내에 ML주의와 주체사상의 경합과 각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검토하면서 접근해 나간다. 사실, 운동의 급진화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다른 해석적 체계가 등장하는 과정, 공론을 통해 경쟁하고 각축하는 과정, 인식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인식 틀로서의 새로운 가치와 신념의 요소로 대체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상황의 정의에서부터 운동의 목표와 이데올로기, 운동의 전략과 전술 등과 관련한 내·외적 경쟁과 각축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80년대 ‘변동의 담론(rhetoric of change)’의 경합과 각축-- 긴급성(urgency), 행동성(agency) 성공 가능성(possibility)의 요소---을 포함 경쟁담론 ---‘목표의 포괄성’, ‘타 집단과의 연계성’, ‘저항엘리트와의 연대성’--이 급진화의 판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적한다. 사실, 사회운동의 틀 구성과정은 조직내적 경쟁(internal competition과 조직외적 경쟁(external competition)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는 내적-외적 경계의 재구성과 해석 틀 전환을 수반하는 급진화 과정을 계급과 민족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를 기왕에 사용한 1차 급진화(ML주의 확산), 2차 급진화(반미주의 확산)으로 분류할 것이다.¹⁾

둘째, 급진화의 특성(한국적 특성)을 미시적 요인,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조건과 연관되는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분단체제, 광주항쟁의 효과 외에 운동참여자 개인들의 정체성 차원, 가치와 정체성의 세대 간 전승과 같은 사회적 차원, 운동으로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연결망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이들이 수용한 급진이념, 급진적 운동양식의 수준과 내용을 파악한다. 여기서 필자는 급진화(NL-PD)와 대중화(NL)에 내재된 갈등적 요소보다

1) 1차 급진화는 관념적 과격성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맑스주의의 한국적 적용의 실패’라는 비판과 도전에 직면한다. 1986년을 전후하여 레닌주의적 급진성(불세비즘)과는 구별되는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반영한 급진성, 반식민지 행동주의적 급진성 즉, 민족해방론이 등장, 상호 경합하는 2차 급진화가 시작된다. 1, 2차 급진화 시기는 사상의 교조주의적 수용, 과학적 민중론·변혁론의 주창, 권력지향적 전략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 시기를 주도한 주류담론은 차이가 있다. 계급적 프레임은 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지도가 강조하였으나 198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민족적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중화 전략(정체성 지향전략)을 특화한다. 2차 급진화는 반정립과 비교우위를 수반하여 진행되었는바 이념과 현실의 불일치, 합의적 동원에 대한 보완(조직·전략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는 여타 사회 구성 질서와 공존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을 당대 정치 사회적 구조와 한계적 급진화의 연관 속에서 설명할 것이다. 한편, 급진화의 내용과 수준과 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상징’ 즉 운동이 제기하는 ‘언어적 형식’과 그것의 ‘재구성 방식’에 주목하는 한편, 상징해석을 시도한다.²⁾ 나아가 1980년대 운동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경향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1960-70년대 민주화 운동과 비교도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한국 좌익운동,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통과 1980년대 급진적 운동의 관계는 물론이고 민주화운동의 내적구성과 외적 경계(연합과 동맹, 미국과 북한의 관계)설정을 둘러싼 단절, 연속론을 검토한다.

셋째, 두 번째 단계와 동시에 급진화의 개념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하고 재구성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급진화를 급진, 좌경, 좌익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해 온 보수주의적 접근의 모호성과 불순한 의도성(지배·저항 블록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성된 언어)을 거부한다. 그렇다고 급진화를 “당면 사회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하여 근본적(fundamental) 해결책을 강구하고 총체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경향”으로만 정의하지도 않는다. 이 또한 보수주의적 논지와 유사하게 대단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정의를 필요하다. 필자는 포스트 맑스주의를 한국적으로 재구성한 급진민주주의론의 시각에 따라 급진화의 재정의, 급진화의 기준과 틀을 제시하여 1980~90년대 사회운동의 급진화 정도와 한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넷째,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낡은 NL-PD적 전통이 작동해 온 민노당-통합진보당과 같은 진보정당과 진보운동의 실패를 1980년대 운동의 이념과 행위양식(동형화된 조직문화, 전략 포함)의 연장선으로 규정(운동 패턴), 이에 대한 비판과 혁신과제를 제기한다. 이 연구는 진보정치운동의 실패를 다른 외적 요인보다는 과거 운동이념이 내장한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980~90년대 유산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급진적 재구축에 어떤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 이를 극복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한다.

2) 특정한 삶의 방식의 표현이자 재구성하는 방식인 상징은(상징활동)은 영역내의 구성원들 간에 공통의 이해 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영역의 단위화에 기반이 되는데, 이러한 단위에 기초를 둔 상징들이 모여 보다 큰 상징을 만들 때 개인의 상징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이다.

3. 연구시기와 대상

이 연구는 이념과 전략의 변화를 따라 급진적 이념이 운동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83년 하반기부터 1985년을 계급 지향적 급진성이 강화되는 시기로 설정한다. 그리고 1986~1990년을 급진화의 황금기로서, 이념의 분화(NL과 ND·PD)와 확산이 이루어지고 민족(반제)지향적 급진성이 대두하는 시기로 설정한다. 그리고 90년대 후반 급진이념의 분화기로 설정한다. 이 연구가 주요하게 검토하는 시기는 1980년에서 1990년 중반까지이지만 급진화에 대한 현재적(2013년 통진당 사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한다.

〈표 1〉 운동의 시기구분과 특징

년도	1983~1985	1986~1991	1990~
시기 구분	급진이념의 수용과 확산기	급진이념의 황금기	급진이념의 분화기
	계급 지향적 급진성의 대두	민족 지향적 급진성의 확산	운동이념의 다원화
	맑스-레닌주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경합과 각축	
	전위주의·당중심성·노동자 중심성 강조	대중노선·통일전선·비(非)노동자 중심적 저항성 강조	
	사상의 절대화, 국가·정치 정향적 운동·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과 저열한 의식, 헌신과 집단주의 강조		
전투적 민족·민중운동의 등장과 급진운동권의 분화			전투적 민족·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분화

출처: 이창언(2009)

이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크게 문헌자료, 구술(인터뷰) 자료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사회-해석학적, 역사-사회학적 연구의 접합을 통해 실제에 대한 단순한 서술이 아닌 이론의 결합을 통한 해석적 설명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급진화의 개념정의 외에도 급진화의 성격, 급진주의의 한계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해명은 단순한 자료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해석학적, 구술사방법론을 일부 결합한 이유는 양적방법론이 접근하기 힘든 인간 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주관적 의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활용한 자료는 각종 논문과 단행본 외에 당대의 다양한 문헌(자료집, 단행본, 유인물, 팸플릿 등)을 참고한다.

II. 급진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개념정의와 역사적 고찰

1. 급진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와 개념정의

‘급진화(radicalization)’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명쾌하지 않다. 그것은 급진주의, 급진화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 상대적 개념이라는데 원인이 있다. 또한 비교의 준거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논문과 단행본은 1980년대 ‘민중적·혁명적 인식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당대 운동을 민중적 사회주의(지향) 운동으로 설정한다(유영익 1987: 34~35; 조희연 1989; 최연구 1990: 246-266; 2004a: 54-58; 손호철 2006: 33).

장준오(1995: 37)는 많은 연구자들이 당대 사회운동의 주력이었던 “학생들이 왜 급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가를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평가한다. 말하자면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이전과는 다른 급진성을 보이게 된 일종의 문화적 원천을 광주항쟁으로 보는 것이다. 대체로 선행 연구들은 “80년대 광주를 분기점으로 급진주의적 저항담론이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적 인식과 PD(people's democracy 민중민주주의)적 인식으로 표출되면서 ‘투쟁의 전투화’, ‘이념의 혁명화’, ‘운동의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87년 6월 항쟁 이후 1990년대를 거치면서는 민중적 담론이 주변화된 것”(조희연, 2004a: 58-59)으로 상정한다. 대체로 선행연구자들은 진보·보수와 상관없이 1980년대를 ‘혁명을 꿈꾼 시대’(급진화)였다고 본다. 진보적 사회학계에서는 ‘80년대’는 죽음을 마다 않는 희생으로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의 과제를 확인시켜 준 시대, 운동 이념과 사회변혁론을 중심으로 한 논쟁구조의 심화와 이를 실천 활동과 연계시킨 시기, 운동의 대중화와 연대투쟁이 활성화된 시기로 1980년대라는 시대와 학생운동의 특징을 규정하는 논의가 다수를 차지한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체계화된 이념으로의 철저한 무장, 이념의 실천이란 측면에서 개혁의 방법이 아닌 혁명적 방법 선호와 수단의 과격함, 변혁역량의 축성을 위한 타 운동과의 연합, 대중조직과 투쟁조직의 상호 보완체제의 구축(김한보, 1991) 등이 급진화를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근현대사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속성·폭력성·절대주의(Absolutism)·정예주의(Elitism)·반대주의(Anti-ism) (김도중, 1991: 292-297)등이 1980년대 급진화된 학생운동의 특징으로 설명한다.

학생운동과 지식인의 급진화(radicalization)에 대한 선행연구는 유교적 전통에서 지식인의 ‘사회내적 비중’을 그 기원으로 파악하는 ‘역사적인 설명’과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계급형성 간의 괴리’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험적인 분석도 있으며 비판적 집단으로서 학생집단의 반항적 심리가 구조적 요인과 결부되어 신념화 내지는 가치화된 것으로 설명하는 심리적 분석이 있다.

비판사회과학계에서는 운동참여, 급진화와 관련해서 “냉전반공주의의 부정적 효과로서 일상적 정치언어의 채색화인 이념적 불러내기(ideological interpellation)와 제도정치에의 허약함” (최장집, 2003: 65)에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는 학생운동이 사회주의에 보인 ‘지체된 추수’와 ‘때 이른 폐기’에 대한 사회과학적 상상력의 모티브(motive)를 제공해 준다. 일종의 ‘역사주의 빈곤(김창진, 2004: 205~229)’, ‘얕은 진보주의’, ‘학습이 덜된 진보’ (환경과 생명, 2004: 54)라는 비판을 받는 1980년대 학생운동가들의 급진적 정체성 형성과 이념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자극한다.

최근에는 1980년대 권위주의 통치라는 정치적 조건과 그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 형성이라는 관점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운동의 주체적이고 문화적인 측면, 학생운동의 정체성, 정체성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 김원(1999), 이회영(1999), 조대엽(2002), 권인숙(2005)의 연구는 ‘관념적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급진화, 급진이념을 검토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대엽(2000: 276~277)은 “학생들이 현실의 민중이 아니라 이념으로써 민주주의를 설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식과 세계관을 형성했던 사회주의가 몰락하자 운동현장뿐 아니라 노동현장에도 더는 있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한다. 조대엽은 1980년대 광주항쟁과 6월 항쟁의 집합적 경험이 반영된 문화적 요소를 ‘저항과 적응의 가치’로 구분하면서 두 가치 모두 조국 근대화와 개인적 성공을 향한 강한 ‘열망의 시대’를 거치며 내재화된 측면에 1980년대 운동을 통해 체득한 측면이 더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조대엽, 2002: 276~277). 조대엽은 저항과 적응가치의 교환과정을 분석하여 운동의 급진화, 운동의 재생산과 대중화, 급진담론의 주변화, 학생운동 내부의 비민주성과 함께 386세대가 민주화 이후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권인숙의 연구(2006)는 권력에 의해 내면화된 ‘사회적 동원’과 학생운동의 목표 수행을 위한 ‘동원전략’이 큰 차이가 없음을 여성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이창언, 2009).

사실, 급진화는 어느 위치에서 보는가에 따라 급진화의 기준은 달라 질 수 있는 만큼 급진 생태론의 시각에서는 불세비즘은 보수적이고 낡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 볼 때 우파의 시각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급진주의자로 보이겠지만 자율주의자나 혁명주의자에게는 급진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자율주의자에게 ‘급진화’ 내지 급진적 주체성은 “가장 극단적인 탈영토화 상태에서 행동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배·국가권력 및 모든 초월적 환상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며, 빈자와 함께 모든 초월적 방벽들을 무너뜨리며 공동의 기계들을 구축하는 것”이다.³⁾ 여기서는 급진화를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 즉, “당면 사회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하여 근본적(fundamental) 해결책을 강구하고 총체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급진화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틀(frame)의 변화 즉, 자신들의 삶의 공간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치시키고, 지각하고, 구별하며, 이름 붙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석의 틀이 더욱 급진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1980년대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차원을 넘어선 반체제 변혁 운동의 성격을 노출한 것은 인정하지만 급진화를 사회주의 운동 내지 체제를 극복하는 운동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사실, 체제변혁을 지향한 사람들이 기존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시민사회 내에서 규합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이들의 변혁이념이 기존의 권력화 된 지배가치의 대립과 초극, 기존의 제도화된 실천방식과의 차별적 초월,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이념의 근본성과 공유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이창언 2009)⁴⁾.

2. 급진화, 급진주의에 관한 개념-역사적 고찰

급진주의(radicalism)는 “현재의 사회에 극도로 불만족함으로써 변화를 회구하고 다만 그 방향이 진보적인 방향 즉 기존현상으로부터 어떤 새롭고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심도 있게 추구하는 경향”(앤서니 기든스, 올리히 벡, 스콧 래쉬, 1999: 13)을 의미한다.

급진적이 된다는 것은 ‘역사에 내재한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는’(앤서니 기든스,

3) 자세한 내용은 안토니오 네그리 저, 정남영 역, 2004, 『혁명의 시간(Time for revolutto)』을 참고하라.

4) 반체제 운동의 역사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매뉴얼 윌러스틴 외, 『반체제 운동』, 창작과 비평사, 1999; 이매뉴얼 윌러스틴, 『자유주의 이후』를 참조하라.

1999: 13)다는 것이었다. 급진주의는 새로운 변화를 강렬하게 열망하는 사상체계이며, 그것으로부터의 지향의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를 지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비판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변화를 조성하려는 급진주의적 욕구는 일시적이거나 반동적인 경우와는 다르며, 과거의 황금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과거지향적인 의식과도 구분된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난날 성공한 급진주의가 오늘날에는 한낱 보수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진덕규, 1988: 116). 오랫동안 정치적 급진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상과 맥을 같이해 왔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급진주의적 변화에 대한 요구와 방법은 너무나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면이 있다. 19세기 영국 급진주의자들의 목표는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개인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중심이었고, 프랑스에서는 주로 프랑스혁명에서의 세속성과 자유와 평등을 계승하는 정치개혁을 원하는 정신 상태였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급진주의는 극단의 정치적 조류를 호칭하는 것이었으며, 동북부공산권국가의 이해를 대표하여 노예제의 철저한 폐지를 주장한 공화주의자나 또 그 산업적 이익에 반대하여 농업의 이익과 사회화를 강력히 주장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급진주의자라고 불리었으며, 스위스에서 1830년 이후 카톨릭의 교권주의에 반대하는 급진당이 결성된 이후 헌법을 중앙집권적으로 개정하는 운동 일반을 급진주의 사상의 범주에 넣기도 하였다. 이러한 급진주의 사상은 그 독자성이 상실되어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대체로 가장 극단적인 급진주의자들은 체제가 그 기초에서 즉각적으로 바뀌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변화는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급진주의자들은 폭력이 의미 있는 변화에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 필요하다 주장한다. 또 다른 급진주의자들은 사회의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주장하나 변화를 야기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한다. 급진사상은 정치적으로 나라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그것은 자유주의와 더불어 보수주의의 반대어이기도 하면서, 혁신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의 극단이기도 한 급진좌파(radical left)를 통칭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의 극단이기도 한 급진우파(radical wright)를 포함하기도 한다. 우파급진주의는 국가, 경제, 사회의 위기 시 모든 영역들을 명령과 복종의 원칙에 따라 급진적으로 변혁시키려는 정치이데올로기의 일종으로 프랑스의 자코뱅당, 이태리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므로 급진주의란 개념은 사용자의 사용목적과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하므로 그것을 급진주의를 반드시 좌파이념 내지 사회주의이념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해 급진주의는 진보와 보수와 같이 상대적 개념이다. 단적으로 한때 사회변혁의 기수들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현상유지 세력으로 안주해 버리는 경향을 역사적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급진주의라는 개념도 시대적 위상과 현실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위상적(位相的), 내지 상황적(狀況的) 개념이라 규정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급진사상’ 역시 진보 속에 포괄될 수 있겠지만, 급진적이라는 규정이 시간에 따라 미묘하게 변한다는 현실, 진보 안에 다양한 편차가 있다는 사실이다. 급진주의를 구성하는 내용은 선형적·초역사적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경시켜온 상대적인 개념이다.

‘급진화’란 용어도 급진주의와 같이 가장 불명확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온 것 중 하나이며 개념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인 주관성이 내재해 있다. 어느 위치에서 보는가에 따라 급진화의 기준은 달라 질 수 있다. 급진 생태론의 시각에서는 불세비즘은 보수적이고 낡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 한국적 맥락에서 볼 때 우파의 시각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급진주의자로 보이겠지만 자율주의자나 혁명주의자에게는 급진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자율주의자에게 ‘급진화’ 내지 급진적 주체성은 “가장 극단적인 탈영토화 상태에서 행동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배·국가권력 및 모든 초월적 환상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며, 빈자와 함께 모든 초월적 방벽들을 무너뜨리며 공동의 기계들을 구축하는 것(안토니오 네그리, 2004)”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의 급진화된 경향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기 위해 대안적인 이데올로기를 선택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PD(민중)와 NL(민족)적 경향으로 분출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급진화는 인지적 실천과 관련이 있다. 급진화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틀(frame)의 변화 즉, 자신들의 삶의 공간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치시키고, 지각하고, 구별하며, 이름 붙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석의 틀”이 더욱 급진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나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변화된 ‘틀’은 사건이나 현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경험을 조직하게 하며 운동조직의 활동, 목표, 이념 등과 일치하고 상호보완적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의 해석적 지향을 연결 짓

는다. 해석 틀의 급진적인 변화(이념의 급진화)는 운동 방식의 급진화를 낳는다.

한국에서 급진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나는 모습은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한국에서 급진주의 내지 급진주의적 사상이라 불리우는 것들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과 부작용을 수정하거나 보완·개선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상이나 행동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중 보수주의적 시각은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좌익’이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상(맑스레닌주의)이나 그 세력이며, ‘운동’은 체제변혁운동⁵⁾, ‘운동권’은 사회모순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헌법외의 틀 밖에서 사회적 정치적 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단의 세력으로, 운동권이 국민적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주화운동 내지 진보세력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본다.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히 1980년대에 들어서 한국 사회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단계’라 함은 무엇보다도 한국사회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노동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변혁 이론들이 발전되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학생과 지식인들의 대규모적인 노동현장으로의 존재이전과 반미운동의 활성화는 급진화의 전형으로 언급된다.

한국의 보수주의적 논자들은 1980년대 민중지향성과 민족지향성을 강하게 표출한 학생운동의 급진화를 ‘좌경(익)화’, ‘용공화’와 동일시한다. 이들은 ‘급진화’를 급격한 사회변혁을 추구하고 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사용도 불사하며 모든 기존의 권위나 전통을 부정하는 사회세력들과 그들의 사상성향 및 행동방식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정경연구소, 1986; 구범모, 1988; 유동렬, 1996).

그러나 ‘한국의 보수주의적 논자들’의 주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민중운동’의 일면만을 보여주는 협소한 인식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보수주의적 시각에

5)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중반까지는 ‘민주화운동’,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변혁운동’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변혁운동’은 당면한 사회 현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하여 근본적(fundamental) 해결책을 강구하고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급진적(radical)이며 끊임없는 진보를 회구하고 사회의 부분적인 개조가 아니라 총체적인 개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영구적(permanent)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변혁운동’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지향과 관련해서는 ‘좌파운동’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당면한 과제와 성격과 관련해서는 ‘민족민주운동’이라 불리기도 하였으며, 운동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민중운동’(학생운동)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과거의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현재 진행형의 운동을 ‘진보운동’으로 구분지어 사용하였다.

기초한 위와 같은 개념규정과 구획이 전적으로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이런 시각의 일단에는 극우 반공주의적 시각과 특정한 의도가 내장되어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들이 말하는 급진, 좌경, 좌익이라는 개념은 범위와 성격이 모호할 뿐 아니라 지배·지향 불력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성된 언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보수주의적인 시각은 “해방이후 한국 현대 정치를 특징지어온 과도한 반공주의의 영향과 형식화된 자유민주주의가 결과한 이데올로기의 과잉과 상투성, 정치적 폭력”(박광주 2006: 174-175)에 대한 면밀한 성찰과 반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보수주의적 논자들’의 1980년대 사회운동에 대한 구분과 개념 정의에는 ‘급진주의(radicalism)’, 진보(progress)에 대한 불이해와 함께 ‘급진화’로 치달게 한 역사적·사회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체제 변혁적 진보성향을 띠고 재야 세력의 일부가 급진화함으로써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차원을 넘어선 반체제 변혁 운동의 성격을 노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기존 체제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시민사회 내에서 규합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이들의 변혁이념이 기존의 권력화 된 지배가치의 대립과 초극, 기존의 제도화된 실천방식과의 차별적 초월,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이념의 근본성과 공유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⁶⁾.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급진적 민중주의를 지향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세력이나 단체들은 극좌에서 온건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폭넓은 이념분포를 보였다(조대엽, 2007: 195). 한국의 민주화이행과 공고화 과정을 검토했을 때 1980년대 한국사회는 결코 ‘보혁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정도로 진보세력이 주도하고 있거나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의 도전으로부터 수호해야 할 보수주의⁷⁾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박기덕, 2006:423-424).

좌우의 틀 거리로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한국의 보수주의적 논자들의 시

6) 반체제 운동의 역사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매뉴얼 월러스틴 외, 『반체제 운동』, 창작과 비평사, 1999; 이매뉴얼 월러스틴, 『자유주의 이후』를 참조하라.

7) 한국 보수주의는 민족의 전통과 국가원칙을 결여하고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의 포로로서 저급한 형태의 천박한 보수주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웠지만 냉전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외세 의존적이었다. 이런 성향은 경제발전과 국가안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방법에서 잘 나타났다. 서구의 합리적 보수가 개방성과 실증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데 반해 한국의 보수주의는 독선적, 폐쇄적이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각은 무엇보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의 역사적·이념적 특수성을 보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민주화 과정과 결합해 분석하지 않는 문제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의 논지가 당대 사회운동 참여자의 참여 동기와 목표, 지향을 하나로 획일화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민주화, 민주화운동,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적 개념규정에서 볼 때도 대단히 협소하고 부적절한 측면이 많다(이창언, 2009).

1980년대 ‘비제도적 운동정치’ 출현과 활성화 배경에는 억압적 지배구조의 영향과 한계 속에서 구축되고 전개되었던 제도정치가 아래로부터 제기되었던 (시민)사회의 제반 요구와 이해를 수용할 수 없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운동정치의 형태와 내용은 국가적, 정권적 수준, 정당 정치적 수준 시민사회의 수준을 반영”(정해구 외, 2007: 20-27)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억압과 탄압의 강도가 높을수록 합법보다는 비합법적 급진운동의 등장과 국가적 수준의 운동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2> 비제도적 운동정치의 형태

구 분	형태(합법<-----> 비합법)	비 고
국가적 수준의 운동정치	비합법적 급진 운동	반체제적, 반국가적 운동
정권적 수준의 운동정치	연합체운동	반독재 민주화 운동
정당 정치적 수준의 운동정치	진보정당운동	정당을 통한 진보운동
(시민)사회적 수준의 운동정치	네트워크형 연대운동	특정의 민주개혁 운동

출처: 정해구 외 (2007)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계급론적 민중주의, 반미주의, 통일전선론 등의 강한 민중주의적 가치지향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한 민중지향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급진주의적 운동, 반체제적 지향을 가진 운동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은 후술하겠다.

한국 사회운동의 급진화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다른 해석적 체계

가 등장하는 과정, 공론을 통해 경쟁하고 각축하는 과정, 인식적 실천을 통해 새로운 인식 틀로서의 새로운 가치와 신념의 요소로 대체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3장과 4장에서는 집합행동의 틀 변화와 재구성(reframe)을 추적하여 한국사회운동의 해석 틀 변화와 재구성의 과정을 두 개의 시기, 즉 1차 급진화와 2차 급진화의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III. 급진이념의 확산과 내재적 한계

1. 1차 급진화: 계급지향적 급진화

197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지식인-학생사회의 급진화는 과대성장한 권위주의 국가의 억압과 폭력이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현실과 사회운동의 주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으로 인식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1960-70년대 국가주도 하의 성장 전략 결과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는 한편, 고도성장기 높은 교육열과 교육기회 확장은 급진적인 규범과 문화 확산에 유리한 기회구조를 제공하였다.

한국의 지식인과 학생은 권위주의 체제의 개발독재로부터 시민사회의 수동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일반 민중들의 삶의 요구에 직면하고 정치사회적 태도를 조정해야 하는 국면에 맞부딪친다.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과 계급운동의 미성숙 등 현실운동의 수준은 유기적 지식인과 학생운동가들에게 대항자 의식(sense of agency)과 의존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학생운동가와 진보적 지식인의 정치사회적 태도와 입장은 조직화 된 사회영역의 가치와 규범, 운동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 학생운동권과 진보적 지식인에 의해 제공된 저항이념이나 상징은 삶과 노동에서 유리된 관념적 한계를 내장했지만 전체 사회운동의 이념과 상징형성에 기반이 된다. 한국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의 해석적 틀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와 달리 운동조직과 운동지식인(movement intellectual)이 창출해나가는 발현적 특성(emergent qualities)을 보여주고 있다. 거시적 환경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연계방식의 선택은 지배블록 수준의 국가변동과 조직화 된 시민사회의 내적 요구와 동학에 연계되고 접합되는 방식에 따라 내용과 수준이 형성된다.

1980년 광주 학살의 비극은 비판이론이나 사회민주주의로의 우회가 아닌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직로로 향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는 한국 학생운동의 급진화가 급진적 이론에 대한 충분한 내적 준비와 면밀한 검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며 지식인과 학생들의 급진적 이념의 수용과정이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리 및 운동권 정체성의 획득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회변혁이론에 대한 저열한 이해와 폐쇄적이고 교조적인 수용 등이 이 장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급진이념 수용의 특징임을 보여주고자 한다.⁸⁾ 즉, 강한 국가, 강한 운동의 전통(최장집)의 원천이 된 냉전 분단체제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은 급진이념의 뒤늦은 수용과 재생산에 구조적 환경을 제공하였지만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인 적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급진이념 수용의 두 가지 특징 즉, 맑스-레닌주의로의 직로의 선택과 뒤늦은 수용은 상대적으로 통치의 수준에서 합리화가 진행되고, 시민사회 활성화가 진행되는 1990년대 이후 급진운동의 쇠퇴의 내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학생운동의 급진화를 설명하는 두 개의 단절론과 연속론에 대해 검토하면서 급진화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것은 1980년대 기본 프레임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두 개의 단절론은 운동의 성격변화와 혁명전통의 문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서 필자는 다음에 주목하였음을 밝힌다. 첫째, 단절론과 연속론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기에 나타난 특정한 집단적 현상, 즉 탈자본주의적 사회변혁론의 등장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단절론적 시각이 특정한 패턴과 규칙성을 보여주기에는 하지만 운동 핵심지도부와 참여·지지자의 갈등과 차이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 1980년대 운동을 특수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연속론과 단절론에 관하여서는 주체사상과의 지도 연속론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8) 교조적이고 폐쇄적인 수용은 한국만의 특징이라 할 수는 없다.

1) 지식사회의 급진이념 수용과정

197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운동이 진전되어 종속적 자본주의화와 분단구조에 대한 문제인식이 젊은 세대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맑스주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한편 유신체제의 붕괴, 서울의 봄,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맑스주의가 실천철학적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1980년에서 1987년까지의 기간에 현실의 정치적·사회적 요구 때문에 그리고 사상과 출판의 자유가 조금씩 확장되면서 그 동안 금기시되어왔던 맑스-레닌주의, 주체사상이 이론적 논의의 중심으로 등장한다. 이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경험과 억압적 정치구조, 한국자본주의 발달이 낳은 사회적 모순, 계급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요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김재현, 1997: 333-334).

1970년대에도 서구 맑시즘과 실존주의적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비판이론으로 대별되는 서구 맑시즘은 두 방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 신군부정권 등장과 더불어 비판이론은 급진좌경 사상으로 낙인찍히게 되었고, 운동진영도 비판이론이 현실분석과 사회변혁이론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면서 무용한 것으로 처리되기 시작했다.

비판이론의 상부구조 비판 일반도의 성격은 한국사회의 기본 모순을 은폐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계급모순은 해소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심화되어 가고 첨예화되어 가고 있다. 상부구조의 토대 의존성을 무시한 비판은 모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비판이론의 개념은 원리상 과학적 이데올로기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맑스와 엥겔스의 이론이 노동계급의 이론이요 당파성 이론이라는 점을 비판이론은 간과하고 있다. 이 점에서 비판이론은 본질상 부르주아 전통 이론과 차이가 없으며 비판이론가들의 계급적 본질은 썩더 부르주아적인 것이다(문병형, 1988: 50).

한국에서 급진적 이념, 특히 ‘맑스주의의 수용과정’에서 ‘독특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서구 맑스주의의 경우와 반대로 비판이론의 수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맑스-레닌주의가 관념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힘을 가지고 단기간에 전폭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맑시즘은 서구와 다른 길을 거치며 또한 맑스주의이론 비판이론이든 충분한 수용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비판이론을 통해서 우회(右回)

하기보다는 바로 맑스주의로 향하는 직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는 1980년대 초반이 세계사적인 국면에서 신보수주의가 강화되고 맑스주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었다.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혁명운동이 새롭게 부활된다는 점과 계급갈등의 잠재적 기반이 형성됨으로써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맑스주의 이념에 입각한 노동운동이 태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현실이었다. 즉 한국 사회운동의 주기는 본격적 상승화의 국면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것과 배치되는 사실들은 그러한 압도적 현실(paramount reality)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김동춘, 1993: 305).

이런 맥락에서 1980년대에는 1970년대까지 수용되었던 네오-맑스주의, 종속이론, 사회민주주의론, 비판이론 등 다소 수정주의적인 맑스주의 이론들이나 민족경제론 등의 민족주의적인 이론들과의 단절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세계시간의 보수화 국면'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세계시간과는 정반대로 때늦은 급진화를 경험한 것이었다(손호철, 2003: 3).

광주항쟁이나 군사독재와 같은 정치적 코드가 형성되고 수가 대폭 늘어난 대학생들이 급속도로 확산된 맑스주의 열풍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온건한 프랑크푸르트학파나 신좌파 사상이 적어도 한국 현실에서는 특별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서구사회에서도 이런 이론이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배경이론으로는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략) 금기에 도전한다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맑스주의라면 당시 엄격하게 금지된 사상이었으니까요. 또 하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통이라는 것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맑스주의의 이런 저런 갈래들, 분파들을 놓고 논쟁 또는 모색을 할 것도 없이 맑스-레닌주의의 정통성을 내세우면 다른 쪽은 속된 말로 꼬리를 내렸습니다(유근일·홍진표, 2005: 77).

위의 인용에서처럼 당시 운동권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철저한 계급적 관점과 변혁이론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보다 정통적인 맑스주의가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러시아 혁명의 경험과 레닌 사상이 운동진영에 강한 호소력을 지니게 되었다.

맑스주의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급진적 지식사회의 흐름은 민족주의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어 낸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민중적 인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고개를 든 민족적 인식은 한편으로 1980

년 광주민중항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경험과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 소개된 제 3세계론, 반제국주의론 등의 영향으로 인해 1980년대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심지어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계급적 인식과 '민족적 인식'의 대결양상으로 진행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두 인식은 결합되어 있었으며, 1980년대의 민족적 인식의 강화가 계급적 인식을 강화시킨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민족적 인식'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분단의식 재생산의 중요한 기제로 간주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그동안 금기시되어 온 다양한 경향의 맑스주의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진덕규, 1985: 74-75; 강수택, 2001: 246). 이것이 한국의 급진이념 수용의 두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맑스주의 철학이 수용되는 과정은 그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별된다. 그것은 첫째, 헤겔의 변증법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유물론적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기⁹⁾, 둘째, 맑스-레닌주의 원전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시기 그리고 맑스주의를 우리 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방법론이 강조되는 시기인데, 세 번째 시기가 사회구성체를 둘러싼 논의였다(김창호, 1989). "한국 사회운동의 변혁적 인식의 심화가 학술논쟁으로 외화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사회구성체 논쟁은 1980년대 중반, 더욱 정확하게는 83년 말경부터 85년 후반기까지의 시기에 한국의 사회운동이 변혁적 사회운동으로 정형화되어가면서 그에 상응하는 변혁적 이념·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쟁¹⁰⁾이라 할 수 있다"(조희연, 1989: 224).

사회구성체논쟁이 활발히 전개된 데에는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가 되면서 학계 내외에서는 폭넓게 기성사회과학의 위기를 고백 혹은 고발하며 비판적 사회과학의 싹이 트기 시작했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 "당시 학계에서는 한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고, 선진화를 향한 낙관적 전망을 펴는 서구적

9) 김재현(1997: 33)은 한국의 맑스주의 수용과정이 헤겔적 맑스주의 영향이 컸다고 말한다. 헤겔에 대한 유물론적·실천적 독해, 맑스의 토대-상부구조론에 입각해서 현실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획득하는 것을 맑스주의 철학의 핵심으로 파악한 총체성의 변증법 그리고 계급적 당파성이 과학성의 기초라는 루카치의 해석은 맑스주의-레닌주의 수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10) 이 시기에 벌어진 논쟁으로 사회운동권의 C-N-P논쟁과 학계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대(對) 주변부 자본주의론의 논쟁을 1단계 논쟁으로 포괄할 수 있다. 변혁적 인식 및 맑스주의적 방법론 확립에 대한 당위론적 합의를 가져온 1단계 사회구성체 논쟁은, 사회 운동권에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변혁론(NLPDR)의 대두에 의해 '제국주의의 지배' 혹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한국 자본주의 특수성 및 한국 사회 변혁의 특수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하는 2단계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이행해 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논쟁은 사회구성체(혹은 사회유형)의 성격을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사회성격논쟁'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조희연, 1989: 247).

근대화론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이와 모순되게 유교의 충효가치를 강요하고, 분단국 특수성을 강조하며 서구적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의 적용을 거부하는 ‘한국적민주주의론’도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적 독재의 현실과 경제적 사회적 대외의존성 심화, 내부 갈등 격화로 인해 이런 이론과 대학교수에 대한 불신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으며 많은 교수들이 어용교수로 배척되기에 이르렀다”(정성기, 2005). 11)

광주를 경험하면서 지식사회는 ‘지식인은 일차적으로 비판적·해방적·해석적이어서 흔히 정치적인 사람들’이라는 자의식이 확장되었고, 민중의 정치적 소외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평등 문제로 시각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엘빈 굴드너 저, 박영신 옮김, 1994: 12.17, 21; 강수택, 2001: 50-51 재인용). 이는 곧 자본주의 비판론이라는 인식 틀의 확장을 의미하였다.

여기에 더해 광주항쟁으로 인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에 대한 더 이상의 은폐나 정당화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의 제도화된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일련의 사회문제들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던 것이다. 광주항쟁은 학계의 주류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학문위기를 초래하였고 사회구성체 논쟁의 활성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금인숙, 2006: 120). 여기에 1984년 말부터 19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다수의 지하 번역본은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이론 수준을 높이는 데 일정정도 기여하였다. 한편 반체제 지식인, 대학생, 언론·출판·예술인이 양산되었다는 것은 사회구성체 논쟁을 가능케 했던 주체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운동의 해석적 틀의 변화과정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와 달리 운동 조직과 운동지식인(movement intellectual)이 창출해나가는 발현적 특성(emergent qualities)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는 1970년대의 민중론을 보다 급진화한 ‘변혁주체론’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 연구나 계급구조, 정세분석 등이 일반화되고 정치적 실천의 지렛대로 활용되었다. 이후 한국사회 성격규명을 위한 민주주의 논쟁, 파시즘 논쟁, 자본주의 논쟁,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저항, 이를 위한 진보정치세력화 논쟁, 전선 논쟁, 대안으로써의 사회주의 논쟁, 혁명과 개량주의 논쟁, 한국사회 특유의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정립을 둘러

11) 당대 주류학문의 위기에 대응하는 비판사회과학의 흐름은 정성기(2005)의 논의를 참조하라.

러싼 논쟁으로 비화·발전하였다(허상수, 2004: 308).

1980년대 급진적 지식인들과 운동권 내부 논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국자본주의의 독점적 성격과 제국주의 국가-자본에의 종속을 이해하는 문제,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문제와 분석과정에서 방법론적인 문제가 중심에 놓여 있었다. 한편 1980년대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그중에서도 NL주사파의 등장과 자주통일운동의 활성화로 인해 민주화운동과 별개로 느껴지던 상황을 결정적으로 반전시켰다.

2) 단절론과 연속론

1980년대 학생운동의 급진화와 당대 운동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1960-70년대 민주화운동의 패턴(pattern)과는 기본적으로 질적 차이를 갖는다는 단절론¹²⁾과 형식적으로는 대단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과거 민주화운동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다는 연속론으로 구분된다.

‘단절(복원)론적 시각’에서는 198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¹³⁾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던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이념적 조직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주체형성을 모색하고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시기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민주화가 권위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비민주적인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인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지칭한다면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로부터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손호철, 2003)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맥을 잇고 있으나 운동의 이념·가치·수단과 방법·목표에 있어서 이전 시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한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운동의 질적 전환의 계기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로 압축되어 드러났고, 5월 항쟁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바로 1980년 이래 한국사회 모순 해결과 전망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12) 단절론은 엄밀히 말해서 1980년대 나타난 특정한 집단적 현상 즉, 탈자본주의적 사회변혁론의 등장과 운동의 급진적 성격을 강조하는 주장으로서 구(舊) 좌익운동과의 단절을 복원하는 한편 과거 민주화운동의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성격에서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13) 손호철(2003: 5-61)은 민주화를 권위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비민주적 상태에서부터 또 다른 상태인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이며, 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촉발시켜 비민주주의, 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과 행동이라 말한다.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은 한국전쟁 이후 1980년까지의 ‘지배와 저항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실들이 복합되어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이다. 1970년대의 운동의 한계는 첫째, 자연발생적 운동의 한계와 민중에 대한 지도력의 결핍 둘째, 변혁운동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잠재 역량 확인과 양심적 지식인운동의 한계노정 셋째,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부재 등으로 지적되었고, 이는 결국 계급적 당파성,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를 담보할 투쟁노선과 조직노선의 확보,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통일적 인식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조희연, 2000: 1).

한국 사회과학계 연구자나 운동권 다수의 시각은 ‘단절(복원)론적’ 관점에서 1980년대를 평가하고 있다. 단절론적 시각에서는 1980년대가 이전의 시기와 다른 차이점을 급진적 운동세력의 국내적 배경, 발생, 주요과제, 인적구성의 차원에서 찾고 있다.

<표 3> 1980년 광주를 전후한 급진세력의 차이

1980년대 이전	구 분	1980년대 이후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산물	발 생	시대적 산물
지도역량의 보존	과 제	근본적 대안의 모색
잔존한 좌익인사와 소수 학생운동 인자	주도세력	반정부 운동에서 성장한 학생운동과 자발적인 노동현장 진출자들

1980년대 급진화 된 운동권과 이전의 급진세력의 비교를 통해 1980년대 변혁적 운동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60-70년대의 ‘급진적 운동세력’은 경제개발 논리로 군사독재가 태동하고 정착하는 시기에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며 운동의 지도역량을 보존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에 비해 1980년대 ‘급진적 운동세력’은 군사독재가 허물어지고 재등장하는 시기로써, 결정적 기회를 무위로 돌려버린 재야 반정부 운동의 기본 한계에 대한 급진적 반성에서 출발해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다는 것이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자생적 민주화운동 내부에도 변혁적 지하당을 건설함 동시에 민주화운동과 결합하여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안정적이고 폭넓은 결합은 아니었다. 198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노동운동은 소수 선각자의 한정된 투쟁 범위를 넘어서 운동의 조직화·대중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 이전은 한

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단절된 좌익운동의 명맥을 가까스로 유지하면서 향후 진로를 암중모색한 목적의식적 산물이라면, 1980년 이후의 그것은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남한 혁명의 조건과 성격을 전혀 새롭게 인식할 것을 강제 받으면서 비롯된 시대적 산물”(김대일, 1995: 76-77)이라는 것이다.

조희연(2000: 4)은 5.18을 전후한 민족민주운동의 총체적 성격, 타도 대상, 운동의 주체설정에 대한 비교표를 통해 “80년대 운동이 60·70년대 운동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60·70년대 자유주의적 운동의 단계를 뛰어넘어 혁명적 민주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조희연, 2004: 35)”고 보면서 단절론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단절론적 시각은 “특정한 시기에 나타난 특정한 집단적 현상 즉, 탈자본주의적 사회변혁론의 등장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절론적 시각은 1980년대 학생운동의 특정한 경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980년대 이전의 사회운동이 한국전쟁과 5.16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에 기초하기 어려운 조건의 반대급부로 군사적 무력투쟁이란 대안적 가설을 추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념적·현실적 지도를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상정하는 형태였다면 1980년 이후 학생운동의 지도부는 유화조치-개헌정국-가두투쟁-노동자파업 등 일련의 정치적 격변을 통과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앞장서는 전민항쟁을 사고하고 사회주의를 이념적·현실적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연속론적 시각은 5.18 이후 전개된 민족민주운동의 전개는 실질적으로 지연된 시민혁명의 지속 혹은 20세기 후반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부르주아혁명의 한국적 전개였으며, 분단된 국가에서의 근대국가 수립운동의 한 양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첫째, 한국 민주화운동 특히 1980년대 민주화운동도 민족국가와 국민국가의 완성을 궁극적인 과제로 삼고 당면 과제로 권위주의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였으며 둘째,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차원에서 저항세력이 사용한 이념과 언어가 지배자와 동일하게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이념과 언어였으며 셋째, “입으로 말한 것은 과격한 혁명의 구호였지만, 실제의 행동은 철저한 반(反)개인주의와 공동체 덕목으로 충만되어 있었다.”(김동춘, 2001)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저변에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학문전통과 사상사적 기반의 결여, 교조주의적 수용, 이론의 비체계성과 현실적합성 부족 내지 현실 추종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단절론적 시각이 1980년대 급진화 된 운동의 특정한 패턴을 잘 설명해 주는 반면

내부의 다양한 갈등과 차이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보인다면 연속론적 시각은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과정으로부터 초래된 구조적 모순성과 민주화운동 내지 변혁운동의 이념적 고유성을 발견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이행, 공고화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했는지를 고찰할 수 있게 해준다. 단절론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의 특수성을 연속론은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고유성을 발견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단절론은 광주항쟁 이후 급진적 학생운동이 이전의 급진적 운동(사회주의운동)의 단절을 극복하고 자생적으로 급진성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1980년대를 급진적 운동의 부활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대체로 PD적 시각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폐허 속에서 1980년 광주를 거치면서 급진화가 새롭게 모색되었다고 보는데 반해 NL은 통혁당 등 지하당의 보존된 역량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며 급진적 운동의 연속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NL과 PD 일각에서 일고 있는 연속론(NL)과 단절론(PD)이 제기한 이러한 주장은 단절된 혁명전통, 정확히는 일제 강점기 이후 한국(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의 전통,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을 둘러싼 대립이라 할 수 있다.

간고·치열한 노력에 의해 끊어진 혁명전통의 줄기를 되찾았다고 보는 견해(NL적 시각)와 1980년대의 변혁투쟁은 그 이전 어느 시대의 투쟁경험과도 완전히 무관하고 새롭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임을 주장하는 견해(PD적 시각)는 한국 사회성격 규정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북한과 북한정권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상이함을 반영한다.

1960년대 운동과 1970년대 운동이, 나아가 1980년대 전반부 운동이 과연 일국일당주의적 권위를 요구하는 당에 의해 지도된 것인가를 반(反)주사 계열은 의문시한다. 반면, 연속론의 입장에서 있는 NL은 “남북의 혁명전통은 걸어온 길이 다르다고 하여 단절되는 것이 아니며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법도 없다. 민해운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남과 북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여 서로의 연관 속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점을 이해한다면 남북의 역사를 동시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김민수, 1988: 161)”라고 본다.

NL은 1980년대 변혁운동사 및 학생운동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크게 4가지로 제기한다. 그것은 첫째, 절대적 역량단절론적 해석 둘째, 노동운동집중론적 해석 셋째, 재출발론적 해석 넷째, 지도 연속론적 해석이다.

〈표 4〉 1980년대 변혁운동사에 대한 인식

분 류	주 장
절대적 역량단 절론적 해석	한국전쟁 이후 좌익운동의 인적·전략기술적 단절, 1980년대 경제주의에 대한 각성과 정치주의·전의주의·혁명주의 등장.
노동운동집중론적 해석	1960년대 소시민적 민주화운동, 1970년대 과도기적 인민주의적 운동 1980년대 자본주의 발전의 심화와 노동계급의 성장, 노동계급 중심적 운동의 등장
재출발론적 해석	1987년 이전까지 고전과 과학적 이론에 대한 몰이해, 반성과 성찰 속에 서 재출발
지도연속론적 해석	1960년대 이후 남한운동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 온 NL노선이 1980년대 중반에 공개적으로 재등장하여 주류화 되는 상황.

출처: 이창인(2009)

위 표에서 첫 번째 주장은 이전의 운동과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자기 정파가 새로운 전위의 모태를 자처하는 것의 정당화를 보여준다. 둘째 주장은 좌익편향적인 1단계 변혁론의 합리화이다. 셋째 주장은 대중투쟁이 아니라 이념의 발전사를 운동 중심에 놓은 이론지상주의를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주장은 인적·조직적·직접적 의미로서만 지도(指導)를 해석하는 이해의 협소함을 비판하면서 운동이 전체적으로 어떤 '지도사상'에 근거하고 있는가가 시기구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1986년 NL론의 대두 이후와 이전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논리는 상기한 반론과 충돌된다. 대체로 당시 학생운동 중심세력은 1986년 주체사상의 수용을 새로운 전기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노동운동이나 1960년대 좌익운동을 경험하고 직접 참여한 선배 층의 경우 연속론을 강조하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에는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연속론이 우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통일운동 중심단체의 간부로 있는 P씨는 한국의 운동과 북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통혁당 이후에 한민전으로 전환했다가 지금은 반제민전으로 전환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부정할 거냐? '구국의 소리' 방송이 나왔고, 구국의 소리 방송이 중단한다고 해도 인터넷이나 해마다 신년이면 뭐 또, 메시지가 발표되어 왔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통혁당 하부조직 또는 하부조직이라고 부르는 뭐 하어튼 그 어떤 연결조직이 계속 나타났고, 사건이 터졌던 일련의 어떤 흐름은 계속 있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해방 직후부터 해서 어떤 자생적인 조직일 수도 있고, 북과 연결을 갖고 있는 이런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고 공통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지도이념을 주체사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H대 85학번 P씨)

그러나 여러 정황상 1960-70년대 운동진영 내 소수의 좌익그룹은 유신독제의 최후와 함께 소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재야 반정부운동에서 분화해 나온 새로운 세대의 급진적 운동세력에게 자리를 내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의 지도성이 한국사회 운동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3) 1, 2차 급진화의 한계

1차 급진화는 자유주의적 운동지향에서 더 전투적이고 민중지향적인 운동을 지향하는 해석 틀이 등장하고 확산되는 시기를 말한다. 1차 급진화는 1980년대 초중반 유혈적 쿠데타와 국가의 파시즘적 재편과정에서 더욱 강화된 반공 보수주의적 단극구조가 가져온 적대적 갈등을 반영한다. 그것은 “1980년대라는 독특한 지적·정신적 지형, 즉 맑스사상의 지적 인프라가 불비(不備)한 조건에서 당면한 적의 탄압에 대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직면한 운동 주체가 선택한 이데올로기적 산물”(이혜영, 1999: 62)이었다.

〈표 5〉 1차 급진화: 민중적(계급) 프레임의 주요 주장과 문제점

이론적 기초	주 장	문제점
독점자본주의·제국주의에 대한 분석	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최후·최고의 단계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위기론, 세계체제의 현실적 발전과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 부족.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만성과 허구성에 대한 폭로와 선전·선동	도구주의적 국가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만성	현대국가의 자율성 무시, 수동적 존재로 파악.
민중봉기	단절적 이행전략, 기동전략	2단계 변혁론의 한계, 시민사회의 능동성에 대한 인식부족.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	과도기 국가	노동자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식의 탈지자(전위정당)의 분리, 민주주의와 대중참여가 당의 일사 분란한 규율과 절대적 권위에 의해 제약-관료주의화
전위정당	민주집중제	

맑스주의의 특정한 전략의 한 형태인 ‘불세비즘’ 확산이라 할 수 있는 1차 급진화는 관념적 과격성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맑스주의의 한국적 적용의 실패’라는 비판과 도전에 직면한다. 1986년을 전후하여 레닌주의적 급진성(불세비즘)과는 구별되는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반영한 급진성, 반식민지 행동주의적 급진성 즉, 민족해방론이 등장, 상호 경합하는 2차 급진화가 시작된다.

반제통일전선론의 확산은 한국전쟁 이후 운동진영 내부에 상존하던 변혁운동의 단절(복원)론적 해석보다 ‘연속론적 해석’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통일전선론의 확산은 행위 양식과 운동 전략상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통일전선적 혁명론’과 ‘소비에트 혁명론’은 체제의 통제와 관련된 갈등에서 도구적 행위논리를 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지만 통일전선적 혁명론은 생활 세계의 양식과 관련된 표출적 행위논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두 개의 노선이 공히 권력 지향적 전략(power-oriented strategy)을 내포하고 있지만 통일전선적 혁명론은 기존의 가치관과 관행으로서 ‘사회적 정신’ 내지 ‘사회적식(societal mentality)’에 근거해 ‘저항행동의 틀’을 구성하는 한편 정체성 지향적 전략(identity-oriented strategy)을 구사¹⁴⁾함으로써 전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통일전선론은 혁명을 단순히 혁명적 지향을 갖는 계급과 계 세력의 동맹이라는 모델로 사고하던 저항주체론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통일전선론이 정식화됨에 따라 여타 계급 계층이나 세력과의 연합 문제는 단순히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문제로 새롭게 인식(조희연, 2004: 40-44)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의 ‘노학연대’가 ‘계급 중심성’의 문제를 강조했다면 통일전선론은 어떤 목표를 갖고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통일전선론은 불세비키 혁명론의 급진적 변용과 확장, 즉 ‘전략의 한국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었으며 러시아적 현실로 환원되지 않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의 저항성과 역동성을 담아내는 방법론으로 수용되었다.

맑스레닌주의와 달리 반제민족해방론(NL론)은 민족적 에토스를 간직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쉽게 접합될 수 있었다. 분단체제의 “과잉 민족주의적 상황은 한국의 타락한 보수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반감으로 북한의 민족주의적 현상에 우호적인 태도를 창

14) 사회운동이 권력의 문제나 정체성의 문제 중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운동의 특성이나 운동 시기 그리고 운동의 경향성에 따라 어느 한 측면이 강조될 수는 있지만 두 가지 논리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전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전략구성(사)와 관련해서는 조대엽(2005)을 참고하라.

출”하였다. 일반민주주의 차원의 정치적 실천의 제시와 함께 이들이 강조하는 민족주의는 ‘민족 구성원의 단합’, 민족통일국가라는 ‘상상된 공동체’로의 귀속감, 타 공동체가 갖지 못하는 문화적 예외주의를 형성(차문석, 2003)함으로써 과거의 고통과 저항의 집단적 기억을 붙잡아 둘 수 있었다. 한국의 반정부 민주화운동의 궁극적 의미를 민족주의 지평 위에 설정하는 형식은 사실상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 1980년대 들어오면서 민족주의는 하나의 혁명담론의 형식과 내용을 띠게 된다. 일종의 ‘광주 효과’라 할 수 있는데 특정한 계기가 주어지면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반미주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내적 동기를 갖고 있었다(하상복, 2005: 223). 이는 한국에서의 민족주의가 정치적인 지배질서와 동태적인 대쌍관계를 통해 그 성격이 만들어졌고 변화되었기 때문이다(최장집, 1996: 192). 1990년대까지 한국의 역사학과 사회과학은 물론 반체제운동진영에서조차 민족, 민족성, 민족 감정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민족’ 개념은 한국의 역사에서 완전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 내지 그에 준하는 요소로 간주됐다. “한국의 저항운동가들 사이에서는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 두 개의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동일한 세력으로 양자를 결코 배타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이 반체제운동으로써의 남한 민족주의가 갖고 있던 특징이었다고 해도 무방하였다”(김진철, 2004: 212-213). 이러한 배경 뒤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통치, 그로 인한 자생적인 근대 국민국가 형성 기회 상실, 냉전 질서 하에서의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민족주의를 반미구국통일전선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 존재한다(이창언 2008). 역설적으로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구조적 요인이자 통일전선론의 확산과 민족해방계열의 생존과 재생산의 기회구조가 되기도 하였다. 분단체제는 저항주체에게 경향적 반미, 감상적 민족주의, 대북화해주의를 촉발하는 한편 강한 민족국가(강성대국)를 선망하는 민족해방계열의 논리에 쉽게 동의하는 심리적 구조를 제공한다. 낡은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주사파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을 가로막고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차 급진화(민족적)가 맑스레닌주의의 반정립과 비교우위를 수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도 NL론 확산의 유리한 기회구조로 작용한다. 1차적 급진화(맑스레닌주의의 확산)의 기반아래서 반체통일전선론은 항상 CA-PD의 반정립 내지 비교를 통해 노선의 우

월성(대중성, 현실적용 가능성, 구체성)을 입증 받을 수 있었다. 레닌주의가 운동의 정통성과 혁명이론이라는 명분을 통해 확산되었지만 러시아의 특수한 경험, 계급론, 경제우위성 강조, 이론이 갖는 난해함 등 현실적합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정치주의와 행동주의적 요소가 강한 한국 사회운동 정서와는 맞지 않았다. 민족적 언어의 강조와 구사는 지식인과 대학생들에게 맑스레닌주의보다 정서적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는 민족해방론(주체사상)이 구사한 언어가 더욱 '정체성 지향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이창연 2008). 조직-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민족해방계열의 선택은 가능한 행동노선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과 비용, 주체의 능력에 대한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우선 반제통일전선론의 확산에는 운동 목표의 포괄성(breadth), 성공의 정도(degree of success), 다른 집단들과의 연계성 정도, 기존 문화엘리트들과의 대성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혁명적 균중노선과 대중조직 중심, 애국적 사회진출론, 광범위한 연대(야당과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는 최대민주화연합에 근거한 6월 항쟁의 성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었으며 민족해방파의 영향력과 통일전선론을 확산하는 토양으로 작용했다. 한편, NL운동 일각에서의 주체사상 수용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급단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역설적으로 군부독재와 가장 멀리 대척하고 있는 자가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 강렬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공존하였다. 주체사상의 수용은 민중에 대한 죄의식과 같이 개인이 손상된 정체성(spoiled identity)을 회복하는 길이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서 세계를 변혁한다는 자기만족을 얻는 과정이기도 했다.

1980년대 반제통일전선론 확산과 수용은 맑스레닌주의의 한국적 적용의 한계, 운동 주체형성과 재생산 문제, 운동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동기를 보여준다. 이것은 학습을 통한 수동적인 선택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당대 운동가들의 능동적인 선택이자 운동가에게 내면화된 정서와 이념적 지향을 보여준다. 민족주의의 고취를 심화시킨 학교교육의 역동일시 효과와 민족의 재발견을 시도한 현대사 연구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반제통일전선론은 기존의 가치관과 관행으로써의 사회적 정신 내지 사회의식(societal mentality)에 근거해서 '집합행동의 틀'을 구성하였다.

1, 2차 급진화 시기는 사상의 교조주의적 수용, 과학적 민중론·변혁론의 주창, 권력지향적 전략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양 시기를 주도한 주류담론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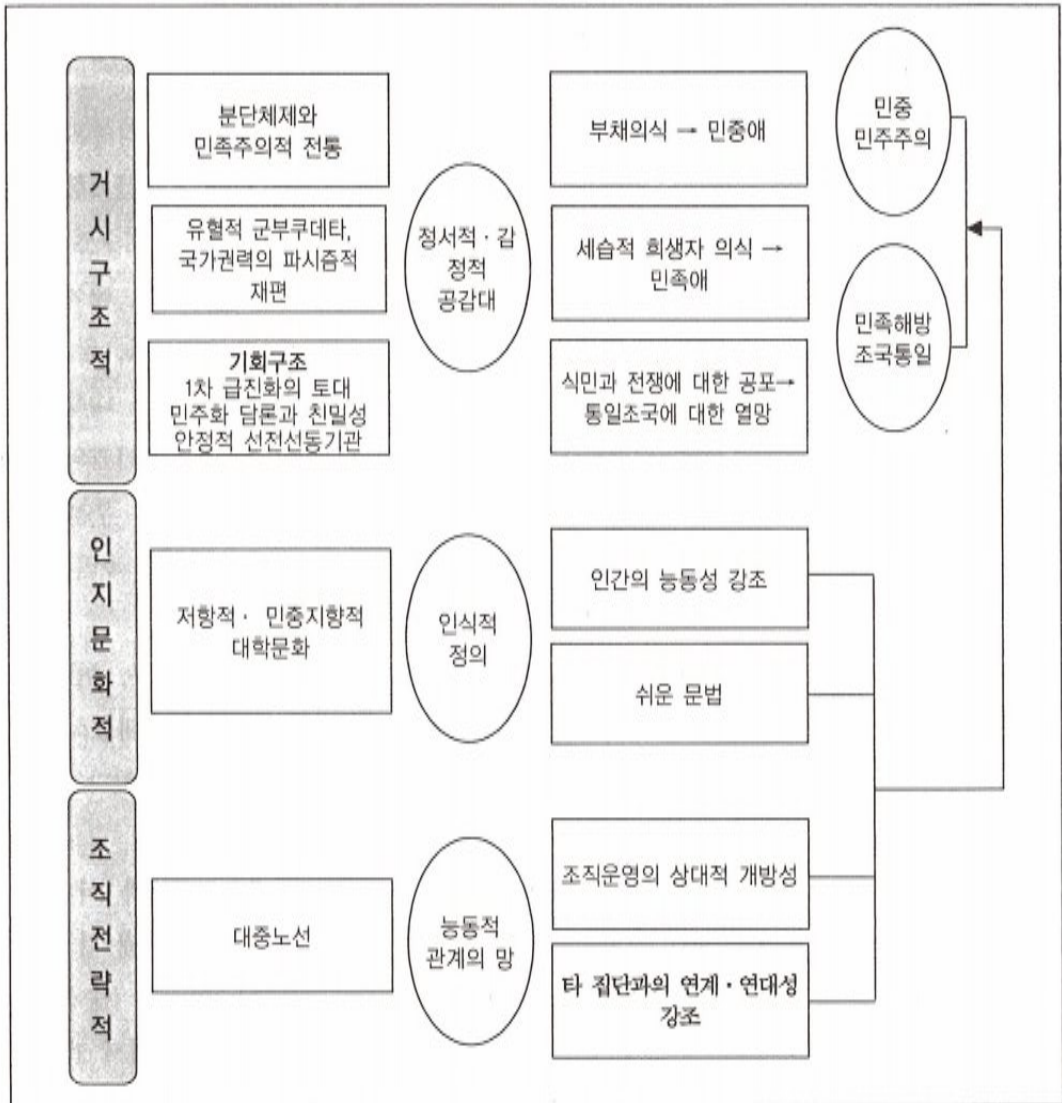
계급적 프레임은 보다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지도가 강조하였으나 198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민족적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중화 전략(정체성 지향전략)을 특화한다.

NL론이 1930년대 이후 1980년대로 이어지는 반제·공산주의 운동의 정통과 명분 강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교조주의 딱지 붙이기, 소련 몰락 이후에도 건재한 북한의 존재 과시 등을 통해 자기 노선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실례를 보여주었다. 안정적인 선전선동 기관의 존재도 NL론의 확산에 유리한 기회구조가 되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적 절대주의와 한민전에 대한 신앙적 믿음, 군부정권 으로서는 결코 검거할 수 없고 이론 전파를 차단할 수 없는 기관의 존재는 내부 분열을 막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안정적 선전선동기관의 존재는 ① 지도사상 보급 ② 한국사회의 제 모순과 부정 폭로 ③ 각계 민중의 투쟁 소식 전파를 통한 투쟁의지 확산 ④ 전략전술 선전을 통한 투쟁양식 동형화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적 균중노선에 기반 한 품성론, 전투적(자주적), 애국적 사회진출론, 현실적인 개량투쟁노선 등이 NL의 주류화의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NL의 대중화 전략의 요소들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급진적 재구축에 부정적 요인이 되었다(이창언 2009; 2011a; 2011b).

주체사상은 주변부 민족주의와 동일하게 저항과정에서 자신의 주변성과 타자성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긍정을 필요로 했고, 긍정을 위해서 민족과 국가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쟁점을 취했다. NL의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의 근대가 가진 모순들이 ‘중층결정’됨으로써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NL 학생운동권 진영은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권 내에서 지배적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강한 원인기제로 작동했던 요인들, 즉 근대에 대한 또 다른 왜곡된 열망이 실은 운동권 내부의 모순과 한계를 규정짓는 선분들로 작동했던 것이다. 한국에서 근대예의 실제적 경험들이 NL에서는 열망과 패배라는 상반된 양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NL 학생운동권 진영에서의 ‘복합적 모순’, ‘중층적 모순’, 혹은 ‘다층적 모순’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이창언 2009).

<그림1> 2차 급진화 : NL론 확산과 주류화



출처: 이창언(2009)

2차 급진화는 금단의 영역인 북한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근대사회구성 질서가 갖는 제약 속에서 작동하는 '적응적 도전'이었다. 시대적 제한성을 인정하지만 주체사상과 한국의 반식민 저항행동은 대안체제와 다원적·다차원적인 저항과 적대, 대안적 사회 체제에 대한 상과 성찰자체를 담지 할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유일사상의 한계)를 가

지고 있었다. 주변부민족해방이념(주체사상)의 수용은 정통성(민족주의/정통이념)이라는 기표의 투쟁을 통해 민족의 적과 운동 내부의 적(타 정파)과의 헤게모니 투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균중노선은 운동 대중화에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주체사상 수용은 민주화 이후 다원적이고 다차원적인 저항과 적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 속에서 운동 기반이 내파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6〉 2차 급진화: 민족적(반미·통일) 프레임의 주요 주장과 문제점

이론적 기초	주 장	문제점
한국사회 식민성에 대한 분석	한국은 미제국주의 식민지 한국 정부는 대리통치 기구	제국주의 절대 규정론으로 한국사회 자본주의에 발전과 한국정치체제의 상대적 자율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 결여.
애국주의와 민족대단결론	민족문제의 해결은 계급문제 해결의 전제	혈통과 언어를 강조하는 낭만주의적, 원초론적 민족이론. 민족최우선주의로서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적대와 갈등 무시
거중적 연합과 전민항쟁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	민족자본가와 같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세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역량편성. 일반민주주의에 한정된 실천.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 / 비판적 지지. 이론에 대한 등한시, 실천활동 강조

출처: 이청인(2009)

IV. 민족해방론 전통의 부정적 효과와 한국급진주의의 재구성

1. 통일전선론과 진보정치체제의 지체

1980년대 중후반 이후 2000년대 초까지 민족해방계열의 주류적 흐름은 최소한 일관되게 합법정당 건설과 관련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합법정당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선운동 보조조직으로 바라보았음을 확인하였다. 민족해방계열의 전략적 동전은 넓은 차원의 연대(야당과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로 최대민주화연합에 근거한 6월 항쟁을 성공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

에도 불구하고 전선 주도성을 강조하는 통전론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을 제약¹⁵⁾하였다. 반미구국통전은 사실상 합법정당 건설의 과제를 부차적인 과제로 만들었다. 동시에 남한의 독자적인 전위당 건설노선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일부 민족해방계열(주사파)이 ‘당 중심성’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외세 지배 하에서 당적 조직이 갖는 제약과 한계(탄압과 개량화)라는 측면보다는 이미 당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고에 기인한다.

“당과 통일전선에 관한 주체주의자들의 기여는 첫째, 통일전선에 관한 문제의식의 광범한 유포와 당에 관한 문제의식의 약화, 둘째로는 노동계급의 독자성의 상실과 통일전선 내 제 세력의 평준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기여는 앞서 언급한 바의 계급이기주의 비판과 “한반도 전체로서 보면 노동계급의 당은 존재한다. 일국일당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또 하나의 당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안 된다” 라는 심오한 명제의 소산이다. 따라서 현 단계 남한에서 필요한 (전위)조직은 당이 아니라 통일전선이라 한다. 나아가 주체주의자들은 그러한 전위조직으로서의 통일전선 역시도 한민전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소리(필자주: 구국의 소리 방송)는 전위조직의 지도가 행해지는 매개이며, 이 소리를 중심으로 단결된 행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기여는 독자적인 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 는 것이다. (필자 미상, 주체시대의 종말 맑스-레닌주의의 비판, 1988.3)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성과로써 국민대중의 민주민권의식은 성장하였고 자주와 평화의지도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군부권위주의는 후퇴하였고 민주화운동과 가까웠던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였다. 대중의 요구는 민주화운동으로 단순 환원되지 않는 환경, 여성, 교통, 복지, 인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민주화 이후 공적영역이 확대되고 경제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갈등전선’이 형성되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고 생산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기본적인기는 하지만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생산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인간행위와 상호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급진주의 운동은 민족국가

15) 1950년대 중반 진보당 창당 이래 끈질기게 진행되어 왔지만 수많은 단절과 실패를 거듭해 왔을 뿐이었다. 실례로 1987년 대통령선거, 1988년 총선, 1991년의 지방의회선거 등에서 노동자계급,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후보의 지지율 및 당선율은 극히 미미하였으며 1992년 3.24총선의 경우는, 민중운동 가운데서 제도적 공간에서의 정치참여를 가장 진지하게 추구하였던 민중운동의 한 세력이 형성한 정당인 민중당이 총 득표율 1.5%를 획득함으로써, 법정 정당 자격요건이 미달되어 해체가 강요되는 결과를 경험하는 등 정치제도권 진입에는 실패하였다. 당시 노동자의 수나 규모, 그리고 그 실제의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은 현저히 낮은 것이었다.

정향적 운동, 차이를 인정하는 운동이 아닌 동일성과 집단성의 원리에 기초한 대중운동 방식을 고수하였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은 미시적 권리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으며 개인의 자율과 이니셔티브를 극대화하기 원하는 의지가 강화된다. 이 과정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가중심, 인간중심, 남성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환경보호,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 이는 갈등 지형, 개인적 욕구, 집단적 행동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상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주동적으로 조용하며 자기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창언, 2007: 89; 2011a).

1987년 이후 대중운동의 성장이 획기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삶의 공간에 튼튼히 뿌리 내리는데 실패했다는 반성이 제기된다. 이후 줄곧 대중적 기반과 대중적 지도집행력의 취약이라는 주제적 한계와 더불어 소련과 동구권 등 사회주의권의 붕괴·김영삼 정권의 등장 이후 변화된 통치방식¹⁶⁾, 다양화된 계급분화현상, 성장한 국민의 권리의식에 조용하면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각성이 전선운동 안팎에서 분출되었다. 한국의 급진주의운동은 내외의 이러한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 안고 시민들 생활 속에 깊이 결합하여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시민운동, 지역운동 등 다종다양한 운동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결집하여 민족민주운동의 양과 폭, 내용을 확대해 나가야 했다. 이는 연합전선 조직의 체제정비와 다양한 대중운동체의 건설, 시민운동과의 연대, 정치조직 또는 진보정당의 건설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심화되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급진주의 운동의 주류였던 NL은 2000년대 이전까지 정치 조직 혹은 진보정당에 대한 상과 건설경로, 선거방침을 둘러싼 그 어떤 혁신안도 제출하지 못하였다.¹⁷⁾ 90년대 이후 NL 내부의 정치조직에 대한 경쟁담론은 아래의 표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NL의 다수는 정치조직 시기상조론을 주창하였다.

16) 김영삼 정권은 집권초기 문민정부는 명분을 앞세워 노골적인 폭력과 강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공세 속에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한 위에서 통치를 해나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17) 1980년대 이후 전선 논쟁의 특징은 민중연합-민주연합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전선(민중통일전선론)과 두 개의 전선 논쟁(민주연합전선론), 독자 후보와 비판적 지지,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민주대연합 등 그 명칭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유사하다. 1987년 이후 통일전선론자들은 현실태로써의 민주대연합(야당과의 연합) 노선을 견지해 왔다. 이들은 전민련 시절에는 합법정당 시기상조론을 주창했다. 이후 전국연합 내부에서는 정치적 국민운동체, 현대적 국민정당건설론, 97년 우리후보 전술이 제출 논의되었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표 7> 정치조직과 갈등적 담론

담론	정치조직 건설론	정치조직 시기상조론	담론
긴급성 (urgency)	전국연합의 왜소화(정치적 대표체 위상 불분명), 대중운동의 성장과 사회정치세력의 분화, 선거투쟁의 의미 증대,	- 평화적 이행을 위한 체제 내적 개혁주의	위험론 (jeopardy)
행동성 (agency)	- 좌경적 편향(전민항쟁)우경적 편향(수평적 정권교체론) 극복 - 준정당적 정치조직 건설(민족민주운진영의 단일정당)→현대적 국민정당건설→ 대선시기 독자 후보 운동추진	- 민중운동의 시민운동화	무용론 (futility)
성공가능성 (possibility)	- 독자적 세력화에 근거한 민주연합→평화적 이행(선거를 통합집권)→다당제를 통한 지속적 변혁추구	- 민주대연합을 통한 정권교체의 실패 - 반미-반김투쟁, 통일전선 조직의 약화	역효과론 (perversity)

출처 : 이창언(2011a)

한국 NL운동의 중심조직이었던 전민련은 물론이거니와 이후 전국연합도 민주 반민주 대립구도라는 낡은 시각을 넘어서지 못했다. 물론 전선운동의 혁신과 정치조직 건설을 위한 내적 논의, 흐름은 형성되어 왔지만 NL 내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저열성과 거부는 이후 전선조직(전민련-전국연합)을 특정 정파의 조직으로 과잉 인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¹⁸⁾ 결국 이중적 민주화에 대한 자기전망의 부재(정치개혁과 시민사회의 재구조화에 대한 자기전망) 속에서 NL식 전선조직은 운동의 구심체, 특히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자기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 정치조직, 진보정당에 대한 고민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이해, 낡은 운동이념 고수, 지역운동에 대한 경험 부재, 시민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NL주도의 전선운동조직은 문민정부 이래 위력 있는 운동체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

운동의 총량은 늘었으나 운동의 위력은 줄어든 상황에 도달해서야 전선강화론을 펼

18) 사실 과거 연합체적 조직은 지역과 부문의 불균등 발전 속에서도 전국적인 사안(반독재민주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투쟁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좋은 수단이 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연합전선체적 조직이 수권을 담당할 수는 없었다. 이미 민주화 이행과 공고화 과정을 거치며 과거 저항전선이 “비정상성에 대한 도전(일반민주주의의 부재)에서 정상성에 대한 도전(차이의 정치, 민주주의의 심화와 급진화)으로 변화(조희연 2004)” 하는 상황에서 전국연합은 전민항쟁 노선에 근거한 대중단체연합의 전략적인 전선체로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담당할 수는 없었다.

———
 컸던 NL 활동가들도 이후 민주노동당에 합류하게 된다(이창언 2007: 85-89). 주지하
 다시피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가 열렸던 2001년 9월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결의된 9월 테제 이후 전국연합 내 민족해방파(주사파 포함)는 대거 민주노동당에 입
 당한다¹⁹⁾. 이는 사회조건과 운동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NL의 현실적(합리적) 선택이
 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월테제로 불리는 이 결의 내용은 진보정당을 독자적이고
 합법적인 정당이 아닌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하위구조로써 의회투쟁의 전선기구로 바라
 본다는 점에서 전선강화론의 변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전국연합은 2008년 2
 월 한국진보연대로 발전적으로 해소되었고 민족해방계열은 통일전선(진보연대)과 전술
 적 통전당(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이라는 체계를 구축한다(이창언 2011a; 2011b).

2. 1980년대 급진주의적 전통의 부정적 혁신과 한국급진주의의 재구성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와 북핵문제는 한국의 진보-좌파운동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통진당 사태는 통합의 과정, 총선, 최근 국정원의 이석기 내란음모 발표(일명 아르
 오)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²⁰⁾

‘노동정치의 실종’으로 비판받는 통진당 총선 전략은 민노당 당권파(NL계)의 진보대
 통합 논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예견되었다. 민노당은 지난해 6월 19일 정책 전당대회
 를 열어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표현 등을 삭제하고, ‘자본주의의 폐
 해를 극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한다’와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한다’
 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계급적 좌파정당의 성격을 상실한 자신의 주된 정체성을 당
 강령에 최종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함께 만
 든 “통진당은 민노당 세력이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계급적 이념면에서는 당 노선을
 (이른바 ‘진보적 자유주의’로 불리기도 하는) ‘혁신자유주의노선’을 채택했으며, 총선에
 서 야권연대와 탈 급진 정당화 등을 추구함으로써 이젠 더 이상 노동자정당은 물론
 진보정당으로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²¹⁾

19) 전국연합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 △민주노동당 강화 △전국민중연대에 힘을 집중해 ‘명실상부한 민중친영 상설적
 공동투쟁체’로 강화 △조국통일과 반미반전투쟁을 위한 통일연대 강화 등을 주요사업으로 결의한다.

20) 통진당 사태는 단지 2012~2013년에 한정된 것이 아닌 민주노동당 창당(2000.1.30)이래 누적되어 온 한국급진주의
 운동 내부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1) 김세균 선생님 페이스북

지난 시기 통진당 선거는 주어진 세계에 쉽게 동화하지 못하는 외부(outsider), 지배적인 가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수자들(minority), 그리고 그 세계에서 추방되거나 배제된 타자들(the others)과 연대의 모색에 반하는 정치과정이었다(이창언 2012b).

통진당 지도부가 추진한 통합과 야권연대(선거연합)는 정당 간 이념적 근접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정책중심 접근’이 아닌 ‘공직획득을 통한 효용 극대화 중심’의 선거연대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선거연합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승리를 위해 공직을 획득하여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실행할 권력을 가지는 데 있다는 점에서 배타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공직의 획득 이외의 진보적 정책과 이념의 실현이라는 선거연합의 목적은 간과되거나 실종되어 버렸다. 또한 경쟁정당(새누리당)과의 적대성이 선거연합 형성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지만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상태와 삶을 변화시키는 진보적 의제의 실현(일례로 비정규직, 사회적 양극화 해소, 탈핵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부족하였다. 선거부정 파문 이후 새로나기 특위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 ▲북한 문제 ▲노동정치 등이 논의되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1) 한국급진주의의 재구성: 북한/평화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교정

통진당 주류는 북한문제에 대한 진보좌파의 입장 표명을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마타도어, NL과 PD 대립(오래된 논쟁), 미제의 진보세력 분열공작의 축적된 결과”라는 식의 ‘위기의 타자화’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3대 세습을 포함한 복핵, 인권 등 북한문제 언급은 ‘어떤 사회가 나쁜 사회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새롭게 만들 것이냐는 것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곧 북에 대한 고립과 남한 지배층의 정당성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한국사회 또한 북한 못지않게 사회적 부와 정치권력이 계급집단 내에서 ‘세습’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권력체계, 진보진영의 오류를 반성하고 극복하는 과제와 관련이 있다. 오류를 인식하는 것은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한국 급진주의는 북한문제에 대한 과도한 보편주의적, 특수주의적(북한 특수성) 접근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 북한 인권을 내세운 미국과 보수주의자들의 정치공세(북한정권 타도만이 인권문제 해결) 같은 단선적·급진적 접근은 문제가 있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을 내세운 진보진영의 인권 침묵(이중 잣대), 북한의 핵

보유 시도에 대해 방어적(핵 자위론), 변호론적 태도도 비판되어야 한다. 이는 제국을 비판하며 제국을 욕망하는 것으로 반전평화에 대한 진보주의적 관점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이다(이창언 2012b).

스탈린주의 내지 그것의 변종인 주체사상에서 “국제관계는 ‘도달되어야 할’ 궁극적인 세계지배 이념(사회주의)을 위해 항상 격돌하는 모종의 것으로 이해되었다. 나아가 국제관계는 정치적 힘(계급투쟁과 민족해방전쟁)을 통해 기존의 모든 구조를 해체하는 방향 속에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경향을 지닌다고 봤다. 따라서 이들에게 평화공존은 세계 혁명(?)의 대의를 위해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고 자본주의로의 퇴행을 막기 위한 전술적 편의사상이었다. 안타깝게도 레닌 사후 세계 영구혁명과 일국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경쟁적인 개념이 충돌하였으며, 스탈린의 정치적 승리는 소련의 목표와 이상을 일국사회주의 전략에 귀속시켰다. 세계 혁명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의 강화는 곧 세계 혁명의 요새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었다. 일국의 국가 혁명 완결이 세계혁명의 상위개념으로 자리 잡고 정치 상부구조 그 자체가 사태의 진행방향을 결정하였다(김성주, 1995: 68-69). 핵무기는 사회주의 조국을 방위하기 위한 자기무력화의 원천이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핵무장과 핵보유에 대한 반대운동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소련의 핵무기 보유는 국제주의, 지구적 평화를 억압하는 계기이자 논리가 되었다. 지난날 사회주의(?)는 국가생존, 사회주의의 중국적 승리라는 논리를 통해 전쟁을 정당화해왔고 더 파괴적이고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만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평화능력을 발전시키려는 점에선 실패해 왔다.

남한의 일부 주변부 민족해방론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에게서도 핵무기를 권력, 안전보장의 기제로서 인식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정의의 전쟁’(just war)을 위한 수단이거나, 최소한 적극 지지하긴 어렵더라도 미국의 핵위협에 대비해 일차적 비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들이 핵독점과 핵 주권의 대결로 해석하고 핵의 불필요성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북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북한예외주의), 주변부 민족해방론자들의 민족주의적 내면성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적 내면성²²⁾은 집합적 내면

22) 민족주의적 내면성은 이종영(2002)의 논의에서 빌려온 개념이다. 집합적 내면성은 인간 동물이 특정한 사회적 위치를 점할 때 인간 종(種)에 고유한 동물적 특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내면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

성이다. 그것은 한 사회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위치나 상황을 점유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는 내면성을 의미한다. 특수한 내면성이 집합적으로 공유되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위치나 상황 속에서 논리적 대응이 공통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적 내면성은 지배 양식의 주체들의 내면성이라 할 수 있다(이창언, 2009: 237).

이들의 북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나 침묵은 식민의 기억으로부터 파생된 ‘세습적 희생자’ 의식이 19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며 확산된 반미주의와 결합하여 강화된, 주변부 민족해방운동론의 독특한 정서(적과 아의 경계가 재구성된-북은 통일의 대상, 미국은 적)를 보여준다. 주변부민족해방론자와 국가 간 상호 경합하는 담론과 실천은 결코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 자본주의 대 반 자본주의’가 아니었다. 그들이 추구한 경합과 공모의 룰(rule)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상속받은 특정한 유산의 제약 속에 있었다. 공모의 특정한 유산은 국가(민족·민중), 가족(아버지·어머니·형제·사회적 말), 전통(공동체)이었고 이러한 유산이 매 시기 담론의 각축 과정에서 재현되고 호명된다. 이들의 저항담론의 심연에는 ‘제국주의는 집합적 유죄이고 악의 표상(친일·친미=비정상국가)’, ‘민중(민족)은 집합적 무죄이며 선의 표상(반일·반미=정상국가)’이라는 ‘세습적 희생자의식’에 기초한 ‘기억과 전선(戰線)의 정치학’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짙게 깔려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주변 민족국가 안에서 상대적 낙후성의 극복을 목표로 한 이전의 근대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의 개혁과 새로운 국가의 건설(강성대국)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이 내면화한 민족주의는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가 말한 “완성된 민족의 세속화된 낙원으로서의 ‘성화(Sakraltransfer)’”를 위한 순교를 요구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하나의 세계관이 될 만한 의미를 만들어 주었다. 민족을 위한 순교는 정당화되었고 집단주의에 반하는 개인은 부정되었다. 차이와 반(反) 정치, 비국가적 실천의 강조는 분열의 전조이자 도전으로 간주되었다(이창언, 2009; 2012b). 이처럼 민족주의적 내면성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관점과 대안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게 한다.

최근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민족-국가주의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기류는 동아시아의 핵무장화에

종영은 부르주아적 내면성, 불세비키적 내면성, 파시스트의 내면성을 다루면서 이 세 가지 형태의 내면성을 지배양식의 주체들의 내면성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내면성의 담지자들이 일정하게 양식화된 지배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배의 내면적 형식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적 교원주의, 교원주의적 내면성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여기서 교원주의적 내면성은 존재의 망각을 거슬러 오르는 것이다.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핵무기주의는 민중에 대한 절대적 파괴와 절대적인 정치적 소외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북한 위협론’은 주변국들에 언제나 좋은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전쟁 유발 요인인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한미일 군사력 증강, 군사동맹 강화가 진행된다.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의 주변부 민족해방론자도 북핵과 평화문제에 대한 주체적 평가와 대응(진보적 성찰성)이 필요하다. 사실, 남북한 핵무장론과 주변부 민족해방론의 북핵에 대한 태도 이면에는 ‘전쟁은 필요악’, ‘강한 국가’, ‘군사주의’를 용인한다는 점에서 모두 “평화의 중심문제”에 대한 기초적 인식의 부재와 평화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구좌파와 주변부민족해방론,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평화운동이 요구된다. 이는 ‘평화의 도구론적 접근’, ‘국민 국가적 접근’, 경제적 논리, 과학기술 맹신주의를 탈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진주의적 저항자(네트워크)에게 평화란 반전평화(反戰平和)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을 싫어하는 것도, 피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닌 비전(非戰)평화다.²³⁾ 이들에게 평화란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정부들 사이에 직접적인 폭력(물리적, 언어적, 심리적)이 부재한 상태 즉, 전쟁이나 무력갈등, 분쟁이 없는 상태(소극적 평화 negative peace)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평등한 기회, 권력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 공평한 법적 보호와 집행을 통해 사회 정의가 보장되는 상태(적극적 평화 positive peace)를 의미한다(요한 갈통, 1999).

비전(非戰)평화는 역사적 진보주의와 근본적으로 인식을 달리한다. 그것은 근대(성), 근대화가 낳은 발전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인지, 근대가 낳은 합리성이 결코 문명의 과정이 아닌 야만적인 살상극이며, ‘전쟁의 근대화’, ‘전쟁기술의 근대화’, ‘전쟁의 산업화’와 동일한 발전과정임을 인식한다(홍성태, 2003). 비전평화주의자들은 국가 또는 국익과 연결된 폭력, 전쟁에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비전평화는 “질서의 수호나 완성이 아니라 질서의 변형을 통해 자기 존재를 획득하는 배제된 자들의 사회적 상상, 현실 권력에 의한 삶의 식민화를 거부하고 배제된 자들의 연대와 실천(직접행동)을 일상화하는 것이다(이창언, 2013 : 144-145). 이는 일종의 자기 확대적 급진화(김성국, 2007)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

23) 비전(非戰)과 직접행동에 관해서는 무카이 켄오의 『폭력론 노트- 비폭력직접행동이란 무엇인가』를 보라.

립과 갈등을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의 침투 혹은 해체를 목표로 하며 자유와 자율의 급진적 확장이라는 가치 지향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은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는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부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도록 노력하는 것.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것. 급진주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은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에 기초하여—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현재의 국가의 정책(평화를 빙자한 전쟁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선하다’, ‘사회는 예측가능하고 공평하다’라는 관념, 사회 안정을 위한 이러한 ‘사회제도들의 권위와 대표성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다. 나아가 시장과 이윤확대, 전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항은 핵무기 철폐, 무기거래 철폐, 스타워즈 계획중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해체 합의, 지뢰생산 중지, 군수산업체의 전환 등 다양한 과제로 표출될 수 있다. 이 중에는 로컬푸드, 식량조합, 인포샵(infoshops), 지역화폐, 공동주택 등과 같은 대안적 제도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부를 노동자가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원칙을 가진 평화운동이어야 한다. 이것은 반(탈)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위한 분명한 방향이다(하워드 에리히, 2003: 18-21). 비전평화운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반전운동 그룹 내의 민족-국가주의적 내면성, 비위계적 구조, 권위주의 요소의 배제뿐 아니라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스케치(대안)가 필요하다. 제국주의 반대와 전쟁의 야만성에 대한 근절, 새로운 사회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반전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기존의 반전운동에서는 없는 요소, 유토피아니즘, 그리고 실현 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다. 평화운동에 평화로운 사회의 스케치가 없다면 이것은 그저 대안 없는 단지 반대만을 위한 운동이 될 뿐이다(이창언 2013b).

2) 한국급진주의의 재구성: 노조-당 관계 모형과 노동정치(노동정치)의 재구성

통진당 사태는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노동계는 대체로 87년 이후 지난 20여년간의 진보·노동정치(1단계)는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지난 시기 배타적 지지-대변 관계 형성이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을 대표적 진보정당으로 만드는 등 양적 성장에 기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과 대중조직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정당조직과 대중들이

직면한 절실한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대중조직 간의 배타적 지지-대변 관계의 형성은 진보정당을 대중조직의 불모로 만드는 동시에 대중조직을 진보정당의 불모로 만들어 버렸다. 지난시기 “민노당(또는 통진당)은 민주노총의 정치대리기구로 전락했고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의 물적 동원부대로 퇴락(자판기와 전달 벨트-전달 벨트)로서의 노조, '고충처리기관'으로서의 당했다”는 것이다.

최근 노동운동과 좌파진영 내에서는 통진당 사태가 근본적으로는 '진보정당의 우경화', '부르주아 해계모니로의 포섭'으로 보면(거시적인 구조변동과 전체 진보세력의 전략적 실패에서 그 원인 찾아야 한다는)서 근본적 해법을 찾으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정치의 왜곡과 굴절은 의회주의, 양날개론의 공유, 그리고 '반신자유주의 프로젝트'가 아닌 '민주대연합'을 '민주화 프로젝트'의 핵심 의제로 설정(노중기 2012)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노동자 정당 혹은 진보정당 운동을 일컫는 개념으로 축소되어 사용되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진당 사태는 노동정치의 세 가지 전략적 과제(산별노조건설과 비정규노동 문제, 노조-정당관계의 재구성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치의 이념과 노선의 재구성)의 장기적 구현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다시 묻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 과제는 민주노총 차원의 '대선 대응'과 '새로운 노동자 정당 창당' 못지않게 노동정치의 <주체> 노동정치의 <토대 구축>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가 중심과 가치(반, 또는 탈자본)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어떻게 세력화되는가, 즉,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토대 구축>과 관련하여 전위나 활동가들이 아닌 노동대중의 중심성을 세우는 문제와 함께 이념의 후퇴, 종파주의 해악, 의회주의, 대리주의, 물량주의를 넘어서는 강령의 문제, 하부단위에서부터 다양한 사회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실천의 문제(의회정치와 노동운동, 경투와 정투, 현장과 지역의 결합)를 풍부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계급노동정치를 노동조합과 작업장이라는 협소한 공간(관점)을 넘어 사회적 삶의 공간 전체(소비, 문화, 복지, 주택, 주거환경, 교육 등 일상생활과 지역의 다양한 문제)로 확장시키는 이론-실천적 논의가 심화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조직은 새로운 지역정치와 진보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정보화, 서비스사회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서비스 노동자와 노동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새로운 진보적 연대의 방안, 나아가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소비대중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 낼 담론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급 내부의 다양한 분화를 포용하고,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과 차별(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제도(다양한 공공복지제도, 노동자 연대 기금,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구상이 필요하다. 새로운 노동정치는 기존의 조직노동자 내부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이창언, 2012b).

3) 한국급진주의의 재구성: 진보좌파의 주체형성: 연대성과 공감의 급진주의

통진당이 분당된 이후 당내주류파의 행보는 진보정치의 위기의 원인과 진보정치가 지향할 급진성과 연대성에 대한 이해, 실천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진정으로 혁신 재창당, 또는 진보의 재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재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천명해야 했다. 그것은 북한식 모델 또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포함한 배제된 자들의 민주적 동맹이라는 연대성의 정치로 정체성을 재구성하려는 실천의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반제통일전선론 또는 그 아류인 반(反)박근혜 민주대연합(친민주당 야권연대)이 아닌 적·녹보 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급진적 노동-민생정치, 지역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로의 급진적 변화와 대중적 역동성의 접합을 시도하는 강력한 실천의지, 반(反) 또는 탈(脫)자본주의에 입각하고, 과거의 저항성과 새로운 저항성,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접합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시장의 사회화를 위한 대안전략의 모색과 실천의지이다(이창언, 2012b).

한국급진주의의 이념과 노선의 재구성은 진보적 성찰성에 기초하여 '운동의 급진적 상상력'과 '대중적 역동성의 접합'을 통한 민주적 경합공간의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진보좌파의 새로운 도전은 조희연식으로 표현하면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통한 사회적대의 제도 정치적 표출이 가능한 새로운 민주적 경합공간의 창출하는 것" 이어야 한다. 포스트민주화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동맹(반제통일전선 또는 민주대연합이 아닌 적·녹보 동맹)을 기본으로 급진적 노동-민생정치, 지역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로의 급진적 변화와 대중적 역동성의 접합을 시도해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이 더 많이 논의

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한편, 진보좌파의 위기는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안을 관철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신뢰, 실천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적 급진주의의 재구성은 삶의 현장에서 한국정당정치의 후진성, 민주화의 역설, 신자유주의의 위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등한시해온 실천(현) 가능한 민주주의, 사적 영역에서의 행복과 양립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와 가치가 상실된(존재와 무관하거나 계급적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가득한) 시대, 새로운 급진주의는 대중과 더불어 진보하는 성숙한 진보가 “밭 딛고 선 지역에서, 생존의 최전선에서” 다시 이어져 나가야 한다.

한국적 급진주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분리와 자립이라는 목표를 갖되 자유주의자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반(反)신자유주의투쟁의 복합적 실천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은 ‘배운 자의 언어가 아닌 인민의 언어로 이야기 하는(방식), 소통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적 급진주의의 재구성은 앞 장에서 언급한 ‘위기론의 타자화’ 극복과 ‘위기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진보적 성찰성에 기초한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반제적 급진주의 전통을 계승한 통진당의 오류, 한계를 반면교사로 삼되, 그들만의 문제로 환원시키지 말아야 하며 진보좌파의 실패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반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도덕성 회복 등 내부 혁신과 통합적 리더십 구축과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급진주의적 가치와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실, 한국급진주의의 위기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전개된 운동의 내재적 위기, 즉 권위주의 시기 운동의 한 주기를 끝내고, 민주화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히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기(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신세대 논쟁, 소비문화의 확산, 신자유주의적 프레임이 전면적으로 수용된,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민주정부에 대한 실망과 회의로 나타났으며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담론,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회의와 도전이 나타나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심화된 위기라고 할 수 있다(문장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급진주의의 재구성은 “우리시대의 근원적 모순과 만나는 시작”에서 출발하되 지금까지 확대 재생산 논리에 기초해서 민족과 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철학적 진보의 개념을 완전히 재구성하자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진보정치운동은 80~90년대 진보담론의 퇴행성, 즉 논리적 빈곤과 현실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며 스스로 기존의 관성적 인식과 실천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동시에 진보정치의 과정과 행선지가 무엇인가, 배제된 자(사회적 약자들)와 어떻게 함께(주체화, 조직화, 정치화)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구체성을 띤 논의와 실천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의 진보(80년대식)는 “모든 총괄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총체주의, 어떤 정해진 목표가 있고 그걸 향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날이 오면 식의 사고방식과 여기에 우선순위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 정치·경제적인 접근과 민족이나 계급에 의존하는 패러다임을 쓴다는 것, 일상적인 문화와 정치경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것, 진보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의 확대 재생산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복수의 진보가 추구하는 진보성은 기존의 권력화된 지배가치의 대립과 초극, 기존의 제도화된 실천방식과의 차별적 초월,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이념의 근본성과 공유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복수의 진보’를 강조하는 녹색진보의 가치²⁴⁾에서 우리시대 진보개념의 재구성에 모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녹색진보와 복수의 진보는 일상생활에 정치·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혁명, 민족, 민주 등의 추상적인 신화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의 영역, 하찮지만 견고하고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이어지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당연하고 무기한적 삶(임지현 2011)이 갖는 정치성을 강조한다(이창언 2012b).

V. 마치며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적 자본 지배의 형태가 강화되는 한편 이에 대응하여 민주주의 전선을 급진적으로 재구성하는 다양한 실천이 시도되고 있다. 동시에 현실의 민주주의는 부단히 자본 권력을 포함한 현실의 다양한 권력에 의해 포획·제한되고 있다.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은 외재적 권력이 아니라 내재적 권력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조희연, 2011).

24) “녹색진보가 지향하는 가치는 기존의 지배 이념 및 가치가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고, 그 대안으로서 자연 생태계가 함축하고 있는 가치, 즉 개발에 대비되는 보존, 중앙집권에 대비되는 분권, 차별에 대비되는 평등, 물질에 대비되는 영성, 소유에 대비되는 공유, 폭력에 대비되는 평화, 착취에 대비되는 호례를 강조한다. 그래서 인간내의 상이한 계층, 집단, 지역 간의 구분, 인간과 생태종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경계 모두를 가로지르는 가치의 공유성과 범용성을 제시한다(환경과 생명, 「최대 진보의 재구성」, 『환경과 생명』, 42호, 2004, 환경과 생명사 참고).”

운동적 차원에서 본다면 1980~90년대 운동권을 풍미했던 불세비즘과 주체사상에 대한 열광도 약화되었다. 과거 좌익 독재가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반민주주의적·반환경주의적 국가로 타락해버린 현실, 노동운동이 신좌파 운동과 효과적인 정치적 연합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맞이한 글로벌 신자유주의는 급진주의 운동의 방향에 일정한 혼란을 조성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역사의 종말 또는 급진주의적 기획의 패배로 선불리 규정짓기도 한다.

해답 부재의 상황, 세계사적인 거대 전환 상황은 당대의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자기 정립을 요구했다. 특히 급진주의와 민주주의의 재구성, 대안 행동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진보 진영(학계 포함)에서 새로운 급진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과 이론화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진보와 민주주의는 자의적이고 속류화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논쟁 과정에서 진보 진영의 보수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이창언, 2011).

그러나 좌절할 이유는 없다. 위기는 때론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가사회주의의 붕괴와 질차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은 비(非)국가, 비(非)노동자 계급적 저항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한편, 과거 급진주의 운동론에서 배제되거나 억압되어온 아나키즘과 같은 논의들도 재성찰되고 재주목될 기회(조희연, 2004)와 응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다양한 급진주의적 실험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급진적 전유뿐만 아니라 생태주의와 페미니즘 등 새로운 급진주의와 배제된 자들과의 소통과 연대 전선의 구축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급진주의 운동의 역사는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부단한 자기 변화와 혁신의 과정이었다. 그러한 과정은 대부분 현실 변화가 강제하는 것으로, 저항으로 쟁취한 현실이 대립물로 전화하고 그 대립물이 새로운 투쟁 과제가 되는 변증법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현 가능한 이상으로서의 급진주의는 변혁적 낙관주의에 기초한다.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 그리고 끝없이 가능한 자기 성취의 상태다. 따라서 이 글은 급진주의가 언제나 되어감(becoming)의 상태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급진주의의 과거와 현재를 계승과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 글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리고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 급진주의와 사회운동을 살펴보면서 과거 급진주의적 사회운동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왜 발생했는지, 그 지점을 찾아내고자 했다. 과거 급진주의 운동에 대한 임상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은 먼저 변화된 상황과 조건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구체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성찰과 상호부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보다 급진적인 사유의 틀이자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적 급진주의 운동의 새로운 급진성이 ‘일상의 민주주의’, ‘지구적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상상력의 확장과 실천적 연습은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 이는 과거의 급진주의와의 단절이 아닌 급진주의의 존재론과 새로운 급진성의 지속적 연관성의 차원에서, ‘쫓겨난 자’들의 급진성과 역동성을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쫓겨난 자들’은 개인의 실존적 곤경과 사회적 세계의 공동체적 견인력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역동성, 다시 말해 고독과 연대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역동성을 예민하게 탐구한다. 이런 갈등은 변증법적으로 통합된다. 실존의 고통과 고독함에 대한 인식하에서 동료애나 동지애가 구축되는 것이다(쉬한, 2003).

새로운 급진주의는 ‘근대성’, 성장과 발전주의를 내장한 과거의 급진적 사회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 새로운 삶의 양식에 관한 관심의 고조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제도 개혁으로 국가, 시민사회, 경제사회의 상호 균형과 공존을 모색하는 온건 시민운동의 제한적 급진주의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제한적 급진주의는 제도화된 현대사회를 자본주의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국적 급진주의의 재구성은 ‘자기 확대적 급진화’를 지향(김성국, 2007)해야 한다. 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에 의한 국가의 침투 혹은 해체를 목표로 자유와 자율의 급진적 확장이라는 가치 지향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급진성은 “질서의 수호나 완성이 아니라 질서의 변형을 통해 자기 존재를 획득하는 배제된 자들의 사회적 상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도로 국한, 포획하는 현실 권력의 지배와 위계를 해체하는 것이며, 현실 권력에 의한 삶의 식민화를 거부하고 배제된 자들의 연대와 실천(직접행동)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급진화,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한국적 급진주의의 실천과 적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체제의 불완전성과 결함, 비인간성을 구성하는 각종 불평등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자본의 식민화 영역의 확대라는 지구화 시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는 급진주의의 원칙은 먼저, 주어진 세계에 쉽게 동화하지 못하는 외부자들(outsider), 지배적인 가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수자들(minorities), 그리고 그 세계에서 추방되거나 배제된 타

자들(the others)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급진주의적 연대성은 소수성(지향성)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국가·민족주의와 남성 중심의 시각과 ‘민주화 담론’ 등과 같은 주류 중심의 관점으로부터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급진주의는 남성 중심적 시각, 가치관, 조직 양식, 문화 등에 의해 여성성이 어떻게 왜곡되고 침묵 되었는지를 해명한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속에서 작동한 젠더, 사회운동이 행한 젠더 정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상징 정치의 과정에서 국가-민족주의와의 공모를 통해 배제된 여성성에 주목한다(전희경, 2000; 이창언, 2009 재인용). 한국적 급진주의 두 번째 원칙은 ‘민주성’이다. 이것은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정치적 민주주의(political democracy)와 조직 내의 민주적 관리를 의미하는 조직 내적 민주성(organizational democracy)을 넘어서는 더욱 확장된 개념의 민주성이다. 기존의 민주성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는 대응성(responsiveness)의 확보 및 책임 행정의 구현을 의미하였다면 새로운 급진주의가 견지하는 민주성은 관리가 아닌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지향하며 소수성을 보장하는 것을 강조한다. 아직은 낯선 만남의 과정이지만 ‘하나의 진보-민주주의’가 아닌 ‘복수의 진보-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시민권 확보를 시도해야 한다. 새로운 급진주의는 ‘배제된 자’에 적대적인 ‘포함된 자’와의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한 급진성은 삶의 모든 국면과 연관성을 가지며, 자유, 자기 결정, 개인적 책임, 직접행동, 그리고 자발적 행동의 창조, 상호 보완성 등을 강조하면서, 통찰력과 신축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조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며, 세계를 개혁할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작용한다.

새로운 급진주의 운동은 ‘다원성’의 원리를 견지해야 한다. 한국의 급진주의운동은 확장된 가치 지향에 기초하여 기존의 시민운동 단체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소규모의 공동체 운동, 자유 생태 학교의 운영, 상호부조 조직과 협동조합의 설립, 작업장에서의 자주 관리 운동, 각종 문화 운동 등을 독자적으로 시도(김성국, 2007)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신자유주의적 지배력의 틈새와 국가와 시장 ‘사이·너머의 여백’을 활용하여 식민화된 지역을 ‘재(re=again+new) 지역화’하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진다. 지역에서의 자율적 삶의 장이라는 급진적 이상의 복원과 창조는 자본-임노동이라는 대립 틀을 넘어선 관계의 재구성, 확장된 관계성(relationship), 즉 대상-인간과 인간, 제도와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시공간-과 맺는 급진주의 운동의 관계의 깊이와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급진주의는 국가-자본 권력의 결과들에 반대하는 바탕에는 권위와 복종의 수많은 관념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자유 지상적 원칙이 깔려 있다. 이런 원칙의 힘은 흔히 비정치적 형식들로, 특히 미학의 영역에서 표현되곤 한다. “내가 장단 맞춰 춤출 수 없는 혁명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회적 제약 및 위계 구조, 강제된 사회적 분업의 심리적 형식들에 대한 거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따라서 아나키즘의 투쟁은 다소 무겁고 권위적인, 기존의 조직 중심으로만 주체를 환원하는 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촛불집회, 희망버스, 윌스트리트 점거(1%에 맞선 99%의 투쟁, 점거하라)에 에서 나타난 배제된 자들의 연대에서 이는 잘 드러나고 있다. 급진적 저항과 연대는 원자적 개인을 사회적 개인으로, 수동적 존재를 능동적 존재로, 절망의 늪에 빠진 나약한 존재들을 구조적 악에 대항하는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공동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대중의 수평적인 만남과 직접민주주의적인 토론을 통한 대중의 감성적 공감, 그리고 집단적인 지혜가 상승 작용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으로서의 아나키즘의 급진적 상상력과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다.

한국적 급진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참된 만남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믿음, 경쟁의 원리가 아닌 사회연대와 공공성의 원리가 정착되는 사회, 배제된 자들, 절망하는 자가 아닌 희망을 품은 자들의 새로운 공동체(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정신 위에 건설될)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구조적 분석과 근본적 변혁을 기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의 급진주의가 견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급진주의운동은 성장주의와 생산력주의와 소비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 비판을 기반으로 한 생태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날카로운 대립자이자 희생자인 노동의 접합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새로운 급진주의는 자연이 곧 인간의 지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과거 급진주의와 차별화된다. 그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화, 계급화와 위계 구조 그리고 이들 사이의 지배-피지배라는 사회적 환경이 환경 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여기서 자연은 생태계의 법칙에 따라 변화성, 복잡성, 상보성, 자발성을 향해 변증법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과정에는 참여와 진화라는 기본 원리가 작용한다. 이러한 기본 원리에서 참여 자치의 공동체와 생태 친화적 도덕 경제의 실천 문제가 나온다(방영준, 2006).

새로운 급진주의는 과거 급진주의와 달리 ‘지속 가능성’을 중심적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생태학적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불안한 미래에 대응한 개념으로서

생태-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관통되어야 하는 원리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윤의 논리에 맞서 생태적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반자본주의적 삶의 양식과 행동이 강조된다. 새로운 급진성은 지속 가능성이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높은 반응성과 행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합의 형성 및 실행과 책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새로운 급진주의는 대안 없는 급진주의라는 비판은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것은 권위적 질서를 거부하지만 도시의 의사결정에서 참여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산출만큼이나 과정에 관한 것이며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initiative), 국가 정책의 변화, 국제 협력을 위한 공동행동을 시도한다. 새로운 급진주의는 구조와 개인 사이의 역전된 관계에 탄식하기보다는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혁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더욱 잘 개발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것은 다양한 주체, 인식, 수단, 방향, 방법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사회적인 역량과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얻어질 수는 없다. 지속가능성은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높은 반응성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형성 및 실행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사회적 능력(social capacity)에 달려 있다(Savitch, 1998). 과거 급진주의의 실패는 대안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안을 관철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 신뢰, 실천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포스트 민주화 시대 급진주의 운동의 도전은 탈자본주의에 입각하여 과거의 저항성과 새로운 저항성, 제도적·구조적 전략과 문화적 전략,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접합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시장의 사회화를 위한 대안전략의 모색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조희연, 2011; 이창언 2012, 2013a).

<참고한 문헌>

김동춘, 1997,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학술단체협의회 편,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1』, 당대.

김승호, 2012, 「민주노동당의 총선대응과 정치세력화-평가와 방향」,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21.

김창우, 1992, 「민주대연합과 통일전선운동」, 두리.

노종기, 2010, 「한국 노동정치와 국가 프로젝트 변동 : 이명박정부 노동통제전략에 대한 해석」, 『산업노동연구』 제16권 제2호

반미청년회, 1988, 「조직·조직운동에 대한 약간의 고찰」, 『자주언론 혁신』 6호.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2007, 『한국 노동정치/진보정당운동 자료집(1985~2004) - MAP/ 조직해설』.

양난주, 1994, 「북한 조선노동당에 대해서도 자주적이어야 한다」, 『월간 사회평론 길』 1994.9월호.

오세철, 1991, 「계급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사회평론』 9호.

윤상철, 1997,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 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민정구 편, 1987, 『통일전선론』, 백산서당.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1993~1997, 『전국연합통신』.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2001,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 자료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2001,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를 맞는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방침에 대한 해설서」.

성공회대학교 출판부, 2000, 『한국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구조』.

이광일, 2007,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건설과 해소」, 『한국 정치와 비제도적 운동정치』, 한울아카데미.

이숙경, 1994, 「맑스주의의 전화」 논의와 노동의 중심성, 『진보』, 동권 8호, 민맥.

이주현, 1991, 『한국 전위조직운동사』, 동해.

이창언, 2007,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을 기억하며」, 수원사랑민주청년회 동우회, 『12년의 발자취를 찾아서』.

일송정 편집부 편, 1990,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강수택, 2001,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삼인.

강신철, 1988, 『80년대 학생운동사: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형성사.

구범모, 1988, 「좌경의식화의 배경과 이념적 기반」, 『신좌파운동의 국제적 비교와 한국학생운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정원, 2007,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종합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1~VI).

국제사회주의자들(IS), 1995, 「민족통일 논쟁에 붙여」, 『사회주의 평론1』.

-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 권형철, 1990. 『한국변혁운동논쟁사』, 일송정.
- 그날 편집부, 1989. 『변혁과 통일』, 그날.
- 김인숙, 2006.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에서의 오리엔탈리즘: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을 중심으로”, 『담론 201』 9(3).
- 김 근, 2007. “진보-생존을 위한 전략”, 『문학과 사회』 78 여름호, 문학과 지성사.
- 김 원, 1999.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이후.
- 김도종, 1992. “한국학생운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회과학연구』 3집.
- 김동춘, 1993. “80년대 이후 한국 맑스주의이론의 성격변화”, 『창작과 비평』 제 21권 제 4호.
- 김동춘, 1998. “90년대 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황해문화』 10집.
- 김성국, 2007. 『한국의 아나키스트』, 이학사.
- 김영수, 1989.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의 모색』, 백산.
- 김용기·박승옥 엮음, 1989. 『한국노동운동논쟁사』, 현장문학사.
- 김창진, 2004.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1980년대 한국 지식사회의 반응”,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 읽는 책.
- 김창호, 1989. “한국사회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구체화와 주체사상의 제 문제”, 『한국민중론과 주체사상과의 대화』, 풀빛.
- 김태호, 1990. 『90년대의 도약 청년학생운동』, 조국.
- 녹두출판사, 1989. 『권두좌담: 89년 민족자주화운동을 전망한다』, 『애국의 길 1』, 녹두.
- 류근일·홍진표, 2005. 『지성과 반지성』, 기파랑.
- 문병형, 1988. “쁘띠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서의 비판이론의 한국적 수용”, 철학연구회 편, 『철학연구』 제 24집 겨울, 천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선인.
- 박광주, 2006. 『한국정치의 전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반미청년회 편, 1989. 『애국민주운동론』, 녹두.
- 반미청년회, 1988. “조직·조직운동에 대한 약간의 고찰”, 『자주언론 혁신』 6호.
- 반제청년동맹, 1989. “〈세대〉 편집·배포에 참여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주체기치』 4호 1989,12,4.
- 반제청년동맹, 1989. 『주체기치』 2호 1989,7,29.
- 방영준, 2006. 『저항과 희망, 아나키즘』, 이학사.
- 서영표, 2012. “한국진보정당운동, 길을 묻는다”, 《레디앙》 9월 15일.
- 서중석, 1997. 『1960년대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집.

- 손쉬한 저, 조준상 옮김, 2003, 『우리 시대 아나키즘』, 필맥.
- 손호철, 2006, 『해방 60주년 한국정치』, 이매진.
- 안식(1993), 『현대화, 혁신 그리고 연대』, 나라사랑.
- 안토니오 네그리 저, 정남영 옮김, 2004, 『혁명의 시간』 갈무리.
- 앤서니 기든스, 올리히 벡, 스콧 래쉬, 1999, 『성찰적 근대화』, 한울.
- 앤소니 라이트, 2003, 『사회주의 이론과 실제』, 김유 옮김, 인간과사회.
- 요한 갈통(1999),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 이상호, 1989, 『학생회 운영의 원칙과 방도』, 대동.
- 유동렬, 1996,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다나.
- 유병진, 1992, 「고민하는 학생운동의 사회 진출」, 월간사회평론 길, 『사회평론』 92집 3호.
- 은수미, 2003, 「의식화조직, 사회운동, 그리고 대항이데올로기: 70, 80년대 학생운동의 소규모 의식화 조직을 중심으로」, 김진균 편저.
- 은수미, 2004, 「전선운동, 저항담론, 그리고 사회관계」,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 이광일, 2003, 「한국의 진보정치운동, 시도의 양상과 좌절」, 김진균,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학』, 문화과학사.
- 이매뉴얼 윌러스틴 외, 『반체제 운동』, 창작과 비평사, 1999; 이매뉴얼 윌러스틴, 『자유주의 이후』
- 이창언, 2009, 『한국학생운동의 급진화에 관한 연구: 1980년대 급진 이념의 형성과 분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학위논문.
- 이창언, 2011, 「포스트 민주화시대, 급진민주주의 기획과 민주주의 좌파의 과제: 급진민주주의 리뷰 (데모스 1: 민주주의의 급진화)」, 《데모스 2: 연대성의 정치학》(데모스미디어, 2011), 『경제와사회』 통권 제91호.
- 이창언, 2011a,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정치조직 논쟁: 반제 통일전선 전통의 복원과 정치세력화의 지체」, 『기억과 전망 24』, 2011, 여름호.
- 이창언, 2011b, 「민족해방(NL)노선의 확산과 진보정치운동의 지체:거중연합(居中聯合)과 전민항쟁노선이 낳은 진보정치의 지체와 왜곡」, 조현연 외 『한국진보정치의 역사와 쟁점』, 한울아카데미.
- 이창언, 2012a, 「4.11총선과 진보정치의 위기」, 『공동선』104호, 공동선.
- 이창언, 2012b, 「4.11총선 이후 진보정당 정치의 위기와 진보좌파의 과제」, 『진보평론』 제53호.
- 이창언, 2012c,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 평가 & 진보 재구성」, 레드앙(2010.06.26)
<http://www.redian.org/archive/7216>
- 이창언, 2013a, 「한국의 급진주의적 사회운동과 아나키즘」, 『지금, 여기의 아나키스트』, 이학사.
- 이창언, 2013b, 「남북한 핵무장론에 대한 비판과 비전 평화(非戰平和)운동의 과제」, 『진보평론』 제57호.
- 이현대, 2012,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새로운 모색,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사회운동』 통

권 107호

- 이후 편집부, 1998,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1·2, 이후.
- 일송정 편집부 편, 1988, 『팜플렛 정치노선』, 일송정.
- 임지현, 2011, 『이념의 속살』, 삼인.
- 장훈교, 2011, 「사회운동정당: 사회운동과 정치정당의 접합을 통한 민주주의의 급진화」, 《데모스: 급진 민주주의리뷰》 제2호, 도서출판 데모스미디어.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1988,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 준비과정과 전망」, 『내 사랑 한반도여 민주 노조 물결처라』, 사계절.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991, 『전대협』, 돌베개.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동우회 편, 1994, 『불패의 신화: 전대협이야기6년사』, 두리.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1989, 『제2차 정기중앙위원회자료집』.
- 전명혁, 2007, “1987년 전후 비합법 정치조직”, 정해구 외, 『한국 정치와 비제도적 운동정치』, 한울 아카데미.
- 田富久治, 1987, 「현대의 통일전선과 선진국혁명」, 민정구 역음, 『통일전선론』, 백산, 1987, 282.
- 전희경, 2001,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학위논문.
- 정경연구소, 1986, 『좌경- 그 실상과 음영』, 정경연구소.
- 정영태, 2011, 『파벌(민주노동당 정파 갈등의 기원과 종말)』, 이매진
- 정해구, 1988, 「통일전선에 대하여」, 연세춘추기획부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쟁점』, 세계.
- 정해구, 2007, 『한국 정치와 비제도적 운동정치』, 한울아카데미.
- 조대엽, 1995, 「한국의 사회운동과 조직유형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87-1994」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대엽, 2000,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
- 조대엽, 2002, “386 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임희섭 외,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 조대엽, 2007,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민주화운동의 급진적 확산: 반미주의의 분화와 대중화 전략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21-4.
- 조현연, 2009, 「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 연구: 정파·제도·리더십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조희연·이창언, 2013, 「대안정치성의 접합경쟁, 안철수 현상, 이정희 효과: 진보적관점에서 본 2012년 한국대선 평가와 그 비판적 함의」, 『경제와 사회』, 97호.
- 조희연, 2004, 「저항 담론의 변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 담론과 민주주의의 동학』, 함께읽는책.
- 조희연, 2011, 「포스트 민주화 시대의 진보와 민주주의 좌파의 정치학」, 『급진 민주주의 리뷰 데모스:

- 연대성의 정치학』, 데모스.
- 조희연, 1990.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 조희연, 2004.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아르케.
- 조희연, 2011a. 「한국적 ‘급진민주주의론’의 개념적·이론적 재구축을 위한 일 연구」, 『급진민주주의리뷰 데모스- 민주주의의 급진화』, 데모스.
- 조희연, 2011b. 「포스트민주화시대의 진보와 민주주의 좌파의 정치학」, 『급진민주주의리뷰 데모스- 연대성의 정치학』, 데모스.
- 조희연, 2012a. 『민주주의 좌파, 철수와 원순을 논하다』, 한울아카데미.
- 조희연, 2012b. 「지역주의의 뒤틀림 & 통진당 사태」, 《레디앙》 9월 18일.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당대.
- 채만수·김장환 편, 『한국사회통일전선논쟁- 현단계 통일전선운동의 쟁점과 그 전망』, 죽산.
- 채장수, 1999. “진보담론의 현재성과 한국”, 『한국동북아논총』.
- 최연구, 1990. “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적·조직적 발전과정”, 조희연 엮음,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 최용범, 1996. 「새롭게 형성되는 학생운동의 지도: 한총련 민족해방파의 분화와 신좌파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 월간사회평론 길, 『월간 사회평론 길』 96집 7호.
- 최장집, 200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최형익, 1999. “1980년대 정치, 그 구조의 전환과 전환의 구조”,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새로운 세상.
- 편집부, 1988. 『철학논쟁 I』, 일송정.
- 편집부, 1988. 『пам플렛 조직노선 I』, 일송정.
- 편집부, 1988. 『пам플렛 조직노선 II-학생운동·진보정당 편』, 일송정.
- 편집부, 1988. 『학생운동논쟁사』, 일송정.
- 프레포지에, 장, 2003. 『아나키즘의 역사』, 이소희 옮김, 이룸.
- 필자 미상, 1988. 「주체시대의 종말 맑스레닌주의의 비판」, 1988.3.
- 하상복, 2005. 「한국의 민주화와 민족주의 이념의 정치」 1945-1987, 『동아연구』.
- 하워드 에리히, 2003. 「A기차를 타라!! -평화로 가는 길: 아나키스트와 반전운동」, 상계동모임 발행동인간 『환경과 반차별』 5호.
- 한국민족민주전선. 「자주, 민주, 통일의 여명을 알리는 주체의 전파」, 구국의 소리 20주년 기념방송.
- 한국사연구회 현대사 연구반, 1991. 『한국현대사 4』, 풀빛.
- 한홍구, 2004. “남한 주사파의 비극과 회극”, 『한겨레 21』, 제535호
- 홍성태(2003), 「전쟁과 자본, 평화와 노동」, 『이론과 실천』 3월호.
- 환경과 생명, 2004. “녹색 진보의 구상과 실천”, 『환경과 생명』 42호, 환경과 생명사.
- 황광우, 2001. “엔엘과 피디의 정파적 대립 구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론과 실천』 12월호.

폭력의 기억과 우정의 공동체: 권여선의 『레카토』를 중심으로

김 은 하 (경희대)

1. 복기하는 청년시대와 여성적 기억

권여선의 문학은 정홍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설 새 없이 피와 고름이 흐르는” 상처의 박물관이다. 히스테리, 신경증을 비롯해 심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폭식/거식, 알레르기 등 병리적 징후들은 외상이 적절히 치유되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지탱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강도 높은 체험을 ‘트라우마’라 부르면서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을 집요하게 장악하고 내부로부터 파괴시킨다고 경고한다. 등단작 『푸르른 틈새』(1996, 살림)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작품의 다수는 ‘청춘회고형’으로서 그녀의 문학이 애도하지 못한 트라우마의 흔적임을 암시한다. 트라우마 희생자들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아슬아슬하게 일상을 꾸리기 때문에 간파하기 쉽지 않고 증상도 다양하지만 “그 증상들로 인한 결과로 과거의 어느 특정 시기로 되돌아간다”¹⁾는 공통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권여선의 문학적 페르소나들은 과거에 발목이 묶인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내성적인 시간의 포로들이다. 그녀의 소설만큼이나 트라우마가 단순히 감정생활의 위기가 아니라 조용하게 때로는 과격한 방식으로 침범해오는 기억의 소환임을 암시하는 경우도 없다. 그러나 권여선은 성장의 지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통해 기억이 병리성의 증거라기보다 성숙을 향한 절박하면서도 의지적인 회구임을 보여줌으로써 트라우마 쓰기의 진경을 보여주는데, 그 정점에 선 작품이 『레카토』(창비, 2012)이다.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이 묻히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억의 함구 혹은 봉인의 명령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기억하는 자는 묻힐 수 없는 기억의 수인(囚人)이면서 동시에 묻혀서는 안 되는

1)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강의』, 열린책들, 2003, pp.374-5.

진실을 발설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독점적, 지배적 소유의 권위를 향한 도전 혹은 항의인 것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권여선의 주인공들은 대학에 갓 입학해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시기의 기억에 고착되어 격렬하게 청춘의 시간을 되풀이한다. 이렇듯 과거라는 망령에 시달리는 혁명 세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권여선의 문학은 90년대 이후 한국 진보주의 문학의 에토스로 자리잡은 ‘후일담’²⁾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세대적 나르시시즘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자기진정성’의 에토스(ethos)를 해체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문학사에서 ‘후일담은 변혁운동이 좌절된 후 수치심에 시달리는 혁명세대들의 일상과 내면을 그린 일련의 소설을 가리키는데, 순결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현실과 불화하는 인물들의 정서적 보상에 대한 욕망을 담고 있다. 김홍중은 이를 두고 후일담이 “나의 진정성’과 ‘타인의 진정성’을 불균등하게 전제하고 부재하는 것으로 설정된 타인의 진정성을 추궁함으로써 역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전유하려는 기획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³⁾ 그러나 권여선의 후일담은 살벌하지만 아름다웠던 추억과 더럽혀지지 않은 자기를 기억하기 위한 회고가 아니다. 망각의 시간 속으로 놓아버릴 수 없다는 듯 아물지 않은 상처 혹은 절단면이 생생히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는 훼손된 여성의 몸을 등장시킴으로써 불편한 진실과 대면시키며 그간 남성적 숭고의 멜로드라마로 기능해왔던 후일담을 재서사화한다.

이후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79년에 대학에 입학해 반독재 투쟁을 하며 교양시대를 시작한 여대생 오정연은 자신의 동료로부터 성폭행당한 후 미혼모가 되고, 급기야 광주항쟁의 한복판에서 총탄을 입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학생 운동의 가부장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측면이 있지만, 작가는 여성의 경험을 적대나 원한의 근거로 삼

2) 이 용어는 본래 김윤식이 애초 일제 강점기 카프의 해체 이후 몇몇 소설을 ‘경향문학’과 ‘후일담문학’이라 이름붙이고, 전향과정에서 전향자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 전자와, 출옥 이후 전향자가 살아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후자로 분류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이재현은 90년대 이후 후일담 문학의 번성 현상을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역사와 혁명에 대한 전망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문학이라고 논하며, 90년대 초중반의 시점에서 작가들은 1980년대식의 혁명적인 ‘빛나는 길’이 끝난 곳에서 있기 때문에 전망없이 일상적인 삶에 파묻혀 있는 자기 자신의 소설적 분신들을 그려낼 수밖에 없다고 밝힌다. 이재현, 「후일담 현상에 관하여」, 『문화과학』 40호, 문화과학사, 2004, pp.181-3.

3)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마음의 구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0. 정홍수는 후일담 문학을 “공동체적 연대와 열정의 기억을 ‘신성한 기원’으로 재구성하면서 자본제적 욕망의 타락한 현실을 상상의 현재로 낭만화”하는 관념적 성격의 지닌다고 지적하면서 “80년대에 대한 과장되고 주관적인 환멸을 토대로 한 탈역사적이고 탈정치적인 개인 욕망의 서사와 하나의 거울상으로 만난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는 후일담이 과거에 대한 망각 혹은 결별을 위한 절차 혹은 제스처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정홍수, 「‘이념의 시대’로부터 ‘2000년대 소설’까지」, 『문화과사회』 25, 문학과지성사, 2012.11, p.389.

기보다 우리 삶의 취약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윤리적, 정치적 삶을 재사유할 것을 요청한다. 이 소설은 작가의 등단작 『푸르른 틈새』(살림, 1996)와 여대생의 좌절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얼핏 유사해보이지만 그러한 좌절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매우 다르다. 오래 전 등단작에서 그녀는 대학에 갓 입학한 주인공을 통해 ‘성’과 ‘정치’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화두 삼아 ‘제도화된 여성성’을 습득하기 거부하고 비판적 정치 주체가 되고자 했던 여대생의 수업시대를 들려주었는데⁴⁾, 그녀는 끝내 가부장제와 정치적 폭압 앞에서 ‘성’의 주체도 ‘정치’ 주체도 되지 못한 채 좌절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여대생 오정연의 교양시대는 더욱 참혹하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오래 전의 소설보다 훨씬 더 명랑하고 심지어 활기에 넘쳐보인다. 이는 작가가 초월적 주체, 즉 이성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의 환영을 포기하고 주체와 타자의 교차지점으로서의 신체에 출발하는 윤리적, 정치적 삶을 사유할 것을 호소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특히나 이러한 과정에서 80년 오월의 광주항쟁은 새로운 주체 구성의 기원으로 재의미화된다. 이미 잘 알려져있다고 광주항쟁은 한국의 진보적 청년들의 역사에 대한 죄의식을 유발함으로써 비판적 정치주체로 자기를 구성하게 했던 통과의례적 경험이었다면 이제는 우정어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화해의 장소로 가시화된다.

2. 모욕의 인간학과 기억의 윤리성

트라우마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저 몰매 맞듯이 기억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처럼 능동적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는 과정에 임하는 것이다.⁵⁾ 즉,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두뇌에 연관처럼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고

4) 다음과 같은 문장은 이 소설이 여성 성장소설임을 암시한다. “대학 못내기 시절, 내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시바삐 어른이 되는 것이었다. 어른이란 모를지기 정치와 성에 대해 확고부동한 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따라서 내 수련과정에 필요한 것은 ‘정치 용어 사전’과 ‘성 용어 사전’이었다.” (『푸르른 틈새』, p.28.)

5) “키에르케고르는 어린 아이들이나 학동들은 아직 기억을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수많은 정보들로 기억의 창고를 채우지만 그것은 조야한 원재료이거나 정리되지 않은 사진같은 것이다 (중략) 우리는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예술가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창조의 산고를 치르는 예술가처럼 우리는 기억의 고통을 견디지 않고 견뎌야 한다.” 김종갑, 「김종갑, 기억과 몸, 정체성, 윤리」, 『기억과 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8, pp. 52-3.

말해야 옳다. 또한 정체성이 개인적 기억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고통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보물처럼 계속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윤리적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이기도 하다. 기억의 삭제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인격과 어떠한 정체성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기억과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기억의 문제는 윤리와 정치의 영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⁶⁾ 기억과 관련해 흥미로운 것은 권여선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쉽게 “베워질 수 없는 모멸과 모욕의 끈이 껴어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모욕’을 문학의 주요한 주제로 등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녀는 인간의 내면에 흉포한 짐승처럼 타자를 향하는 적의가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폭력으로 현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사린 적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즉, 모욕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폭력없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레카토』의 주인공 오정연은 유신정권 말기 대학에 입학해 이념 씨클인 ‘전통연구회’에 가입해 의식화 교육을 받던 중 조직의 선배이자 신비로운 혁명투사로 불리는 박인하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그 후 임신한 그녀는 대학 1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어머니 유보살이 있는 전남의 성암사에 내려가 딸을 낳고 80년의 5월에 서울의 친구들에게 가기 위해 들른 광주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은 후 실종된다. 소설은 오정연이 겪은 사건과 그녀의 행로를 보여주는 다른 한편으로 실종된 그녀를 망각 속에서 놓아보내지 못한 전통연구회 멤버들이 그녀의 딸 하연이 찾아오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녀의 행방을 추적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직면하는 열개를 취하고 있다. 이야기는 오정연이 광주항쟁 당시 광주를 방문 중이던 프랑스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출되어 파리에서 국적, 이름, 모국어 등 자신의 정체성의 모든 근거들을 망각해버려 백치 아닌 백치로, 총상을 입은 불구의 몸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소설은 이념적 진보성을 내세운 저항적 커뮤니티와,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국민의 순응을 강요하는 ‘네이션’ 모두로부터 상처입은 여성의 몸을 통해 ‘한 몸 공동체’(진은영)의 한계를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들의 허약한 우정과 치기어린 젊은 날을 연민함으로써 성숙한 망각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암사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6) 김종갑, 앞의 글, pp. 52-3.

도덕을 기반으로 한 우정의 공간이 상처없는 공동체의 미래로 포착된다.

이 소설은 특히 모욕을 진지한 문학적 주제로 소환한다. 트라우마는 인간이 쉬이 상처입을 가능성이 있는 약한 존재이면서도 인간의 내부에 도사린 악의 가능성을 직면하게 하며, 삶이란 가해와 피해를 주고받는 무수히 많은 가능성의 연쇄라고 말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작가는 어떤 대안도 없는 비관적인 질문으로 독자를 끌고 들어가 무책임하게 수렁 속에 던져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트라우마의 가해자가 상처없는 승리자는 아니며, 재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연루되거나 또한 그것을 간접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적 증상에 시달릴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트라우마가 공동체를 재구축할 공통감각 혹은 ‘공통성(the common)’⁷⁾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무엇보다 작가는 상실과 그것이 준 충격을 쉬이 비워내지 못하고 애도하려는 인간의 기억의 습관에 주목한다. 타자를 모욕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이들을 통해 죄책감을 인간본성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러나, 누군가를 지독히 모욕하면 격렬히 증오하게 된다는 대목에 책 주인이 왜 밑줄을 그어놓았는지 인하는 삼십년이 지난 지금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중략) 모욕의 관계에서 증오를 품는 쪽은 모욕을 당하는 쪽이 아니라 모욕을 가하는 쪽이다. 모욕을 감내하는 자의 얼굴은 모욕을 가한 자에게 건딜 수 없이 냉혹한 거울이니. 누군가를 지독히 모욕한 자기 악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일이니.” (p.30)

이 소설은 70년대 후반 대학에 입학해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반독재 투쟁조직에 가담했던 학생운동권들의 후일담을 들려준다. 전통연구회 멤버들은 주인공 오정연과 함께 일 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카타콤’이라 부르던 학생회관에서 유신의 정치적 광란의 시간을 함께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우리들과의 술자리에서 돌연히 자리를 박차고 사라진 후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살아서는 그녀를 비워낼 수 없는 영원의 기억으로 안게 된다. 그녀와 함께 한 이 짧은 시간은 30년이 지

7)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나와 타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통성’이다. 그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으로 개체들에게 두루두루 통용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의 공통성은 주로 남시와 버틀러가 말한 바 인간의 ‘유한성’과 ‘취약성’ 같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즉 누구나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실존 개념에 근거해 있다. 남시에 따르면 공동체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원리로 삼고 있다. 또한 버틀러에 따르면 인간은 모두 타인의 접촉과 폭력에 노출된 신체의 취약성을 안고 살아가는데, 바로 이렇듯 취약성으로 인해 내가 보호받아야 하듯이 타자 역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체득하게 된다. 허정, 「유한성과 취약성이라는 공통성-장 록 남시와 버틀러의 공동체론-」, 『다문화콘텐츠연구』 14집, 2013.

나도 망각되거나 추억이 되지 못한 채 생생한 현재형으로 이들의 내면 속에서 지속된다. ‘우리들’은 저마다 개인적으로 그녀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비록 고백을 한 적이 없지만 그녀에게 연정을 품었고, 무엇보다 우리는 광란의 시절을 함께 한 이념적 동지이자 밥과 술을 함께 나누는 식사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그녀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불가능한 연인이자 그녀를 연상시키는 사소한 기미만으로도 죄책감을 자극하는 잔혹한 고문관이다.

이 소설은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이야기한다. 한 패션 디자이너가 주최한 성대한 연회에 모여든 전통연구회 멤버들은 유신정권, 신군부 쿠데타, 광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격정의 시대를 통과했지만 여유롭고 느긋하기보다 병리적 징후를 질게 풍긴다. 작가는 50살이 된 전통연구회 멤버들에게서 포착되는 자폐적 성향 혹은 우울의 징후를 섬세하게 부조하는데, 박인하의 “고전적이고 단아한 얼굴”은 금세 균형이 깨어질 듯 “위태로운 떨림과 신경질적인 고요”의 기미를 엿보이며, 준환은 평소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굴종적이지만, 술만 마시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식으로 공격성을 드러낸다. 비교적 유쾌해보이는 진태는 “남자의 번덕과 히스테리가 여자보다 훨씬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걸.”(p.179) 보여줄 만큼 갑작스럽게 감정을 폭발시키곤 한다. 또 국문과 교수인 재현 역시 가끔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거나 “스스로를 재떨이라고 규정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p.107)라고 고백할만큼 자기비하의 감정에 시달린다. 정연이 사라져버림으로써 그들의 정치공동체는 행복의 장소로 현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유신의 광기어린 확정 속에서 살아남은 전사이자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악연이 물경 삼십 년”이라고 조소하며 서로를 향한 적의, 모욕, 증오를 품는다.

프로이트는 우울증을 상실을 애도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고, 그것의 징후로 공격성을 든 바 있다. 권여선의 소설은 살아남은 자들의 비루한 초상을 미화하기는커녕 극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데 독보적인 재능을 발휘한다. 그로테스크하다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로 이들은 존재와 의식 간의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며 자기파괴를 향해 가는 듯 보인다. 자중 인물 누구도 자기의 과거를 영웅화하거나 합리화하기는 커녕 스스로의 위선과 허위를 냉랭하다 싶을 정도로 직시한다. 이렇듯 ‘가차없는’ 시선은 권여선 문학에서 후일담이 세대적 인정투쟁이나 개인적 나르시시즘의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한다. 무엇보다 화려한 이력의 투사업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게 만드는 견고한 자폐의 벽” 속에서 유폐된 채 자신의 저지른 죄를 폭로하고 스스로를 처벌하고자 하는 박인하의 형상화는 생생하다. 그는 전통연구회의 연말 모임이 있던 날 시장동 음식점의 더러운 변기에 앉아 “이대로 술에 취해 아랫도리를 설사오물로 더럽힌 채 추하게 까발려진 상태로 죽고 싶다”(p.203)고 고백하는데, 이는 모든 가해자가 상처없는 승리자인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는 그가 오래 전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오정연에게 주었던 모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삼십년도 더 지난 시간의 저편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벌거벗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싸구려 휴지로 아랫도리를 닦”던 오정연이 마치 플래시백처럼 귀환해 와 그의 머리 속에서 환하게 켜진 것이다.

“과오를 저지르지 않은 자는 기억의 저주에 대해 알 리가 없다”는 박인하의 고백은 우리가 타자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가해자도 자신이 저지른 폭력과 그것이 남긴 흉폭한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성폭행 당한 오정연이 신음인 양 정신적 공황에 처해 읊조리던 퀴의 노래를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박인하의 내부를 파괴시키는 이미지가 되어 그의 현재를 잠식한다. 이 소설은 전통연구회의 멤버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재난이나 전쟁과 연루되지 않아도 피해자와 연결되어 있거나 간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추체험하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오정연에게 가해한 사실이 없고, 학살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대한 죄의식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 이들이 보여주는 우울증적 징후들은 이들이 상실을 온전히 애도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즉 성공적으로 치유될 필요가 있는 불건강함의 징후나 실패의 증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애도는 우리가 떠나보낸 자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단절하고 리비도를 새로운 대상에 재투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애도 작업의 실패로 감정적 애착이 단절되지 못할 경우,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리적인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애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애도의 성공은 떠나간 사람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비정’이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사랑하는 이의 기억을 비워내기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한 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쉬운 망각보다 윤리적이다. 그러므로 애도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일 수 있는 역설이 가능하다.⁸⁾

3. '한 몸 공동체'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훼손된 몸

『레카토』는 애도의 윤리적 기능을 예찬하며, 슬픔의 감정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우울과 애도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폭력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삶에 대한 예리한 느낌을 잃게 된다. 또한 취약성, 감수성, 의존성을 체험하게 만드는 슬픔과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너무 빨리 해소하려고 하지만 앎(知)은 중요한 자원(資源)인데, 양심은 슬픔과 고통을 급히 해소하려하기보다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애도작업에서 몸이 차지하는 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왕은철은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자연에 눕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결국, 애도란 몸을 애도하는 것이다. 몸이 있음이 삶이고 몸이 없음은 죽음이기에, 사랑했던 사람의 몸을 고이 묻어주고 묘비를 세워주는 장례의 절차가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을 수 있다고 짐에 주목한다.¹⁰⁾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듯 오정연의 어머니와 친구들은 그녀의 몸이 어디있는지 알지 못해 고통받는다.

몸을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고 이성의 우위를 주장한 근대철학과 달리 몸은 의식보다 우리들의 주체성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 주디스 버틀러에 의하면 몸은 우리의 도덕성, 취약성, 행위주체성을 함축한다. 몸으로 인해 우리는 행위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 모든 것들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혁명은 내 몸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자, 타인의 몸이 쉽게 상처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할 때 이루어진다. 인권이란 자기의 몸에 대한 주인의 자격을 갖는 것이며, 폭력이 비난받는 이유는 타자의 존엄한 권리의 영역인 신체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 늘 우리 자신에게 속해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근대에 들어 인권의 자명성이 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은 타자들의 세계에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늘 기습적인 폭력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 몸은 여전히, 본원적으로 “타자들의 자국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 삶의 도가니 안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여전히 불확실성에 시달리면서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근본적으로 취약한 인간의 조건이 달

8) 왕은철, 『애도예찬』, 현대문학사, 2012, p.17.

9) 주디스 버틀러 저,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pp.54-55.

10) 왕은철, 앞의 책, pp.53-54.

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의 몸은 내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는 타자들과 나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듯이 오정연은 자신이 고향 친구보다 더 친숙하게 여기던 공동체의 박인하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79년의 봄날 “산골치너다운 갈색 얼굴”의 오정연은 미래에 발생한 일을 전혀 모른 채 주근깨를 빗내며 피세일에 나르고, 학생회관의 ‘전통연구회’ 방에서 미남일 뿐 아니라 신비로운 혁명가인 박인하에게 존경인지 연모인지 모를 눈빛을 던진다. 그녀는 피세일에 참여하던 중 경찰과 눈이 마주친 것만으로도 정치권력에 대한 공포에 전율할만큼 겁많은 신참이다. 이렇듯 소심한 그녀가 전통연구회를 탈퇴하지 않은 것은 그곳이 ‘오까모또’라는 은어로 소통하고 긴장없는 농담을 즐기고, 밥과 술을 나누는 우정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정 공동체에 대한 오정연의 기대는 박인하의 폭력으로 훼손된다. 성폭력 장면은 매우 사실적인데, 이는 폭력의 즉물성을 실감나게 재현해서가 아니라 기습적 폭력 앞에 선 피해자의 항의와 절망의 깊이를 담아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정연이 박인하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겨우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도망쳤으면서도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성폭행을 당한 후 김밥을 사와 그를 먹이고 다시 폭력을 당하는 대목은 다분히 의아하게 여겨진다. 훗날 그녀 자신도 왜 다시 그에게 돌아갔는지 납득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는 공포 앞에 내몰린 자의 자기상실을 암시하는 한편으로 폭력의 굴종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는 허위적인 제스처, 그렇지만 우정에 대한 절실한 항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비천하게, 굴욕적으로, 벌레처럼, 나를 진흙 바닥에 뽀뽀 기어가게 만든”(pp.81-2) 폭력을 당하며 그녀는 가해자를 신비롭고 멋진 혁명가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약한 고학생으로 바꿔치기 하고, 자신의 수치심을 상대에 대한 연민으로 위조하며 저항한다. 그러나 기실 그녀가 차가운 물에 몸을 씻으며 읊조리는 “이게 진짜 삶인가?/ 그저 환상인 건 아닌가?/흙더미에 파묻혀/ 벗어날 길이 없네…….”(p.147)라는 노래가사처럼 그녀의 삶은 이 사건을 계기로 치명적인 외상을 입는다. 성폭력은 단순히 “살이 뜰어지는” “조잡하고 사실적인 고통”을 넘어 오정연의 정신적 삶에 치명적인 외상을 입힌다. 폭력의 기미 혹은 폭력이 불러일으키는 공포와 두려움은 그녀를 카오

11)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pp.54-55.

스 상태로 내몬다.

버틀러에 따르면 폭력없는 공동체는 우리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이 자신과 연결된 타자의 취약성에 대한 존중으로 전환될 때 만들어질 수 있다. 타자에 대한 진정한 환대는 그 몸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진은영은 인간이 먹는 입과 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팽개치지 않을 때 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²⁾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무시됨으로써 타자의 소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부장적 공동체에서 여성의 몸은 남성중심적 문화에 의해 관능적 욕망이나 모성적 위로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성의 주체성을 부인 혹은 박탈하는 계기로 악용되곤 한다.¹³⁾ 박인하는 오정연에 대한 호감에도 불구하고 채한 그의 손톱을 찢러 검은 피를 뽑아주던 그녀의 환대의 몸짓에 폭력으로 응답한다. 손을 따주던 그녀의 무당의 주문같은 사투리가 준 모성적 휴식과 부드러운 살이 관능을 깨어나고, 낯선 살과 피부가 매혹적이면서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오정연은 매맞고, 옷이 벗겨지고, 능욕당하는 폭력의 연쇄를 경험한다. 이들은 이념씨클인 이념연구회, 전통연구회, 문학연구회를 “이년,저년,무년”으로, 조준환을 ‘젓은환’으로 호명하는 식으로 ‘몸’과 ‘성’을 비친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그간 몸의 삶에 충실하고, 비친한 ‘몸’으로 규정되어 온 여성들이 언제든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암시한다. 조준환은 사라진 오정연의 행방을 찾던 중 그녀가 박인하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녀가 말하지 못한 진실을 비밀에 부친다. 조준환과 마찬가지로 이재현이나 김준태 역시 그녀에 대한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는다. 첫사랑의 기억이, 즉 순수가 훼손되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두렵고 거북하기 때문이다. 훼손된 여성, 즉 몸은 거세 공포를 환기시켜주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오정연의 행방을 더 이상 추적하지 않는 것은 동질성과 내재성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는 실제로 평등하기보다 위계화되어 있고, 이익을 나누어갔다는 점에서 패거리주의와도 유사해, 기실 여러 가지 갈등과 그로 인간 반감에도 불구하고 연대의식이 뛰어나다. 국회의원 보좌관인

12) 진은영, 「소통, 그 불가능의 가능성」, 『탈경계 인문학』 제 3권 2호, 2010.

13) 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연적 물질이라면 중요한 몸/비친한 몸의 구분도 없을 테지만, 몸은 이미 그 안에 계급과 권력, 그리고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담론의 형식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의미인 것이다. 남성/여성, 이성애자/동성애자, 백인/흑인의 이분법은 단순한 차이나 구분이 아니라, 언제나 진자의 항목이 후자의 항목에 대해 우선권과 우월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차별의 표지이다. 이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남성의 몸, 이성애자의 몸, 백인의 몸인 것이다. (조현순, 「의미화되는 물질, 그래서 중요한 육체」, p.394)

조준환은 물론이고, 정치인의 자서전을 출판해 먹고 사는 준태나 광고사 피디 용호 역시 생존의 유리한 자원으로서 국회의원 박인하와의 친분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공동체가 사실상 실제와 달리 미화된 이름임을 암시한다. 특히 권인숙은 1980년대의 학생운동권들은 70년대의 주요한 가치였던 반공 이데올로기와 군부독재를 부정하며 사회혁명을 꿈꾸었지만 집단주의적이며 군사주의적인 동원문화,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문화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비판해내지도, 파시즘적 조직 구조를 넘어설 대안적 문화나 질서를 생산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¹⁴⁾ 특히 그녀는 학생운동 조직과 권위주의적 국가 기구인 군대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가부장적 남성성의 재생산 문제에 주목하는데 폭력에 대한 경도, 영웅주의적 투쟁서사는 남성중심성의 증거라 볼 수 있다.

오정연이 출산 후 서울에 가기 위해 들른 광주에서 광주항쟁의 물결에 휩싸여 총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뛰쳐나와 다시 항쟁의 대열에 선 것은 친구들, 즉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학내 피세일 중 사복 경찰과 눈을 마주친 후 느낀 공포를 고백하고, 그 대가로 선배인 이용호에게 뺨을 얻어맞은 적이 있는데, 마치 그때의 수치심이 환기되듯 “오난이도, 재현이도, 진태도, 경애와 명식이도, 주춤거리면서라도 끝끝내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p.324)라고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시위대의 앞에 선다. “서울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신이 보고 겪은 것들을 증언해야”(p.323)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삼십년의 지난 후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것의 생생한 증언인 훼손된 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암시된다.

4. 환대¹⁵⁾의 식탁: 여성적 도덕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가능성

이 소설은 앞서도 말했듯이 남성작가의 후일담과는 매우 다른데, 특히 평범하고 소시민적인 주인공이 이념적 각성과 시위 체험을 통해 소시민성을 극복하고 전사로 성

14)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p.64.

15) 데리다는 ‘관용’은 온정주의의 잔재라고 비판하며 ‘환대’라는 언어를 제안한다. ‘관용’이 내 집으로 온 손님에게 나의 언어, 나의 전통, 나의 역사와 기억과 음식을 따르면서 우리와 동화되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환대는 타자로서의 손님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임옥희, 「폭력의 시대, 공존의 윤리」, 『여성과 평화』 5호, 2010, p.31.

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오래도록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대통령을 ‘오까모또’라 조롱하며, 합숙 훈련기간 일본에서 번역된 맑시즘 서적을 읽는 ‘불온’한 이념 씨름이지만, 스무살 치기어린 주고받은 농담과 유머나 합숙을 하거나 농활에 가서 먹었던 음식에 관한 것 등 이념공동체라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피부와 살로 체감된 기억들이 오정연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 먹는다는 것은 환대, 즉 사랑과 우정의 가장 탁월한 표현으로 재해석된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한 후 공포와 충격 속에서도 박인하에게 김밥을 사다준다. 그가 구토를 하고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이 제 몸에서 일어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작품이 여성의 정체성을 모성성에 두고 제도화된 여성성을 수락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먹는 입이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자 공동체들이 가졌던 기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을 증명하듯 박인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고 보드라운 속옷 같고, 달고 구겨진 책받침 같고, 심심한 국 같고,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나는” “괴상한 통김밥”(pp.79-80)을 기억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친구들 역시 임신한지도 모른 채 닭날개를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그녀가 낯설어 면박을 주었던 일을 떠올리며 자책한다.

“잔디밭은 햇살에 데워져 따뜻했고 간간이 부는 바람이 봄꽃 냄새를 실어다 주었다. 전연 신입생들은 불현 듯,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마음과 서로를 목숨처럼 아낀다는 착각과 한창 젊다는 데서 오는 맹목적 열정에 사로잡혀, 손가락이라도 짝 베물어 피를 섞어 마시든지 해서라도 이 벽찬 유대감을 영원히 기억 속에 새기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그런 도원결의를 위해서는 명식의 말대로 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했다.” (p.136)

봄 날 대학의 잔디밭에 앉아 전연 멤버들이 서로를 향한 가슴 벽찬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아마도 아름다운 장면으로 추억되어야 할 마땅할 듯 보인다. 실존적 고독이 사라지고 유신 정권에 대한 공포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에 연결된 술자리에서 오정연은 깊은 고독을 느낄 뿐이다. 폭력을 겪고 임신한 그녀의 고통을 말할 수도 위로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정의 허기를 배우려는 듯 닭날개를 허겁지겁 먹어치우지만, 친구들의 질책을 받는다. 또한 여름 농활에서 기괴하리만큼 탐식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음식마저 박탈당한다. 그녀의 탐식은 그녀가 겪는 고독과 공포의 표현이자 우정에 대한 요청으로 해석되어야 한

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생물학적 인간이 종(種)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활동이 아니라, 인간적 가치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활동”¹⁶⁾이기 때문이다.

그간 우정은 주로 남성교양의 자질로 인지되면서 육체성을 잃고 지나치게 이념화되어 왔다. 이해정에 따르면 “현실을 초월해있는 이상향적인 진리나 절대자를 추구하는 욕구 또는 사랑으로 인식되거나,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완전하게 실현되거나, 평등하고 상호적인 사랑과 존중을 통한 두 사람 간의 연합”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실 “우정은 평등하고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정은 일상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맺음”으로, “특수하고 특별한 사람들의 관계맺음, 즉 관계성, 특수한 자아 상호간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친구들의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과 여건 그리고 그들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지하는 것”¹⁷⁾이다. 이는 여성주의 도덕성에 기초한 우정이 먹는 입을 존중하고 국경, 이념, 성, 계급을 초월해 함께 환대의 만찬을 가능하게 할 것임을 암시한다.

소설은 오정연의 어머니 유보살이 있는 성암사를 우정에 기초한 유토피아적 공동체로 제시한다. 유보살이 권씨 여인과 같이 살아가는 성암사는 법과 이념을 초월한 곳에 존재하는 환대의 공동체이다. 오정연의 아버지는 젊은 날 빨치산 게릴라 투쟁에 나선 공산주의자로 스스로 산에서 내려온 뒤 모종의 내상을 입은 채 성암사를 짓고 그곳에 들어가 세상을 등진 인물이다. 유보살은 한국전쟁 중 고아가 되어 온갖 고초를 겪던 중 절에 흘러들어온 소녀의 몸으로 상처입은 남자와 결혼해 정연을 낳는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권씨 여인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정연과 딸이 낳은 딸인 하연을 키운다. 죽은 자의 혼령을 진혼하는 곳인 성암사는 이념과 전쟁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제도로부터 상처입은 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애도 공간인 것이다. 특히 성암사의 나이트 두 여자는 여성의 몸을 극진히 존중한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한 처녀인 정연은 그녀들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섭생을 하고 출산을 한다. 그리고 그녀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이 일종의 치유제로 기능한다. 그러나 그곳은 낭만적인 환타지가 불러낸 여성적 유토피아인 것은 아니어서 하연은 절에 몰래 숨어들어온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 성암사의 남자들은 가해자인 남자를 살해해 그 시신을 유기하고 하

16) 진은영, 앞의 논문, p.60.

17) 이해정, 「여성주의, 우정 그리고 도덕적 성장」, 『한국여성철학』 제 18권, 2012.

연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남성의 폭력에 대한 초법적 처벌의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5.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우애의 실마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가 필요없지만, 정의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애가 필요하다. 최상의 정의는 우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함으로써 우애, 즉 우정이 정의보다 상위가치이며, 이상적인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으로서의 우정’은 기실 비슷한 외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으로써 우정이 특정 집단의 공고한 연대 혹은 패거리주의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더 섬세하게 고찰하지 못한다. 익숙하고 사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선함을 주고받는 ‘탁월성으로서의 우정’이 ‘나’와 성, 계급, 인종, 종교, 이념 등이 다른 타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우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는 상상할 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루소는 “인간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은 나약함이다. 우리의 마음을 인류애로 이끄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비참함이다.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것은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공감에 기반을 둔 우정의 공동체를 제안했으나, 일찌감치 타락하여 여자에 몰두한 젊은이는 물인정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이성애보다 우정을 가르쳐야 한다고 함으로써 여자를 우정의 대상에서 배제시켜버리는데, 여기서 여자는 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메타포로서, 육체와 정념들을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글들이 암시하듯 여성들은 그간 남성중심의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선의가 향하는 대상이 되지 못했다.

권여선의 글쓰기에는 ‘성’이라는 생물학적 숙명 혹은 사회적 굴레를 내파하기 위해 가출을 감행한 정치적 세대들의 자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4.19나 5.18도 유의미한 참조가 될 수 있지만 386세대 여성들은 거대한 규모의 차원에서, 정치에 세계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교양화를 시도했던 혹은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려했던 첫세대인데, 이들은 아이, 칩살, 부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세계 속에서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공동체에서 동등성에 기초한 우정어린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대통령을 ‘오까모또’라고 부르며 조롱하며 부친살해를 기획하려는 정치 공동체는 평등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육체적, 사회적 약자로서 폭력의 가장 어두운 그늘을 경험한 여성의 자의식을 통해 근대국가는 물론이고 네이션의 대안으로 등장한 이념적 커뮤니티 역시 내재성과 동일성에 집착함으로써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배타적인 차별과 폭력을 행사해함으로써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증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글쓰기는 후일담이 되, 그것의 진정성을 심문하고 비트는 여성주의적 패러디의 형식이 된다. 그녀의 소설은 상실의 남긴 충격이 센터멘탈리즘이나 나르시시즘적인 우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민감한 미적 자의식을 보여주는데, 상실자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려는 듯 상처를 더욱 뜯어발기는 고통의 쾌락을 지향함으로써 후일담의 나르시시즘 혹은 센터멘탈리즘을 해체하려 한다. 이러한 글쓰기는 트라우마를 재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파묻힌 사실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그 충격과 고통의 심연을 표현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공동체의 한계를 밝히고 그것을 사회적 연대로 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허위들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거기에 비추어 공동체의 불가능성을 이야기 하는데 집중하는 듯 보인다. 공동체의 불가능성, 우정의 불가능성에 대한 냉엄한 숙고를 통해서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는 부정과 의혹의 시선으로 일관하기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연동시킴으로써 역사적 상처의 치유를 모색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광주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지워진 역사의 책무로 다시금 재현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대가 아니라 화해의 기원적 장소로 재해석된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¹⁸⁾ 라는 브레히트의 유명한 시는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에 대해 갖는 죄의식과 자기 증오의 정서를 엿보게 만든다. 1980년대 광주항쟁 이후 한국문학의 주된 정서는 역사의 희생자들 앞에서 살아남은 자가 느끼는 ‘수치’였다. 광주항쟁 이후 살아남은 자가 느낀 수치심 혹은 죄책감은 그간 비록 파편적이거나 80년대 문학의 참여주의적 전환을 설명하는 감정적 동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광주항쟁과 도덕감

18) 브레히트, 김광규 역,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슬픔』, 한마당, 2012, 117쪽.

정으로서의 수치심의 기능은 그간 다분히 성별화된 정서 체험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현모양처가 아니라 탁월성(arete)의 실현을 성숙의 목표로 인지한 첫세대로서 7-80 세대 여성을 역시 광주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즉 수치의 수인이다. 권여선은 『레카토』에서 광주는 비판적 정치 주체가 아니라 폭력없는 공동체를 이룰 윤리적, 성찰적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원적 공간으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는 역사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대를 허물고 화해할 자리를 주선한다.

이 소설에서 독자가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인물은 얼굴에 화상 자욱이 있어 순구라는 이름이 있지만 ‘딘둥이’로 불리는 남자이다. 그는 전통연구회 회원들과 연을 맺었던 야학의 청년으로, 오월 광주에서 잔인하게 쫓아가 정연의 몸에 총을 쏘는 진압군으로, 이천년대 서울의 전철에서 압내가 심하게 나는 여자와 성경을 읽던 중년의 남자로 모두 세 번씩 얼굴을 내민다. 작가는 ‘딘둥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며, ‘광주’ 이후에 그가 겪었을 죄책감을 암시하기조차 한다. 이웃집 할머니의 실수로 화상을 입게 됨으로써 한 평생을 씻을 수 없게 된 남자는 광주에서 항쟁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로 변모하고 그것의 대가인 양 극심하게 왼쪽 눈가가 떨리는 턱장애를 겪고 있다. 더욱이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압내가 나는 여자의 남편이 되어 전철에서 타인의 혐오어린 시선의 채찍 속에 내던져져 있다. 작가는 서울의 전철에서 정연의 딸 하연과 딘둥이를 조우하게 함으로써 인간 삶의 알곳은 우연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으로 용서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이들 부부를 보며 코를 막고 선 신사복의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시선 속에서 “윤리적 명령”(p.420)을 읽기 때문이다. 여기서 “윤리적 명령”은 하연이 신사복 입은 남자의 시선에서 타자를 향한 폭력을 감지했으며, 이렇듯 폭력에 대한 예리한 감수성만이 인간 사이의 적대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평화의 근거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윤리적 명령은 국경, 세대, 성 등 차별의 표지들을 넘어 취약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의 고독과 슬픔을 주시할 것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인간 사이에 도사린 적대를 허물고 화해의 자리를 시도하려는 듯 환대의 식탁을 마련한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피리의 한식당에서 이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정연과 그녀의 친구들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만찬을 함께 하며 오정연의 사연을 에르베 교수에게 전해 듣는 것에서 끝이 나는데, 이 식탁은 인간이 각자의 고독과 슬픔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며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상처를 치유될 화해의 시작을 암

시한다. 특히 오정연은 백치인 양 모든 기억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연이라는 이름에 반응하고, 파리의 유학생인 석빈은 오정연이 외마디 비명처럼 토해내는 하연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여자 친구의 것임을 알아차린다. 이는 오정연이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 무엇보다 자신이 보살펴주지 못한 딸에게 돌아갈 것임을 암시한다. 작가는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하게 타자의 고통과 연루된 이들을 통해 우정이라는 도덕감정과 이를 토대로 우정의 공동체를 구축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오월 광주에서 죽어가는 오정연을 구해낸 에르베 교수는 사촌 여동생 아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인종과 국경을 떠나 오정연을 자신의 누이인 양 극진히 보살핀다. 그러므로 광주는 단순히 폭력의 장소가 아니라 각자가 비워낼 수 없는 타자에 대한 책무를 다할 사랑의 장소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권여선, 『레카토』, 창비, 2012.

논문, 단행본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p.64.

김종갑, 『김종갑, 기억과 몸, 정체성, 윤리』, 『기억과 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8, pp. 52-3.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마음의 구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0.

브레히트, 김광규 역,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슬픔』, 한마당, 2012, p.117.

왕은철, 『애도예찬』, 현대문학사, 2012, p.17.

이재현, 『후일담 현상에 관하여』, 『문화과학』 40호, 문화과학사, 2004, pp.181-3.

이혜정, 『여성주의, 우정 그리고 도덕적 성장』, 『한국여성철학』 제 18권, 2012.

임옥희, 『폭력의 시대, 공존의 윤리』, 『여성과 평화』 5호, 2010, p.31.

정홍수, 『‘이념의 시대’로부터 ‘2000년대 소설’ 까지』, 『문학과사회』 25, 문학과지성사, 2012, 11, p.389.

진은영, 『소통, 그 불가능의 가능성』, 『탈경계 인문학』 제 3권 2호, 2010.

주디스 버틀러 저,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pp.54-55.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신분석강의』, 열린책들, 2003, pp.374-5.

허정, 『유한성과 취약성이라는 공통성-장 뵈빙 낭시와 버틀러의 공동체론-』, 『다문화콘텐츠연구』 14집, 2013.

독일연방정치교육원(<http://www.bpb.de>)의 민주시민 교육 관련 자료(수업 교재, DVDs/CDs, Apps 등 멀티미디어 자료) 조사·연구

최 대 희 (대구가톨릭대)

목차

조사의 목적

조사의 내용

1. 학습

1) '수업 주제(Themen im Unterricht)'

(1) '선거'

*예시 초보를 위한 선거

*도시에: 독일의 정당들

(2) '유럽연합'

(3) '발-오-마트'

2) '수업(Unterricht)'

(1) '방법론과 교수법(Methodik und Didaktik)'

(2) '미디어교육(Medienpädagogik)'

*도시에: '어린이가 바라본 전쟁(Kinder sehen Krieg)'

(3) 영화 제작

*영화 학교 ('Cine Okul' - 터키어로 영화학교)

(4) 보드게임

*Plan-N

(5) '멀티미디어 수업 (Unterricht am Whiteboard)'

*예시 '베를린 장벽건설(Bau der Berliner Mauer)'

1) '자료선택'

2) 학습단원의 전개

- (1) 들어가기: 베를린 장벽
- (2) 문제제기
- (3) 작업 수행: 1961년 8월 13일
- (4) 요약과 결과보존
- (5) 숙제

3) 교안

4) 학습자료

- (1) M 2a
- (2) M 2b
- (3) M 4

5) 주제 관련 웹사이트 링크

- (6) 특수학교에서의 정치교육
- 3) 표적집단(Zielgruppe), 4) 자료의 형태(Formate)
- 5) 정치교육 학생경연대회

2. 미디어 센터

1) 'Demokratie für alle?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2) '10 questions about democracy(민주주의에 관한 10개의 질문)'

3) <http://digitalmemoryonthenet>

4) VorBild

- (1) Baumstammspiel(나무줄기 놀이)
- (2) Pinguin Spiel(펭귄 놀이)

3. 온라인 상점

1) 멀티미디어

(1) DVDs/CDs

- (1-1) 'Zeugen der Shoah. Fliehen-Überleben-Widerstehen-Weiterleben'(학살의 목격자들. 도망, 생존, 저항, 이후의 삶)
- (1-2) 'Die Beste Aller Welten(이 세계에서 최상의 것)'
- (1-3) 'ecopolicy(환경정책)'
- (1-4) 'Bei uns und um die Ecke(우리에게도 그리고 모퉁이에서)'

(1-5) Krieg in den Medien (미디어에서의 전쟁)

(1-6) 'Hunger(굶주림)'

(2) '모바일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Mobile Angebote/Apps)'

(2-1) 'App: Politische Begriffe kurz erklärt (어플: 정치 개념 사전)'

(2-2) 'App: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어플: 독일기 본법)'

(2-3) 'App: Erinnerungsorte(어플: 추모장소)'

(2-4) 'Mauer-App(베를린 장벽 어플)'

(2-5) 'Wahl-O-Mat App(발-오-마트 어플)'

2) 학습(Lernen)

(1) '학습자료'

(2) '수업에서의 결정(Entscheidung im Unterricht)'

*예시: '군인으로서의 삶 (Ein Leben als Soldat?)'

(3) '팔터(Falter)'

*예시 '유럽통합 시간표' (Zeitleiste Die Europäische Union)'

(4) 하우스나아 (Hautnah)

*예시 '정치혐오?' - 나의 목소리! 나의 선택!

(5) '슈피커(Spicker)'

(6) 게임 (Spiele)

*예시: 초보를 위한 사회

(7) '수업주제별 학습지(Themenblätter im Unterricht)'

*예시: '끝없는 성장?(Wachstum ohne Ende?)'

(8) 주제와 학습자료

*예시 '연출된 분노(Die inszenierte Empörung)'

*예시 '이주사회에서 실천적 역사전달'

*예시 '자유, 평등, 정의 ? 가치질서와 가치전달'

(9) 무슨 일이니?

*예시) '선거의 고통' ? 공동결정에 대한 책자

*예시) '히잡을 쓰도 괜찮은가? 아니면 히잡을 벗어야 하나?'

4. 웹사이트

1) '하니자우란트. 너를 위한 정치(Hanisauland. Politik für dich)'

<http://www.hanisauland.de>

2) '베를린 장벽 연대기(Chronik der Mauer)'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de/Home/Index>

*'담 위에서 기회를 엿보며(Auf der Mauer, auf der Lauer)'

*'롤리와 로키나우텐(Rolli und die Rockonauten)'

3) '시대증인과의 대화'

<http://www.zeitzeugen-dialog.de/>

조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의 민주시민 교육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518재단이 향후 교육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유용한 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오늘날 연방정치교육원이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 사업으로는 민주주의 후속세대인 청소년층에 대한 정치교육의 방식과 내용 개발, 독일인구의 20%를 넘어선 이주외국인들을 상 대로 한 다문화 다민족 통합을 위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성 교육, 독일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유럽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문제 등이 있다.

교육원은 최근 새로운 표적그룹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통적인 표적그룹은 일반 초중등학교, 대학교, 시민대학, 재교육센터 및 여타 교육기관의 교육관련 종사자들이었다 면,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주목하여 젊은 세대와의 직접적 소통을 넓히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잡지를 새로이 발간하기 시작했고, 정치교육용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령에 적합한 주제들과 매체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과 성인층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미디어사회 시대를 맞이하여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소화해 내고, 이를 응용하여 쌍방향적인 매체교육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이러한 실천과 방향모색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인 독일연방교육원 웹사이트(<http://www.bpb.de>)의 교육 자료를 분류하고자 했다.

- ㄱ) 평화와 인권 등에 관련된 전형적 정치교육 주제들을 위한 수업 자료
- ㄴ)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자료 (CD/DVD자료 및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포함)
- ㄷ) 정치교육용 웹사이트

조사의 내용

오는 12월 연구 종료와 함께 제출할 예정인 최종보고서에서는 위 3가지 기준에 의거 자료들을 조사 분류하고 그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내용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정치교육원 웹사이트(<http://www.bpb.de/>)에서 본 조사연구에 유용한 정보는 위 웹사이트 이미지에서 본 연구자가 따로 네모 박스로 묶어놓은 Lernen(학습), Mediathek(멀티미디어 센터), Shop(온라인 상점)이라는 3개의 꼭지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언급된 3개의 꼭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연방정치교육원 전체 교육 자료에 대한 개관을 시도하였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 웹사이트



bbp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europea.net](#) | [fluter.de](#) | [hansauland.de](#) | [apu2](#) | [izpb](#)
deutschlandarchiv

[RSS](#) | [Newsletter](#) | [Die bpb](#) | [Presse](#) | [Kontakt](#) | [Partner](#)

Start
Politik
Internationales
Geschichte
Gesellschaft
Nachschlagen
Veranstaltungen
Lernen
Mediathek
Shop
Dialog

Start

Hintergrund aktuell | Datenreport APuZ | DVD | fluter | Schülerwettbewerb



HINTERGRUND AKTUELL (29.11.2013)

Weit-Aids-Tag 2013

Immer weniger Menschen sterben an Aids, außerdem haben immer mehr HIV-Infizierte Zugang zu lebenserhaltenden Medikamenten. Das sind die guten Nachrichten des neuen UNAIDS-Berichts. Bei der Ausbreitung der Krankheit gibt es große regionale Unterschiede.

Stichwort des Tages

55 Parteiverbot

Politische Parteien sind in Deutschland verboten, wenn sie verfassungswidrige Ziele verfolgen.

[Zu den Lexika auf bpb.de](#)

Publikationen im Shop bestellen

bbp:magazin 2/2013



NEU

Mitreden auf [netzdebatte.bpb.de](#)



Liquid Democracy als "Versöhnungstechnologie"

Liquid Democracy = der Versuch hin zu einer alternativen demokratischen Machtausübung bei der die Grenzen zwischen Regierenden und Regierten zueinander verschwimmen – ist auch ohne den Erfolg der Piratenpartei ein interessantes Konzept. In seinem Artikel

Deine Meinung zum NPD-Verbot

HIER GEHT'S ZUM TEST

Dossier Rechtsextremismus

Test: NPD-Verbot

Die Bundesländer haben den erneuten NPD-Verbotsantrag fertiggestellt. Am 3. Dezember wollen sie ihn beim Bundesverfassungsgericht einreichen. Wie stehst du zum NPD-Verbot? Check deine Meinung mit unserem Test! Wir haben Pro- und Contra-Argumente für dich zusammengestellt. Weiter...

NPD-Verbot

+

FÜR

-

GEGEN

Dossier Rechtsextremismus

Schwerpunkt: NPD-Verbot

Soll die NPD verboten werden? Oder muss die

1. Lernen(학습)

Lernen 쪽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연구자가 네모 박스로 별도로 강조한 'Themen im Unterricht(수업 주제)', '수업(Unterricht)', '표적집단(Zielgruppe)', '자료의 형태(Formate)' 그리고 '정치교육을 위한 학생경연대회'라는 5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각각의 항목 아래로 또 다시 세부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bp). The navigation bar includes 'Start', 'Politik', 'Internationales', 'Geschichte', 'Gesellschaft', 'Nachschlagen', 'Veranstaltungen', 'Lernen', 'Mediathek', 'Shop', and 'Dialog'. The 'Lernen' menu is open, showing a dropdown with the following categories: 'Themen im Unterricht', 'Methoden und Didaktik', 'Zielgruppen', 'Formate', and 'Schülerwettbewerb zur politischen Bildung'. The 'Themen im Unterricht' category is highlighted, and its sub-items are: 'System', 'Europäische Union', 'Deutsch-deutsche Geschichte', 'Politisches System', 'Nationalsozialismus', 'Rechtssozialismus', and 'Wahl-O-Mat im Unterricht'. Below the menu, there are several content tiles: 'Antisemitismus', 'Unterrichten', 'Forschen mit GrafStat', and 'Sprache und Politik'. The 'Unterrichten' tile features the text 'VorBild - Politische Bildung für Förderschulen'. The 'Forschen mit GrafStat' tile features the text 'Bundestagswahl 2013' and 'Unter der Überschrift "Wahlen in der Demokratie" werden für die Bundestagswahlen 2013 Unterrichtsmaterialien zum Thema "Jugend und Politik"'. The 'Sprache und Politik' tile shows a book cover titled 'Sprache und Politik'.

1) 'Themen im Unterricht(수업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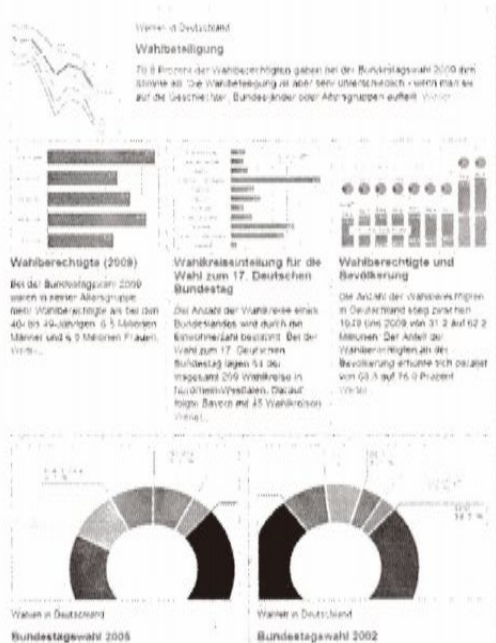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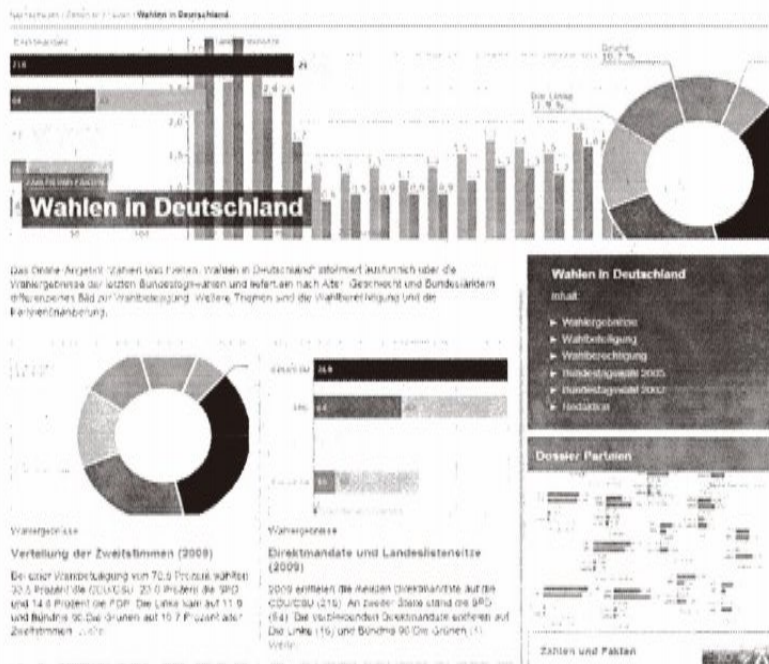
'수업주제' 쪽지에는 '선거', '유럽연합', '독-독 역사', '정치 시스템', '국가사회주의', '극우주의', '발-오-마트'라는 세부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1) 'Wahlen(선거)'

자유선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질서의 근본 요소이다. 주제별로 꾸러미로 묶인 연령별 수업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학습지, 수업프로젝트, 영화, 인포메이션 그래픽(Infographics) 및 사료텍스트 등이 제공된다. '독일 정당(Parteien in Deutschland)'라는 도시에가 제공되고, '독일에서의 선거(Wahlen in Deutschland)'라는 자료는 인포그래픽 자료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 자료는 사전이나 팩트 등을 모아두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참고자료(Nachschlagen)로 링크가 걸려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bbp: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menu with links for 'Start', 'Politik', 'Internationales', 'Geschichte', 'Gesellschaft', 'Nachschlagen', 'Veranstaltungen', 'Lernen', 'Mediathek', 'Shop', and 'Dialog'. Below the menu, there is a search bar and a section titled 'Lernen | Themen im Übersicht | Wahlen'.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allot paper with the word 'Stimme' (Vote) and a section titled 'Wahlen' with the subtitle 'UNTERRICHTSMATERIALIEN'. Below this, there is a text block: 'Freie Wahlen sind ein Grundelement unserer demokratischen Gesellschaftsordnung. Thematisch gebündelt finden Sie hier Unterrichtsmaterialien für alle Altersgruppen, Arbeitsblätter, Unterrichtsprojekte, Filme, Infografiken und Quellentexte.' To the right, there is a 'Wort des Tages' (Word of the Day) section with the word 'Wahlen' and a definition: 'W. sind direkte Prozesse zur Beteiligung von Bürgerinnen und Bürgern an der Politik, die mittels formalisierter Stimmabgabe (z. B. für einen Kandidaten, eine Partei etc.) im Rahmen eines Wahlverfahrens erfolgen. Freie W. sind ein Grundelement demokratischer Herrschaft. Zu unterscheiden ist zwischen...'. Below this, there is a 'Publikationen zum Thema' section with a featured publication 'Qual der Wahl. Das Heft über Mitbestimmung' and 'Was geht'. At the bottom, there is a 'Dossier' section titled 'Parteien in Deutschland' with a description: 'Deutschland ist eine Parteiendemokratie. Parteien sind das Bindeglied zwischen Staat und Gesellschaft. Praktisch keine politische Entscheidung wird ohne sie getroffen. Das Dossier präsentiert große und kleine Parteien im Detail. Weiter...'. The website footer includes 'eurotopia.net | fluter.de | hanisauland.de | spuz | csp | deutschlandradio' and 'RSS | Newsletter Die bbp | Presse | Kontakt | Partner'.

인포그래픽 자료로 제공되는 '숫자와 팩트(Zahlen und Fakten)'는 지난 연방선거 결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연령별, 성별, 주별로 다른 선거결과를 보여준다. 인포그래픽이라는 자료 형식은 '학습' / '자료의 형태(format)'라는 꼭지에 들어있다.





학습지의 목차

- 01: 너는 선택할 수 있다
- 02: 선거를 귀찮아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에 열광할 것인가?
- 03: 선거의 기쁨 혹은 선거 좌절? 너의 선거 성향을 테스트하라!
- 04: 선거를 왜 하는가? 민주주의적 선거의 근본기능
- 05: 선거는 언제 민주주의적이 되는가?
- 06: 역사에서의 선거권(1)
- 07: 역사에서의 선거군(2)
- 08: 다수선거 혹은 비례선거? (1)
- 09: 다수선거 혹은 비례선거? (2)
- 10: 연방의회 의석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1)
- 11: 연방의회 의석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2)
- 12: 선거하기 및 투표하기
- 13: 보다 많은 직접민주주의를 시험할 것인가?
- 14: 선거권개혁: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
- 15: 어린이를 위한 선거권?
- 16: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 어려운 관계인가?
- 17: 누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
- 18: 정당들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 (1)
- 19: 정당들은 무엇을 하려 하는가? (2)
- 20: 선거 퍼즐 맞추기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수업 자료들


'수업주제(Thema im Unterricht)'라는 교재 시리즈로 발행된 '초보를 위한 선거(Wahlen für Einsteiger)', '초보를 위한 정치' 그리고 '여기서 민주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교재 등이 제공된다.

이 교육 자료는 '온라인상점' / '학습' 쪽지로 링크되어 있다.

예시) '초보를 위한 선거(Wahlen für Einsteiger)'

예시) 01: 너는 선택할 수 있다!

Du hast die Wahl!



1. Was können wir wählen?

➔ 1. Überlege: worüber du heute und in Zukunft entscheiden kannst. Lass dich von den Illustrationen oben anregen und lege eine Liste an.

➔ 2. Welche sind für dich die wichtigsten Entscheidungen? Bringe deine Begriffe in eine Rangfolge. (Spiken politische Wahlen für den zukünftigen Leben eine besondere Rolle?)

➔ 3. Überlege: Was beeinflusst dich in deiner Entscheidung? Wodurch wird deine Wahlkraft angeordnet? Erstelle zu deinen Überlegungen eine Mindmap (oder einen Lernkarte).

2. Was bedeutet Wählen für mich persönlich?

Manche in unserem Leben können wir wählen wie den Beruf, den Freundeskreis, den Muttersprache, die Religion oder auch nur den Wohnort. Aber dafür müssen wir immer wieder Entscheidungen treffen mit mehr oder weniger weitreichenden Folgen.

➔ Kreuzt an, was für dich gilt. Wählen heißt für mich...

<input type="checkbox"/> Wissen haben zum Ausuchen <input type="checkbox"/> die Qual der Wahl haben <input type="checkbox"/> selbst über mein Leben bestimmen können <input type="checkbox"/> Verantwortung haben <input type="checkbox"/> Unsicherheit, ob andere meine Entscheidung verstehen <input type="checkbox"/> erwachsen sein <input type="checkbox"/> frei sein	<input type="checkbox"/> auch an die denken, die von meiner Entscheidung betroffen sind <input type="checkbox"/> Angst vor den Folgen haben <input type="checkbox"/> gespannt sein auf das Neue <input type="checkbox"/> Unsicherheit, ob ich mich richtig entscheide <input type="checkbox"/> das Gefühl unabhängig zu sein <input type="checkbox"/> Vertrauen schenken
--	---

— Hauptquelle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fP) — Themenreihe: Einführung in die Demokratie — Gestaltung: Hans-Joachim Lauth

1. 우리는 무엇을 선택(wählen)할 수 있나?

- 네가 오늘 그리고 미래에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삽화를 보고 힌트를 얻어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 어떤 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나? 너의 개념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정치적 선택이 너의 삶에 특별한 역할을 하느냐?
- 다음을 생각해 보라. 너의 결정에 무엇이 영향을 끼치느냐?
 너의 선택의 자유는 무엇으로 인해 제한 받느냐?
 너의 생각들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보라.

2. 선택은 너 개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인생에서 직업, 친구, 반장, 정부 혹은 휴대폰 요금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 반드시 다소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택이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하라.

- 선택 대상을 찾을 때 즐거움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의 결정에 의해 관련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 선택의 고통을 의미한다.
-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 나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새로운 것에 긴장한다는 것이다.
-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이다.
- 내가 옳바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의미한다.
-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결정을 이해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의미한다.
- 독자적이라는 느낌을 의미한다.
-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신뢰를 선사하는 것이다.
-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03: 선거의 기쁨 혹은 선거 좌절? 너의 선거 성향을 테스트하라!

1. 여론에서 선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종종 제시된다.

너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생각하라. 너는 어떤 진술에 동의할 것인가?


너의 대답을 오른쪽 빈칸에 표시하라. (그렇다 +, 아니다 -, 모르겠다 0)

- (1) 민주주의는 오로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때에만 가능하다.
- (2) 나의 일상은 정치와 관련이 없다. 나는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 내가 왜 선거하러 가야만 하는가?
- (3) 모든 표가 중요하다. 물론 나의 투표도 중요하다. 나는 선거하러 간다. 왜냐하면 작은 비용을 갖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함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

- 20점에서 -15점까지 정치혐오증/비투표자
- 14점에서 -5점까지 선거무관심자
- 4점에서 + 4점까지 확신을 가진 투표자
- +15점에서 +20점까지 열광적인 투표자

Thema im Unterricht/Thema
Wahl 5. Klasse
John Buhk 2010/11
Zuletzt geprüft: Oktober 2011
Source: www.kjz.de/wahlfragen
+ Thema im Unterricht



Wahl-Lust oder Wahl-Frust?

Teste deine Wahlneigung!

➔ 1. Die folgenden Meinungen über das Wählen sind in der Öffentlichkeit häufig zu hören. Stimme Dir vor, du bist wahlberechtigt, welchen Aussagen stimmst du zu? Markiere deine Antwort in der rechten Spalte (+ = richtig, - = falsch, 0 = unentschieden).

1. Demokratie funktioniert nur, wenn sich alle Bürger/innen beteiligen.	+	-	0
2. Allen Bürger/innen mit Politik nichts zu tun. Ich interessiere mich nicht unbedingt für Politik. Wessen wählen die wählen gehen?	+2	-2	0
3. Jede Stimme ist wichtig, auch meine. Ich gehe wählen, weil ich so mit geringem Aufwand über die Zukunft meines Landes mitentscheiden kann.	+2	-2	0
4. Die Parteien gleichen sich allen @ dem anderen. Da kann ich mich gar nicht entscheiden.	+1	-1	0
5. Das Recht zur freien Wahl die eigenen Volksvertreter ist das wichtigste Bürgerrecht. Darauf sollte man nicht leichtfertig verzichten, denn viele Menschen haben dafür gekämpft und gelitten.	+2	-2	0
6. In der Masse der Wähler/innen muss Stimme überhaupt nichts.	+2	-2	0
7. Ich gehe wählen, weil sonst andere über mich und mein Leben entscheiden?	+1	-1	0
8. Ich würde gerne an einem Mitarbeiter/innen teilnehmen und über eine politische Entscheidung abstimmen, aber wählen und Parteien/innen seien Bürokratie ausserdem. Damit ist vor allem tun und lassen können, was sie wollen, aber ich nicht daran.	+1	-1	0
9. Ich gehe wählen, weil wir einen Rechtsstaat in unserem Land dringend nötig haben.	+1	-1	0
10. Ich kann schon Partei, die mich interessiert und meine Interessen vertritt.	+1	-1	0
11. Ich will bei Entscheidungen mitbestimmen, die mein Leben betreffen, da es nur um Steuern geht, um Antragsformulare oder um Fragen von Ökologie und Tieren.	+2	-2	0
12. Wie wichtig muss das Wählen sein, um die Wirtschaft zu retten? Die Wirtschaft kommt da nicht.	+1	-1	0
13. Im Wählen suchen die Politiker/innen das Gespräch mit den Bürgern/innen. In Wahlkampfbroschüren kann ich verstehen auf Parteien/innen schauen und die politische Richtung der Politik beschreiben.	+1	-1	0
14. Ich will nicht wählen, denn die Politiker/innen verfolgen nur ihre eigenen Interessen.	+2	-2	0


Berechne

Ergebnis

+20 bis +18 Punkte	+14 bis +9 Punkte	+8 bis 4 Punkte	4 bis -14 Punkte	-18 bis -20 Punkte
Hochmotivierter Wahlberechtigte	Motiviert	Unentschiedene Wahlberechtigte	Überzeugte Wähler/innen	Demotivierter Wähler/innen

➔ 2. Vergleiche das Ergebnis in der Gruppe. Sucht einen Partner/innen mit einem abweichenden Ergebnis und diskutiert darüber, welche Argumente antwortend sind.

➔ 3. Die Deutschen gelten im europäischen Vergleich als oblige Wähler/innen. Die Anteil der Nichtwähler/innen ist aber unter jüngeren Wahlberechtigten relativ hoch (vergleiche Arbeitsblatt 02, M2). Diskutiert: Wie könnte die Wahlbeteiligung gerade jünger Menschen gefördert we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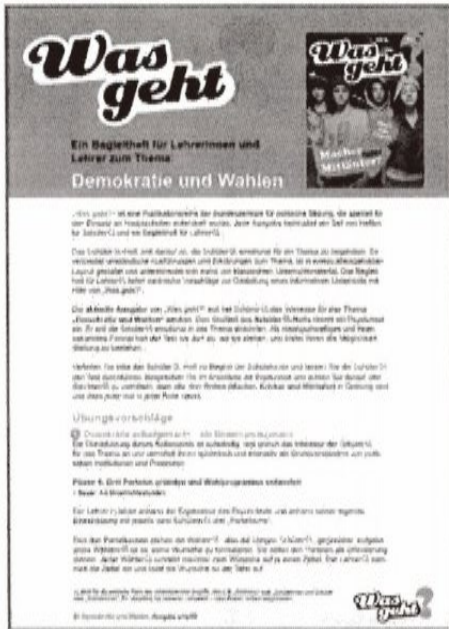


© Hans-Joachim Lauth, Berlin/2010

© Hans-Joachim Lauth/2011, politische Bildung/11/11/2011 - Freizeitspende: Politik/11/11/2011 - Gestaltung: www.stark.de

2. 모둠에서 결과를 비교하라. 다른 결과를 가진 파트너를 골라 어떤 논지가 결정적이었는지에 대해 토론하라.
3. 독일인은 유럽차원의 비교에서 열성적인 투표권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젊은 선거권자 중에 비투표자의 몫이 상대적으로 높다(학습지 02, M2를 참조하라). 바로 그러한 젊은 사람들의 선거참여를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지 논의하라.

무슨 일이니?(Was geht?)



이 교재는 청소년들에게 선거와 민주주의에 관한 복잡한 주제를 가능한 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별도로 제공되는 교사용 안내서에는 교사들이 수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실천적 제안들이 수록되어 있다. 장기간 혹은 단기간 구상에 적합한 수업요소들이 제안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범교과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런 교육 자료 시리즈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점' / '학습' 항목에서 별도의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슈피커

독일연방의회(Der Deutsche Bundestag)

어린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포맷의 교육 자료가 제공된다. 독일연방의회(Der Deutsche Bundestag)라는 자료는 'Spicker Politik' 제1호(2011년 4월)로 제작된 자료이다.

- Spicker Politik Nr. 1
 - 독일연방의회
 - 독일연방의회의 조직 구조에 대한 도표
 - 연방의회가 왜 존재하는가?
 - 연방의회가 위치하는 곳?
 - 연방의회에 누가 있는가? (의원, 정파, 소그룹, 야당)
 - 연방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 연방의회 선거방식은?
 - 연방의회는 어떻게 일하는가?
 - 2009년 연방의회선거의 투표결과를 보여준다.

도시예: 독일의 정당들

선거 관련 여러 도시예가 개발되어 있다. 정당, 극우주의, 극좌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 도시예는 번역된 Geschichte Begreifen 도시예와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에 대한 상세한 교수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Parteien in Deutschland

Nicht nur in den Nachrichten bestimmen sie das politische Tagesgeschehen: Parteien sind in Deutschland das Bindeglied zwischen Staat und Gesellschaft.

Aus den Erfahrungen der Geschichte schreibt das Grundgesetz den Parteien diese große Rolle zu: Sie sollen die verschiedenen Interessen der Bevölkerung in Programme und Entscheidungen übersetzen und umgekehrt den Bürgerinnen und Bürgern Politik vermitteln. Ob die Parteien ihrer großen Aufgabe voll gerecht werden, ist umstritten. Derzeit wenden sich viele enttäuscht von der Politik ab: Mitglieder und Wahlbeteiligung schrumpfen.

In acht Kapiteln und zahlreichen statistischen Grafiken stellt das Dossier die großen und kleinen deutschen Parteien ausführlich vor und erklärt, wie unsere "Parteiendemokratie" funktioniert.

Die Bundestagsparteien vor der Bundestagswahl

Die SPD vor der Bundestagswahl 2013
Nach dem mit Abstand schlechtesten Wahlergebnis ihrer Geschichte 2009 konnte sich die SPD seit Anfang 2010 in der Wahlgangzeit deutlich über ihrem Bundestagswahlergebnis stabilisieren. Bis Herbst 2012 wird der Trend aber wieder nach...

Parteien für Einsteiger
Was sind eigentlich Parteien? Wie funktionieren sie - wofür stehen sie - und warum gibt es sie überhaupt? Eine kleine Einführung in zwei Seiten. Weiter...

Parteien
Inhalt

- ▶ Parteien für Einsteiger
- ▶ Grundlagen
- ▶ CDU
- ▶ SPD
- ▶ FDP
- ▶ DIE LINKE
- ▶ Bündnis 90/Die Grünen
- ▶ CSU
- ▶ Klempnerpartei
- ▶ Europäische Parteien
- ▶ Zahlen und Fakten
- ▶ Parteienquiz
- ▶ Redaktion
- ▶ Wer wählt was?

Publikationen im Shop bestellen

Parteien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formationen zur Bundestagswahl

정당

목차

초보를 위한 정당

기초

CDU

SPD

FDP

IE LINKE

Bündnis 90/Grüne

CSU, 소수정당, 유럽정당들, 정당퀴즈, 편집진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가?



선거태도에 대한 최신 설문결과를 담고 있다. 이를테면 2013년 4월 12일 일요일 Infratest dimap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CDU/CSU는 42%, SPD는 27%, 그뤼네는 15%, 디링케는 7%, FDP는 4% 그리고 해적당 2%를 획득했다. 여기에서 다양한 집단의 당선호도가 분석되고 이전 선거와 비교된다.

유명인사의 투표독려 캠페인 (Promis rufen auf: "Geht wählen!")

“개처럼 따라하지 말고 스스로 하자”

2008년 선거독려 연설 - Dirk Bach

쾰른 거주 코메디언 Dirk Bach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투표를 독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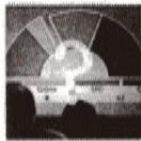
이 미디어자료는 멀티미디어센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다.

Quelle: [Arbeitsmachten statt Männchen machen](#)

Selberrmachen statt Männchen machen
Wahlaufruf zur Bundestagswahl 2009 von Dirk Bach
Selberrmachen statt Männchen machen - Der Kölner Comedian Dirk Bach ruft auf, die Wähler für die Demokratie zu stellen: Mit der Bundestagswahl.

Suche in der Mediathek
In der Mediathek suc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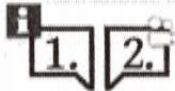
- "Da haben Sie etwas gut zu machen."
Wahlaufruf zur Bundestagswahl 2009 von Dieter Hildebrandt
- "Schön bescheuert"
Wahlaufruf zur Bundestagswahl 2009 von Barbara Schulzberger
- "Wer kuscheln will, der muss auch wählen gehen!"
Wahlaufruf zur Bundestagswahl 2009 von Günter Gabriel
- "Allein, allein" ... in die Wahlkabine - aber zusammen für die Demokratie
Wahlaufruf zur Bundestagswahl 2009 von Peter Kross TB



Parteien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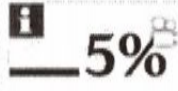
Wie viel Prozent der Stimmen muss eine Partei bei einer Bundestags- oder Europawahl erreichen um staatlich finanziert zu werden? Und was versteht man unter der Rekrutierungsfunktion? Stellen Sie Ihr Wissen auf die Probe! Weiter

Kurzfilme: Besonderheiten des deutschen Wahlrechts



Erst- und Zweitstimme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erklärt, wie die Bundestagswahlen funktionieren. Wovon Stimmen hat man? Was ist wichtiger die Erst- oder die Zweitstimme? Was wählt man mit den beiden Stimmen? Weiter



Fünf-Prozent-Hürde

Was ist die Fünf-Prozent-Hürde? Wie können Parteien auch mit weniger als fünf Prozent Stimmen in den Bundestag? Warum gibt es diese Sperrklausel? Die Ipb erklärt, wie die Bundestagswahl funktioniert. Weiter



Überhang- und Ausgleichsmandate

Was sind Überhangmandate? Was sind Ausgleichsmandate? Wie entstehen sie? Was ist das negative Stimmgericht? Und warum musste das Wahlrecht überarbeitet werden. Die Bundeszentrale erklärt, wie die Bundestagswahl funktioniert. Weiter

Was ist Wahlkampf? Analysieren Sie Wahlwerbepots aus unserer Mediathek!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wahlgesetz

Das Bundeswahlgesetz regelt die Verfahren der Bundestagswahlen. Hier geht's

HanisauLand-Spezial: Wahlen

In HanisauLand stehen Wahlen vor der Tür. Da muss einiges vorbereitet werden! Wer kann sich wofür am Wahlabend als Gewinner freuen? Findet es selbst heraus! Weiter

politische-bildung.de

Politische Bildung

Das Angebot der Landeszentralen für politische Bildung informiert über kontroverse Themen aus Politik, Wissenschaft und Gesellschaft. Didaktisch aufbereitete Materialien, Projekte, Telelearning-Kurse und Web-Angebote machen die Seite für Lehrende und Lehrer besonders attraktiv. Weiter

독일 투표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는 짧은 필름들이 준비되어 있다.

- 1, 2 투표권의 작동을 설명한다.
- 제1투표, 즉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5%를 득표해야 한다.
- 초과의원 및 균형의원에 대해 설명한다.

하니자우란트에서 선거 (HanisauLand-Spezial: Wahlen)

만화로 만들어진 어린 이용 민주주의 교육 사이트이다. 여기에 선거라는 꼭지가 따로 설정되어 있다.

이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차후 웹사이트 조사에서 별도의 설명이 제공될 것이다.

(2) '유럽연합'

27개 유럽연합 구성원국가는 유럽 통합과정을 입안하여 그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교환하고 있다. 5억이 넘는 사람들이 50년간 매일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 하나가 되려한다. 이 유럽연합이라는 주제 꼭지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교육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라는 도시에가 출간되어 있다. '유럽연합(Spicker Politik Nr.2 (April 2011))'이라는 슈퍼커를 비롯 다양한 포맷의 교육 자료들이 제공된다.



포켓(Pocket) 시리즈로 유럽에 관한 데이터와 팩트를 제공하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만 사이즈의 사전으로 *Europa - EU-Begriffe und Länderdaten*라는 교재가 출간되어 있다.



'시간표 유럽연합'이라는 교육용 교재가 Falter Zeitgeschichte 시리즈 제2호로 영어와 독일어로 출간되어 있다. 이 '팔터 현대사' 시리즈는 뒤에 '온라인상점' / '학습' 꼭지에서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질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잡지의 형태로 '유럽'이 발간되었다. 이 잡지에는 다양한 과제와 퀴즈문제 그리고 논의의 쟁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잡지는 직업 학교를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교사용 지도서가 함께 출간되었다.

하니자우란트 -스페셜 꼭지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만화가 실려 있다.



Walross Odo는 너무나 심심해서 Wisama (Wissenssammelmaschine)라는 기계를 만들었다. 이 기계는 숟가락 모양의 안테나를 장착하고 있는데, 우주에 이리저리 놓여 있는 데이터들을 포착하여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Wisama는 어제 매우 진기한 데이터를 포착했다. 그 데이터에서는 알파벳 철자 E와 U가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오도는 현재 우주에서 날아온 이 메시지를 해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당신은 오도를 도와 줄 수 있는가?

(3) '발-오-마트'



2002년부터 연방정치교육원은 상호작용적 선거학습용 도구로서 발-오-마트를 개발하여 정치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이 선거교육용 도구는 이제 선거 및 선거교육 영역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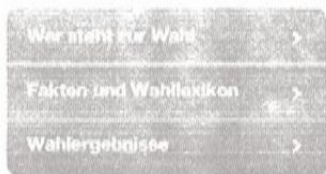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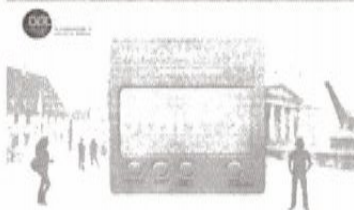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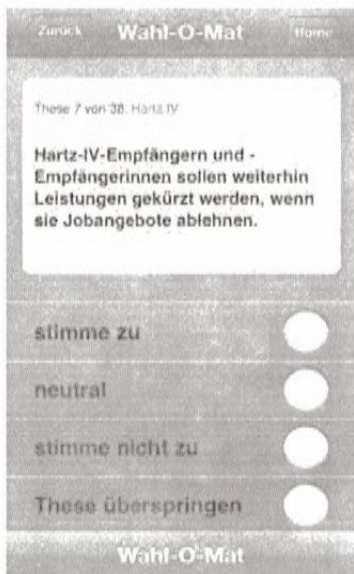
이 선거학습용 도구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교안까지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었다.

발-오-마트는 상호작용하는 질문 및 답변-도구로 어떤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가장 근접한지를 알려준다. 대략 10학년부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학습자는 독자적으로 이 도구를 활용 학습하면서 특정 주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발-오-마트 프로그램은 컴퓨터용으로, 모바일 휴대폰용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용과 아이폰용)으로 개발되어 있다.

다양한 교재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들을 위한 맞춤형 교안들도 개발되어 있다.



- 우선 본격적인 정당 또는 입후보자 선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쟁점이 되는 주요사안들에 대해 기초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 학습자는 38개의 주제에 대해 '찬성', '중립', '반대' 또는 '넘어가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선거에 나선 정당 역시 주제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대답한다. 학습자의 선택은 정당의 선택과 연계되어, 특정정당과의 일치 정도가 계산된다.
- 이 기초 학습과정을 거친 다음 'Wer steht zur Wahl(누가 입후보했나?)', 'Fakten und Wahllexikon(선거데이터와 선거사건)', 'Wahlergebnisse(선거결과)' 와 같은 다른 선거 관련 학습으로 넘어갈 수 있다.
- 학습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주제들에는 가중치를 줄 수 있다.
- 여러 정당들 중에서 8개까지 당을 선택할 수 있다. 정당 선택은 www.wer-steht-zur-wahl.de와 링크되어 정당에 대한 보다 심화된 학습을 거친 다음 이루어질 수 있다.
- 발-오-마트 과정의 끝에는 모든 정당들이 학습자의 정치적 입장에 근접한 순서로 정리되어 나타난다.
- 학습자의 선택과 정당의 선택이 도표 형식으로 제공된다. 개별 주제들에 대한 배경지식은 www.bpb.de에서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다.
- 정당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답변을 제공하며, 정당은 자신들의 대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발-오-마트 결과를 나타낼 때 함께 게시된다.
- 결과가 제시될 때, 38개에 이르는 모든 주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전이나 도시에와 링크되어 있다.
- 발-오-마트는 정치 관련 주제들에 관한 맛보기 역할을 할뿐이다.

Wahl-O-Mat

Ihr Wahl-O-Mat-Ergebnis

Übereinstimmung

Partei

SPD
DIE LINKE
BÜNDNIS 90/DIE GRÜNEN
FDP
CDU

Ihre Angaben haben die größte Übereinstimmung mit

Ihre Position im Vergleich
Wie kam Ihr Wahl-O-Mat-Ergebnis zu Stande?
Vergleichen Sie Ihre Position zu jeder These mit allen Parteien:

Stimme zu

Stimme nicht zu

Neutral

Übersprungen

Nr.	These	Ihre Position	SPD	DIE LINKE	BÜNDNIS 90/DIE GRÜNEN	FDP	CDU	Info
1	Autobahnen bauen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Ledernetzungszeit begrenzen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Mehr Privatisierung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Ausbildungsplätze Pflicht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Dreigliedrige Schule erhalten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Noten abschaffen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Killergames verbieten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8	Online durchsurfen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wahl-o-mat.de/unterricht 는 교사나 학습자가 엄청난 양의 개발된 교안들, 수업 자료들 및 아이디어들을 모아두고 있다. 학교 안이나 밖에서 발-오-마트 수업을 전개하면서 여러 형태의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학습자가 발-오-마트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를 주제로 한 수업으로 진입하면,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에서 개발한 다음과 같은 교재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Spiker Politik Nr.1' - 'Der Deutsche Bundestag'이라는 교재가 개발되어 있다. 연방의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의회는 어떻게 선출되는가? 그리고 누가 의원인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이 슈피커는 연방의회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삽화와 요점정리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Politik für Einsteiger' - 20개의 학습지로 구성된 이 교재는 민주주의적 선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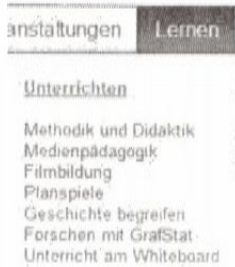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독일에서 선거의 역사, 민주주의적 선거의 특징과 선거권의 확대에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다룬다. 이 수업용 학습지는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매워야 하는 빈칸, 학습자 자신의 생각 적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도표, 삽화 및 사진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 이외 'Wahlen für Einsteiger', 'Demokratie - was ist das?', 'Was geht?' - 'Demokratie und Wahlen' 등의 자료도 활용 가능하다. 'Was geht?' 시리즈는 연방정치교육원이 특히 하움트슬레를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이다. 학습자용과 교사용이 나란히 출간된다. 학습자용은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인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되도록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 수업자료와 구분된다. 교사용 지침서는 이 시리즈를 통한 수업에서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수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들을 담고 있다.
- 일반시민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담은 동영상의 소개, 독일의 선거방식을 설명하는 짧은 동영상의 소개, 각 정당들의 자신의 정당 및 후보를 소개하는 선거용 광고 방송 등은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미디어 센터에서 감상할 수 있게 링크되어 있다.
- 이외에도 보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가 개발되어 있다. 'Wahlzeit! Warum wählen?(선거철: 왜 선거를 해야만 하는가?)' 56 주제카드와 카드 게임 - 카드게임 형식으로 선거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수업자료이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제별로 교육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 '독-독 역사'
- '정치 시스템'
- '국가사회주의'
- '극우주의'

2) '수업(Unterric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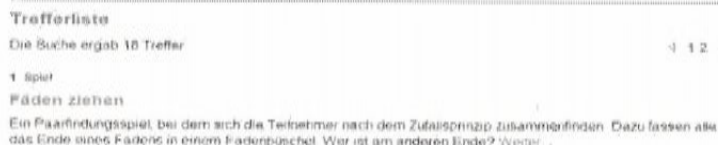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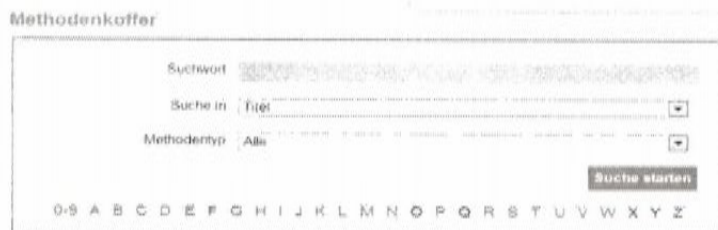
주제가 확정되면, 그 다음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매개할 것인가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이와 관련하여 교수법적 토대를 가진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학습 / 수업 꼭지는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교육 자료를 제시한 항목이다. 이 꼭지는 'Methodik und Didaktik(방법론과 교수법)', '미디어교육(Medienpädagogik)', '영화제작(Filmbildung)', '보드게임(Planspiele)', '역사 파악하기(Geschichte begreifen)', '그래프 및 통계를 통한 연구(Forschen mit GrafStat)', '화이트보드 활용 수업(Unterricht am Whiteboard)'이라는 세부항목을 갖고 있다.

(1) 'Methodik und Didaktik(방법론과 교수법)'

아동과 청소년들을 수업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방법론들을 모아둔 꼭지이다. 아동 및 청소년 인권을 널리 알리고, 아동이나 청소년의 민주주의적 참여를 장려하는 교육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Methodenkoffer(방법론 상자)라는 검색엔진을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필요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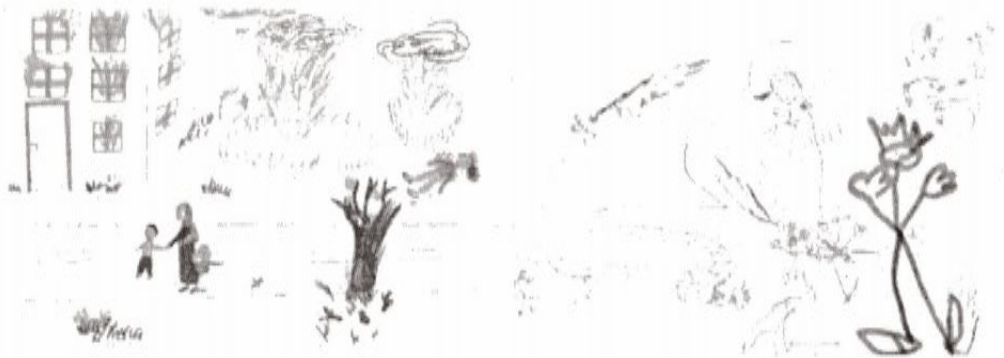
방법론의 형태와 관련하여 나이 혹은 집단의 크기 등과 같은 더 많은 기준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독일 어린이재단(Deutsches Kinderhilfswerk e.V)의 정보센터 (<http://www.kinderpolitik.de/methodendatenbank/uebersicht.php>)를 링크해 두고 있다.

(2) '미디어교육(Medienpädagogik)'

이 쪽지에서는 한편으로는 컴퓨터 게임을 비롯한 각종 게임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매체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접근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 쪽지에는 ‘어린이가 바라본 전쟁’이란 도시에 주목한다. 이 도시에 가 우리 대중매체의 전쟁관련 보도와 청소년의 평화교육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시예: ‘어린이가 바라본 전쟁(Kinder sehen Krieg)’



전쟁은 이제 어린이의 일상이 되었다. 아이들은 매일 라디오를 통해 전사자의 수를 접하고 있으며, 어른들의 대화로부터 이야기를 엿듣고, 티브이를 통해 테러와 참상을 목도한다. 이 세계의 위기들은 이미 아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도시에는 3장에 걸쳐 아이들의 체험과 이미지 세계를 보여준다. 또한 이도시에는 전 세계로부터 모은 어린이 뉴스를 선보이는데, 부모나 교육자에게 전쟁이미지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그림과 일기 등이 소개되어 있다. 목차구성을 보면 상세한 내용과 교육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Kinder sehen Krieg

Inhalt:

- ▶ Die Kinder
 - ▶ Einführung
 - ▶ Vorschulkinder
 - ▶ Der Irakkrieg aus deutscher Sicht
 - ▶ Der Irakkrieg aus Sicht der USA
- ▶ Das Fernsehen
- ▶ Empfehlungen
- ▶ Videos und Bilder
- ▶ Redaktion

어린이
 들어가며
 학령 전 어린이
 독일 어린이의 시각으로 본 이라크 전쟁
 미국 어린이의 시각으로 본 이라크 전쟁

- ▶ Die Kinder
- ▶ Das Fernsehen
 - ▶ ARD/ZDF KI.KA
 - ▶ ZDF logol
 - ▶ NDR Sesamstraße
 - ▶ ORF Confetti TiVi
 - ▶ BBC Newsround
 - ▶ Canal Futura
 - ▶ Kinderfernsehen in Israel
 - ▶ Inhaltsanalyse
- ▶ Empfehlungen
- ▶ Videos und Bilder
- ▶ Redaktion

- Kinder sehen Krieg**
- Inhalt:
- ▶ Die Kinder
 - ▶ Das Fernsehen
 - ▶ **Empfehlungen**
 - ▶ Für Eltern
 - ▶ Für Pädagogen
 - ▶ Für Journalisten
 - ▶ Chancen für Bildung
 - ▶ Videos und Bilder
 - ▶ Redaktion

텔레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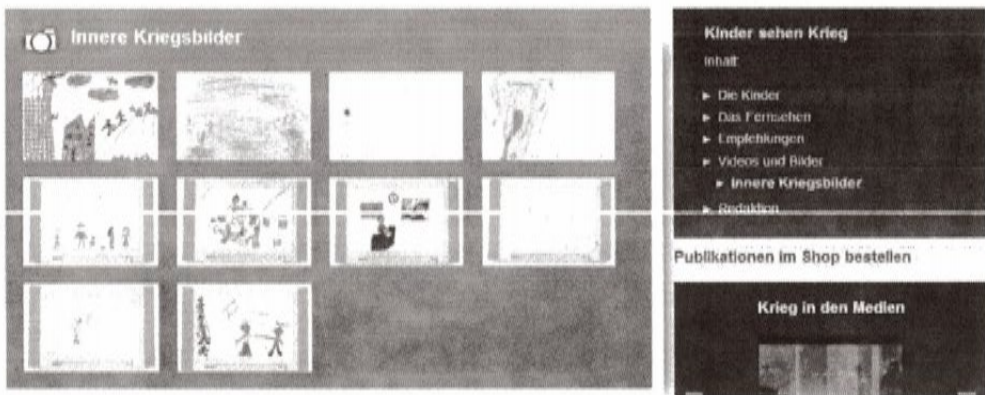
ARD/ZDF KI.KA: 독일공영방송 ZDF 어린이 방송채널
 ZDF logol: KI.KA에서 제공되는 어린이를 위한 뉴스
 NDR Sesamstraße: 독일지역방송국 NDR 제공, 학령 전 어린이 대상, 성공적인 TV 프로그램
 ORF Confetti TiVi: 오스트리아 독점공영방송 ORF 제작, 광고와 폭력 없는 어린이 프로그램
 BBC Newsround: 영국 국영방송 BBC 제작 어린이교육 전문채널
 Canal Futura: 브라질 방송그룹 Globosat 소유 교육방송 채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와 하층노동자 대상 프로그램 제작.
 특히 이라크 전쟁 관련 리포터보다, 광고나 아트 워크 올림피아드를 통한 관용제시
 이스라엘 어린이방송

추천

부모를 위하여
 교육자를 위하여
 언론인을 위하여
 교육을 위한 기회

어린이들은 전쟁을 어떻게 상상할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출신 8명의 어린이들이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쟁놀이만을 즐기는 코카서스 어린이들의 일상을 그린 3편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다.



(3) 영화 제작

이 꼭지에서는 'Cine Okul'이란 영화시리즈를 소개하고, '문화교육에서의 영화 제작'이란 도시에를 제공한다. "This Ain't California" von Marten Persiel (Deutschland 2012)란 영화를 소재로 한 학습지를 제공한다. 이 영화는 1980년대 동독의 스케이팅보드 선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동독 스케이터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탄생한 이 영화는 채취된 사료, 애니메이션, 연출된 기억, 인터뷰 등이 콜라주 형태로 혼합된 다큐 성격의 영화이다.

Arbeitsblatt zum Film "This Ain't California"

"This Ain't California" von Marten Persiel (Deutschland 2012) erzählt am Beispiel einer ostdeutschen Clique die Geschichte der "Rollbrettfahrer" in der DDR der 1980er-Jahre. Anhand ausgewählter Biografien ehemaliger DDR-Skater entstand ein Film mit vielen Ebenen, der das Lebensgefühl der Skaterszene wiedergibt. Archivaufnahmen, Animationen, inszenierte Erinnerungen und Interviews wurden vom Regisseur collageartig zu einem sich dokumentarisch gebenden Film zusammengefügt.

Das Arbeitsblatt richtet sich an Schüler/innen ab der 10. Jahrgangsstufe.

Aufgabe 1: Vorbereitung auf den Filmbesuch

Fächer: Kunst, Religion, Ethik, Musik, Geschichte, Politik, Sozialkunde, Sport

Schauen Sie sich den Trailer zum Film "This Ain't California" an:

(Trailer: <http://www.farbfilm-verleih.de/filme/CALIFORNIA.html#downloads>)



- a) Welche Erwartungen weckt der Trailer bei Ihnen? Schreiben Sie Ihrem Freund oder Ihrer Freundin eine fiktive SMS, warum Sie diesen Film unbedingt sehen wollen.
- b) Notieren Sie, welche unterschiedlichen Bestandteile des Formats "Dokumentarfilm" in dem Trailer zu sehen sind. Recherchieren Sie dazu, aus

학습지는 크게 3단계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영화 관람 전 준비단계를 위한 것이다. 영화 예고편을 보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 ㄱ) 예고편은 당신에게 어떤 기대를 일깨웠는가? 당신이 왜 이 영화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친구에게 보내는 가상의 문자를 작성하라.
- ㄴ) 다큐영화 형식의 어떤 상이한 구성부분을 이 예고편에서 볼 수 있었는지를 지적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어떤 요소들로부터 다큐 형식이 구성되는지에 관해 조사하라.

영화관 방문 시 이러한 일반적 형식의 요소들이 다큐영화로서 이 영화를 인정하도록 하는지 유의하라.

- ㄷ) 영화관 방문 후에 예고편을 위한 새로운 오프-텍스트를 작성하라. 이때 당신의 기대가 - 다큐영화라는 장르와 관련하여서도 - 얼마만큼 충족되었는지를 고려하라.



Filmstill 1



Filmstill 2

a) Beschreiben Sie zunächst, was Sie auf den Filmstills sehen. Analysieren Sie anschließend die Gestaltung der Bilder im Hinblick auf den Kamerastil. Füllen Sie zu zweit folgende Tabelle aus:

Elemente des Kamerastils:	Beschreibung/ Funktion und Wirkung	
	Filmstill 1	Filmstill 2
Einstellungsgröße		
Kameraperspektive		
Bildkomposition (Vorder-, Mittel-, Hintergrund; Positionierung von Personen und Gegenständen)		
Farbe		
Licht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화 스타일을 비교한다.

ㄱ) 제시된 표를 작성하라

ㄴ) 어떤 이미지가 다큐적 느낌을 더 주는가?

ㄷ) 자신과 친구 사진을 20년 전에 찍은 것처럼 만들어보라. 이때 의상, 헤어스타일 등을 적절하게 바꾸어라. 이 사진을 교실에 걸고 사진의 어떤 점이 이 사진이 오늘날 찍은 것임을 알려주는지 함께 고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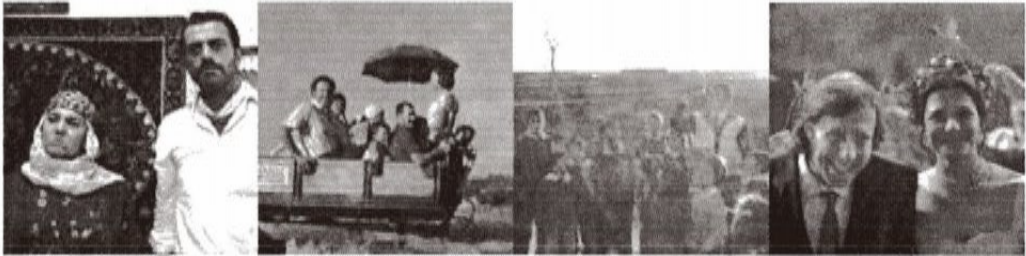
세 번째 단계의 과제는 다큐영화의 상연이다.

*영화 학교 ('Cine Okul' - 터키어로 영화학교)

Cine Okul이란 영화시리즈는 베를린의 학생들에게 상호문화적(intercultural) 자질을 매개하려는 목적으로 Tiyatro Aktuel Berlin e.V. 와 연방정치교육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상투적 사고를 재미있고 일목요연하게 들춰내고 그 배경을 알아 가는데 영화보다 좋은 매체는 없다. 멜로드라마에서 다큐에 이르기까지, 메인스트림 영화에서 작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4개의 서로 다른 영화가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의 자명한 공존을 창려할 것이고, 문화적 상이성의 긍정적 측면을 강화할 것이다. 4편의 영화 제목은 다음과 같다.

Ay lav yu	Babam ve oglum	İki dil bir bavul	Evet,
I love you	Mein Vater und mein Sohn	Zwei Sprachen, ein Koffer	ich will!



(4) 보드 게임 (Planspiel)

게임하면서 정치를 이해한다. 보드게임은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의 복잡한 맥락을 매개하기 위한 행동중심 방법론으로서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해가고 있다.

ㄱ) 지역에서 정치 체험하기

시민의 생활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은 지역 차원에서 내려진다. 시민은 그러한 결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서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마주한 과제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규칙들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ㄴ) '도구상자 보드게임과 커뮤니티-카페(Werkzeugkoffer Planspiele und Kommunal-Café)'
- 수업에서 활용되는 지역정치를 위한 초석이다.

보드게임과 커뮤니티-카페 도구상자는 수업에서 행동중심 정치를 매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도구상자는 기존의 보드게임을 그때그때의 학습상황에 맞추어 자신만의 보드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카페를 열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집단학습, 행동능력과 결정능력의 훈련, 자기주도권 및 갈등능력의 장려 등과 같은 행동중심 방법들은 일상문제들 뒤에 통상 정치적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적합하다. 또한 참여를 위한 방법들도 제시한다. 정치가 자신의 일상세계와 맺고 있는 관련성은 다른 곳에서보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더욱 분명하게 감지될 수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보드게임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구상자 보드게임 및 커뮤니티카페 PDF파일을 제공하여 방법론적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Werkzeugkoffer Planspiele und Kommunalcafé - Bausteine für Kommunalpolitik im Unterricht
Von Thomas S. Reg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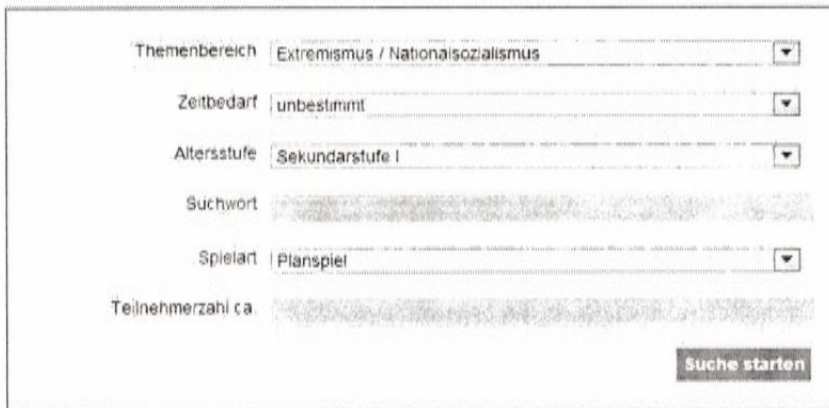
Übersicht methodischer Möglichkeiten (Tabelle)

Phasen	Planspiel-Anpassung	Planspiel-Entwicklung	Kommunal-Café
	Ein passendes bestehendes Planspiel wird ausgesucht und ggf. an die lokalen / kommunalen Gegebenheiten angepasst. (Autorenrechte beachten!)	Ein aktuelles kommunales Thema wird zum Anlass genommen um ein Planspiel zu entwickeln. Positionen und Konfliktlinien sollten bereits gut dokumentiert sein (Medienberichte,	Mit den Schülerinnen und Schülern wird ein konkreter kommunaler Handlungsbedarf festgestellt, dessen kommunale Behandlung simuliert und ggf. mit den kommunalen Akteuren

ㄷ) '보드게임-데이터뱅크(Planspiel-Datenbank)'

보드게임은 정치적 맥락의 매개를 위한 아주 적합한 행동중심 학습 및 교수방법론이다. 가상의 혹은 현실적인 정치적 사건으로부터 빌려온 시나리오가 배경을 구성한다. 참여자는 배우의 역할을 넘겨받고 시나리오를 통해 사전에 제공된 행동 및 결정과정을 따라한다. 주제는 전체 주의적 독재국가의 메커니즘일 수도 있고, 유럽연합의 확장 과정일 수도 있다. 데이터뱅크는 현재(2010년 1월 기준) 독일어권에서 제공되는 학교내부 및 학교외부 정치교육에 써먹을 수 있는 대략 250개의 보드게임 설명서를 포함하고 있다.

Planspiel-Datenbank



Themenbereich: Extremismus / Nationalsozialismus

Zeitbedarf: unbestimmt

Altersstufe: Sekundarstufe I

Suchwort: [blurred]

Spielart: Planspiel

Teilnehmerzahl ca. [blurred]

Suche starten

Hinweis: Suchen Sie gezielt anhand Ihres wichtigsten Kriteriums. Vermeiden Sie Kombinationen von mehreren Suchkriterien, falls Ihre Suche wiederholt erfolglos bleibt.

Trefferliste

Die Suche ergab 4 Treffer.

1 Planspiel

Anne Frank - ein Planspiel

Extremismus / Nationalsozialismus

In den Rollen von Anne Frank und Ihren Familienmitgliedern, die sich während der Besetzung Hollands vor den deutschen Nazis verstecken, lernen die Teilnehmenden die Zeit und die Lebensumstände kennen. Weiter

2 Planspiel

Plan-N

Fremdenfeindlichkeit / Migration, Extremismus / Nationalsozialismus

Nürnberg, die einstige Stadt der Reichsparteitage, trägt heute den Titel "Stadt der Menschenrechte". Doch wegen fremdenfeindlicher Übergriffe ist der Titel gefährdet! Bei diesem Spiel steht der Umgang mit Medien

**Planspiel
Plan-N**

Teilnehmerzahl:	Mind. 12
Altersstufe:	Sekundarstufe I, Sekundarstufe II
Zeitbedarf:	unbestimmt - Projekttag, ca. 6 Stunden
Preis Materialien od. Lizenz:	Auf Anfrage
Benötigte Ausstattung:	Ein großer Gruppenraum, ein Computerraum mit mind. 6 PCs, vernetzt, ein Rundfunkstudio, Ausstellung für Tonaufnahmen, Digitalkamera, mehrere Räume für Kleingruppen, 6 BetreuerInnen, davon eine Spielleitung, ein Technikspielleiter, der für die Umsetzung der Internetseiten verantwortlich ist sowie 4 BetreuerInnen für die einzelnen Gruppen.

참가자수: 적어도 12명 이상
 연령층: 제2차대전후세대
 시간소요: 불특정. 프로젝트일마다 대략 6시간
 소요비용: 계약에 따라
 필요장비:

뉘른베르크에는 제3제국의 의회가 존재했었다. 오늘날 이 도시는 '인권 도시'라는 별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적대적인 공격으로 인해 이 타이틀이 위험에 빠졌다. 이 놀이에서는 매체와의 접촉이 중심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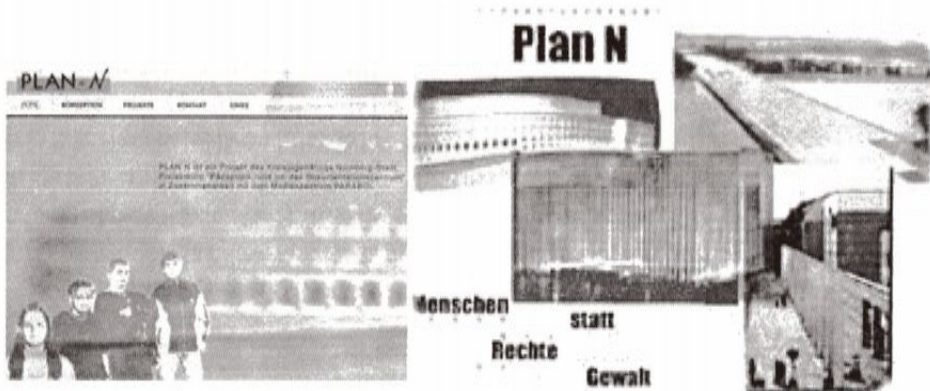
목표:
 참가자들은 관용/비관용, 외국인적대주의, 뉘른베르크의 국가사회주의적 과거 그리고 인권도시라는 오늘날의 별칭이라는 주제영역과 대결을 벌여야 한다. 매체를 다루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이미지들을 만들고 수정 작업을 하고, 인터넷에서 조사작업을 수행하고, 이를테면 Plan-N과 같은 미디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과정
 뉘른베르크는 한때 제국의회 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의 도시였다. 그러나 뉘른베르크는 이러한 이미지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전개했고 '인권도시'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러나 이런 타이틀이 위험에 빠졌다. 독일 도처에서 외국인적대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뉘른베르크에서도 모든 이방인과 신참자들에 대해 외국인적대주의와 비관용이 득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여태까지의 모든 노력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제 인권도시로서의 뉘른베르크는 인정될 수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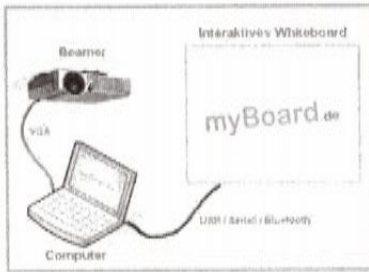
시간이 없다. 유엔은 유럽의회와 더불어 마지막 기회로서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한 집단을

선택했다. 단기간 내에 소기의 과제가 충족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관용과 외국인적대주의에 반대하는 시금석은 놓여야 한다.

과제들은 메일 혹은 휴대폰의 문자로 서로 소통하는 소집단으로 나누어 제시될 것이다. 한 집단은 뉘른베르크 시민들이 극우주의와 외국인적대주의에 반대하는 진술들을 모아 '청각용 벽보'를 발전시킨다. 또 다른 집단은 인권이라는 주제를 갖고 퀴즈를 만들어낸다. 다른 집단은 뉘른베르크의 국가사회주의적 과거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낸다. 또 다른 집단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비관용에 대항하는 포스트를 작성한다. 또 다른 집단은 배제와 비관용에 반대하는 라디오광고를 녹음실에서 모든 기술적 보조자료들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마지막 집단은 전체 기술적 전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해 이 집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개별 집단의 완성된 결과물들을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한다.



(5) '멀티미디어 수업 (Unterricht am Whiteboard)'



수많은 학교에 '상호작용적 화이트보드'가 갖추어져 있다. 그것의 활용가능성은 매우 높다. 도구 하나에 상호작용적인, 멀티미디어적인 학습 자료들을 망으로 연결하여 교실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보드 활용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수업은 새로운 수단을 장착한, 과거 '일방주입식(frontale Methode)' 수업의 회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교육원은 다양한 수업 예시를 통해 한편으로는 멀티미디어 활용 프레젠테이션 수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수업은 처음의 개발단계와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의단계에서는 소집단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학생들은 화이트보드를 통해 서로서로 그리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어 일방통로식 수업의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이트보드 수업' 꼭지는 '페이스북', '월요시위', '베를린장벽 건설', '장벽의 역사', '장벽건설의 3가지 관점'이라는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예시로 '베를린 장벽건설(Bau der Berliner Mauer)'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수업은 20세기 수십 년 간의 국가정치와 국제정치를 '각인한' 사건인 1961년 장벽건설을 주제화한다. 이 수업단위의 특별한 중점은 상호작용적인 화이트보드 활용 작업에 놓여 있다.

가) 수업의 지식 목표

- 두 독일국가의 완벽한 분단의 중요한 단계로서 주목을 받는 1961년 장벽건설은 사건의 중요한 팩트와 배경을 인지하고 분석한다.
- 1961년 장벽건설의 의미를 유럽과 글로벌 맥락 속으로 사안별로 정리한다.
- 자료들 속에 표현된 당사자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참여의 의미와 개별 시민들의 운명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사안별로 논지를 개발해 낸다.
- 장벽이 1989년까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의미를 사안별로 정리한다.
- 장벽의 건설과 의미를 '동서갈등'과 '냉전'의 전개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이 사회적 세계표준과 함께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것을 자신의 판단을 정립할 때 고려한다.

나) 수업의 미디어교육 목표

- 인터넷 - 데이터뱅크와 미디어교육 의도로 생산된 도시에 - 을 현실적이고 적합한 조사를 위한 미디어로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활용을 비판적으로 반성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제공된 개별 정보들과 대결을 벌일 수 있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
- 작업을 멀티미디어를 수단으로 한 - 물론 상호작용적인 화이트보드의 활용을 염두에 둔 -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시현할 수 있다.

주제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 건설
저자	Martin Geisz
과목	역사, 정치, 경제
소모들	9학년부터
시간	2시간에서부터 4시간까지
기술적 전제 조건	화이트보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교안	표로 작성된 과정표

다) 교수법적인 논평

이 수업단원은 학생들에게 장벽건설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기 하고 다수의 사료 및 자료들 속에서 스스로 조사하고 그를 통해 장벽건설이라는 사건과 그 배경에 대한 건설한 이미지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 주의사항과 수업실행을 위한 팁: 여기서 자료선택과 방법을 위한 안내를 발견할 수 있고, 상호작용적인 화이트보드 활용을 위한 그리고 이런 수업단원의 틀 내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자료들에 관한 안내를 발견할 수 있다.
- 수업단원의 경과: 학습자는 모듈별로 나뉘어 선별된 자료들과 사료들을 갖고 장벽 건설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이때 화이트보드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라) 다운로드

각각의 수업단원을 위한 모든 학습자료들은 '학습자료'라는 꼭지에서 관람할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ㄱ) 인터넷 주소 링크

- *chronik-der-mauer.de* : 장벽의 연대기를 기록한 웹사이트로 장벽 역사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풍부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 bpb.de: 사이트 'Dossier' 쪽지에서 "Deutsche Teilung - Deutsche Einheit": 연방정치교육원의 이 도시에는 독일분단과 독일통일을 1961년부터 현재까지 조망하고 있다.
- 1961.dra.de : 동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서 드러난 1961년 장벽 건설 - 독일 방송 문서보관소의 제공. 1961년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동독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묘사된 장벽 건설.

ㄴ) 부가정보

- 주제에 대한 링크: 모든 수업단위에 활용된 인터넷 주소들이 링크되어 있다.

*예시 - '베를린 장벽건설 수업'

멀티미디어 활용 베를린 장벽건설 수업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 이 수업 항목은 또 다시 자료선택, 학습단원의 전개, 수업계획, 학습자료, 주제에 대한 링크라는 세부항목으로 다시 나뉘어 있다.

1) '자료선택'



세부 항목 중 제일 첫 번째 '자료선택 (Materialauswahl)'이라는 항목을 클릭해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세부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자료선택에 관한, 모둠작업에 관한 세부적 주의 사항과 수업실행을 위한 팁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모둠작업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개발하기:

학생들은 작업의 초기단계에서 모둠을 구성하여 M 2b에 제시된 주소를 바탕으로 자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문제제기는 학습집단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작업이 가능한 한 사전지식과 기존 문제의식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과제지(M 2a)에 주어진 선결 과제는 개방된 형태로 정리된다. 물론 그것들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Arbeitsmaterialien(학습자료) 쪽지를 클릭해 들어가면, M 2a, M 2b, M 4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뒤에 자료별 설명이 덧붙여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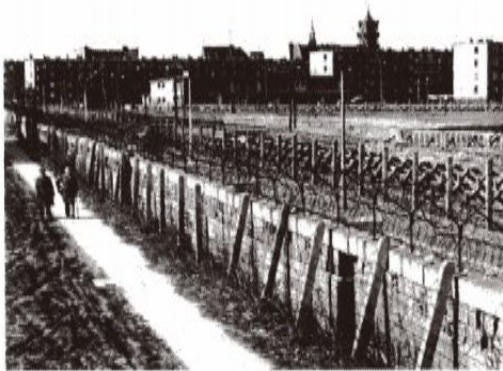
2) 학습단원의 전개

학생들은 선별된 자료 및 사료를 바탕으로 모둠을 형성해 장벽건설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이때 상호작용적인 화이트보드가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1) 들어가기: 베를린 장벽

가) 무언의 자극(stummer Impuls)으로서 장벽 사진

교사는 베를린 장벽의 2가지 비슷한 사진을 선택한다. 하나는 1961년을 찍은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1989년 이후의 사진이어야 한다. 이를 테면 장벽연대기 웹사이트에



서 적절한 이미지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개의 사진이 학생들에게 무언의 자극으로서 제시될 것이다.

*장벽건설 학습지 M1.pdf를 다운로드 받는다.

여기에 필요한 개별사안과 지원은 Material 1에서 발견할 수 있다.

L) 베를린 장벽에 대한 선수지식

학습자는 사진을 바탕으로 베를린 장벽과 베를린 분단에 대한 자신의 선지식을 끄집어 내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화이트보드를 통해 제시되는 이미지에 대한 소제목과 짧은 논평을 만들어낸다. 이런 화이트보드 이미지는 저장되어 교실 내에 비치해 두거나 이메일로 전송하여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장벽건설 학습지 M1a.rtf를 다운로드 받는다.

화이트보드에서 개발된 결과 저장용 모형이 Material 1a이다.

c) 비디오: Die Mauer teilt Berlin

Mauerbau Martin Gielu

M 1: Einstieg

In M 1 finden Sie:

Hinweise zur Strukturierung des Whiteboard - Bildes zum Einstieg

- eine Auswahl von Einstiegsbildern, von denen 2 auszuwählen sind
- Adressen, von denen Sie die Materialien downloaden können.

Vorbereitung

- Präsentation: 2 Bilder aussuchen (Vorschläge siehe unten)
- (Adresse der Datenbank mit allen Bildern: <http://www.dzsmk.de/mauer.de/index.php/de/Startseite/5/255002>)
- Kurzvideo bereithalten
- (Internetadresse: <http://www.filmarchiv.de/de/mauer/168.html>)
- (Auf der Seite „Video“ auswählen, „Politik“, „1961“, „13.8.1961 „Die Mauer (off) Berlin“)



Mauerbau Martin Gielu

Bitte Vorführung der Veranstaltung des Web-Bildes in der Einstiegsphase. Tragen Sie hier:

Bild 1	Bild 2
--------	--------

Internetadresse: 1961 1961

Kurz-Webseite Kurz-Webseite

Überschriften und Übersätze sind im Internetangebot zu ergänzen.

© 2011, ist ein Produkt in Kooperation mit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BP

교사는 학생들에게 1961년 8월 13일에 대한 '장벽이 베를린을 분할하다'라는 짧은 비디오를 보여준다. 상연이 끝나고 난 뒤 곧 바로 짧은 수업 시간을 통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첫 느낌을 가진다.



(2) 문제제기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수업 중에 학습자 모듬은 상호작용적인 화이트보드에 제시된 결과물들(Material 1a)을 바탕으로 질문과 문제제기를 개발한다. 이러한 질문과 문제제기들은 일종의 질문 모듬으로 화이트보드에 제시되고 교사들과 학습모듬에 의해 공동으로 구조화된다. 이 단계를 소모듬 작업으로 수행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작업을 끝낸 후 이런 화이트보드 이미지는 저장되어 학습자모듬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장벽건설 학습지 M1b.rtf를 다운로드 받는다.

여기서 문제제기 용 화이트보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제공받는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팩트와 배경

(3) 작업 수행: 1961년 8월 13일

ㄱ) 소모듬 작업

사전에 진행된 문제제기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 학습토대는 학습모듬에 의해 개발된 과제제기이다 (Material M1b)

*M2a - 학습과제

여기서 학습모듬에 의해 개발된 문제제기를 보완하거나 혹은 그것에 특성을 부여하는 학습과제에 대한 제안을 제공받는다.

ㄴ) 자료의 제시

화이트보드용으로 학습과제와 자료목록은 만들 수 있고 학생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리 제시된 인터넷 소스들을 짧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모듬 전체에게 이러한 것들을 매개할 수 있다.

M1b - Ergebnis 2

Vorschlag zur Whiteboard-Gestaltung "Problemlösung"

Was passierte am 13. August 1961 in Berlin?

Fakten - Hintergründe



ㄷ) 주도 질문

학생들은 소모둠을 형성하여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건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그를 위해 수업 중에 개발된 문제지를 활용할 수 있다(Material M1b).

다음과 같은 주도 질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사건: 찾아낸 자료들로부터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 누가 행동하였는가?
- 구체적 촉발자의 이름은 누구인가?
- 어떤 '전개과정'이 선행되었는가?
- 1961년 8월 13일 장벽건설은 베를린 주민과 양쪽 독일 국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럽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 1961년 8월 13일 장벽건설은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ㄹ) 모든 학습모둠의 출발점

모든 모둠 작업의 공동 출발점으로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는다.

* »chronik-der-mauer.de: Der Tag des Mauerbaus«

이 텍스트는 장벽건설이 시작된 날인 1961년 8월 13일 발생한 사건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따라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http://bpb.de: Von der Volkserhebung zum Mauerbau«

Ilko-Sascha Kowalczyk이 작성한 이 텍스트는 1961년 베를린에서의 장벽 건설이라는 사건과 그 배경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ㄴ)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학생들은 화이트보드용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이것을 나중에 시연해야만 한다. 형식은 선택 가능하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주석을 단 링크페이지, 이미지 모음 혹은 연대표 등이 가능하다. 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중점사안들을 세부적으로 다루어야만 한다.

- 그날의 사건들
- 장벽건설로 이끈 전개과정

- 장벽건설에 대한 정치가들의 반응

*M 2b - 자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 M 2b에 주어진 자료들과 사료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비) 보충 제작물

최종적으로 모두가 선택한 관점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제작물을 개발해야 한다. 이 제작물은 화이트보드에 제시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선택된 이미지
- 설명문
- 1961년 8월 13일은 무엇을 의미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요약적인 답변

스) 프레젠테이션과 논의

학생들은 상호작용적 화이트보드를 수단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해야 한다. 수업 중에 개별 프레젠테이션이 선별적으로 비교되고 논평이 제시될 수 있다.

*mauerbau_M3.rtf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공동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서 학습자는 화이트보드 결과 데이터(Screenshots)에 대한 개관을 만들어야 한다.

M 3 - Diskussionsgrundlage

Erstellen Sie als Material für die gemeinsame Auswertung der Präsentationsergebnisse eine Übersicht der Whiteboard-Ergebnis-Dateien (Screenshots auf einem Tafelbild) und bereiten Sie die Möglichkeit vor, die einzelnen Dateien bei Bedarf in Originalgröße zu öffnen.



Präsentationsergebnisse:

Screenshot Whiteboard - Ergebnis 1	Screenshot Whiteboard - Ergebnis 1
Screenshot Whiteboard - Ergebnis 2	Screenshot Whiteboard - Ergebnis 3
Screenshot Whiteboard - Ergebnis 4	Screenshot Whiteboard - Ergebnis 4

(4) 요약과 결과보존

ㄱ) 함께 끝내기

첫 단계의 결과, 즉 Material 1a가 다시 한 번 더 프레젠테이션 된다. 수업 중에 학생들은 진입단계의 첫 번째 (데이터로 갈무리 되어 있는) 평가 이래로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학습자는 사진(1961년과 1989년 이후의 사진)에 근거하여 자신의 선지식을 끄집어내고 수업 중에 화이트보드에 제시되어 있는 두 사진에 대한 소재목과 짧은 논평을 개발한다.

*M 4: 학습단원 종결 단계에서 화이트보드 이미지의 구조화를 위한 안내

여기서 1989년 11월에 관한 역사적 단편 비디오와 계속된 수업의 전개를 위한 다양

한 링크를 발견할 수 있다.

(5) 속제

“나는 1981년 8월 13일 사건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

학생들은 단원의 종결을 위해 미디어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자신들이 수업단원의 전개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미지갤러리의 형태로 혹은 비디오의 형태로, 텍스트 또는 벽신문의 형태로 요약되어야 한다.

(6) 진전된 학습을 위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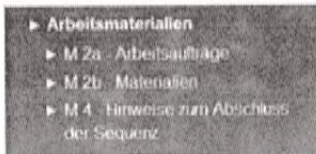
*주제와 관련된 웹사이트 링크. 뒤에 웹사이트 링크 쪽지에서 상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3) 교안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 건설이라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교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 교안은 단계, 내용, 사회, 및 행동 형식과 활용된 미디어 및 파일의 형태로 구성되어 학습 과정에 대한 예시와 개략적 정보를 제공한다.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Verlaufsplan		Sozial- / Aktionsform		Medien / Dateien	
Phase	Inhalt				
Übersicht	Präsentation von "gegenwärtigen" Bildern Wünsche Malen (90' nach 1960)	Lernvertrag, Unterrichts- gespräch	Malerei M1 und M1a, Bilder Kartenles Die Mauer teil Berlin		
	Schritt 1 Die beiden von der Lehrkraft für das Whiteboard ausgewählten Bilder werden an stummer Inhalt präsentiert			Erstellung	Die im vorhergehenden Schritt erarbeiteten Pro- blemlösungen werden besprochen
	Schritt 2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bringen ausserhalb von Haus (1961 - nach 1960) die Vorarbeiten ein und entwickeln im Unterrichtsgespräch 13-stufige und Musikinstrumente zu den Bildern, die auf dem Whiteboard festgehalten werden.			Präsentation der Arbeitsergebnisse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präsentieren ihre Ar- beitsergebnisse mündlich der Klasse.
				Diskussion	Im Unterrichtsgespräch werden die einzelnen Präsentationen in vier Stufen gegenseitig verglichen und kommentiert
				Zusammenfassung	Das Ergebnis der ersten Phase, Malerei 1a, wird notwendig abgemischt.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überlegen, was sich seit ihrer ersten Einschätzung aus der Phasephase verändert hat. Die Lern- erfolge bringen sie vorlesen ein und ermitteln Anzeichen und Kuriositäten an den Bildern, die auf dem Whiteboard festgehalten werden.

4) 학습자료



여기서는 다양한 학습자료 중에서 앞에서 언급된 자료에 대한 소개만 간단히 하기로 한다.

- (1) M 2a: 모둠학습을 위한 완성된 형태의 학습지, 학습과제, 조사를 위한 링크 및 화이트보드에 결과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다.

*모둠작업을 위하여

모둠을 만들어 1961년 8월 장벽건설이라는 주제를 다루시오, 수업에서 개발된 문제지('화이트보드-2')를 활용하시오. 거기에 다음과 같은 핵심내용/문제제기가 들어 있지 않다면, 보충해 넣으세요.

ㄱ)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사건, 참고할 수 있는 사료를 바탕으로 어떤 일 발생했는지 적어보세요.

- 누가 행동했는가?
- 촉발자의 구체적 이름을 지적하라?
- 어떤 전개과정이 선행되었는가?

ㄴ) 장벽건설의 의미

- 베를린 주민과 양쪽 독일 국민들에 대해서
- 유럽 정치에 대해서

ㄷ) 1961년 8월 13일 장벽건설은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2) M 2b: 선별된 인터넷 자료들을 모아둔 모둠작업을 위한 학습지, 자료는 크게 인터넷 자료, 프린트 자료, DVD자료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제시된다.

*모둠학습을 위한 인터넷 자료

ㄱ) 장벽 연대기에 대해서는,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de/Home/Index>»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de/Start/Index/id/783138>»

위 링크에서 제시된 가이드 투어를 따라가면, 베를린 장벽 역사에 대한 개관을 획득할 수 있고 여기에 제시된 자료들에 대한 개관을 획득할 수 있다. 전체개관을 얻으려면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면 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목차를 활용하면 된다.

ㄴ) 1961년 8월 13일자 독일 방송 문서보관소에 대해서는,

»<http://1961.dra.de/>»

ㄷ) 도시에 독일분단-독일통일에 대해서는,

<http://www.bpb.de/>

ㄹ) 당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http://www.deinegeschichte.de/>»

*프린트자료

가) 연방정치교육원의 자료들:

Zeitbilder - Die Berliner Mauer / The Berlin Wall(<http://www.bpb.de/>)란 쪽지에서,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베를린 장벽은 원래 어디에서 있었나? 그것은 왜 지어졌나? 장벽을 넘는 것이 반복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장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나? 그것은 결국 왜 무너졌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냉전의 상징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 Michael Gehler: Deutschland - Schriftenreihe (Bd. 1124)는 독일분단에서 독일통일에 이르기까지 독일역사를 다룸에 있어, 비판적 거리를 취하면서 동일한 준거를 활용하여 서구와 동구 사이에 중립적 관점을 취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따라서 두 독일국가 중의 어느 하나를 명백한 승리자 혹은 궁극적 패배자로 낙인찍지 않았다. 미하엘 겔러는 오스트리아 태생이다. 오버프랑켄에서 성장했으며, 독일분단을 가족사 속에서 체험했다. 서독과 동독,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에서 학업을 수행했다. 그는 독일 전후역사를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국내정치적, 대외정치적, 사회 및 경제적 관점들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는 구조와 심성에서 독일인의 다층적인 공통점들이 40년간의 시간에도 불국하고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었다고 결론지었다.

*DVD

'Damals in der DDR - Zeitzeugen erzählen ihre Geschichte'
(<http://www.bpb.de/>)

'동독 시절 - 동시대인들이 자기 역사를 이야기하다'라는 DVD의 토대는 그림상(Adolf-Grimme-Preis)을 받은 동일한 이름의 다큐시리즈이다. 80명의 동시대인들이 인터뷰, 비디오, 사진 및 역사적 영상제작물의 형식으로 40년간의 세월을 아주 개인적 방식으로 묘사한다. 생생한 개인의 이야기들을 통해 동독 역사는 인간적 측면을 확보한다. 개인적 진술은 짧은 연대기, 배경정보를 통해 그리고 그때그때의 시대적 사건 및 주제를 통해 보완된다.

일상과 삶의 정서, 이데올로기와 교육, 여성과 해방 등과 같은 주제들이 개발됨으로서 3가지 접근통로가 제시된다. 정치적 교육작업은 다양한 학습지에 의해 지원된다. 나아가 이것은 문서수집가에게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선별하여 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에 제시된 개략적 정보들을 바탕으로 '상세한 안내'라는 소제목 하에 세부적인 자료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p>8. Was ist die Bedeutung der DDR für die Bundesrepublik?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9.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0.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3.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4.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5.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6.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7.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8.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9.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20.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3.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4.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5.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6.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7.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8.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9.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0.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3.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4.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5.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6.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7.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8.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9.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20.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3.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4.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5.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6.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7.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8.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9.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0.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3.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4.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5.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6.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7.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8.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19.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p>20.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Lernziele: 1.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 2. Die DDR als Teil der deutschen Geschichte zu verstehen.</p>
---	--	--

(3) M 4: 이 학습단원의 종결 단계에서 화이트보드 이미지의 구조화를 위한 안내

ㄱ) 준비

- 대화를 위한 토대로서 M1a의 프레젠테이션
- 단편 비디오를 준비하여 화이트보드에 프레젠테이션 할 채비를 마칠 것



ㄴ) 비디오1: 사료: 1989년 11월 9일자 타게스사우
(Tagesschau. ARD 저녁 종합 뉴스)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de/Media/VideoPopup/day/9/field/audio_video/id/53606/month/November/oldAction/Detail/oldModule/Chronical/year/1989



ㄷ) 비디오2: Bornholm가 MfS-Passkontrolle (일명 슈타지(Stasi)로 불리는 국가안 정보장국 파견 출입국 관리소) 직원 Harald Jäger가 1989년 11월 9일 저녁 상황에 대한 보고.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de/Media/VideoPopup/day/9/field/audio_video/id/53421/month/November/oldAction/Detail/oldModule/Chronical/year/1989

단계1: 학생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M1a를 프레젠테이션 한다.

단계2: 대화

단계3: 단원에서 달성된 인식의 진전을 증명하는 이미지들을 구성한다.

작업을 위한 기본 도안이 제공된다.

Vorlage

Bild 1	Bild 2
--------	--------

결과를 보관하기 위해
화이트보드 이미지는
저장되고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Kurze Stichworte

Kurze Stichworte

5) 주제 관련 웹사이트 링크

The screenshot shows a website interface with a header 'MULTIMEDIALE UND DIDAKTISCHE ANWENDE' and a sub-header 'Unterricht am Whiteboard'.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Links zum Thema' and lists several resources with their URLs and brief descriptions. A sidebar on the right, also titled 'Unterricht am Whiteboard', contains a table of contents for the 'Inhalt' section, listing various topics like Facebook, demonstrations, Berlin Wall construction, materials, and historical documents.

Links zum Thema

- <http://www.chronik-der-mauer.de/>
chronik-der-mauer.de
 Die Website Chronik der Mauer stellt das derzeit umfangreichste multimediale Informationsangebot zur Geschichte der Mauer dar. Weiter...
-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id=StartindexId/762136>
chronik-der-mauer.de: Guided Tour
 Mit der Gaded Tour können Sie sich einen Überblick über die Geschichte der Berliner Mauer verschaffen und einen Einblick in die Materialien dieses Internetangebots gewinnen. Weiter...
- <http://www.bpb.de/deutsche-einheit>
bpb.de: Dossier "Deutsche Teilung - Deutsche Einheit"
 Das Dossier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bpb beleuchtet die Deutsche Teilung und Wiedervereinigung von 1961 bis heute. Weiter...
- http://www.bpb.de/themen/EWS/1/1/Geschichte_der_Mauer.htm
bpb.de: Geschichte der Mauer
 Noch am 15. Juni 1961 hatte Walter Ulbricht in einer Pressekonferenz geäußert: "Niemand hat die Absicht, eine Mauer zu errichten". ... We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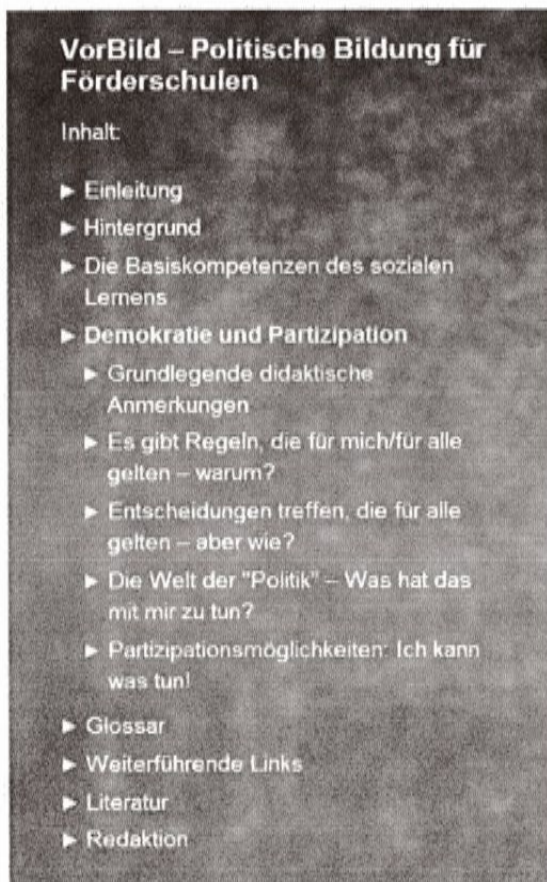
Unterricht am Whiteboard
Inhalt

- ▶ Facebook
- ▶ Montagedemonstrationen
- ▶ Bau der Berliner Mauer
 - ▶ Materialauswahl
 - ▶ Ablauf
 - ▶ Verkaufsplan
 - ▶ Arbeitsmaterialien
- ▶ Links zum Thema
 - ▶ Grundlegende Infos
 - ▶ O-Töne
 - ▶ Reaktionen
 - ▶ Zeitzeugen
 - ▶ Dt. Rundfunkarchiv
 - ▶ Neues Deutschland
 - ▶ Hörfunkkommentare
 - ▶ Kultursendungen
 - ▶ Lieder aus DDR-Hörfunk
- ▶ Geschichte der Mauer
- ▶ Mauerbau. Drei Perspektiven
- ▶ Redaktion

이 쪽지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 Grundlegende Infos(기본 링크 정보),
- O-Töne(감탄의 말들),
- Reaktionen(반응들),
- Zeitzeugen(목격자들),
- Dt. Rundfunkarchiv(독일 라디오방송 문서보관소),
- Neues Deutschland(동독 공산당 공식 기관지),
- Hörfunkkommentare(라디오 방송의 논평들),
- Kultursendungen(베를린 룬트퐁크 방송의 문화 프로그램들),
- Lieder aus DDR-Hörfunk(동독 라디오의 노래들)

(6) 특수학교에서의 정치교육



VorBild는 특수학교에서 정치교육을 매개하기 위한 제안들을 모아놓았다. 특수학교에서는 정치교육이 일종의 예외이다. 대부분의 독일연방 주들에서는 특수학교를 위한 정치수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관점으로부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특수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부재는 특수학생들의 정치과정에 대한 미약한 참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관심사는 더욱 정치적으로 대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VorBild 프로젝트가 입안되었고 표적집단에 걸맞은 수업자료들이 개발되었다.

3) '표적집단(Zielgruppe)',

4) '자료의 형태(Formate)'

schaft	Nachschlagen	Veranstaltungen	Lernen	Mediathek	Shop	Dialog
	Themen im Unterricht	Unterrichten	Zielgruppe	Formate		
	Wahlen Europäische Union Deutsch-deutsche Geschichte Politisches System Nationalsozialismus Rechtsextremismus Wahl-D-Mal im Unterricht	Methodik und Didaktik Medienpädagogik Filmbildung Planespiele Geschichte begreifen Forschen mit GoGIS Unterricht am Whiteboard	Grundschule Sekundarstufe I Sekundarstufe II	Arbeitsblätter Unterrichtsentwürfe Bkl und Ton Infografiken Quiz Jahrestage Plakate		


'학습' / '표적집단', '자료의 형태'에 대한 소개는 수업 주제별 분류 및 수업방식별 분류 그리고 '온라인상점' / '멀티미디어', '학습'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여기서 생략한다.

5) 정치교육 학생경연대회

www.schulwettbewerb.de

www.schulwettbewerb.de

DER WETTBEWERB IN KÜRZE >>



A) - Warum geht's hier?
 Ihr setzt in eurer Klasse, in einem Kurs oder in einer AG gemeinsam ein Interdisziplinäres Projekt um.

B) - Was für ein Projekt?
 Ihr könnt euch aus eif Projektthemen eines aussuchen. In diesem Jahr geht es unter anderem um Jugenddemokratie, Bräulen und um Neofolk. Ihr habt die Aufgabe, euch intensiv mit dem Thema auseinander zu setzen und eure Ergebnisse zu präsentieren. Gestaltet zum Beispiel eine Foto-Story, Infografik oder ein Audio-Podcast!

C) - Wie teilte?
 Ihr organisiert möglichst alles rund um das Projekt selbst. Ihr besorgt euch Informationen, bereitet sie auf, dokumentiert und gestaltet eure Ergebnisse. Natürlich dürft und sollt ihr eure Lehrkräfte ansprechen und um Rat fragen. Die meisten können den Wettbewerb und werden euch tatkräftig unterstützen. Lehrkräfte leiten engagierte Schüler:in.

D) - Wer kann mitmachen? Und bis wann?
 Der Wettbewerb wendet sich an jüngere und ältere Schüler:in. Alle Klassen bzw. Kurse der Stufen 5-11 (in berufsbildenden Schulen auch die 12) können und sollen mitmachen.
Einreichschluss ist der 1. Dezember 2013.

E) - Na?
 Worauf wartet ihr? Setzt euch zusammen und erregt euch, welches Thema ihr am interessantesten und spannendsten findet.
 + Fangt an... und gewinnt!

Inhalt

Fünf Wettbewerbs ohne Gewinner	02
Der Wettbewerb in Kürze	03
01 - Geiselt, erwächt - und jetzt? / Stufe 5-8	04
02 - Fußball - eine Lösung für die Ärmsten? / Stufe 5-8	05
03 - Leben ohne Computer und Handy? Stufe 4-8	06
04 - Super Sendungsangebot - Vert auftritte mitlesen / Stufe 5-8	07
05 - Mein Bild gehört mir! / Stufe 5-8	08
06 - Punkte grandios! Das freie Thema / Stufe 5-11	09
07 - „As in de Knaht“ - Wie muss Strafe sein? / Stufe 5-11	10
08 - Bräulen ist mehr als Fußball / Stufe 8-11	11
09 - Tag der deutschen Einheit / Stufe 8-11	12
10 - Europa sind wir / Stufe 8-11	13
11 - Achtung, Rechts Streifen! / Stufe 8-11	14
12 - Fußballbedingungen, Mißstände, Tipps	15
13 - Einreichformulare	16

***Hier dürfen auch wieder 4. Klassen mitmachen.
 Bitte weiterfra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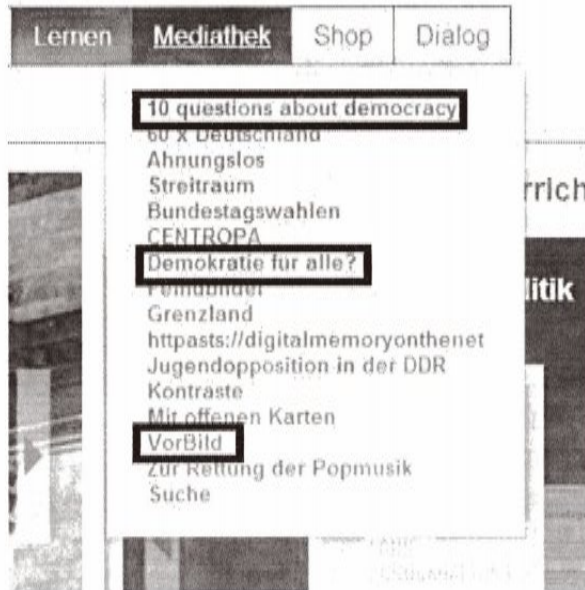
Die Seiten dieses Infobros lassen sich auch herunterladen unter www.schulwettbewerb.de/infobros



정치교육을 위한 학생경연대회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수업

이 경연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재로 출간되었다. 40년간 전문 가
 들에 의해 시험된 정치교육용 프로젝트수업을 위한 제안 들을 담고 있
 다. 직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 책자는 360쪽에 달한다.

2. 미디어 센터



미디어센터에서는 일반시민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담은 동영상, 독일의 선거방식을 설명하는 짧은 동영상, 각 정당들의 자신의 정당 및 후보를 소개하는 선거용 광고 방송이 소개된다.

이 외에 세부항목을 통해 다수의 미디어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본 조사는 그 중에서 아래의 프로그램들에 주목한다.



1) 'Demokratie für alle?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19개국으로부터 온 23편의 영화가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조망한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중동에서의 민주주의의 현 상황을 소개한다. 이 중에서도 "민주주의에 관한 10개의 질문"이라는 제목 하에 10개의 단편영화 DVD가 별도로 제작되었다. 10편의 영화는 모두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관한 단 한 개의 질문만을 다룬다.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슬라보예 지젝(Slavoy Zizek)과 같은 지식인, 구 덴마크 수상인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과 같은 정치가, 스펙터(Regina Spektor)와 같은 음악가, 오스카 상을 수상한 지브니(Alex Gibney)와 같은 영화제작자와 전혀 유명하지 않은 뉴욕의 택시운전사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2) '10 questions about democracy(민주주의에 관한 10개의 질문)'

- Sind Frauen demokratischer als Männer?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주주의적인가?
- Kann Terrorismus die Demokratie zerstören?
테러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가?
- Was würde dich dazu bringen eine Revolution zu starten?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혁명을 촉발시키도록 할 것 같은가?
- Können Politiker das Problem des Klimawandels lösen?
정치가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 Wer regiert die Welt?
누가 세계를 통치하는가?
- Ist Gott ein Demokrat?
신은 민주주의자인가?
- Wen würdest du als Weltpräsident wählen?
당신은 세계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 Können Diktatoren jemals gut sein?
독재자라도 때에 따라서 좋은 사람일 수 있는가?
- Ist Demokratie für jeden gut?
민주주의는 누구나에게 좋은 것인가?
- Warum sollte man sich die Mühe machen, zu wählen?
투표하는 수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http://digitalmemoryonthenet>

아우슈비츠가 페이스북(facebook)에 있고, 안네 프랑크가 유튜브(Youtube)에 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트위터(Tweeter)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학살이라는 주제가 스마트폰 속에 들어 있다. 과거의 회상은 이미 시각적 세계의 한 부분이 되었다.



Program

"<https://digitalmemoryonthene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Bpb)

together with the

Deutsche Kinemathek and media partner 3 Sat Kulturzeit

디지털 미디어는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규정하고 회상과 역사교육의 새로운 형식을 개발한다. 역사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들은 쓸모없게 될 것인가? 추모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가? 동시대 목격자와의 가상적 만남만이 존재하게 될 것인가?

독일 영화 센터(Deutsche Kinemathek)와 미디어 파트너 3SAT KULTURZEIT와 협력하여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이 2011년 4월 14-16일에 주최한 이 국제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논의되었다.

- 인터넷이 오늘날의 기억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망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회상되는가?
- 이런 발전에는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결부되어 있는가?
- 독일, 유럽 그리고 세계에는 이미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있는가?

이 국제회의의 목표는 국가사회주의, 추모장소 및 기억문화라는 주제와 관련된 교육용 온라인 제공 프로그램들을 망으로 연결하면서, 교육 프로그램과 미디어교육적인 교육 구상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Links zur Konferenz

- »Verfolgen Sie Tweets über die Konferenz über unsere Twitterwall.«
- »TV-Beitrag zur Konferenz von 3sat«
- »Podcast Lernen aus der Geschichte Moodle, Wiki und mobile Endgeräte in der Schule«
- »Podcast Lernen aus der Geschichte Medienbildung und Erinnerungskultur im Internet«
- »Podcast Lernen aus der Geschichte Erinnerungskulturen im Internet«
- »Podcast Lernen aus der Geschichte: Twitter, Google Maps, Wikipedia - Digitale Medien im Schulunterricht«
- »Podcast Lernen aus der Geschichte Secret Annex Online, Facebook and the Anne Frank House Amsterdam (engl.)«
- »Podcast Lernen aus der Geschichte: Education and Social Media at the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engl.)«
- »Podcast Lernen aus der Geschichte Lernen mit digitalen Medien?«
- »Podcast Lernen aus der Geschichte Oral History, Videos und pädagogische Arbeit«

Videos

- Video vom Donnerstag, den 14. April 2011
- Videos vom Freitag, den 15. April 2011
- Videos vom Samstag, den 16. April 2011
- Videointerviews

Programmflyer

-  Programm, deutsch (PDF-Version 137 KB)
-  Programm, englisch (PDF-Version 126 KB)
-  Biografiendossier (PDF-Version 12 093 KB)

4) Vorbild



Vorbild

특수학교 및 특수 목적의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을 위해 개발된 DVD. 이 DVD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학습을 다룬 경험이 많지 않은 교사를 위한 자료들을 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사회적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경험한 바 있는 교사들을 위한 자료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DVD는 특히 5-7학년 수업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텍스트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쪽지에는 특수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과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규칙세우기(Regeln aufstellen)', '공명놀이(Klangschale)', '에너지이저(Energizer)', '프로젝트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서는 이 중에서 나무줄기 놀이와 펭귄놀이를 소개한다.



Das Baumstammspiel
Aus der Reihe "Vorbild - Politische Bildung für Förderschulen"

(1) Baumstammspiel

나무줄기 놀이(Baumstammspiel)는 학생들의 성의 철자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줄을 서는 놀이이다. 따라서 나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서로 협조하여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



Das Pinguinenspiel
Aus der Reihe "Vorbild - Politische Bildung für Förderschul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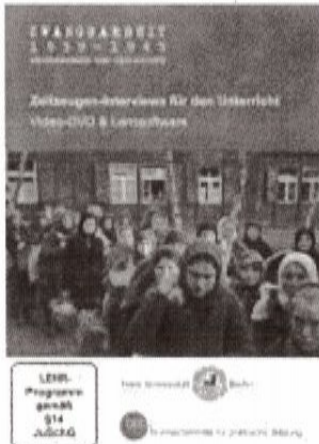
(2) Pinguinenspiel

펭귄 놀이(Pinguinenspiel)는 처음엔 큰 종이 위에 편하게 서 있던 학생들이 종이가 점차 줄어들면서 서로 힘을 합쳐 의지하면서 생존하는 놀이이다.

Inhalt

- 3 Zum Konzept der DVD-Reihe
- 4 Die DVD-Reihe im Unterricht
- 5 Die Lernsoftware starten
- 6 Sich im Programm zurechtfinden
- 10 Aufgaben und Materialien
- 12 Lexikon
- 12 Mediathek
- 13 Verwendung der Video-DVDs
- 14 Impressum

12개의 인터뷰를 수업을 위해 요약하고 있으며, 오렐 히스토리에 대한 전문가의 대화를 2편 실고 있다. 이에 덧붙여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되어 있다. 이 지도서는 일상사적인 비디오-인터뷰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텍스트, 과제제안 등을 제공한다. 4개의 DVD 시리즈에 대해 교수법적인 논평과 독자적인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착상으로 만들어진 학습용 DVD로는 'Zwangsarbeit 1939-1945.

Zeitzeugen-Interviews für den Unterricht'가 존재한다. 나치 정권하의 강제노동을 체험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실고 있다. 'Zwangsarbeit 1939-1945. Lehrerheft'는 교사용 지도서이다.

(1-2) 'Die Beste Aller Welten(이 세계에서 최상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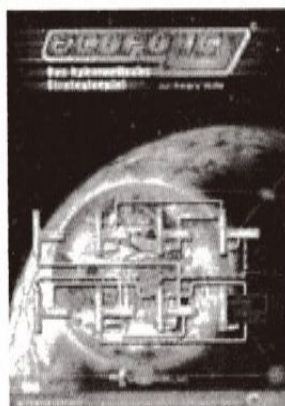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보드게임. 이 DVD는 3개의 보드게임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는 상관없는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게 다가가서 민주주의적 교육과정을 매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세계에서 최상의 것"이라는 보드게임의 타이틀은 이 보드게임들이 전부 해결 중심 행동방

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청소년들은 상황과 체험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인 관찰만 하지 않고, 위기적 상황에서 최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해결 중심 행동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보드게임은 한편으로 내용상 언어적 지식과 내용적 지식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학습하는데 적합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보드게임은 형식상 제한적 조건하에서도 돌릴 수 있도록 또는 학교외부의 정치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입문게임인 “섬의 세계”는 경험관련성을 토대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험교육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화팀은 어떤 섬에서 상이한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일상세계의 최고의 골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로 경합을 벌이는 일종의 리얼리티 쇼를 연출한다. 두 번째 보드게임인 “일상세계”는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형태를 통해 청소년의 일상경험에 연결된다. 이 게임에서는 소도시 뤼셀도르프에서 상이한 이익집단들이 청소년센터가 건립되어야 할지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한다. “학문세계”라는 세 번째 보드게임에서는 민주주의가 주로 인지적 차원에서 포착된다. “누가 수상이 될 것인가?”라는 지식경합은 특히 정치수업과 사회수업과 연계될 수 있다.



(1-3) ‘환경정책 (ecopolity)’

정치, 생산 및 환경 부담에 관한 인공두뇌 전략게임. 이 요소들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사회들을 조정해야만 한다. 이 학습게임은 그와 같은 작용 맥락들을 인지하도록 하고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장려한다.

(1-4) ‘Bei uns und um die Ecke(우리에게도 그리고 모퉁이에서)’



학생들에게 헌법을 알려주는 6편의 단편 영화를 실고 있다.

우리의 기본권은 침해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 - 즉 가족 간이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간에 - 그러한 권리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에게도 그리고 모퉁이에서”라는 DVD는 6편의 허구의 단편영화들을 통해 예를 들어 차별금지, 사상과 언론의 자유 혹은 통신의 자유 등과 같은 6개의 기본권을 소개한다.

Inhalt

- Einführung
- Folge 1, Artikel 1
Die Würde des Menschen
- Folge 2, Artikel 2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 Folge 3, Artikel 3
Diskriminierungsverbot
- Folge 4, Artikel 5
Presse- und Meinungsfreiheit
- Folge 5, Artikel 6
Pflichten der Eltern
- Folge 6, Artikel 10
Brief- und Postgeheimnis
- Protagonistinnen und Protagonisten
- Ergänzende Angebote

에피소드의 중심에는 린다(Linda, 14세)와 그의 남동생 모리츠(Moritz, 8세), 부모인 일나(Ina)와 막스 그룬드만(Max Grundmann) 그리고 할아버지 콘라트 슈람(Konrad Schramm)이 서 있다. 그들은 할레(Halle)시에서 한 집에 살고 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권리를 얼마나 자주 침해하는지를 알아간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간다. 그림(Grimme) 상을 수상한 베른트 뵈리히(Bernd Böhlich)가 연출을 맡았다. Dominique Horwitz와 Isabel Tuengerthal 등과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배역을 맡았다. 이 DVD는 학교수업과 청소년 영화작업을 위해 적합하다. 목표 집단은 초등학교 및 제쿤다르슐레 단계의 학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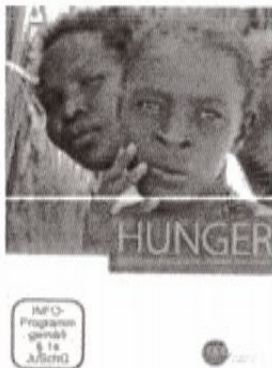
(1-5) Krieg in den Medien



학교와 청소년 작업을 위한 멀티미디어 활용 학습 DVD.

이 DVD는 대략 250개의 예시를 통해 “미디어에서의 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 구상을 제공한다. 이 DVD에서는 무엇보다 라디오, 텔레비전의 뉴스 부분과 영화 및 컴퓨터 게임에서 전쟁 부분이 재료로 사용되었다. 텍스트와 인용을 보여줌으로써 미디어와 전쟁의 상호작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여러 미디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허구와 실제 사이의 차이점들이 드러나도록 했다. 무엇보다 전쟁영화와 컴퓨터용 전쟁게임에서 폭력 묘사가 끼치는 영향이 이 DVD가 취급하고 있는 대상이다. 또한 군사적 간

섭이 정당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그렇다면 또 언제 그러한가라는 문제, 혹은 전쟁 뉴스에서 희생자는 어떤 형식으로 묘사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논의한다. 학습자가 주제와 적극적 대결을 벌일 수 있도록 수많은 사진 예시와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수업을 위한 연관된 과제들이 함께 제시된다.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업구상들이 제공된다.



(1-6) '굶주림(Hunger)'

유엔 산하 세계 식량 프로그램에 따르면, 식량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된다. 그럼에도 거의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고픔과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90분짜리 다큐필름인 “굶주림”은 여러 조직과 사람들이 우리 시대 최악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인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Marcus Vetter와 Karin Steinberger가 모리타니, 케냐, 인도, 브라질, 하이티에서 흔적 찾기에 나섰다. 굶주림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외에 독일역사, 청소년문화, 유럽과 정치 등에 관한 다수의 DVD를 제공하고 있다.

Stranger Festival

Lebt wohl, Genossen!

Filmkanon: Panzerkreuzer Potemkin

Zahlen und Fakten: Europa

60xDeutschland

Thomas Brasch: Filme

Zur Rettung der Popkultur, Experimentelle deutsche Musikvideos 2003-2007

Inside Job

Filmkanon: Nacht und Nebel

Tele-Visionen

Kämpfe ums Kanzleramt

Radfahrer

Damals nach dem Krieg - Deutschland 1945 bis 1949

Damals in der DDR - Zeitzeugen erzählen ihre Geschichte

Gedenkstätten für die Opfer des Nationalsozialismus

Geschichte zum Hören: Regime unter dem Hakenkreuz

Kontraste - Auf den Spuren einer Diktatur

Parallelwelt: Film

Feindbilder

Zeitabschnitte des Werner Bab

Good Copy Bad Co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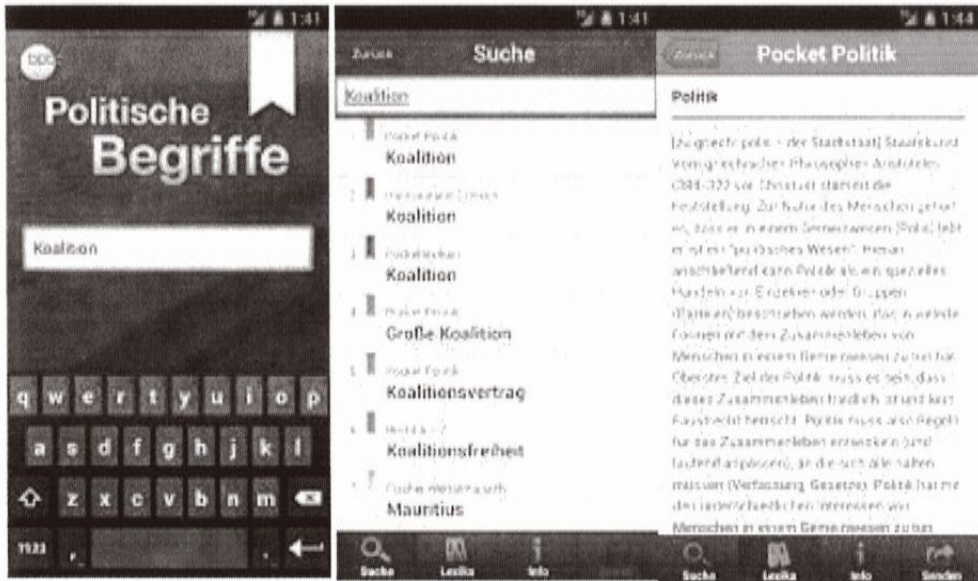
Medienpaket ProtestSongs

Verlacht, verboten und gefeiert - Zur Geschichte des Frauenfußballs

(2) '모바일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Mobile Angebote/Apps)'

즉석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 to-go): 연방정치교육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이 어플들은 정치를 멀티미디어적으로 체험 가능하게 한다.

(2-1) 'App: Politische Begriffe kurz erklärt (어플: 정치 개념 사전)'



8개 사전에서 8000개의 정치 개념이 검색엔진을 통해 제공된다. 연방정치교육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전은 정치, 경제, 유럽, 환경 및 문화 영역으로부터 대략 8000개의 핵심어에 대한 함축적인 설명과 개념정의를 제공한다. 이 사전은 개념, 인물, 국가 및 기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포괄하는 범위는 독일국가는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키프로스까지 국제 세계, 의원들로부터 투표권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경제 영역이다.

제공되기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Politik-Lexikon은 초등학생의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제공한다면, 포켓(Pocket) 시리즈는 제쿤다르슈투페1(우리의 중학생에 해당)의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Politiklexikon(Dietz-Verlag)과 Fischer Weltalmanach(Fischer Verlag) 및 Duden-Ausgaben zu Recht und Wirtschaft 그리고 Islam Lexikon(Beck-Verlag)은 보다 상세한 지식을 원하는 모두가 활용할 수 있다.

(2-2) 'App: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어플: 독일기본법)'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현행 기본법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어플은 개괄적으로 조망이 가능하고 개인적 선호에 따라 중요한 텍스트들을 저장하고 갈무리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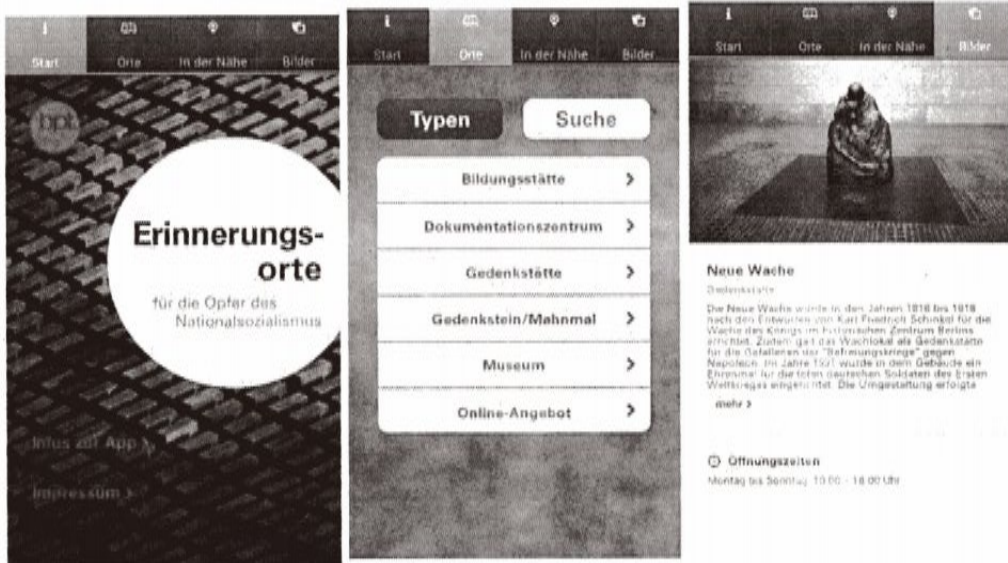


는 부가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기본법의 14개 단락을 짧은 설명문을 덧붙여 제시하고 있다. 이 설명문을 통해 해당 단락의 중요한 규정들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개관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이 어플은 기본법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다수의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도대체 왜 헌법(Verfassung)이라 부르지 않고 기본법(Grundgesetz)이라 부르는가? 그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결의되었는가?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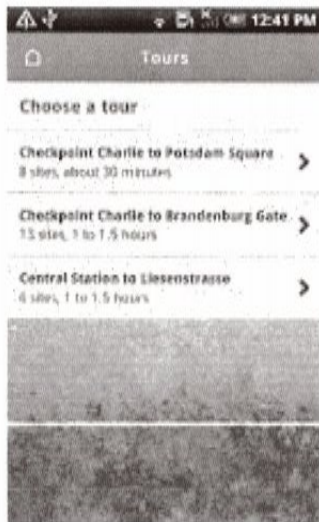
퀴즈를 통해 기본법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테스트해보세요. 부분적으로 호기심을 일깨우는 이야기와 삽화를 통해 당신을 놀라게 하십시오.

(2-3) 'App: Erinnerungsorte(어플: 추모장소)'



이 어플은 국가사회주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새로운 형식을 가능하게 한다. 200개 이상의 추모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어플은 국가사회주의 지배 하에서 살해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관, 박물관, 다큐센터, 추모비와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추모장소는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는 짧은 텍스트와 소개 글을 통해 안내되는데, 이 밖에도 연락처, 오시는 길 및 관람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4) 'Mauer-App(베를린 장벽 어플)'



28년 2달 28일 동안 꼬박 베를린 장벽은 베를린을 동과 서로 분할하였다. 새로 개발된 스마트폰 어플은 베를린 장벽의 역사를 건설에서부터 붕괴에 이르기까지 사진, 비디오, 텍스트, 음성 다큐자료 및 장벽 투어 가이드의 형태로 체험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어플은 베를린 관광객들을 위한 이상적인 여행 안내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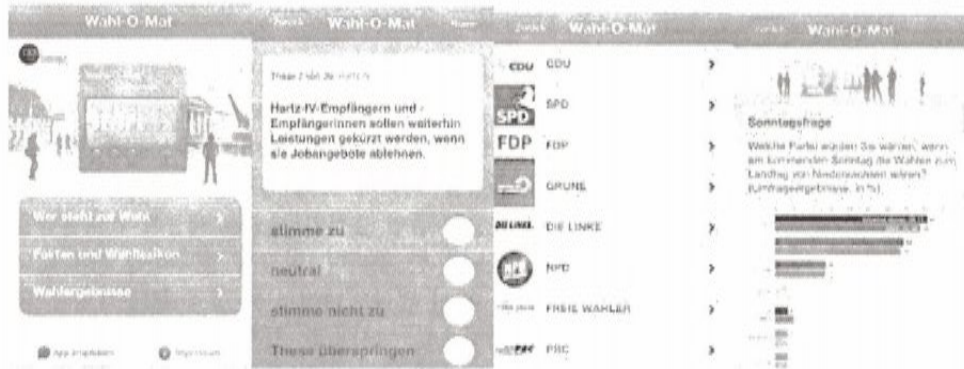
이 어플은 독일어와 영어로 각각 제공되는데, 아래는 안드로이드용 영어버전 어플이다.

이 어플은 베를린장벽 연대기를 위한 웹사이트 (<http://www.chronik-der-mauer.d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과 관광 가이드 외에 그룬트슬레와 제쿤다르슈투페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5) 'Wahl-O-Mat App(발-오-마트 어플)'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은 이 선거 학습 용 툴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교안까지 마련하여 온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아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다.



발-오-마트는 상호작용하는 질문 및 답변-도구로 어떤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가장 근접한지를 알려준다. 대략 10학년부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학습자는 독자적으로 이 도구를 활용 학습하면서 특정 주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2) 학습(Lernen)



'온라인 상점' / '학습' 쪽지에는 여러 세부항목이 제시된다. 본 조사는 거의 모든 항목을 다룬다.

그러나 '영화 팸플릿'은 독일맥락에서 중요한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서 생략하기로 한다. '하니자우란트' 역시 '웹사이트'에서 다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다. '지도(Karten)'는 독일과 유럽 중심의 지도를 제공하여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타이머'는 달력인데,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일자들을 기록한 달력이다. 그리고 '기타'는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은 출간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1) '학습자료'

미디어교육(Medienpädagogik)용 교재인, "Offene Kanäle"에 대한 설명이 제공된다.



시민미디어 "Offener Kanal"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거의 모든 주들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언론매체는 정치 교육 작업에게도 높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한 도구이다.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 검열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민미디어이다.

표적집단은 명확한데, 학교, 체스클럽, 여성그룹, 환경그룹 혹은 스포츠 동호회 혹은 도시의 특정 구역의 주민들이다. 그들은 청취자들에게 지방자치 문제들이 잘못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나아가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한 선전도 하고 여가시간을 위한 팀 혹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한다. 이 책과 더불어 부록으로 첨부된 CD-ROM에는 개별적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미디어의 다양한 가능성이 소개되고 있다.

(2) '수업에서 결정하기 (Entscheidung im Unterricht)'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필름과 이에 수반된 교사용 자료들을 도구로 삼아 학습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진 주제들을 논의한다. 수업 시리즈의 중심에는 시의 적절한 필름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필름들에서는 청소년 등장인물들이 어떤 문제적 상황 혹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물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이고 상황들이다. 필름 속에서는 중심인물이 다른 조연들과 함께 배경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교실에서는 학생들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

수업 구상의 포인트

"수업에서 결정하기"는 특히 직업학교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통합된 학습구상이다. 이 수업 꾸러미는 교사용 지도서와 DVD("문제-필름", "인포 모듈" 및 "결과-필름")로 구성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가능하다. 교사에게 1-4시간의 수업시간 동안 적절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문제-필름"은 주인공이 결정에 직면해 있는 주제 혹은 문제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 다음 학생들에게 질문이 제시된다. 우선 학생들은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가설을 발전시킨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투표를 한다.

계속적으로 역할극, 텍스트 공란 채우기 및 배경정보, 소위 "인포모듈"을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주제가 다층적으로 조명되고 논의된다. 이러한 작업 단계의 목표는 학생들이 필름 속에서 제시된 문제의 해결책을 조사해 내고 논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다시 한 번 더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지 투표한다. 작업과정과 논의를 거치고 난 뒤 의견들이 바뀌었는가? 그렇다면 어떤 관점들이 현재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결과-필름"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주인공이 실제로 필름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수업에서 결정하기는 학생들의 직접적 관심 영역으로부터 나온 주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여, 학생들의 논의능력과 의견형성능력을 장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교사에게 열어준다.

예시: 군인으로서의 삶 (Ein Leben als Soldat?)

(Entscheidung im Unterricht Nr. 01/2009)

분데스베어(독일군대)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군인으로서의 의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군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외국에 투입되는 동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가족과 친구들과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양심과 충절을 빚을 수도 있다.



Inhaltsverzeichnis

Einleitung__4
 Informationen zum Film__6
 Ziele und Methoden__8
 Informationen zum Thema: Ein Leben als Soldat?__12
 AB 1: Wer sagt was?__14
 AB 2: Fallbeispiel Kevin__15
 AB 3: Fallbeispiel Michael__16
 AB 4: Fallbeispiel Max__17
 AB 5: Fallbeispiel Tobias__18
 AB 6: Weitergedacht: Bundeswehr im Ausland__19
 AB 7: Pro und Kontra Auslandseinsätze__20
 AB 8: Pro und Kontra Auslandseinsätze__21
 AB 9: Rollenspiel Frauen bei der Bundeswehr__22
 AB 10: Rollenspiel Frauen bei der Bundeswehr__23
 Fortsetzung: Ein Leben als Soldat?__24
 Literaturempfehlung__26

도입: 수업시간으로서의 토크쇼

필름 정보: 군인으로서의 삶? 수업영화 개관

중심필름 - 의무 군대를 통하여 실업에 대처할 수 있을까?

문제필름 - 5분 57초

결과필름 - 8분 38초

인포모듈1 - 군사 및 시민 봉사 - 2분 23초

인포모듈2 - 외국투입 - 2분 1초

인포모듈3 - 분데스베어의 여성 - 2분 13초

목표와 방법

토크쇼로서 수업시간 - '군인으로서의 삶?'

수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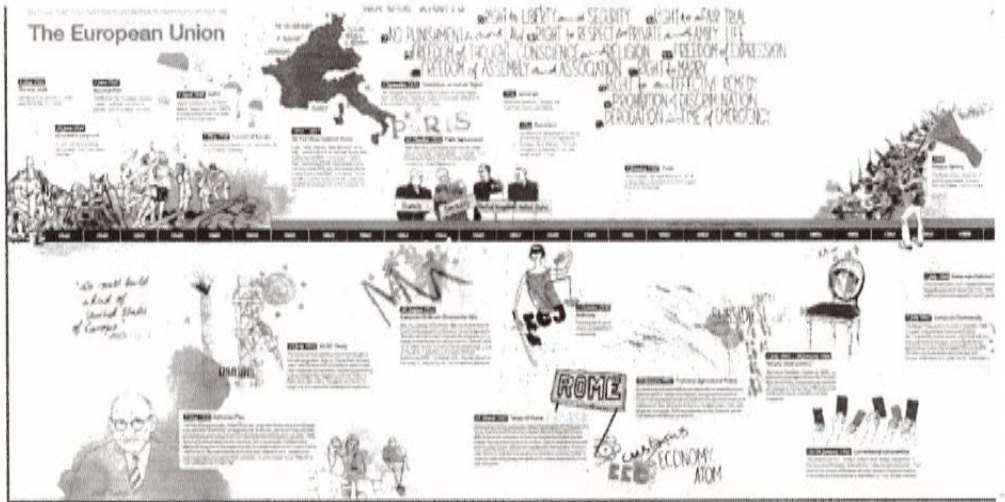
- 첫 번째 수업시간 - AB1
- 두 번째 수업시간 - AB2-5
- 세 번째 수업시간 - AB6-8
- 네 번째 수업시간 - AB9-10

(3) Falter

팔터는 서로 다른, 복사 가능한 5장의 학습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정치와 현대사 영역으로부터 나온 복합적 주제이다. 5장을 죽 펼치면 플랑카드가 되고, 접으면 (falten) 손에 거머쥘 수 있는 팜플렛이 될 수도 있다. 팔터는 텍스트, 그래픽 및 삽화가 섞여 구성되어 있어 전체에 대한 개관을 줄 뿐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PDF파일로 제공되는 교사용 지도서는 해결방식, 보충정보 그리고 교수법적 안내를 포함하고 있다.

에서 '유럽통합 시간표' (Zeitleiste Die Europäische Union)

Falter Zeitgeschichte Nr. 2



유럽통합 시간표 팔터는 독일어 및 영어 버전으로 출간되었다.

이 팔터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다. 교실이나 집에 장식용으로 부착해 둘 수도 있다.

현재까지 간행된 Falter 시리즈

Zeitleiste Wahlrecht in Deutschland

Arbeitsmaterialien zur Zeitgeschich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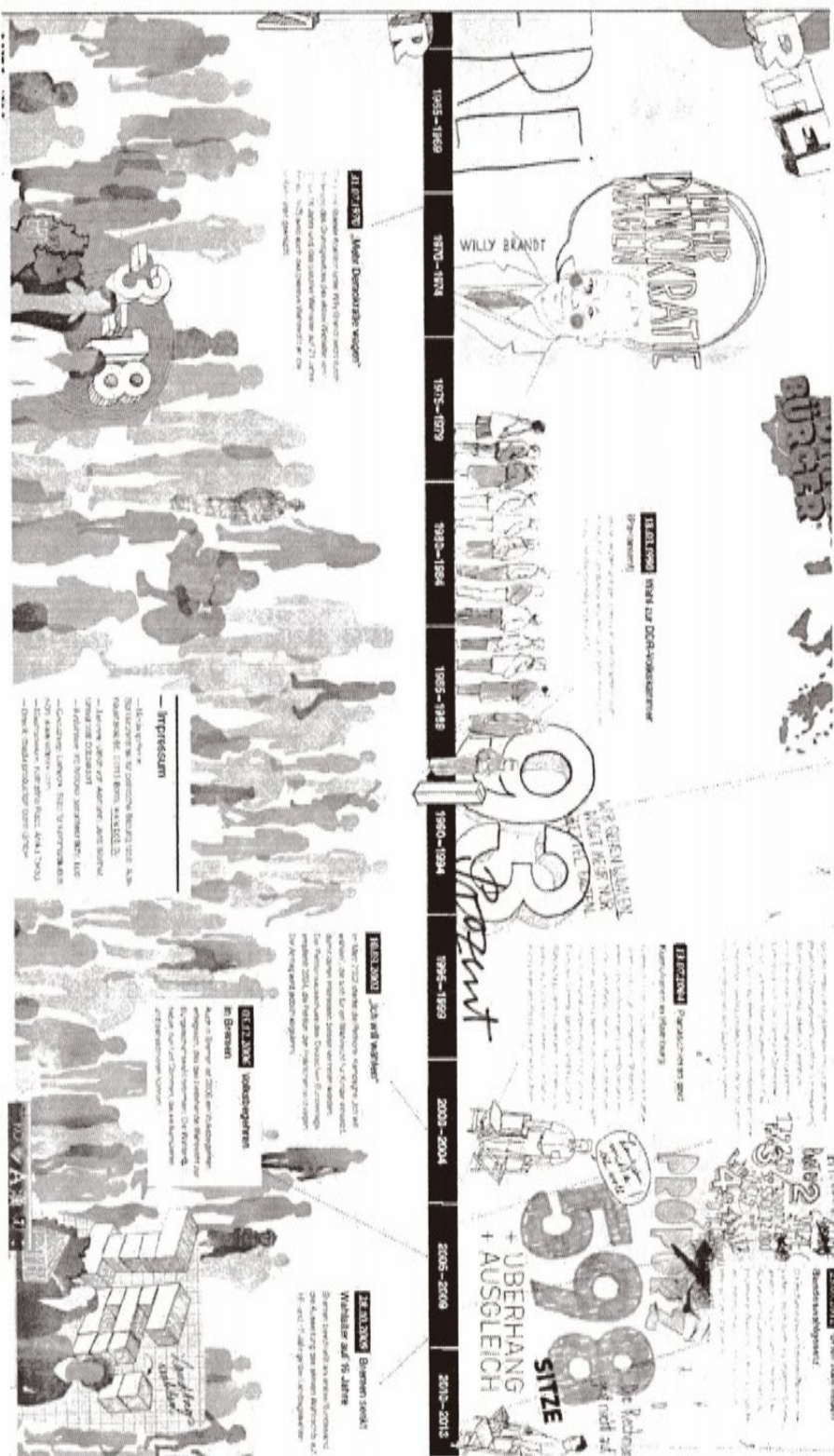
Zeitleiste 1914-1990 und Methoden (Zeitleiste 1914-1990에 대한 교안을 수록하고 있다.)

Zeitleiste 1914-1990 (englisch und deutsch)

50 Jahre Deutsch-türkisches Anwerbeabkommen

Fußballerinnen weltw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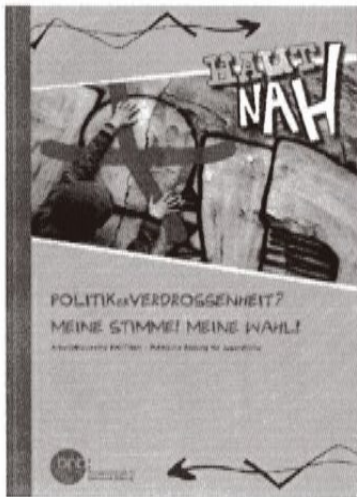
Die Nationalhymnen der 28 EU-Mitgliedstaaten



(4) 하우스나아

(Hautnah: 피부에 와 닿는, 생생한. 사료를 통해 생생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학습교재를 의미한다.)

이 학습교재는 정기적으로 발간되며 연방정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주로 현실적 정치 테마와 논쟁들이 주제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학습교재는 정규 정치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예시 '정치혐오?' - 나의 목소리! 나의 선택!

(Stimme: 목소리를 뜻하나, 투표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Wahl: 선택을 의미하나 선거를 의미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을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절망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Shell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나, 정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거리감을 갖고 있다.

Ausgabe 2/2013	
INHALT	
Vorwort und Legende	3
Einführung	4
Arbeitsblatt 1	
„Traumjob in der Politik“	
Pädagogischer Beipackzettel	7
Kopiervorlage	9
Arbeitsblatt 2	
„Meine Stimme! Meine Wahl!“	
Pädagogischer Beipackzettel	10
Kopiervorlage 1	13
Kopiervorlage 2	14
Impressum	15

목차를 보면, 주제에 대한 도입부분이 있고, 두 개의 학습지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지1은 '정치에서 꿈의 직업을'이란 주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정보를 담은 교육용 설명서와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지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용 설명서(Pädagogischer Beipackzettel)

학습목표:

- 학생들은 정치가가 연방의원으로서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지 지적할 수 있고 이들이 독일에서 연방선거의 틀 속에서 선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치가들의 과제에는 특수한 딜레마, 예를 들어 양심의 의무와 정치적 실천에서 때로는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정파적 강제 사이에 이해관계의 갈등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법론적인 구상

진입:

선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좌가 시작될 때 짧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때 서로 다른 진술들을 읽어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공간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게 할 수 있다. 교실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술에 대해 긍정하는 경우에는 A영역으로, 부정하는 경우에는 B영역으로 가게 할 수 있다. 이때 포괄적인 질문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누가 연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는가?(피선거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가?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낭독될 수 있다.

너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너가 (...) 한다면,

-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면,
- 직업이 정치가라면,
- 14세가 되었다면,
- 여성이라면,
-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 적어도 2000유로의 소득을 갖고 있다면,
-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 적어도 레알슐레 졸업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면,
- 25세 이상이라면,
- 남성이라면,
- 정치가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면

이때 논쟁적 진술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편견 또는 그릇된 구상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 정치가에 대해 어떤 편견들이 지배적인가? 그런 다음 아래에 제시된 학습지의 도움을 받아 연방의원 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토대를 알아갈 수 있다.

과제2:

공간과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선거를 위한 규정들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게끔 할 수 있다. 학교 문맥이라면 반장선거를 주제화할 수 있고 나아가 그와 연계되어 반장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주제화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연방의회선거를 다루는 것은 예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요구하는 것에 따라 정치가의 특별한 권리와 의무와 같은 (예를 들면 면책특권) 보다 상

세한 측면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다.

과제3:

논의를 준비하기 위해 역할극이 제시된다. 이때 현장 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를 테면 청소년회관의 폐관, 16세부터 선거권 부여) 주제를 두고 일종의 의회에서의 투표가 시뮬레이션 된다. 역할분담은 학습의 크기에 따라 가변적이다. 한 학생이 투표를 지휘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적인 포지셔닝이 의원들의 역할분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테마에 따라 찬성이든 반대이든) 결정하는 자유 의원들, 양심에 반해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시에 따라 결정하는 정파소속 의원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지시 - 그것이 자기 양심과도 일치하는 - 에 따라 결정하는 정파소속 의원들. 역할을 떠맡은 학생들은 자신의 포지셔닝을 설명하는 역할카드를 받고 회의에서 제시할 자신이 생각해 본 명분을 준비해야 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서로 다른 관찰과제들을 통해 다음의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 목표는 정치가들의 역할 속으로 들어가서 이를 테면 누가 왜 정파적 규율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상상을 해 보는 것이다.

학습지

정치에서 꿈의 직업을!

1. 심화질문

연방의회에서 이해 대변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a) 다음 문장을 꼼꼼히 읽어라. 너의 이웃학생과 강조된 개념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라. 불명확한 것을 해명하라.

.... 연방의회, ... 의원 ... 정당... 자유의원... 정파...

b) 다음 그림을 보라.

이 그림들을 정파와 자유 의원들과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라.

2. 다음 기본법 조항을 차분히 읽어라.



38조

“(1) 독일연방 의원들은 보편,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그들은 전체 국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나 지시에 묶이지 않고 오로지 양심에 따른다.”

TRAUMJOB IN DER POLITIK?


1 NACH BEFRAGT

WIE FUNKTIONIERT INTERESSENVERTRETUNG IM BUNDESTAG?


a) Lies dir folgenden Text durch.
Besprich mit deinem Nachbarn die fett gedruckten Begriffe und klärt Unklarheiten:

*Politikerinnen und Politiker im Bundestag werden als **Abgeordnete** bezeichnet. Sie vertreten dort die Interessen der Völker. Meist gehören Politikerinnen und Politiker einer **Partei** an, sie müssen das jedoch nicht. Sie können auch als **freie Abgeordnete** im Bundestag sitzen. Wenn sie sich mit anderen zusammensetzen, dann können sie als so genannte **Fraktion** besondere Rechte im Bundestag erlangen. Mitglieder einer Partei schließen sich daher häufig zu einer **Fraktion** zusammen. Die Mitglieder einer Partei sitzen deswegen im Bundestag auch zusammen, haben ähnliche Interessen und entscheiden vieles gemeinsam.*

b) Sieh dir die Bilder an.



Diskutiert, was diese Bilder mit Fraktionen und freien Abgeordneten verbindet.



2 NACH GEDACHT

Lies dir folgenden Artikel des Grundgesetzes durch!

Artikel 38

„(1) Die Abgeordne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werden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gewählt. Sie sind Vertreter des ganzen Volkes, an Aufträge und Weisungen nicht gebunden und nur ihrem Gewissen unterworfen.“



→ beschreibe deinem Sitznachbarn, welche Aufgaben Politikerinnen und Politiker laut Grundgesetz im deutschen Bundestag haben.

ERLÄUTERT IN DER KLASSE

→ was damit gemeint ist, wenn im Grundgesetz steht: Politikerinnen und Politiker „und Vertreter der ganzen Völker“;

→ wonach Politikerinnen und Politiker im Bundestag dem Gesetz nach ausschließlich handeln sollen;

→ wo es außer Achtlich nach noch weitere Aufgaben gibt, die Politikerinnen und Politiker erfüllen sollten.

arbeitsblätter

독일연방의 기본법에 따르면 의원들이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지 곁에 앉아 있는 친구에게 설명해 보라.

교실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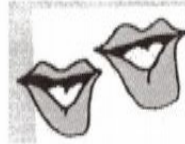
- 기본법에 규정된 것, 정치가들은 전 국민의 대변자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 연방의회 정치가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오로지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가?



-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정치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존재하는가?

3.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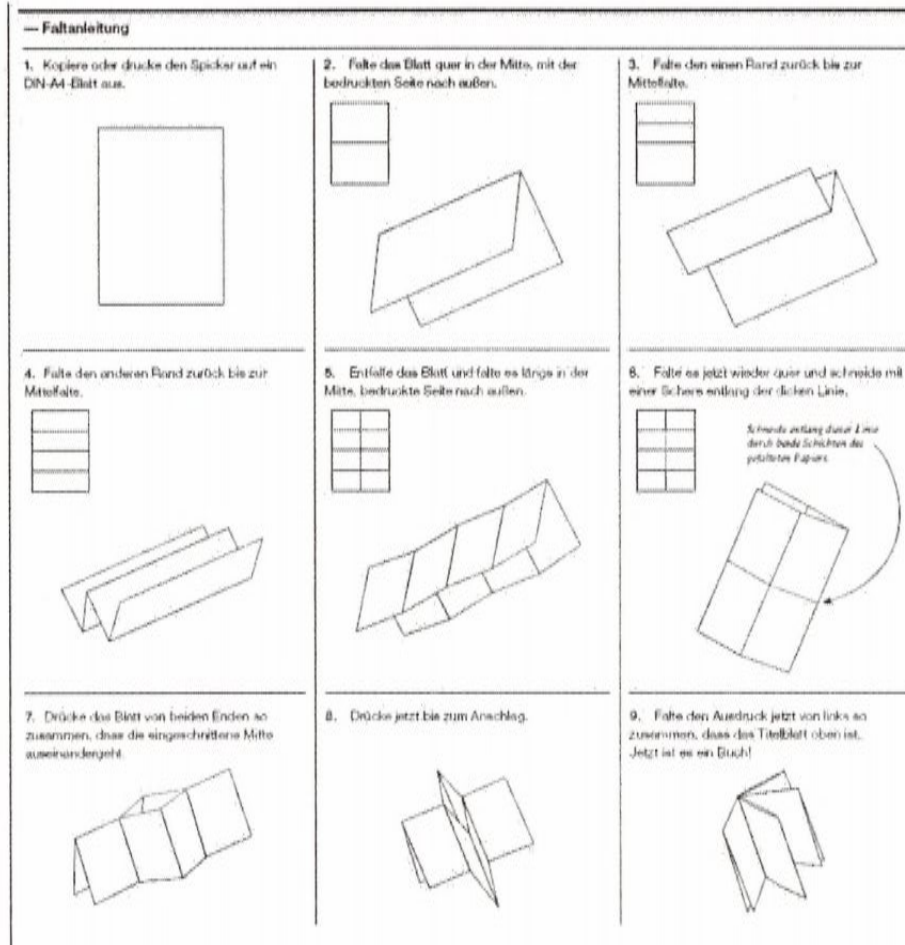
교실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 정치가들을 위한 정치실천에서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단순한지,
- 정치가들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들이 자신의 정당의 의미에서 행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배타적으로 자기를 선출한 사람들만의 이해를 고려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은가?

(5) 슈퍼커 (Spi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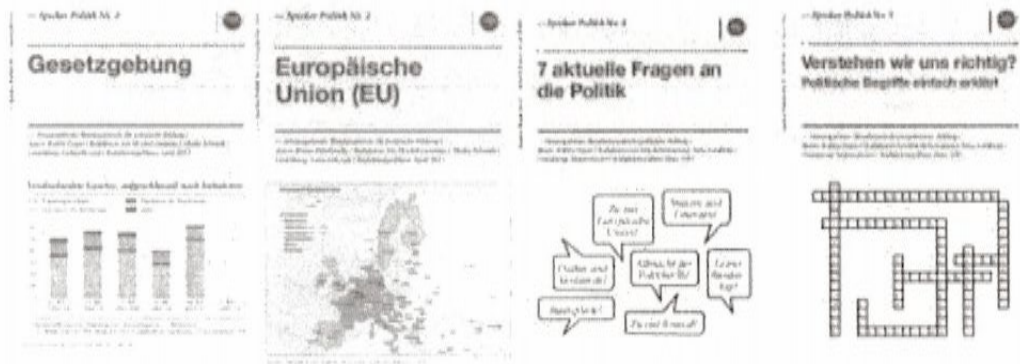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 나온 모든 주요한 정보들을 모아둔 자습용 사전.



2011년 7월에 출간된 Spicker aktuell Nr.1는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건설'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 슈퍼커를 예로 들면, 총 8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접으면 하나의 박스 형태가 된다. 베를린 장벽은 독-독 역사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이 슈퍼커 안에는 베를린 안에 서베를린 지역을 에워싸는 장벽을 보여주는 지도와 함께, 장벽이 건설되는 배경과 과정 그리고 장벽에 대한 주민의 반응 등을 데이터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벽에서 숨진 도망자의 수와 장벽이 무너지는 과정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간행된 Spicker Politik 시리즈



- Nr.1 '독일 의회(Der Deutsche Bundestag)'
- Nr.2 '유럽연합 (Europäische Union)'
- Nr.3 '법률제정(Gesetzgebung)'
- Nr.4 '7 aktuelle Fragen an die Politik'
- Nr.5 'Verstehen wir uns richtig?'
- Nr.6 'Bundestagswahl 2013 kurzgefasst'
- Nr.7 'Wie aus Stimmen Sitze werden'

Nr.4 '7 aktuelle Fragen an die Politik'의 내용

- 정치가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도 되느냐?
- 정치가는 얼마를 버느냐?
- 국가는 자신이 지출하는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 국가가 파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 연방의회 회의장에서는 사람들이 왜 덩성덩성 앉아 있느냐?
- 유럽공동체와 유로화폐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느냐?
- 독일에서 모든 법의 80%가 브뤼셀로부터 온다는 것은 사실인가?

(6) 게임

•에시 초보를 위한 사회

카드놀이

진실게임 - 너는 어떻게 할래?

60개의 미묘한 상황



60개의 카드놀이는 개인들 상호 간의 접촉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함께 살기를 주제화 한다. 세대 간 접촉 상황, 사회의 소수파와의 접촉 상황 그리고 사회의 응집 등이 주제이다.

이 카드놀이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승인할 것인가에 기초해 있다. 우리는 언제나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선량한 사람들'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속의 돼지들을 이겨내려 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이런 저런 핑계거리도 갖고 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집 없을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우호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개입하기보다는 방관할 때도 많다.

따라서 내용적인 평가가 이 카드놀이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카드놀이가 제시하는 개개 장면들은 사회정치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60개의 카드장면은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몇몇 상황은 다수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 시민용기
- 범죄/질서파괴
- 사회행동/인간관계
- 정치관

상황1

나는 거리에서 돈지갑을 줍는다. 그 속에는 80유로와 신분증이 들어 있다. 소유자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

나는 기차가 곧 떠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

나는 돈이 모자라고 급하게 10유로가 필요하다.

ㄱ) 드디어 나에게 행운이 찾아온 거야. 나는 대강 돈지갑을 찾아주는 값에 해당하는 10유로를 꺼낸다. 그런 다음 우편함에 돈지갑을 넣는다.

ㄴ) 나는 지갑주인을 빨리 찾는다. 그리고 적어도 나에게 돌아올 찾아주는 값을 기대한다.

ㄷ) 나는 기차역으로 바로 간다. 돈지갑을 우선 들고 간다. 조금 늦게라도 나는 돈지갑을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상황2

친척이 큰 병을 앓고 있다.

그가 만족할만하게 치료되기 위해서는 나의 골수가 필요하다.

수술은 아마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며, 전신마취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정도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나의 골수는 다시 자라날 것이다.

나는 친척을 견뎌낼 수 없다. 그도 나를 견뎌내지 못한다.

ㄱ) 나는 결코 친척을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술에 따른 위험부담을 나는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ㄴ) 우선 친척이 나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봐서 나는 도움을 줄지 고려해 볼 것이다.

ㄷ) 이런 저런 고민과 갈등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는 친척을 돕게 될 것이다.

상황5

나는 피자배달원 알바를 한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피자 한판이 상자로부터 빠져나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누구도 보지 않았고 피자도 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ㄱ) 나는 피자를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고 초인종을 누른다.

ㄴ) 나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고 새로운 피자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제안한다. 고객은 그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ㄷ) 나는 피자 가게로 전화를 걸어 새로운 피자를 주문하고 우선은 다른 손님에게 피자를 배달한다.

상황6

기차에 손님이 만원이다. 자전거와 사람들이 복도에까지 꽉 들어찼다.

1등석에는 아직 자리가 비워있다.

기차승무원은 1등석 티켓이 없이 1등석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4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ㄱ)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지만 나는 티켓을 갖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1등석으로 들어갈 마음이 없다.

ㄴ) 정말 뻔뻔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다투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냥 서서 갈 것이다. 나는 그리 멀지 않은 길을 가면 된다.

ㄷ) 나는 용기를 내어 1등석 열차로 들어갈 것이다.

자기와 모두

4명 이상
 부가적으로 필요한 재료
 개인 당: 연필 1개, (), (), ()이 적혀 있는 6개의
 메모지(대략 8*8cm), 그리고 도표 한 장

목표 - 집단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과정 - 상황이 제시된다. 그런 다음 (), (), ()
 3개의 행동 해법들이 제시된다. 참가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당되는
 철자를 적는다. 메모지는 누구 것인지
 모르게 모은다.
 이제 모두가 함께 (), (), ()를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인지 계산한다. 그리고 그 숫자를
 자기의 표에 기입한다. 해결: 정확히 맞춘 자는
 3점을 받는다. 바로 근처 숫자를 적은 자는 1점을 받는다. 상황에 따라 0점에서 9점
 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 Tabelle 1: selbst und alle
 Tipp = 1st: 3 Punkte, Tipp = 1 1st: 1 Punkt.

	Tipp			1st			Punkte			
	A	B	C	A	B	C	A	B	C	gesam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Summe										

게임의 결과 승리자 -
 14개의 상황 이후에 최고로 많은 점수를 모은 자가 승리자가 된다.

어떤 상황인가? - 보너스 게임

3명 이상.

이 게임에서는 태도에 대한 평가가 관건은 아니다. 거꾸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다.

목표 - 가능한 적은 정보를 가지고 상황을 알아내는 것

과정 - 게임 참가자 중 한 명이 딜러가 되어, 정보를 읽어주는 역할을 한다. 딜러만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추측할 뿐이다.
 딜러가 해답(A, B, C) 중 하나를 읽는다.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추측하는 제안들을 제시한다.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해질 때, 딜러는 다른 해답들을 제공한다. 혹은 딜러가 해당 질문에 대해 '맞다' 아니면 '틀리다'고 답할 수도 있다. 딜러는 힌트를 줄 수도 있다. 상황을 처음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참가자가 카드를 확보한다.

게임의 결과 승리자 -
 모든 참가자가 한 번씩 딜러 역할을 했을 경우, 가장 많은 카드를 확보한 자가 승리자가 된다.

다른 게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다.

1. 권력 맛보기

인립정부 만들기 - 카드놀이
59명의 유명 정치인과 똑 부러지게 협상하기

2. 숫자와 팩트

대충 계산하면 (pi mal daumen)
평가치, 팁, 지식, 180개의 통계 퀴즈문제들

3. 맥스 5

포켓 정치 - 카드놀이
누가 잘 알고 있느냐? 120개의 상세한 조언 개념들 knifflige Rate-Begriffe

4. 일찍 혹은 나중에

1945년 이후 독일역사 학습을 위한 카드게임

5. 충분히 헛갈려

정치와 사회 영역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개념들 중 오해하기 쉽고 헛갈리는 개념들을 정리하는 게임

6. 선거 시기! 왜 선거해야 하는가?

(7) 수업주제별 학습지(Themenblätter im Unterricht)

수업주제별 학습지는 정치와 사회 영역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주제들에 대한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이것은 1-2학습시간을 위해 구상되어 있다. 4면에 걸쳐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설명을 담고 있는 교사용 핸드아웃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학습지는 보충수업 시간에 수업단원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웹사이트에 게재된 검색엔진을 통해 여태 발행된 수업 주제별 색인을 검색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예시: '끝없는 성장?(Wachstum ohne Ende?)'

Themenblätter im Unterricht Nr. 92:

Autor: Martin Eiermann

Erste Auflage: April 2012



12쪽으로 구성된 학습지

성장은 우리 경제의 추진동력이다. 임금, 연금, 투자, 국가지출. 이 모든 것들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성장에 대해 점점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고 자원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Thesennummer im Gesamt-Nr. 42 | --- Autor: Math Gernig | --- Erste Auflage April 2012 | --- Internet: www.zps.de/themawachstum

01

Wachstum ohne Ende?

Wachstum ist der Treibstoff unserer Wirtschaft. Löhne, Renten, Investitionen, Staatsausgaben – alles hängt von unserer Fähigkeit ab, immer mehr zu produzieren und zu konsumieren. Doch was tun, wenn Wachstum teuer wird und Ressourcen zur Neige gehen?

Eine kurze Geschichte der Wachstumskritik – mit Happy End?

Im Jahr 1796 veröffentlichte der britische Ökonom Thomas R. Malthus sein Werk „Principle of Population“. Seine These:

„Das Vermögen des Bevölkerungswachstums ist viel größer als die Fähigkeit der Erde, Nahrungsmittel für die Menschen zu produzieren. Das ungehinderte Bevölkerungswachstum nimmt in geometrischer, die Nahrungsmittelproduktion in arithmetischer Rate zu.“

Malthus sagte für das 19. Jahrhundert große Hungersnöte und soziale Spannungen voraus. Ein Großteil seiner Sorgen stellten sich glücklicherweise als unberechtigt heraus – Malthus hatte vergessen, Steigerungen in der Effizienz von Lebensmittelproduktion und bessere Erträge durch die Kreuzungen von verschiedenen Getreidearten zu berücksichtigen. Die Bevölkerung ist seit der Veröffentlichung des Buches von knapp einer Milliarde Menschen auf über sechs Milliarden Menschen angewachsen, ohne dass die Erde an den Grenzen ihrer ökologischen und landwirtschaftlichen Belastbarkeit angelangt wäre.

In einem zentralen Punkt hatte Malthus trotzdem recht: Die vorhandenen Ressourcen und der vorhandene Platz sind begrenzt. Natürliche Vorkommen fossiler Brennstoffe, Metalle oder Seltener Erden werden durch die menschliche Nutzung entleert, funktionierende Recycling-Kreisläufe gibt es nicht i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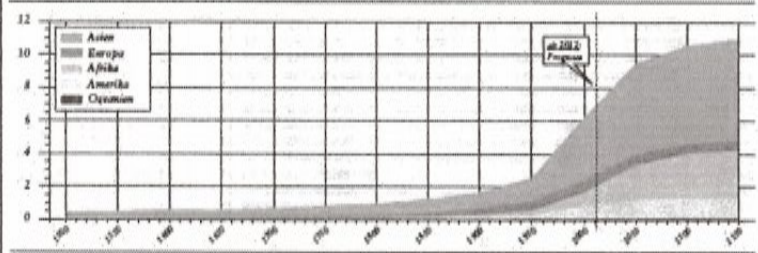
& stört für die weltweite Form des vorangegangenen Begriffs

Gleichzeitig wird immer mehr Agrarland besiedelt und durch Dauernutzung unfruchtbar. Malthus' Problem ist also in gewisser Hinsicht immer noch aktuell: Wie können wir weiter wirtschaften und unsere Zivilisation vorantreiben, ohne dabei an natürliche Grenzen zu stoßen?

Dazu kommt ein zweites Problem. Laut der klassischen ökonomischen Theorie wird der Preis von Angebot und Nachfrage bestimmt. Das heißt jedoch im Umkehrschluss: Je mehr endliche Ressourcen wir verbrauchen, desto teurer werden diese tendenziell. Ökonomen¹ sind unterschiedlicher Meinung darüber, ob Effizienzsteigerungen und durchdachtes Recycling helfen können, unseren Energiehunger zu stillen und mehr Wachstum bei weniger Energieverbrauch zu ermöglichen. Klar scheint: Wir können nicht immer mehr Geld ausgeben, um das eigene Wirtschaftswachstum zu finanzieren. Die Staatsverschuldung der USA und vieler anderer Industrienationen hat bereits heute historische Rekordwerte erreicht. Schuldenfinanziertes Wachstum ist kein nachhaltiges Wachstum.

Spätestens seit der Publikation der Studie „Die Grenzen des Wachstums“ von 1972 (siehe Infokasten auf Lebensblatt 02) stellen sich Wissenschaftler² und Politiker³ daher wieder die Frage, wie nachhaltiges Wachstum ermöglicht werden kann.

--- Entwicklung der Weltbevölkerung nach Kontinenten, 1500 bis 2100 (in Milliarden)



--- Quelle: UN Population Division, 500 Eurostatistik für Bevölkerungsentwicklung www.500-statistik.de © Leibniz

--- Herausgeb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BpB --- Verantwortliche Redaktion: Ulf Möller --- Coverfoto: www.flickr.com

성장비판의 짧은 역사 - 해피 엔드인가?

1789년 영국경제학자 토마스 맬더스는 인구론을 출간했다. 그의 тезе는 다음과 같다.

“인구의 성장 능력은 인류가 소비할 식량을 생산하는 지구의 능력보다 훨씬 크다. 저지되지 않은 인구의 성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

Infokasten - 로마클럽 선언 1972:

- Roma: Bericht über den Bericht - Eine Auflage April 1972 - Autor: Martin Grottel - Übersetzung von Grottel für die Deutschen (1972)

02

Club of Rome: Grenzen des Wachstums, 1972

„Die „Grenzen des Wachstums“ erschien im Jahr 1972 vor überföhre. Die Studie „Limits to Growth“, auf Deutsch „Die Grenzen des Wachstums“, gilt als eine der Ur-Studien zur nachhaltigen Entwicklung. (...) In diesem Modell werden eine Reihe von Szenarien entwickelt. (...)“

Der Club of Rome hat in der veröffentlichten Buch-Version eine kritische Würdigung dieser Studie vorgenommen. Die wesentlichen Aussagen sind in Folgenden zitiert:

„(...) Bisher als je zuvor sinkt die Menschheit gegenwärtig zu beschleunigtem Wachstum der Bevölkerung, rascherer Nutzung von Boden, Steigerung von Produktion, Verbrauch und Erzeugung von Schadstoffen. Man nimmt dabei heute fast an, dass der natürliche Lebensraum den zulassen oder dem Wissenschaft und Technik alle etwaigen Hindernisse überwinden könnten. (...)“

„(...) Wir wollen vor weltweiten Kulturenzuständen warnen, die entstehen können, wenn diese Tendenzen anhalten, und Wege zu Veränderungen auf politischem, wirtschaftlichem und sozialem Gebiet aufzeigen, die derartige Krisen verhindern können.“

Wir sind überzeugt, dass eine klare Vorstellung über die quantitativen Grenzen unseres Lebensraums und die tragischen Konsequenzen unseres Überschreitens seiner Einleitbarkeit dafür wesentlich ist, neue Denkgewohnheiten zu entwickeln, die zu einer grundsätzlichen Änderung menschlichen Verhaltens und damit auch der Gesamtstruktur der gegenwärtigen Gesellschaft führen.

„(...) Wir vertreten die Ansicht, dass ein weitestverbreiteter Gleichgewichtszustand nur erreicht werden kann, wenn alle die Veränderungen in den sogenannten Entwicklungsländern grundsätzlich verbessern, abschaffen und realisieren werden zu den hochentwickelten Industrienationen. Das aber kann nur durch weltweite Maßnahmen erreicht werden.“

„(...) Wir sind schließlich überzeugt, dass jeder verlässliche Versuch, einen dauerhaften Gleichgewichtszustand durch gezielte Maßnahmen herbeizuföhren, letztlich nur bei grundsätzlicher Änderung der Welt- und Zielvorstellungen der Eliten, der Völler und auf der Weltbewohnen von fröhlich geführt sein wird.“

„(...) Der Bericht (...) zeigt, dass es möglich sein wird, eine große aber zahlenmäßig beschränkte Weltbevölkerung mit einem guten materiellen Lebensstandard zu versorgen, der eine fast unbegrenzte individuelle und soziale Weiterentwicklung gestattet ist.“

- Quelle: Lernen im Zusammenhang mit nachhaltiger Entwicklung, 2009, S.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영어로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초기 보고서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 로마클럽은 이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시도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류는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현재 가속화된 인구 성장, 토지의 더 급속한 활용, 생산의 증가, 유해물질의 소비와 생산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자연적 삶의 공간이 이러한 것을 허용하거나 혹은 과학과 기술이 모든 추정상의 방해물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손쉽게 가정한다. (...)

이러한 평가에서 해결되어야 할 핵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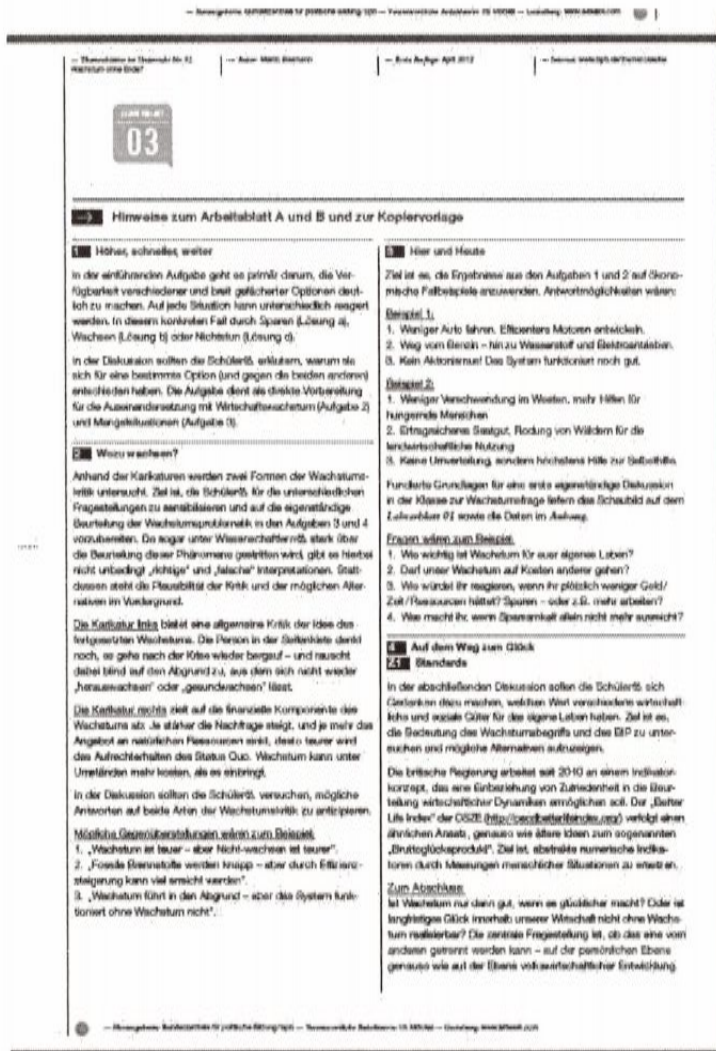
1. 석유, 천연가스, 희귀광물, 구리 혹은 철광석 등과 같은 천연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할 만큼 우리경제의 효율성이 증가될 (리사이클링이 개선될) 수 있는가?
2.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부족한 원자재 가격은 비싸질 것이다. 계속된 성장이 일구어내는 것보다 그 비용이 더 비싸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3. 잘 알려져 있는 문제들과 싸우기 위해 어떤 선택이 남아 있는가?
4.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 어떤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학생들은 학습지 A와 B에 제시된 과제를 토대로 연구해야만 한다.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179

학습지 A와 B에 대한 안내

(1)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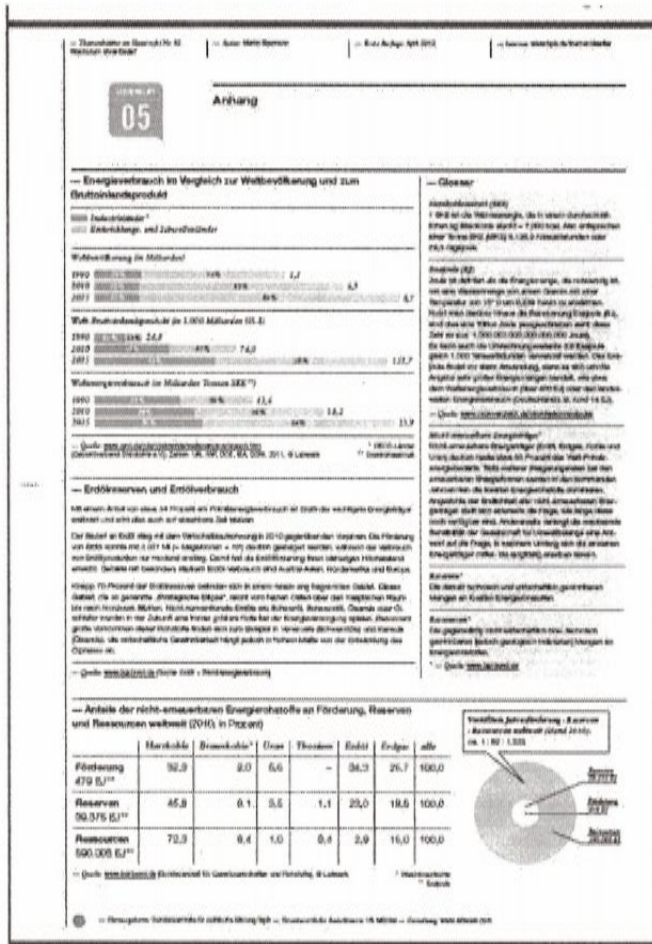
앞에 제시된 과제에서 일차적으로 관건이 되는 것은 다양한 그리고 광범위한 선택지의 존재유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 구체적인 경우에 절약, 성장 혹은 방치가 반응 선택지이다.



(2) 왜 성장이 필요한가?

커리큘럼을 통해 두 가지 형태의 성장비판이 조사된다.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과제 3, 4를 통해 성장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학자들조차 이런 문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옳은 혹은 틀린 해석이 아니다. 그 대신 비판의 설득력과 가능한 대안이 전면이 부각되어야 한다.

부록



전세계 인구 및 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소비

천연가스보유량과 천연가스소비

전세계적으로 대체가능하지 않는 에너지자원 채굴량, 비축량, 보유량 비교(2010년, %)

- 채굴량,
- 비축량,
- 보유량

용어해설

- SKE
- EJ

Was gehört zum guten Leben?

Z1 Standards Es geht dir die wichtigste Form des vorgegebenen Begriffs

Wie gehst du dich zu einer beliebigen Lebensqualität? (Stufe die Bereiche in eine Rangfolge von 1 (am wichtigsten) bis 18 (am wenigsten wichtig)).

Bereiche	Meine Reihenfolge
Gesundheit	1.
Freie Umwelt	2.
Zugang zu Informationen	3.
Mitprache und Entscheidungsmittel	4.
Wohnung	5.
Sonst. vor Geld und Arbeit	6.
Freizeit, Bewegungsmittel	7.
Azurechnen, Anerkennung	8.
Azurechnen Einkommen	9.
Vertrauen Informationen	10.
Arbeitszeit	11.
Gute Verkehrsmittel	12.
Freizeitangebote	13.
Freundschaften	14.
Theater und Konzerte	15.
Eigene Meinung	16.
Möglichkeiten zur sportlichen Betätigung	17.
Azurechnen und schriftliche Meinung	18.

Z2 Zur Diskussion: Sind wir alle Täter??

1. Formuliere deine persönliche Haltung zum folgenden Text in fünf bis sechs Sätzen auf einem separaten Blatt.

Täter sind nicht oder weniger als die, die Gegenwärtigen und zumindest einige Generationen vor uns. Kurzzeitig greifen sie als in irgendeiner Weise aus der alltäglichen Ausübung von Verantwortlichkeiten aus unseren Verantwortungskreis.

Ob wir nun neue Krisenereignisse sind, die über die vermeintlich harmlosen Dinge des Alltags hinaus auf viele künftige Dinge, (massive Degeneration oder Spät und Abwertung aus Sicht, ob wir Unternehmer sind, deren Interessen in größtmöglicher Profit, in Weltverantwortung und können stärksten Produkte für die Konsumenten liegt, ob wir studentische Ökonomen und für die theoretischen Grundlagen zuständig sind oder ob wir Parlamentare sind, die wirtschaftlichen Gesetzen in Gestalt regeln, und in verfassungsmäßige Vorgaben einbinden sollen, wir alle sind Täter, sind Chancen- und Ressourcenrisiko und unsere eigene Normalität gegenüber den nachfolgenden Generationen.

2. Gruppalarbeit: Formuliere ein eigenständiges Plädoyer aus der Sicht eurer Generation.

좋은 삶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Z1 표준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인가?

왼쪽에 제시된 영역들을 1번에서 18번까지 중요한 순서대로 가져와라.

- 영역
- 건강
- 훼손되지 않은 자연
- 참여권과 자유로운 결정권
- 교육
- 위협과 공포로부터 보호
- 이동의 자유
- 충분한 노후보장
- 충분한 소득
- 의미 있는 일자리
- 친교

나의 순서

Z2 논의를 위해: 우리 모두 죄인인가?

다음 텍스트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 태도를 5-6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 Name: _____ | — Date: August 2012 | — Alter: 18 bis 25 Jahre | — Themenkreis im Deutschen No. 10: Wachstum und Krise*

Grenzen, Wachstum, Wohlstand

B

1. Hier und heute

1. Schau die Lösungen a bis c zu Aufgabe 1 auf Arbeitsblatt A an und versuch, die Lösungsmöglichkeiten auf die folgenden realen Probleme zu übertragen und erstelle dazu auf einem geordneten Blatt jeweils eine Tabelle nach untenstehendem Muster. Mach dabei in der Höhe soviel Platz an, wie du brauchst.

— Problem 1: Öl und Gasvorräte auf der Erde sind begrenzt. — Problem 2: Die Bevölkerung wächst.

Wir brauchen diese sogenannten fossilen Rohstoffe für unser Leben, für die Heizung, für Flugtickets, für die Herstellung von Plastik und Kosmetikprodukten. Wenn diese Ressourcen weiter diese Dinge rufen, wird gar so viele Menschen auf der Welt. Bis 2050 sind damit gerechnet, dass die Zahl der Autos auf 1,2 Milliarden ansteigen könnte. Doch was – aus dem untere Benzin hergestellt wird – wird immer knapper. Innerhalb der kommenden 100 Jahre werden die meisten Ölvorräte erschöpft sein.

Schätzungen der UN zufolge könnten annähernd bis zu zehn Millionen Menschen auf der Erde leben. Schon jetzt haben wir Probleme, alle Menschen mit ausreichend Nahrungsmitteln zu versorgen – laut Berechnungen der Weltgesundheitsorganisation bestimmen über 900 Millionen Menschen weltweit nicht genug zu essen.

— Muster für die Tabellen (Problem 1 und Problem 2)

	Vorteile	Nachteile
Lösung a („Sparsam“)		
Lösung b („Alternativ“)		
Lösung c („Neue Technik“)		

2. Wir haben also ein Problem: Die Ressourcen der Erde sind nicht unbegrenzt. Gleichzeitig wächst unser Verbrauch immer weiter. Welche der Lösungen a) bis c) hast du für besonders passend? Warum?

2. Auf dem Weg zum Glück

Wissenschaftler*innen sind momentan darüber, ob wir Wohlstand richtig messen.

„Ja“, sagen die einen. „Das Bruttoinlandsprodukt (BIP)*“ „Nein“, sagen die anderen. „Denn worauf es ankommt, ist, dass es den ist der richtige Weg, um die Leistung der Wirtschaft – Menschen gut geht, dass sie zufrieden sind und sich verwirklichen können. Das kann mit der Messzahl „BIP“ nicht ausgedrückt werden.“

* Das Bruttoinlandsprodukt (BIP) ist ein Maß für die monetäre Leistung einer Volkswirtschaft in einem bestimmten Zeitraum. Um das BIP zu erstellen, wird der Wert aller Waren und Dienstleistungen, die in einem Land produziert werden und Dienstleistungen zusammengezählt.

1. Wie wichtig sind auch die folgenden Werte? Tragt sie mit den entsprechenden Ziffern in den Strahl ein: Geld (1) / Zufriedenheit (2) / Gesundheit (3) / politische Teilhabe (4) / soziale Sicherheit (5) / Bildung (6)

← sehr wichtig wichtig weniger wichtig unwichtig →

2. Notiert in zwei Sätzen, was der Schriftsteller Theodor Fontane (1819–1898) mit folgender Behauptung aussagen möchte: „Es gibt für ein Mensch, sich wohl zu fühlen: Man muss lernen, mit dem Gegebenen zufrieden zu sein, und nicht immer das verlangen, was gerade fehlt.“

3. Versucht, die Begriffe „Wohlstand“ und „Glück“ in jeweils einem Satz zu definieren. Wie unterscheiden sich die beiden Begriffe? Was haben sie gemeinsam?

— Herausgeb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pb) — Themenkreis: Arbeitskreis 10 (2012) — Gestaltung: www.bildung.com

학습지 B.

한계, 성장, 복지

여기서 그리고 오늘 당장

학습지 A의 과제 1에 대한 해결책 a와 c를 관찰하라. 3가지 해결가능성을 다음 실제 문제들 예제로 전이하려고 시도하라. 예시 표를 보고 별도의 종이에 작성하라.

문제 1: 지구에서 석유와 가스저고량은 한정되어 있다.

문제 2: 인구는 증가한다.

예시 표 (문제 1과 문제 2)

장점 단점

해결책 a(절약)

해결책 b(대안)

해결책 c(방치)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학자들은 우리가 복지를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현재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계속된 학습을 위한 안내

- 연방정치교육원 제공 학습가능성

Schriftenreihe

Band1076: Wohlstand ohne Wachstum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Nr.280: Globalisierung

Nr.287: Umweltpolitik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Nr.12./2010: Wandel durch Klimawandel?

Nr.32-33/2010: Klimawandel

Themenblätter im Unterricht

Nr.57: Nachhaltige Entwicklung

Nr.71: Mobilität und Umwelt

Nr.73: Klimagerechtigkeit

fluter

Nr.26: Ab ins Grunel

Nr.32: Eigentum

Online-Dossiers und Themen auf www.bpb.de

- 연방정치교육원 편찬 수업교재

- pocket: pocket global

- Kartenspiele: „max 5“

pocket politik을 위한 카드놀이

아래 표는 2002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수업 주제별 학습지의 총 목록이다.
2013년과 2012년에 출간된 학습지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2013

Was denken Nazis? - 나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Mobbing in der Schule - 학교에서의 모빙
Gerechter Klimaschutz - 정당한 기후보호

2012년

Medien und Politik - 미디어와 정치
Lust auf Lernen? - 학습의 즐거움
Antisemitismus - 반유대주의
Wachstum ohne Ende - 끝없는 성장

학습 주제별 학습지 목록

- Nr. 1: Menschliche Embryonen als Ersatzteillager?
- Nr. 2: Die Ökosteuer in der Diskussion
- Nr. 3: Bundestag/Bundesrat
- Nr. 4: Demokratie: Was ist das?
- Nr. 5: Fleischkonsum und Rinderwahn
- Nr. 6: Deutschland, deine Inländer
- Nr. 7: Neuer Markt: Internet und Copyright
- Nr. 8: Zivilcourage: Eingreifen statt zuschauen!
- Nr. 9: Pop und Politik
- Nr. 10: Wer macht was in Europa?
- Nr. 11: Geben und Nehmen im Bundesstaat
- Nr. 12: Krieg oder Frieden? Bestell-Nr. 5.362
- Nr. 13: Terror und Rechtsstaat Bestell-Nr. 5.363
- Nr. 14: Erinnern und Verschweigen
- Nr. 15: Die Osterweiterung der Europäischen Union
- Nr. 16: Mobbing
- Nr. 17: Religion und Gewalt
- Nr. 18: Schule und was dann?
- Nr. 19: Familie und Frauen-Rollen
- Nr. 20: Der Bundestag - Ansichten und Fakten
- Nr. 21: Hotel Mama - oder die Kunst erwachsen zu werden
- Nr. 22: Lust auf Lernen
- Nr. 23: Koalieren und Regieren.
- Nr. 24: 17. Juni 1953 und Herbst '89.
- Nr. 25: Heimat ist, wo ich mich wohlfühle.
- Nr. 26: Bevölkerungsentwicklung und Sozialstaat.
- Nr. 27: Aktien - Chancen und Risiken.
- Nr. 28: Globalisierung - Ängste und Kritik.
- Nr. 29: Nationale Symbole
- Nr. 30: Arbeitslosigkeit - Ursachen und Abhilfen
- Nr. 31: Zuwanderung nach Deutschland

- Nr. 32: Familienbande
- Nr. 33: Internet-Sicherheit.
- Nr. 34: Europa der 25 - Osterweiterung der EU.
- Nr. 35: Staatsverschuldung - Ausmaß und Folgen.
- Nr. 36: Präsidentschaftswahlen in den USA.
- Nr. 37: 20. Juli 1944: Attentat auf Hitler.
- Nr. 38: Jugendbeteiligung in der Demokratie.
- Nr. 39: Zuschauer-Demokratie?
- Nr. 40: Freiheit und Gleichheit - feindliche Schwestern?
- Nr. 41: Unser Bild von Afrika.
- Nr. 42: Konjunktur und Konjunkturpolitik.
- Nr. 43: Getrennte Welten? Migranten in Deutschland.
- Nr. 44: Soziale Gerechtigkeit - Utopie oder Herausforderung?
- Nr. 45: Folter und Rechtsstaat.
- Nr. 46: Europa - in guter Verfassung?
- Nr. 47: Die Türkei und Europa.
- Nr. 48: Politische Streitkultur.
- Nr. 49: Sport und (Welt-) Politik.
- Nr. 50: Freiheitsrechte - grenzenlos?
- Nr. 51: Gesundheitspolitik - Ende der Solidarität?
- Nr. 52: Wasser - für alle!?
- Nr. 53: Wehr(un)gerechtigkeit.
- Nr. 54: Entscheiden in der Demokratie.
- Nr. 55: Baukultur und Schlossgespenster.
- Nr. 56: Stichwort Antisemitismus.
- Nr. 57: Nachhaltige Entwicklung.
- Nr. 58: Wie christlich ist das Abendland?
- Nr. 59: Gleiche Chancen für Anne und Ayshe?
- Nr. 60: Deutschland für Europa.
- Nr. 61: Friedenschancen im Nahen Osten?
- Nr. 62: Unterschicht in Deutschland?
- Nr. 63: Akteure im politischen Prozess.
- Nr. 64: Urteil und Dilemma.
- Nr. 65: Europa der 27.
- Nr. 66: Mitmischen: Neue Partizipationsformen.
- Nr. 67: Inländisch, ausländisch, deutschländisch.
- Nr. 68: Unternehmensethik, Eigentum verpflichtet.
- Nr. 69: Olympialand China.
- Nr. 70: US-Präsidentschaftswahl 2008.
- Nr. 71: Mobilität und Umwelt.
- Nr. 72: Welche EU wollen wir?
- Nr. 73: Klimagerechtigkeit.
- Nr. 74: Terrorabwehr und Datenschutz.
- Nr. 75: Bedrohte Vielfalt - Biodiversität.
- Nr. 76: Wasser - für alle!?
- Nr. 78: Der Bundestag - Ansichten und Fakten. (neu 2009)
- Nr. 79: Herbst '89 in der DDR.
- Nr. 80: 17. Juni 1953 - Aufstand in der DDR.
- Nr. 81: Demokratie - was ist das?
- Nr. 82: Staatsverschuldung - unvermeidbar und gefährlich?
- Nr. 83: Meilensteine der Deutschen Einh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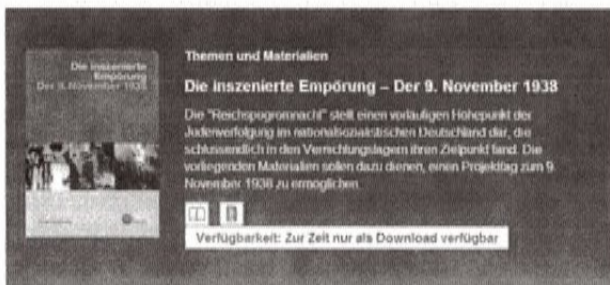
- Nr. 84: Afghanistan kontrovers.
- Nr. 85: Zusammengewachsen? 20 Jahre Deutsche Einheit.
- Nr. 86: Konjunktur - Gute Zeiten, schlechte Zeiten.
- Nr. 87: Arbeitslosigkeit - Ausmaß, Struktur, Ursachen.
- Nr. 88: Direkte Demokratie und Bürgerbeteiligung.
- Nr. 89: Mitte der Gesellschaft.
- Nr. 90: Vorurteile.
- Nr. 91: Sprache und Politik.
- Nr. 92: Wachstum ohne Ende?
- Nr. 93: Antisemitismus.
- Nr. 94: Lust auf Lernen?
- Nr. 95: Medien und Politik.
- Nr. 96: Gerechter Klimaschutz. (mit Spicker „7 aktuelle Fragen an die Politik“)
- Nr. 97: Mobbing in der Schule. (mit Spicker „Verstehen wir uns richtig?“)
- Nr. 98: Was denken Nazis? (mit Spicker „Bundestagswahl 2013 kurzgefasst“)

(8) 주제와 학습자료

이 시리즈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및 현대사와 관련된 주제들을 위한 교수법적으로 가공된 학습지를 포괄한다. 이러한 학습지는 학교 안에서 사회과학적 여러 분과들에서는 물론 학교 외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자료들은 행동중심 학습을 위한 기초와 실천적 안내를 매개한다.

예시) Die inszenierte Empörung - Der 9. November 1938

연출된 분노 - 1938년 11월 9일.



소위 '수정의 밤' 사건 때 보인 유대인을 향한 독일국민의 분노가 나치 정권에 의해 의도된 분노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1장은 당시 사건에 대한 연구 수준과 자료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동시에 이러한 자료들을 교사들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수법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한 참고문헌도 소개되어 있다.



Ein Morgen in der Reichshauptstadt Berlin, kurz nach dem Sturm auf die Reichstag-Kuppel am 30. April 1933. Foto v. Robert G. Heberer für die Zeitschrift 'Der Spiegel'.



Ein Mann mit einem Stern von David, Berlin, 1933. Foto v. Robert G. Heberer für die Zeitschrift 'Der Spiegel'.

있다. 인간적인 운명들과 행동한 자의 동기들이 서로 병렬적으로 대조된다.

3. Einzelschicksale - Opfer, Täter, Zuschauer
Informationen für Lehrende



1933
Männer marschieren vor dem Brandenburger Tor in
Berlin, 19. November 1933.
Foto v. Julius Hoff



1933
Passanten vor dem Brandenburger Tor
in Berlin, 19. November 1933.
Foto v. Julius Hoff
The Holocaust Martyrs and
Perpetrators Memorial in Berlin, Digital Collec-
tion, <http://www.ushahimuseum.org/collec-tion/index.asp>

다양한 개인들의 일기를 소개하고 있다. '수정의 밤'에 대한 관찰을 한 일기들이 실려 있다.

그 외에도 나치 치안대가 Brühl에서 자행된 파괴에 직접 참가하고 난 뒤 작성한 보고서도 실려 있다.

비밀경찰이 작성한 현황분석도 실려 있다.

범행을 개탄하는 목사의 설교도 실려 있다.

타국의 외교관들이 작성하여 본국으로 보낸 보고문들도 실려 있다.

제4장은 유대인 박해 사건을 나치체제가 의도적으로 독일 국민이 자발적으로 보



4. Die Einzeichnung des Programms
Materialien für Lernende - M 20/1

M 20: Interne Zettelchen von Polizei und Gestapo

Gestapo - Deutsches Reichsbanner vom 9.11.1938, 23.50 Uhr

An alle Angehörigen des Reichsbanners und Parteimitglieder! An alle Angehörigen des Reichsbanners!
Lernen Sie von jedem auf dem kommenden Neuen Vorwärtler.

1. Es werden im kommenden Jahre in ganz Deutschland Aktionen gegen Juden durchgeführt gegen deren Synagogen vernichtet. Sie sind dazu zu rufen. Jedoch ist zu beachten nur die Synagogen vernichten. Keine Zerstörungen und keine Verbrechen durch Ausschreitungen begangen werden dürfen.
2. Daraus wird in Synagogen Ministerial Anordnungen befohlen. Sie dürfen durch eine richtige Handhabung abgewendet werden.
3. Es sind insbesondere die Teilnahme von etwa 2000.000 Juden zu beachten. Es sind insbesondere die Aktion im kommenden Jahre. Keine Ausschreitungen werden in der Sache gemacht.
4. Folgende bei den kommenden Aktionen sind im Voraus von Ihnen anzugehen. Jeder, der sich die Synagogen vernichten zu befehlen. In der Teilnahme sind keine Anordnungen werden. (Aufgabenstellungen sind im kommenden Jahre. Diese Anordnungen sind die Führung der Aktionen durch die Angehörigen und jeden Teil.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Gestapo - Deutsches Reichsbanner vom 10.11.1938, 24.30 Uhr

An alle Staatsbürgerinnen und Staatsbürgerinnen!
An alle Staatsbürgerinnen und Staatsbürgerinnen!
Zusammen führt der Kampf von neuen Reichsbanner und Ministerial Anordnungen gegen Juden in der kommenden Jahre.

Aufgrund der Anordnungen gegen den Juden.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In der Sache sind im Laufe der kommenden Jahre. Es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Für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1. Die Leitung des Staatsbürgerinnen und Staatsbürgerinnen haben nicht die Leitung dieser Parteimitglieder mit dem Reichsbanner.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2. Es werden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3.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4.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4. Die Einzeichnung des Programms
Materialien für Lernende - M 20/2

Über die Parteimitglieder - Deutsches Reichsbanner vom 11.11.1938

An alle Staatsbürgerinnen und Staatsbürgerinnen!
An alle Staatsbürgerinnen und Staatsbürgerinnen!
Zusammen führt der Kampf von neuen Reichsbanner und Ministerial Anordnungen gegen Juden in der kommenden Jahre.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Über die Parteimitglieder - Deutsches Reichsbanner vom 12.11.1938

An alle Staatsbürgerinnen und Staatsbürgerinnen!
An alle Staatsbürgerinnen und Staatsbürgerinnen!
Zusammen führt der Kampf von neuen Reichsbanner und Ministerial Anordnungen gegen Juden in der kommenden Jahre.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 Aufgabenstellungen**
1. Beurteilen Sie auf der Basis der amtlichen Nachrichten und der Telegramme, ob die Aktionen gegen die Juden gerecht zu oder ungerecht sind.
 2. Nehmen Sie Stellung zu der Behauptung, es handelt sich um eine, gerechtfertigte Ermordung der Bevölkerung?
 3. Entschließen Sie sich mit den Mitschreitenden gegen die jüdische Bevölkerung und jüdische Einrichtungen?
 4. Lassen Sie sich den Befehlen der Ministerial Anordnungen und der Reichsbanner nicht widersetzen?
 5. Erklären Sie, weshalb immer wieder die Rede davon ist, dass gegen Judenverbrechen verfahren werden soll?

인 반응으로 만들어 희생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연출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들을 기록으로 담고 있다.

그런데 기록물들은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치체제는 이른바 '행동'을 위한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사건의 연대기적인 순서를 제공한다. 그런 다음 사건을 재구성한 연대기를 제공한다. 친위대지도부와 나치당 지도부가 어디서 모여 어떤 일을 획책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경찰과 게슈타포가 어떤 비밀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지 서신교환을 제공한다.

이런 문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4. Die Einzeichnung des Programms
Materialien für Lernende - M 21

M 21: Oberräte Parteigericht zur Mitgliedschaft am Programm

An alle Angehörigen des Reichsbanners vom 11.11.1938, 23.50 Uhr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 Aufgabenstellungen**
1. Welche Rolle spielt das Oberräte Parteigericht bei der Einzeichnung des Programms?
 2.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Die Teilnahme sind im kommenden Jahre. (Angehörigen sind zu beachten.)

I. Einzelaktionen und erste gesetzliche Maßnahmen (1933-1934)

Februar/März 1933:

Einzelaktionen von NS- und SA-Mitgliedern gegen Juden nach der Ernennung Hitlers zum Reichskanzler

1.-2. April 1933:

reichsweite Boykottaktion gegen jüdische Geschäfte



51 Mann mit einem Boykottplakat am 1. April 1933 in Berlin. Foto: er ulrich bild / SZ Photo-Schulz

5. Der Pogrom im Kontext der NS-Politik
Informationen für Lehrende

- 16. Mai 1941: Vernichtung des Warschauer Ghettos
- 19. Juni 1941: Goebbels erklärt Berlin für „judenrein“
- 19. Oktober 1941: Abschluss der Aktion Reinhard; 1.750.000 Juden in Sobibor, Treblinka und Belzec ermordet
- 24. Juli 1944: Sowjetische Truppen besetzen Majdanek
- 27. November 1944: Anordnung Himmlers zur Einstellung der Vergasungen in Auschwitz
- 27. Januar 1945: Sowjetische Truppen erreichen Auschwitz



Die Schirme umgeben die Leichen zu Bergen aufgetrieben (Frankfurt) nach der Aktion 1941 im Lager Flossenbürg aufgegeben.
Foto: er ulrich bild

Leider kann hier aus Platzgründen im Detail kein Vergleich der Reaktion der deutschen Bevölkerung und der Staatenwelt auf die Boykottaktion des Jahres 1933 und das Novemberpogrom 1938 stattfinden. Lohnenswert wäre dieser Vergleich aber sehr wohl, weil er Möglichkeiten und Grenzen für die NS-Politik deutlich vor Augen führt. Auch Kershaws Darstellung (M 29) gibt dafür Impulse.
Bewusst werden sollte den Schülerinnen und Schülern durch eine verkürzte Tabelle (M 38), dass der Novemberpogrom jedenfalls nicht aus heiterem Himmel kam, sondern zeitnahe Vorläufer und Vorbilder insbesondere nach dem „Anschluss“ Österreichs hatte. Auch das es viele Vorüberlegungen zur Ausschaltung der Juden aus der deutschen Wirtschaft, sonst hätten die Maßnahmen nicht so schnell greifen können. Wie diese Maßnahmen im Einzelnen aussahen und welche Konsequenzen sie für die Betroffenen hatten, wird in den Materialien (M 33-37) deutlich.

Das Weiteren legt schon die bloße Auflistung der Ereignisse nahe, dass die Vernichtung der Juden zwar ideologisch angelegt war, aber vor allem der Krieg wie auch seine Zwänge die sogenannte „Endlösung“ ermöglicht bzw. in den Augen der Täter sogar erzwingen haben. Schon in den Äußerungen Görings und Heydrichs auf der Konferenz (M 29-32) wird das deutlich. Daher ist die Diskussion um Strukturalismus oder Intentionalismus im Anschluss an die Worte, die auf der Sitzung bei Gönning gesprochen wurden, gut fährbar. Dazu dient aber auch der abschließende Text von Ian Kershaw (M 39), der sich mit der Deutung der NS-Judenpolitik und der Stellung des Novemberpogroms dann befasst. Die Schülerinnen und Schüler können sich so abschließend selbst zu den Ereignissen der Pogromnacht und ihres historischen Umfeldes positionieren.

Thomson und Mitarbeiter: Die Instrumente Ermordung - die 6. November 1938 / S. 100

제5장은 1938년 11월 박해사건은 나치의 유대인 정책의 맥락에서 있다. 이 장은 이런 맥락을 찾아내어 학생들이 자기 입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다 넓게는 나치체제의 유대인 정책을 설명하는 단초로서 의도주의와 구조주의가 관건이 된다.

교사를 위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1933년 나치의 집권부터 시작하여 1945년 나치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나치의 유대인 정책을 상세히 연대기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연대기와 병행하여 이 연대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운데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유대인 정책들이 논의되는 회의 프로토콜에서 발췌한 것으로 당시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준다.

1. 이주사 - 현장에서의 흔적 탐색 (프로젝트)
2. 동독과 서독의 추방자 통합
3. 러시아독일인 - 도망가기와 다시오기
4. 도망쳐야만 했다 - 정치적 망명의 역사
5. 배반자의 언어

주제영역 2

국가사회주의 - 2차세계대전 - 홀로코스트

주제영역2 에 대한 안내

6. 국가사회주의와 세계에 끼친 영향 (프로젝트)
7. 유럽에서의 유대인 구출자
8. 국가사회주의에서의 인종이데올로기
9. 국가사회주의에서의 강제노동

주제영역3

동독 - 국가의 적, 이방인, 도망자

주제영역3 에 대한 안내

10. 구서독에서 진행된 지역사로서의 동독 역사 - '지역의 시대증인' (프로젝트)
11. 인생의 길 - 행위 옵션, 자유공간, 딜레마
12. 동독의 베트남 계약노동자
13. 장벽 희생자
14. 자유로운 의견표명의 권리
- Samisdat - 동독 저항운동에서 여론

주제영역4

이산된 사람들, '손님노동자', 이주자 - 서독에서의 일상

주제영역4 에 대한 안내

15. 비자의적으로 낯선 곳에서: 전후에 이산된 사람들
16. 손님인가 노동자인가? 독일연방에서 노동자이민 응모
17. "독일식으로 먹는다." 독일에서 식사습관의 전환
18. 노동-사랑-휴가. 노동자이주 및 휴가이주의 고정관념
19. 흔적 탐색, 나의 구역, 나의 도시: 전환 속의 도시와 도시구역 (프로젝트)

주제영역5

선거시민과 대리담당자. 선거를 통한 정치적 참여

주제영역6

참여/자기조직화 -

"자기 자신의 사안에 개입하기"

주제영역7
가족과 출신의 역사

주제영역8
마지막 평등약속, 역사적으로 자라난 차별의 선별된 형식들과의 대결

주제영역9
유럽에서의 변혁 1989

주제영역10
희상문화

예시) 자유, 평등, 정의 - 가치질서와 가치전달
Freiheit, Gleichheit, Gerechtigkeit-Werteordnung und Wertevermittlung

368쪽에 달하는 정치, 역사, 지리, 종교, 윤리 교사를 위한 안내서

12개의 초석에 대한 교육적 자료를 실고 있다. 주제에 대한 정보와 교사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한 안내와 적절한 학습자료들이 게재되어 있다.

1. 정치수업에서 가치질서와 가치전달
2. 세속국가에서의 종교적 가치 - 성경의 연방모티브의 생산성에 대하여
3. 기본가치논쟁에 대한 종교수업의 기여
4. 기본법에서 신? 세계관적 중립성의 헌법적 문제
5. 이슬람의 가치질서 - 기본법과 다원주의에 대한 위험인가?
6.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문? 논박 중에 있는 인간의 품위와 관련된 기본법
7. 자유, 평등, 정의 - 초등단계에서 자질에 초점을 맞춘 매개
8. 사회적 및 정치적 학습에서 인간의 품위와 기본가치
9. 지속성과 정의 - 정치 이해를 위한 방법
10. 세계경제에서의 정의? 시험대에 올라 선 유럽공동체의 농업후원금
11. 인간의 품위, 자유 및 정의 - 학습교재로서 도스토옙스키의 재판장
12. 이상국가 - 유토피아에서 자유, 평등 및 정의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학습자료들이 개발되어 있다.

글로벌 도전들3

(Globale Herausforderungen 3)

인간과 정치를 위한 13개의 초석 시리즈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주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과

제영역에서 자료들을 제공한다.

Saubere Leistung? - Grenzen akzeptieren

(도핑에 대한 문제제기)

Wahlen in der Demokratie

(민주주의에서의 선거)

"Nicht durch formale Schranken gehemmt"

형식적 울타리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다. (나치 치하의 독일경찰이 주제이다. 한편으로는 나치 체제의 복합적이고 가늠되지 않는 경찰조직의 조직상의 구조들이 명확히 밝혀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재 하에서 인간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Hitler und die Deutschen

히틀러와 독일인

Auch das Berufliche ist politisch

직업도 물론 정치적이다.

Der 9. November

Kristallnacht 일명 수정의 밤. - 나치 정권이 유대인 학살의 신호탄을 올린 사건. 이른바 그 린슈판이라는 17세 독일계 유대인이 프랑스주재 독일대사관 서기를 암살한 사건을 계기로 독일 전역에 걸쳐 수많은 유대인 가게들이 공격을 당했고 이때 많은 유리창들이 깨졌다. 괴벨스는 독일대사관의 서기의 죽음에 항의하는 독일국민들의 자연발생적 항의 시위였다고 선전매체를 동원해 보도했는데, 이 결과로 점포 815개, 주택 171동, 유대인 예배당 193개가 불에 타거나 파괴되었다.

Globale Herausforderungen 2

글로벌 도전들 2

Wirtschaften beginnt im Haushalt

경제는 가계에서 시작된다.

Lateinamerika verstehen lernen

라틴아메리카 이해 학습

Israel Projektwoche 2

이스라엘 프로젝트주간 2

Globale Herausforderungen 1

글로벌 도전들 1

Theater probieren. Politik entdecken

연극 맛보기. 정치 발견하기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가? 정치가들이 연극을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살길 원하는가? 이 책은 연극과 정치를 둘러싼 현실적인 사회적 문제제기들을 생각해보도록 자극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연극을 체험하는데, 이때 그들은 연극을 적극적으로 관람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연기해 본다.

Gewalt zum Thema machen

폭력 주제화하기

Das Image der Politik und der Politiker. Wahrnehmung und Selbstwahrnehmung politischer Akteure

China verstehen lernen 2



Perlen im Netz - Ausgewählte Internetseiten für Schule und Unterricht

Die Europäische Union 2

Compasito

Miteinander reden

China verstehen lernen

Praxisbuch Demokratiepädagogik

Israel Projektwoche 1

Demokratie verstehen lernen

Antisemitismus in Europa - Arbeitsmaterialien

Die Europäische Union 1

Geschlechterrollen vor dem Hintergrund unterschiedlicher Religionen und Weltanschauungen

Afrika verstehen lernen

Biopolitik im Diskurs

Auf vergessenen Spuren

Islam I

Islam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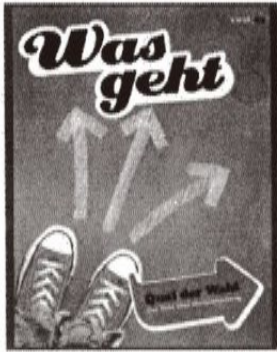
Islam III

Islam IV

Islam V

Zivilcourage lernen: Analysen - Modelle - Arbeitshilfen

(9) 무슨 일이니?(Was geht)



학생용 책자

예시) 선거의 고통 - 공동결정에 대한 책자

이 시리즈는 민주주의와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청소년들(하옴트슬레나 개방적 청소년작업에서 활용되도록)을 위해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이 펴내는 출간물이다. 학생들을 위한 책자와 교사들을 위한 지침서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용 책자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외관상으로도 고전적 학습자료와도 구별된다. 이 책자는 퀴즈, 증인들, 지식모듈 및 타임테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를 위한 지침서는 테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 교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일련의 연습문제 및 기타 참고문헌 소개를 담고 있다.



너는 어떤 생각이니?

테스트 해 보자!

1. 여러분의 담임이 3월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스톡홀름으로 가려고 한다. 너는 찬성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매우 추울 것이고 그렇다고 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빨강) 나는 학습친구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볼 것이다. 그런 다음 마드리드를 추천할 것이다. 아마도 내 의견을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만약 투표를 한다면 아마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주황) 나는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간다. 다만 스웨덴만은 가고 싶지 않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쟁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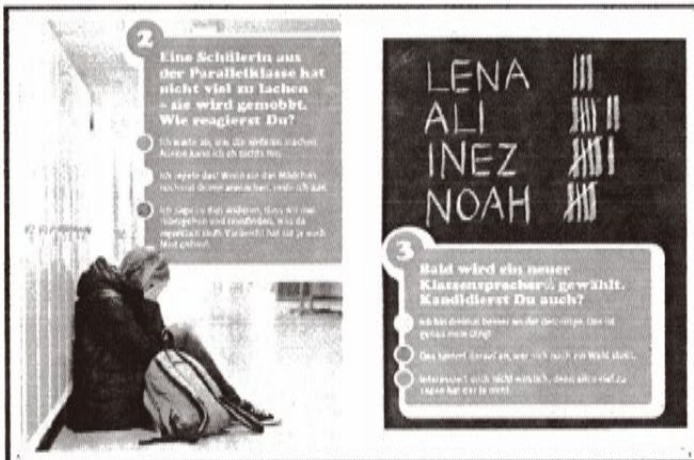
(노랑) 다른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스톡홀름으로 갈 것이다.

2. 옆 반의 한 여자 친구는 언제나 조용한 편이고, 눈에 띄지 않는 친구이다. 그런데 그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한다.

(빨강) 나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기다릴 것이다. 나는 그전에는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주황)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그들이 그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컨드린다면, 나는 꼭 말할 것이다.

(노랑) 나는 우리가 옆 반으로 건너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친구들에게 말할 것이다. 아마도 그녀가 황당한 짓을 저지른 게 틀림 없다.



3. 곧 반장 선거가 있을 것이다. 너도 출마할 생각인가?

(빨강) 나는 현 반장보다 세배나 더 낫다. 반장은 정확히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다.

(주황) 누가 반장선거에 출마하는가가 문제이다.

(노랑) 진짜 별 흥미가 없다. 반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른에 사는 16세 이사벨은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흠, 나는 무엇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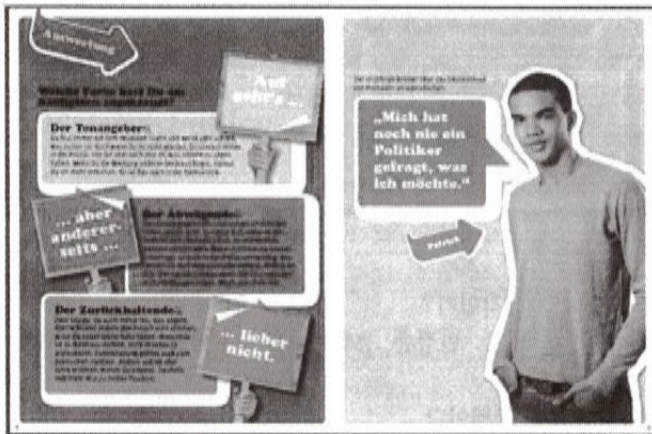
정당이란 (...) 사람들이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갖고 조직된 결사체이다. 당강령이 이런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의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하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

8. 학교마당에서 누군가가 두들겨 맞는 장면이 상연되고 있는 캠코더를 보고 있는 무리를 우연히 발견하고 함께 그것을 잠시 같이 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 두들겨 맞는 사람이 네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빨강) 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 비디오를 나쁘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볼 것이다. 공동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황) 나는 귀찮은 짓을 원하지 않는다. 주둥아리를 달고 있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노랑)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한다면 그 자는 멍청한 자이다. 나는 비디오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교무실에 그 사실을 알릴 것이다.



브레멘에 사는 17세 파트릭은 청소년들에 대한 정치가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말한다.

“어떤 정치가도 나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은 적이 없다.”

평가

너는 어떤 색깔을 가장 많이 선택했는가?

(노랑) 쪽 그대로 가라

목소리 높은 자

너는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우 빠르게 알아챈다. 내가 믿지 않더라도, 너는 이미 정치의 한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는 편이 좋다. 내가 다른 사람들 의견을 고려한다면, 너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

(...)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

이리 저리 재는 자

모든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하고 동시에 행동으로 돌입하는 것은 너 스타일이 아니다. 너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대체로 어떤 행동이 의미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 일단 사안 자체를 깊게 파고드는 자는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변화라는 것이 약간이라도 생기는 것은 깊은 고민 끝에 행동이 뒤따를 때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하라.

차라리 (...) 하지 않을거야

뒤로 물러나 있는 자

물론 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앞을 향해 돌진하고 있을 때 너는 차라리 너의 휴식을 갖고 싶어 한다. 즉각적으로 프로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뒤로 물러나 있는 것도 정치적 행동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은 채로 왜 내가 주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너의 입장을 밝히는데 보다 많은 용기를 가져라.



알아두면 좋은 것

wahl-o-mat

너는 어떤 정당이 너에게 맞는지 알고 있는가? 체크해 보자.
www.wahl-o-mat.de

선거

선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아래 클립에서 체험할 수 있다.

<http://youtu.be/Hj06dznX1g8>

- 누가 선거권을 갖고 있는가?
- 누가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가?
- 왜 선거해야만 하는가?
- 어떤 식으로 선거가 진행되는가?



알아두면 좋은 것

프로테스트

너는 외국인적대주의에 경고를 보내려 하는가?
수영장 오픈 시간이 보다 길어야 한다는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가?
너의 청소년 클럽에 도시로부터 받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묵과 하려고 하지 않는가?

정치적 결정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너의 분노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테스트 형식들이 존재한다. 시위, 촛불시위, 연좌농성, 침묵시위, 서명행동 및 플래시몹과 같은 창의적 형식들.

기본법

기본법은 집안의 질서와 같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독일 내의 모든 사람들의 공존을 규제한다.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기본법에 따르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 출신, 언어 또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독일에서 통용되는 그 어느 법도 기본법을 저촉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률이란 국가에 의해 제정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확보한다. 기본법, 연방법, 주법 등이 존재한다.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보면 된다. <http://youtu.be/svM8Vaj170Q>

공동결정?

공동 만들기

함께 참견하기?

함께 하자!



Was geht?

Ein Begleitheft für Pädagogen*in zum Thema **Wahlen**



Was geht in eine Wahlkabine?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legt die Spezialhefte für die Arbeit im Klassenraum (z. B. im Klassenraum) in der aktuellen Ausgabe bereit. Jedes Ausgabe enthält ein neues Schuljahr und eine Bearbeitung für Pädagogen. Sie berichten auf vielfältige und neue Art und Weise über die Wahlkabine, die in einem Klassenzimmer ein Leben lang geöffnet und immer wieder neu durch die Welt der politischen Bildung. Die Ausgabe berichtet von Menschen aus einer kleinen Stadt, die Wahlkabine, die Wahlkabine und einer Frau, die die Wahlkabine für Pädagogen mit der Wahlkabine in der Schule und Jugendzeit eines Menschen vorzustellen kann. Die Ausgabe ist ein Heft, das die Themen Demokratie und Wahlen.

Was zum Thema
Ganz in der Zeitspanne von Was geht in die Wahlkabine und Wahlen, so werden die verschiedenen Themen nicht nur in der Schule, sondern auch in der Jugendzeit eines Menschen vorzustellen kann. Die Ausgabe ist ein Heft, das die Themen Demokratie und Wahlen.

Was geht in eine Wahlkabine? Die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legt die Spezialhefte für die Arbeit im Klassenraum (z. B. im Klassenraum) in der aktuellen Ausgabe bereit. Jedes Ausgabe enthält ein neues Schuljahr und eine Bearbeitung für Pädagogen. Sie berichten auf vielfältige und neue Art und Weise über die Wahlkabine, die in einem Klassenzimmer ein Leben lang geöffnet und immer wieder neu durch die Welt der politischen Bildung. Die Ausgabe berichtet von Menschen aus einer kleinen Stadt, die Wahlkabine, die Wahlkabine und einer Frau, die die Wahlkabine für Pädagogen mit der Wahlkabine in der Schule und Jugendzeit eines Menschen vorzustellen kann. Die Ausgabe ist ein Heft, das die Themen Demokratie und Wahlen.

Was zum Thema
Ganz in der Zeitspanne von Was geht in die Wahlkabine und Wahlen, so werden die verschiedenen Themen nicht nur in der Schule, sondern auch in der Jugendzeit eines Menschen vorzustellen kann. Die Ausgabe ist ein Heft, das die Themen Demokratie und Wahlen.

Was geht?

Ein Begleitheft für Pädagogen*in zum Thema **Wahlen**

Was geht?

교사용 지침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시리즈는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주제를 다룬다. 바로 이 시리즈가 대상으로 하는 표적집단에서 중요한 결정과정과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의견이 널리 퍼져 있다.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학생들은 때때로 무엇인가가 자신들의 머리를 넘어서 결정되고 그런 진행과정에 자신은 거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진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치적-민주적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공동체에 대한 그들이 참여도는 낮아진다.

Sinus연구소의 Calmbach와 Silke Borgstedt는 '교육과는 관계가 먼' 청소년들은 '정치'를 마치 다른 특성에서 그리고 다른 언어로 진행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연방정치교육원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연구1)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참여한다. 정치가 청소년들에게 가장자리에 위치한 생활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때 정치적 관심은 단지 연령뿐만이 아니라 교육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러나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의가 관심영역의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소년들은 스스로 이 주제를 정치 개념과 연결 짓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주제는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의 핵심 주제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시리즈는 이 표적집단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

1) Calmbach/Borgstedt in: Wiebke Kohl/Anne Seibring (Hrsg.): „Unsichtbares“ Politikprogramm? Themenwelt und politisches Interesse von ‚bildungsfernen‘ Jugendlichen, Bonn 2012

여금 민주주의적 과정에 친숙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예시) 히잡을 쓰도 괜찮은가? 아니면 히잡을 벗어야 하나? - Mit oder ohne?
Das Heft zum Kopftuch

히잡에 대한 학생용 학습자료

너는 이슬람 여성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대답할 자신이 있니?
그럼 테스트 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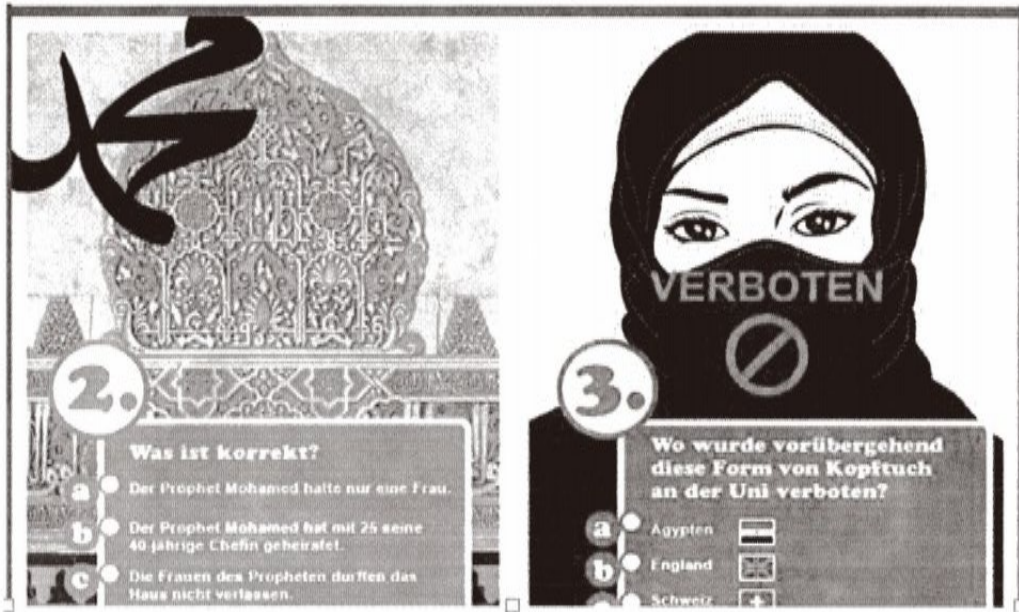


1. 사진 속 여성은 누구인가?

- ㄱ) 터키의 가정주부
- ㄴ) 루마니아의 댄서
- ㄷ) 아메리카의 가수

2. 옳은 답은?

- ㄱ) 예언자 마호메드는 단 한 명의 아내를 가졌다.
- ㄴ) 예언자 마호메드는 25세 때 40세 요리사와 결혼했다.
- ㄷ) 예언자의 아내들은 집을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



3. 이런 형태의 두건이 대학에서 금지된 적이 있는 국가는?

- ㄱ) 이집트
- ㄴ) 영국
- ㄷ) 스위스

4. 옳은 것은?

- ㄱ) 수니파, 시아파 혹은 알레비파 여성이든 상관없이 모든 무슬림여성은 히잡을 쓰는 것이 의무이다.
- ㄴ) 무슬림 신부는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 남자는 그렇지 않다.
- ㄷ) 무슬림여성은 결혼 대상자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5. 다음 문구가 실려 있는 책은?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 머리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 ㄱ) 이슬람 공화국 이란의 헌법
- ㄴ) 코란
- ㄷ) 성경

6.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터키에서는 특정 여성들은 2000년 전부터 히잡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여성들인가?


- ㄱ) 귀족 및 기혼 여성
- ㄴ) 처녀
- ㄷ) 매춘부



4.

Was ist richtig?

- a. Es gibt ob. Minidien, Schille oder Alcedin.
- b. Es ist muslimische Brant mehr Jaogiren sein, beim Mann ist es egal!
- c. Eine muslimische Frau darf alleine entscheiden, wen sie heiraten will!



5.

Wo steht denn so was!

Eine Frau deckt ihren Kopf, wenn sie unverhüllt bleibt!


- a. In der Verfassung der Islamischen Republik Iran
- b. In Kocak
- c. In der Bibel



6.

In Italien, Griechenland und in der Türkei trugen bestimmte Frauen schon vor 1000 Jahren ein Kopftuch. Welche Frauen waren das?

- a. Adelige und Verheiratete
- b. Jungfrauen
- c. Prostituierte



„Wenn sie's wollen, sollen sie machen. Ich find's nicht so toll, weil ich der Meinung bin, dass die meisten es nicht freiwillig tun.“

마르셀 18세.

“그녀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나는 그것을 멋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대부분이 자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샤다트 21세.

“나는 소녀들이 '위에는 메카 아래에는 파리'라는 모토 하에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히잡을 쓰지 않고 수백 배나 옷을 잘 입고 행동도 잘하는 소녀들도 있다. 문제는 가슴이다. 히잡은 맨 마지막에 고려할 사항이다.”



Shahada 21

„Ich finde es daneben, wenn sich Mädchen nach dem Motto kleiden oben Mokka, unten Paris. Es gibt auch Mädchen ohne Kopftuch, die sich tausendmal besser ansehen und beachten. Es kommt auf das Herz an. Das Kopftuch kommt zuletzt.“

Wie konsequent bist Du? Stehst Du zu Deinen Werten? Oder willst Du's allen recht machen?
Finde es ra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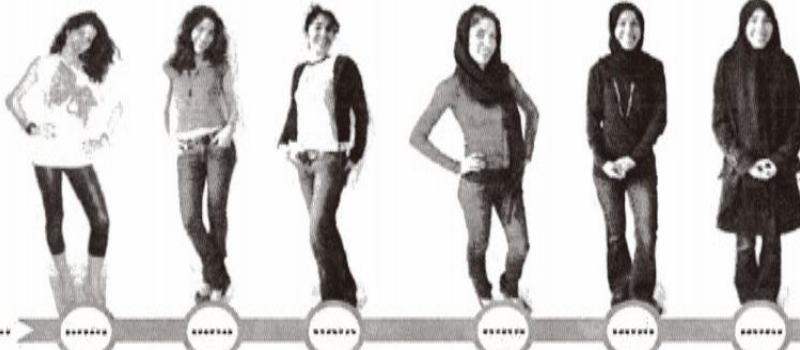
Mach den Psychotest!

너는 얼마나 일관되게 너의 가치를 고수하느냐? 혹은 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똑같이 적용하느냐?

어떤지 알아보자!

심리테스트

Der Psychotest:



A

B

Jungs:

A) Mit welcher der Frauen würdest Du am liebsten flirten?
→ Beantworte in drei Runden mit „A“.

B) Wie sollte sich Deine Schwester anziehen, wenn sie ausgeht?
→ Beantworte in drei Runden mit „A“.

Mädchen:

A) Du willst Dich für eine Party schön machen. Welchen Style wählst Du?
→ Beantworte in drei Runden mit „A“.

B) Welchen Style würden Deine Eltern gut finden?
→ Beantworte in drei Runden mit „B“.

Zur Auswertung!

소년

- ㄱ) 가장 데이트를 하고 싶은 소녀 타입은?
- ㄴ) 너의 누이가 어떤 차림새였으면 좋겠는가?

소녀

- ㄱ) 너는 파티에 어떤 스타일로 나가고 싶은가?
- ㄴ) 너의 부모는 어떤 스타일을 좋다고 생각하는가?

평가

- ㄱ), ㄴ)의 점수를 계산하라
간격이 3이면 3점이 되겠다.

소년들

- (1) 1점이면, 강한자이다.
너의 누이가 네가 다른 여성에게서 좋다고 생각한 그 옷을 입어도 좋다고 생각한 것은 멋지다.
- (2) 2-3점 차이면, 결단력이 부족한 자이다.
너의 누이는 내가 선택한 여성과 똑같이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 사내라면 자기의 가치에 담당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쓸데없는 침견으로부터 자기 누이를 보호해야 한다!
- (3) 4점 이상의 차이면, 이중모럴을 가진 자이다.
너는 모든 여성들과 시시덕거리도 되지만 어떤 남자도 너의 누이를 넘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중모럴을 가지고 있을 생각인가?

소녀들

- (1) 1점이면, 당당한 여성
너는 집에서 의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스트레스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멋지다. 그러나 누가 너의 스타일을 결정하는가? 너인가? 아니면 부모인가? 아님 친구인가?
- (2) 2-3점 차이이면, 전술적인 여성
너의 부모는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부모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맘대로 돌아다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모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끝까지 너의 생각을 견지하고 너 자신에 대해 진실해져라!
- (3) 4점 차이 이상이면, 외줄타기 하는 여성
너의 부모는 네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가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너는 끊임없이 얇은 얼음 위를 걷고 있다. 그것은 매우 긴장된 일이다. 그럴수록 너를 지지하는 친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유수프, 16세

“우리는 알레비파이다. 가족들 중 할머니를 빼고는 히잡을 쓰는 여성은 없다.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히잡을 쓴다.”



Was ist ein Alevit? (Was ist ein Alevit?)

Ein Alevit ist ein Mensch, der aus der Türkei stammt und in Deutschland lebt. Er ist ein Anhänger der Alevi-Religion, die eine Mischung aus Islam, Sufismus und anderen religiösen Traditionen ist.

Jungs:

- **Aleviten sind Sufis:** Sufis sind eine Gruppe von Muslimen, die sich auf den inneren Weg konzentrieren. Aleviten sind Sufis, die sich auf den inneren Weg konzentrieren.
- **Aleviten sind Mystiker:** Aleviten sind Mystiker, die sich auf den inneren Weg konzentrieren. Sie glauben an die Einheit von Gott und Mensch.
- **Aleviten sind Philosophen:** Aleviten sind Philosophen, die sich auf den inneren Weg konzentrieren. Sie glauben an die Einheit von Gott und Mensch.

Mädchen:

- **Aleviten sind Frauen:** Aleviten sind Frauen, die sich auf den inneren Weg konzentrieren. Sie glauben an die Einheit von Gott und Mensch.
- **Aleviten sind Künstler:** Aleviten sind Künstler, die sich auf den inneren Weg konzentrieren. Sie glauben an die Einheit von Gott und Mensch.
- **Aleviten sind Philosophen:** Aleviten sind Philosophen, die sich auf den inneren Weg konzentrieren. Sie glauben an die Einheit von Gott und Mensch.

Wir sind Aleviten. Bei uns in der Familie trägt keine ein Kopftuch, außer meiner Oma. Sie trägt es, weil sie mittlerweile 80 Jahre alt ist.

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그들은 어떤 상태인 것 같으니까? 사진과 네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연결 지어라!

Was denkst Du über diese Leute? Welche Religion haben sie? Wie sind sie drauf? Verbinde die Bilder mit den Wörtern, die es für Dich treffen!

The activity sheet features four portraits of individuals from different religious backgrounds. Each portrait is surrounded by a cluster of words in German, including 'muslimisch', 'christlich', 'hinduistisch', 'buddhistisch', 'jainistisch', and 'sikhistisch'. The task is to connect the portraits to the words that best describe them.

이 시리즈에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학생용 책자와 교사용 지침서가 출간되었다.

Macher oder Mitläufer

Wahlen und Demokratie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새롭게 출간된 책자. 학생용 책자에는 주도하는 자(Macher)인지, 아니면 따라가는 자(Mitläufer)인지 스스로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심리테스트가 실려 있다.

Marken-Freak oder Fashion-Opfer

Markenbewusstsein und Konsumverhalten von Jugendlichen

청소년들이 소비와 브랜드를 왜 중시하는가? 학생용 책자에는 소비 패턴과 관련된 심리테스트가 게재되어 있다.

Voll im Blick? Das Heft zur EU

Ein Begleitheft für Pädagogen zum Thema Europa

Es reicht! Das Heft gegen Rassismus und Rechtsextremismus

Eine Begleitheft für Pädagogen zum Thema Rassismus und Rechtsextremismus

Was glaubst Du? Das Heft zum Islam

Was geht? Ein Begleitheft für Pädagogen zum Thema Islam

Gossip-Girl oder Burger-King? Das Heft zum American Way of Life

Gossip-Girl oder Burger-King? Das Heft zum American Way of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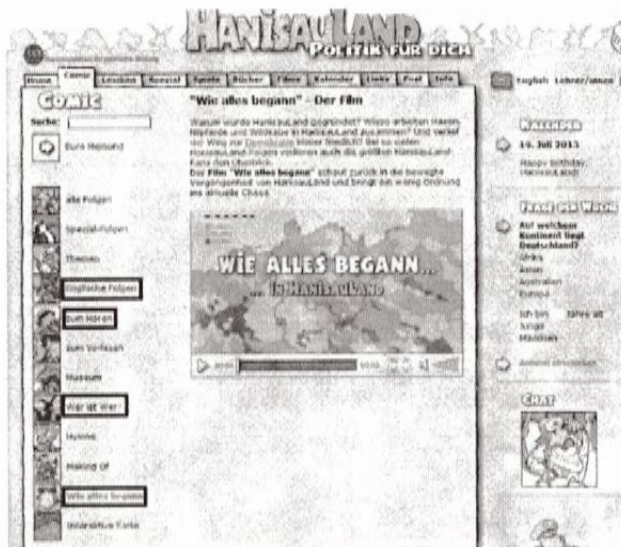
4. 웹사이트

1) 'Hanisauland. Politik für dich(하니자우란트. 너를 위한 정치)'

연방정치교육원이 운영하는 초등학교용 정치교육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이해를 위한 기본적 지식을 설명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공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는 데 있다. Hanisauland라는 이름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달 한편씩 제공되는 동화에서 따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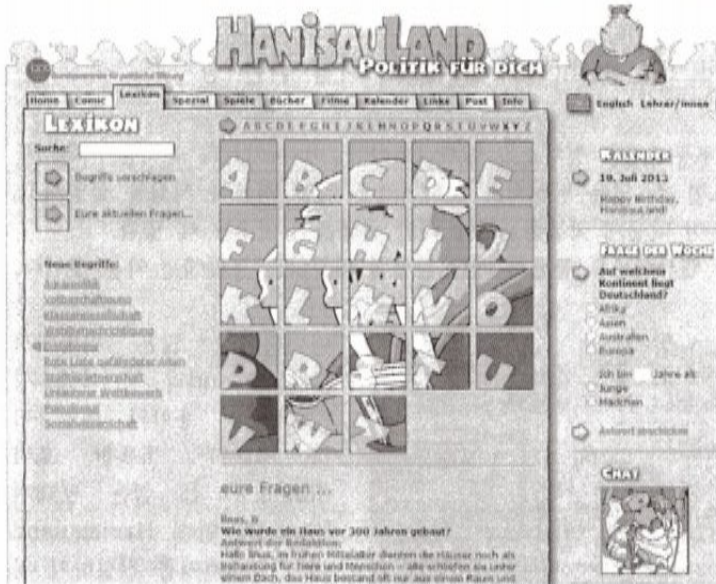
아이디어가 많은 하마이자 Hanisauland의 여성수상 (Bärbel)이 동화의 주인공이다. 그녀는 똑똑한 토끼 (Rainer), 겁 없는 멧돼지 (Egon)과 함께 Hanisauland에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해 나간다. 이들이 겪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정치와 연관된 어려운 개념 및 주제들을 자신들에게 친숙한 상황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만화 시리즈는 영어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 만화는 단순히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성서비스도 제공되고 어린이들이 따라 읽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은 이 웹사이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Wie alles begann(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필름 코너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고 'Wer ist Wer?(누가 누구?)'라는 코너를 통해 등장인물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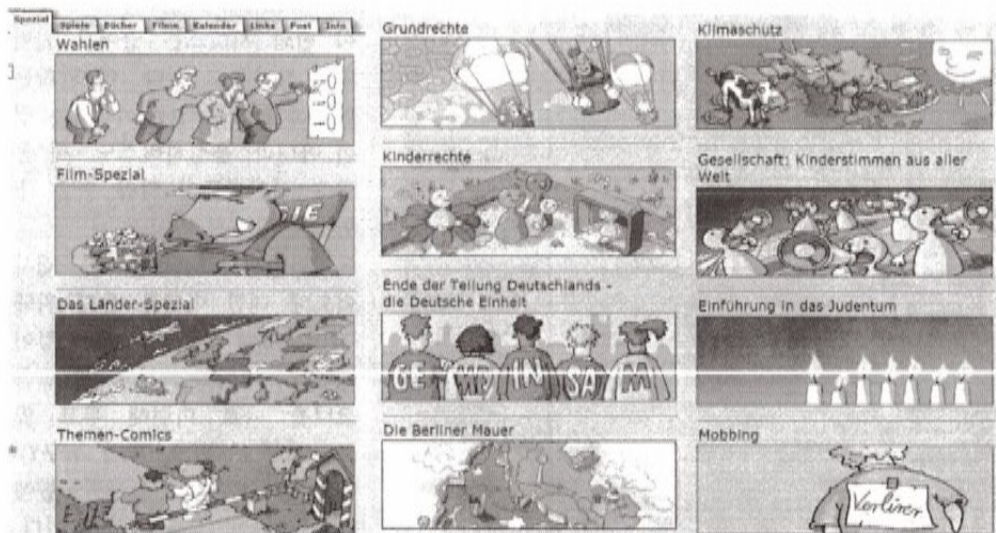
물론 이 만화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도서들도 함께 링크되어 있다.



또한 이 웹사이트는 사전, 특별주제, 놀이, 도서, 영화, 달력 등과 같은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사전 코너는 700여개에 이르는 개념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들이 경험했음직한 상황을 도입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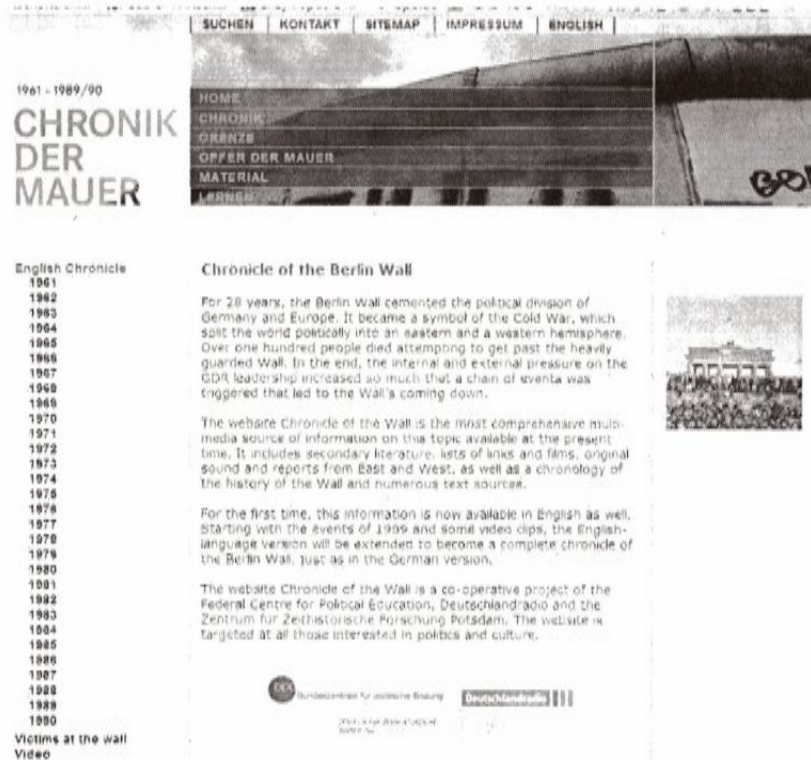
이 사전 코너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어린이들이 질문하고 싶은 사건들이나 알고 싶은 개념들을 제안하는 코너도 마련해 두고 편집진이 이에 대해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 주제 코너에는 영화, 주, 헌법, 어린이 인권, 독일분단과 통일, 베를린장벽, 선거, 유럽연합 정치, 환경보호, 사회, 유대인 이해하기, 모빙(집단따돌림과 같은 심리적 테러), 특별 주제들이 각종 삽화와 이야기들을 통해 재미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2) '베를린 장벽 연대기(Chronik der Mauer)'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de/Home/Index>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for 'Chronik der Mauer'.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menu with links for 'SUCHEN', 'KONTAKT', 'SITEMAP', 'IMPRESSUM', and 'ENGLISH'. Below this is a header section with the title '1961 - 1989/90 CHRONIK DER MAUER' and a list of menu items: 'HOME', 'CHRONIK', 'GRENZE', 'OPFER DER MAUER', 'MATERIAL', and 'LERNE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Chronicle of the Berlin Wall' and contains the following text:

Chronicle of the Berlin Wall

For 28 years, the Berlin Wall cemented the political division of Germany and Europe. It became a symbol of the Cold War, which split the world politically into an eastern and a western hemisphere. Over one hundred people died attempting to get past the heavily guarded Wall. In the end,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on the GDR leadership increased so much that a chain of events was triggered that led to the Wall's coming down.

The website Chronicle of the Wall is the most comprehensive multimedia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topic available at the present time. It includes secondary literature, lists of links and films, original sound and reports from East and West, as well as a chronology of the history of the Wall and numerous text sources.

For the first time, this information is now available in English as well. Starting with the Events of 1989 and some video clips, the English-language version will be extended to become a complete chronicle of the Berlin Wall, just as in the German 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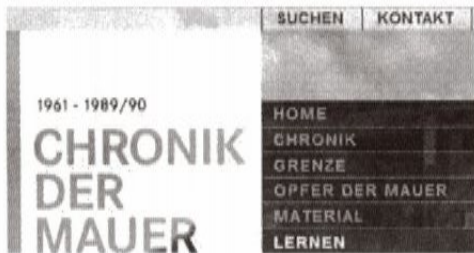
The website Chronicle of the Wall is a co-operative project of the Federal Centre for Political Education, Deutschlandradio and the Zentrum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Potsdam. The website is targeted at all those interested in politics and culture.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are logos for 'GKS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nd 'Deutschlandradio'. A small image of a building is also visible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이 웹사이트는 연대기, 국경, 장벽의 희생자, 자료 그리고 학습에 관한 5개의 꼭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Chronik이라는 꼭지에서는 베를린 장벽 건설 및 붕괴 과정과 그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텍스트 정보는 영화, 사진, RIAS 문서보관소에서 제공된 라디오 방송, 목격자 인터뷰, 신문, 전단지 및 독일 및 국제 문서보관소에서 나온 다큐와 같은 다양한 사료를 통해 입증되고 보완된다. 영어로 된 연대기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경이란 꼭지에서는 장벽과 사선, 장벽이 보존되어 있는 장소 그리고 기념박물관으로 만들어진 구 반호프 프리드리히슈트라세(Bahnhof Friedrichstraß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벽의 희생자라는 꼭지에서는 각 연도별로 장벽을 건너다 희생당한 시민들의 개개 이름과 약력 그리고 희생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모하고 있다. 자료라는 꼭지에서는 주제와 연관된 각종 영화 자료, 문헌 자료, 비디오, 사진, 청각 자료 그리고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이란 꼭지에서 일반적인 투어가이드 외에 그룬트술레 학생과 제쿤다르술레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있다.(이에 대해서는 휴대용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별도 소개 참조)



Guided Tour
Arbeitsblätter
Sekundarstufe
Arbeitsblätter
Grundschule
Auf der Mauer, auf der
Lauer
Smartphone App
Rolli und die
Rocknauten

Guided Tour

Die Website Chronik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des Zentrums für Zetthis derzeit umfangreichste in Geschichte der Mauer mit Textquellen, O-Töne und Filmclips bilden eine der Mauer ab.

이 외에도 독일 동요 제목을 딴 “Auf der Mauer, auf der Lauer”라는 어린이용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담 위에서 기회를 엿본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동요는 어린이들이 독일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SIDEviews e.V.에서 힘을 합친 예술가들과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의 한 그룬트슐레 학생들의 공동 프로젝트로 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비단 베를린 장벽에 관한 지식을 매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시 역사와 독자적으로 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이드뷰 소속 예술가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다양한 다큐적이고 예술가적인 기법들을 통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연관된 주제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담 위에서 기회를 엿보며”라는 필름이 탄생되었는데, 이 웹사이트에서 그 중요한 단락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필름은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편 너는 베를린장벽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느냐?
- 제2편 장벽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 제3편 당시 사람들은 장벽과 더불어 어떻게 살았나?
- 제4편 오랑지나와 블루랜드 - 실험

‘하니자우란트’ / ‘스페셜’ / ‘베를린장벽’ 쪽지에도 동일한 필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것을 캡처한 것이다.



<http://www.hanisauland.de/spezial/mauerfall-2009/mauerfall-2009-kapitel-7.html>

*'롤리와 로커나우텐(Rolli und die Rockonauten)'

12편으로 만들어진 청취용 라디오 드라마.



음악과 모파 그리고 소녀 외에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4명의 아주 평범한 청소년이 모였다. 3명은 동베를린에 살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도시의 서쪽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로큰롤의 매력에 푹 빠지 있었고 로커나우텐이라는 록밴드를 구성했다. 12편으로 구성된 라디오 드라마인 “롤리 운트 디 코커나우텐 - 장벽이 로큰롤을 분할하려고 했을 때”는 동독의 일상사를 청소년의 관점으로부터 서술한다. 사건의 발생은 1961년이다. 청소년들은 로큰롤에 심취해 있었고 이로 인해 동독 지도부와 갈등에 빠진다. 장벽 건설이 친구와의 이

별, 밴드 연습 금지로부터 시작해서 음반이나 전자기타 등과 같은 서방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베를린에서 그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는가?

3) 시대증인과의 대화를 위한 웹사이트

<http://www.zeitzeugen-dialog.de/>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menu with tabs for 'Home', 'Das Projekt', 'Termine', 'Pädagogische Begleitung', 'Projektpartner', and 'Cesky'. Below the menu, there are two main sections. The left section features a video player with the title 'Ein Projekt mit Zeitzeugen des Holocaust und Stalinismus für Schulen in den deutsch-tschechischen Euroregionen.' and a play button. The right section is titled 'Kontakt' and lists two project coordinators: Thomas Oelermann and Werner Imhof. Below the video player, there is a section titled 'Stirbt ein alter Mensch, dann verbrennt eine ganze Bibliothek (afrikanisches Sprichwort)' with a brief description of the project's focus on intercultural education.

이 웹사이트의 내용은 도시에 '역사파악하기'에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소개되어 있다.